

만화로 본 의암 주논개 이야기

장수를 빛낸

논개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만화로 본 의암 주논개 이야기

장수를 빛낸 논개

※ 이 책은 군비 보조에 의해 간행되었음.

장수를 빛낸 논개 - 만화로 본 의암 주논개 이야기

인쇄 2001년 8월 20일

발행 2001년 8월 31일

그림 : 최병용

발행인 : 장명수

발행처 :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주 소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176-7

전 화 : (063) 351-6400

인쇄처 : 도서출판 책이있는마을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231번지 호수빌딩 2층

전화 (02) 323-2502 팩스 (02) 324-2502

만화로 본 의암 주논개 이야기

장수를 빛낸 논개

머리말

논개는 누구인가?

논개는 임진왜란 때 큰 공적을 남긴 위대한 장수이다. 그러나 논개와 그녀의 가계, 생장(生長)과정, 그리고 신분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논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621년 어우당 유몽인이 저술한 『어우야담』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문헌에는 논개의 가계와 생장과정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녀에 대해 많은 억측과 이론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던 중 1700년대 초에 진주 사림들이 논개의 순절을 포양하도록 계청 하였던 바, 조정에서는 그녀의 가족을 찾아 포상하라는 윤허가 있었다. 경상우병영에서는 경상도 일대에 관문을 띄워 사문했으나 논개의 흔적을 찾을 길이 없어 포상하지 못했다. 그 뒤 꾸준히 논개 사적 조사가 진행되어 1700년대 중반부터 권적의 『경상우병사 증 좌찬성 최공의 시장(謚狀)』, 『호남절의록』, 『호남삼강록』, 『호남읍지』, 『동감강목』, 『일휴당실기』, 『매천야록』 등의 문헌과 고노상전(古老相傳) 200년의 구전설화 등이 쏟아져 나오면서 논개의 가계와 생장과정 등의 행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를 정리해보면 논개는 이름, 호는 의암, 성은 신안 주씨이며,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 마을에서 아버지 주달문과 어머니 밀양 박씨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가문은 대대로 학덕이 높은 훈장집으로 동민의 존경을 받았던 뼈대 있는 집안이었다. 특이하게도 논개는 4갑술(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 - 1574. 9. 3. 밤)의 사주를 타고 태어났다. 아버지 주달문은 딸아이의 사주를 짚어보고 계집애지만 크게 될 인물이라고 기뻐하였다. 이름을 논개라고

지은 것은 딸을 술(戌)시에 낳았으니까 개를 놓은(낳은의 사투리) 것과 같고, 거꾸로 읽으면 '놓은 개', 즉 '논개'가 되므로 그렇게 이름 붙이면 역신도 시샘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논개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특하여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랐으며 나이에 비해 성숙하였다. 가난했지만 화목한 가정이었다. 논개 나이 다섯 살 되던 해에 뜻하지 않게 아버지를 여의었다. 의지할 곳 없던 모녀는 한 마을에 사는 숙부 주달무 집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 그런 어느 날, 숙부는 노름으로 돈을 탕진하고 이웃 마을에서 밥술깨나 먹고 사는 김풍헌에게 찾아가서 조카를 민며느리로 몰래 팔고 달아났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논개 모녀는 부랴부랴 외가로 일시 피신했으나 김풍헌의 제소로 장수 관아로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때의 재판관은 최경희 현감이었다. 최 현감이 자초지종을 캐보니 달아난 숙부 주달무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논개 모녀를 무죄 방면했다. 그러나 갈 곳 없는 두 모녀를 최 현감은 내아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지내도록 배려했다. 이런 운명적인 인연으로 최경희와 논개는 만나게 되고 최 현감집 식솔이 되었다. 논개는 잔심부름이 끝나는 대로 틈틈이 김씨 부인이 일러준 충효열의 뜻을 가슴 깊이 새겼다.

세월이 흘러서 논개 나이 17세가 되던 1590년 최경희가 담양부사로 재직할 때 두 사람은 부부의 예를 올렸다. 그 해에 최경희는 모친상을 당하여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 화순으로 가면서 논개를 고향 장수로 보냈다.

2년 뒤 임진년(1592)에는 역사상 980여 회의 외침 중 가장 처참했다는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상중인 최경희는 전라우도 의병장이 되어 옛날 현감을 지냈던 장수에 들러 의병을 모집하고 논개도 만났다. 실로 2년 만의 해후였다. 최 의병장이 월강리 앞 들판에 의병청을 설치하고 의병들을 훈련시킬

때 논개는 동네 부인들을 모아서 의병들의 수발을 들었다. 최 의병장은 훈련된 500여 정예부대를 골(鷓)자부대로 이름짓고 무주 쪽으로 진격한 뒤 무주 우지치전투에서 첫 대승을 거두고 여세를 몰아 산음, 지례, 개령, 성주 등 경상도 일대를 누비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1592년 10월, 1차 진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된 데에는 최경희가 이끄는 호남 출신 의병들의 성 외곽에서의 맹활약이 크게 주효했던 것이다. 최경희는 그간의 의병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1593년 4월에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영전되어 진주성으로 입성했다. 그 소식이 장수에 머물고 있던 논개에게도 들려왔다. 논개는 벅찬 가슴을 억누르고 한시 바빠 진주로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남북으로 변장을 하고 진주로 가는 도중에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오랜만에 논개를 본 최 병사는 한없이 반가웠지만, 회포를 나눌 겨를이 없었다. 10만이 넘는 왜군이 진주성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비책을 강구하느라 동분서주해야 했던 것이다.

6월 19일, 드디어 왜군은 10만여 대군을 사방으로 나누어 진주성을 본격적으로 공격해왔다. 11일간의 피비린내 나는 혈투 끝에 진주성은 무너지고 7만에 가까운 민관군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성은 아수라장으로 초토화됐다. 최경희, 김천일, 고종후 등 진주성 3장사는 성이 함락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왕이 계신 북쪽을 향해 하직인사를 올린 후 도도히 흐르는 남강에 투신 순국했다.

한편 전투가 한창일 때 논개는 성안에서 수발을 열심히 들었지만, 성을 빠져나가 후일을 도모하라는 최 병사의 엄명에 성을 빠져나와 외진 곳에 은신하면서 전황을 살폈다. 성이 함락되고 최경희 병사가 순국했다는 소식을 접한 논개는 무엇인가 비장한 결심을 했다. 마침 칠월 칠석에 왜군이 축석루에서 진주 관기들을 불러놓고 전승 축하연회를 갖는다는 소식이 들려왔

다. 논개는 이때를 놓칠세라 마음에 다지면서 관기들 틈에 끼여 연회장까지 들어갈 요량으로 관기들이 축석루에 들어가는 시간과 길목 등을 정확히 알아두었다. 그리고는 몸에 지니고 있던 금붙이로 여름옷 한 벌을 곱게 장만하고 가락지 등 필요한 물건도 구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논개는 관기처럼 곱게 단장하고 시간에 맞춰 길목에서 있었다. 논개는 관기들이 축석루를 향해 들어갈 때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다가 발길을 돌려 축석루 아래 강가의 바위 쪽으로 내려갔다. 연회장으로 가면 정체가 탄로날 위험성이 있으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요염한 자태를 드러내어 상대방을 유인해보자는 계략이었다.

연회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술에 취한 왜장들이 문득 강가의 바위 쪽을 내려다보았다. 웬 선녀처럼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강가의 바위 끝에 서서 자기들을 바라보며 미소짓고 있는 것이었다. 왜장들은 한눈에 반하여 금시라도 여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정체를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다. 돌연 육척장신의 체격이 장대한 왜장 하나가 논개 쪽으로 다가가면서 자기에게로 오라며 소리쳤다. 논개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손짓을 하면서 왜장을 유인했다. 왜장은 논개의 아름다운 자태에 매혹되어 자기도 모르게 논개 앞으로 다가갔다. 논개는 미소를 지으며 손에 가락지를 낀 팔을 벌려 기쁘게 맞이하면서 왜장을 껴안으며 도도히 흐르는 남강에 투신 순절했다. 논개가 살해한 왜장은 힘세고 용맹스럽기로 유명한 맹장 게야무라 로쿠스케(毛谷村六助)였다. 논개가 순절한 바위를 후인들이 의암이라 이름짓고 논개와 동일시하여 호가 되었다.

이상이 위에서 논의된 문헌, 설화 등을 집약해서 구성한 의암 주논개의 일대기이다. 앞으로는 논개의 가계, 생장과정, 신분 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우를 범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나아가 의암 주논개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첫째로 제 몸을 불살라서 주변을 밝히는 인애(仁愛) 정신, 둘째로 패권주의에 맞서 끝내 항거한 의용(義勇)정신, 셋째로 사대부도 아닌 아녀자의 몸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지아비를 사랑한 충열(忠烈)정신은 만인의 귀감이 되는 바, 그 위대한 교훈을 세상에 널리 홍보하여 어린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본받게 하는 것이다.

이번에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에서는 숙고 끝에 만화라는 특수한 형식을 빌려 논개의 생애에 관한 책자를 간행하게 되었다. 물론 만화라는 장르에 익숙지 못한 분은 위인을 소개하는 방식이 경하다고 나무랄 수도 있겠지만 보다 널리, 보다 빨리, 보다 알기 쉽게 의암 주논개의 사적을 알리고자 하는 충정에서 그리 하였음을 양해하기 바랄 뿐이다.

이 책자가 의암 주논개의 올곧게 살다 간 참 인생을 본받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끝으로, 이 책자를 펴내는 데 애써주신 최병용 선생님과 책이있는마을 가족들에게 마음 깊이 고맙게 생각한다. 또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상두 군수님과 최용득 군의회의장님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2001년 8월 20일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김진영



의암 주논개 영정(의암사 봉안)



의암 주논개 사당 전경



의암 주논개 생장향수명비(장수군 장수읍 의암사 내)



의암사 원경(장수군 장수읍)



의암 주논개 제례 봉행



의암 주논개 생가지 전경(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 마을)



의암 주논개 석상



의암 주논개 생가



의암 주논개가 어린 시절 놀았다는
주촌 마을 당산



주촌 옆동산에 있는 주논개 조부 주용일 묘



의암 주논개낭 생장지 사적불망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 마을)



의암 주논개 생가 사적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 마을)



의암 주논개 성장과정(의암사 주논개 기념관 내 기록화)



무고 판결 받는 주논개 모녀(의암사 주논개 기념관 내 기록화)



진주성 싸움(의암사 주논개 기념관 내 기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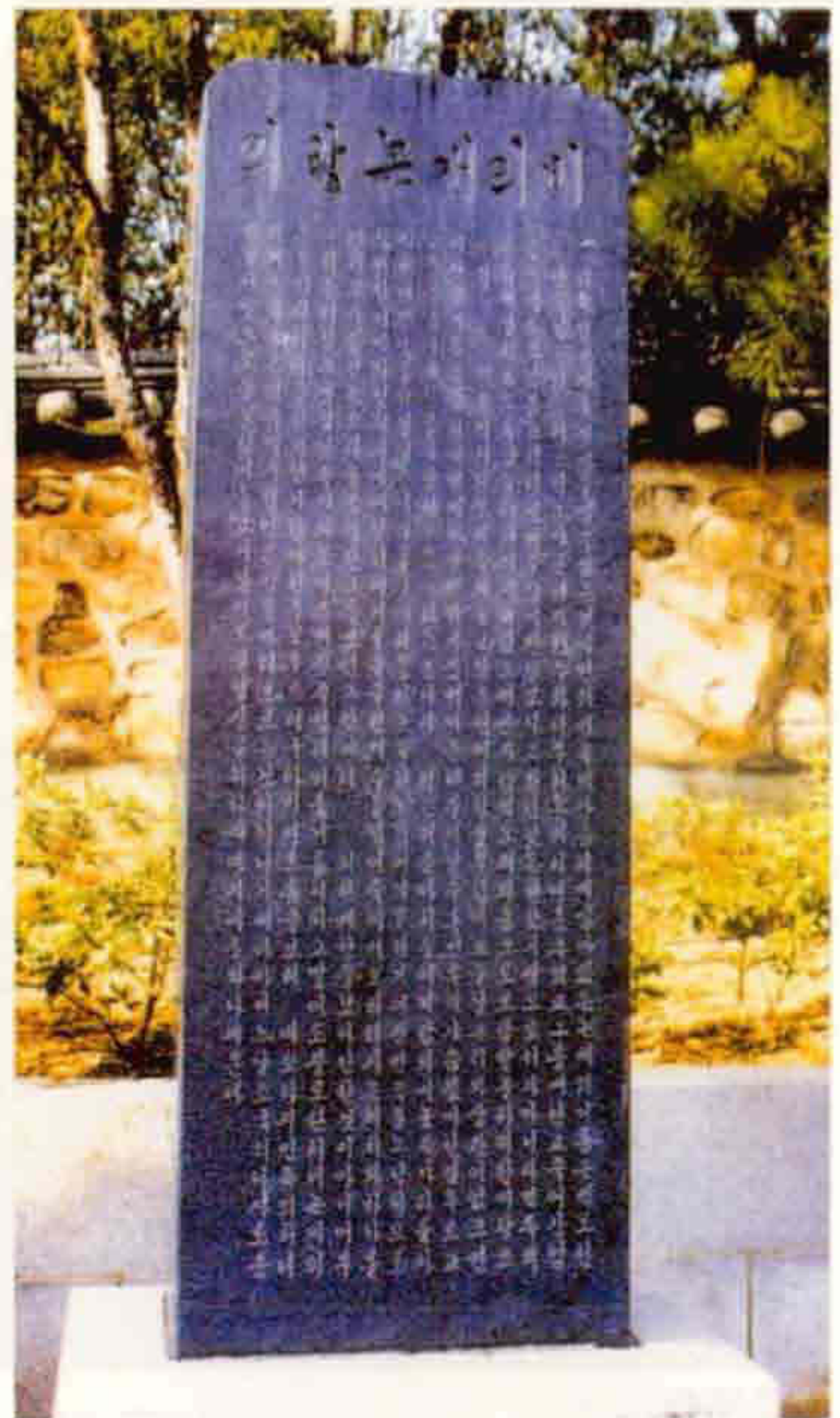
진주 남강 순절(의암사 주논개 기념관 내 기록화)



축석루 원경(진주성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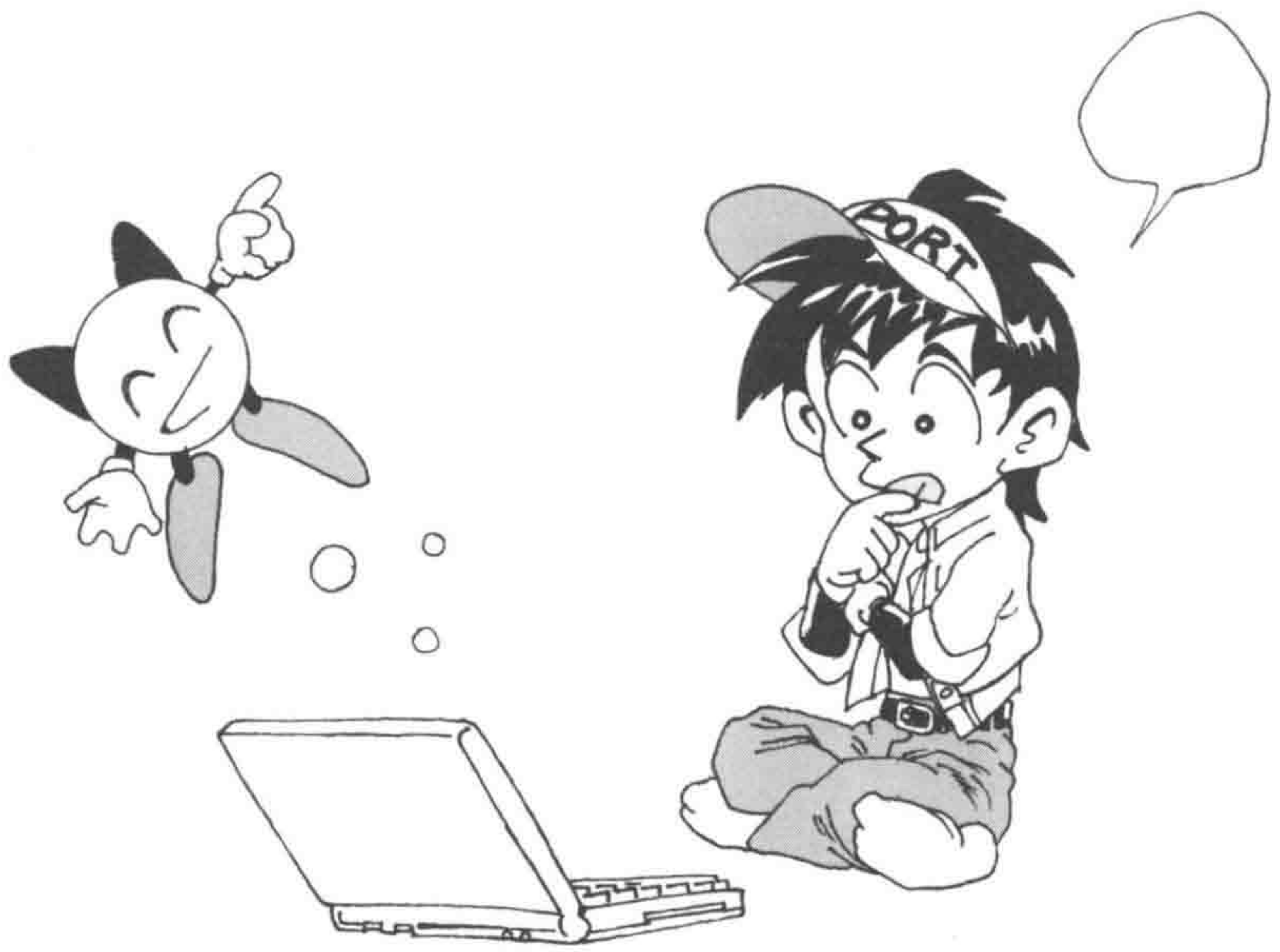
의암(진주성 밖 남강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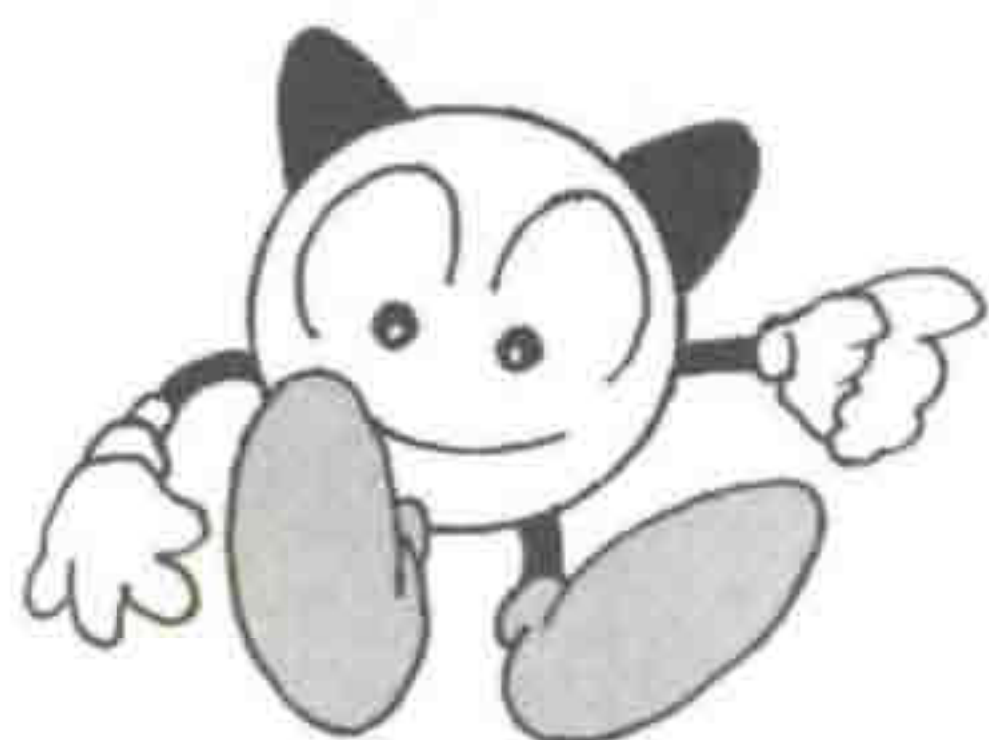


의랑 논개의 비(진주성 내)

만화로 본 의암 주논개 이야기

장수를 빛낸 논개





차례



제1장 논개를 찾아서..... 44

제2장 논개라는 이름의 비밀 59

제3장 최경희의 칼 92

제4장 혼인빙자 사기사건 108

제5장 논개와 최경희의 만남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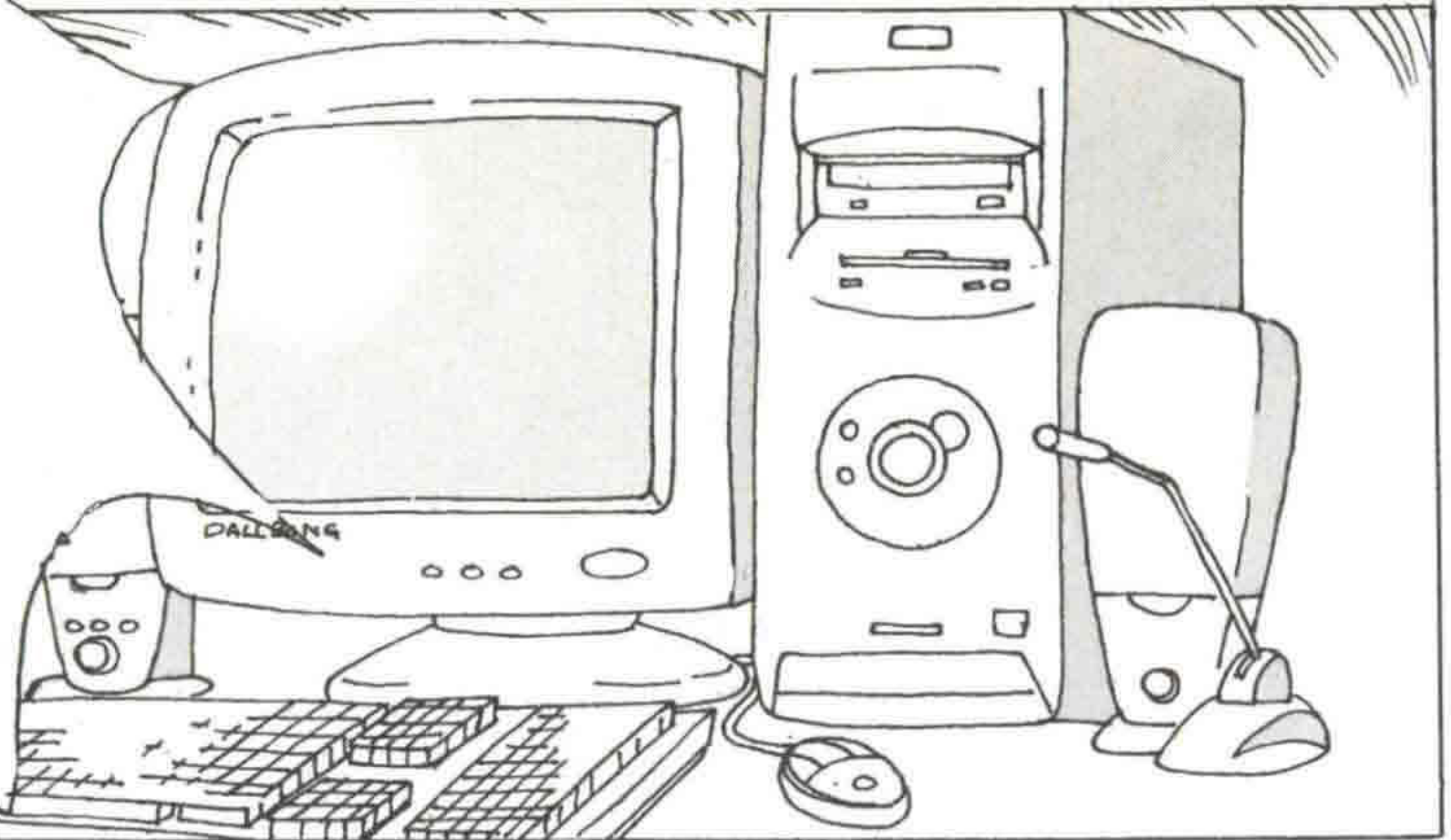
제6장 일본의 천하장사 게야무라 로쿠스케 158

제7장 아! 진주성 218

제8장 아아! 논개여.....! 242



와아아!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컴퓨터구나!



그래! 아빠가
거금을 들여
장만했지.

지금 세상은 정보
화의 물결 속에
빠르게
변화
하고
있단다.

그 흐름에
발맞추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뒤쳐진다고
볼 수 있지.



이 다음에
우리 봉이가 커서
아빠의 고마움을
알게 될 날이
있을 거다.

그... 그럼
이 컴퓨터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봉이 말고
이 아빠에게
아들이 또 있었나?

와아아!
아빠
최고!





자! 이렇게 인터넷선을 연결한 다음.....

컴퓨터를 켜면.....

인터넷 여행 준비가 끝난 거지.

화아.



아빠! 이제 내가 찾고 싶거나 궁금한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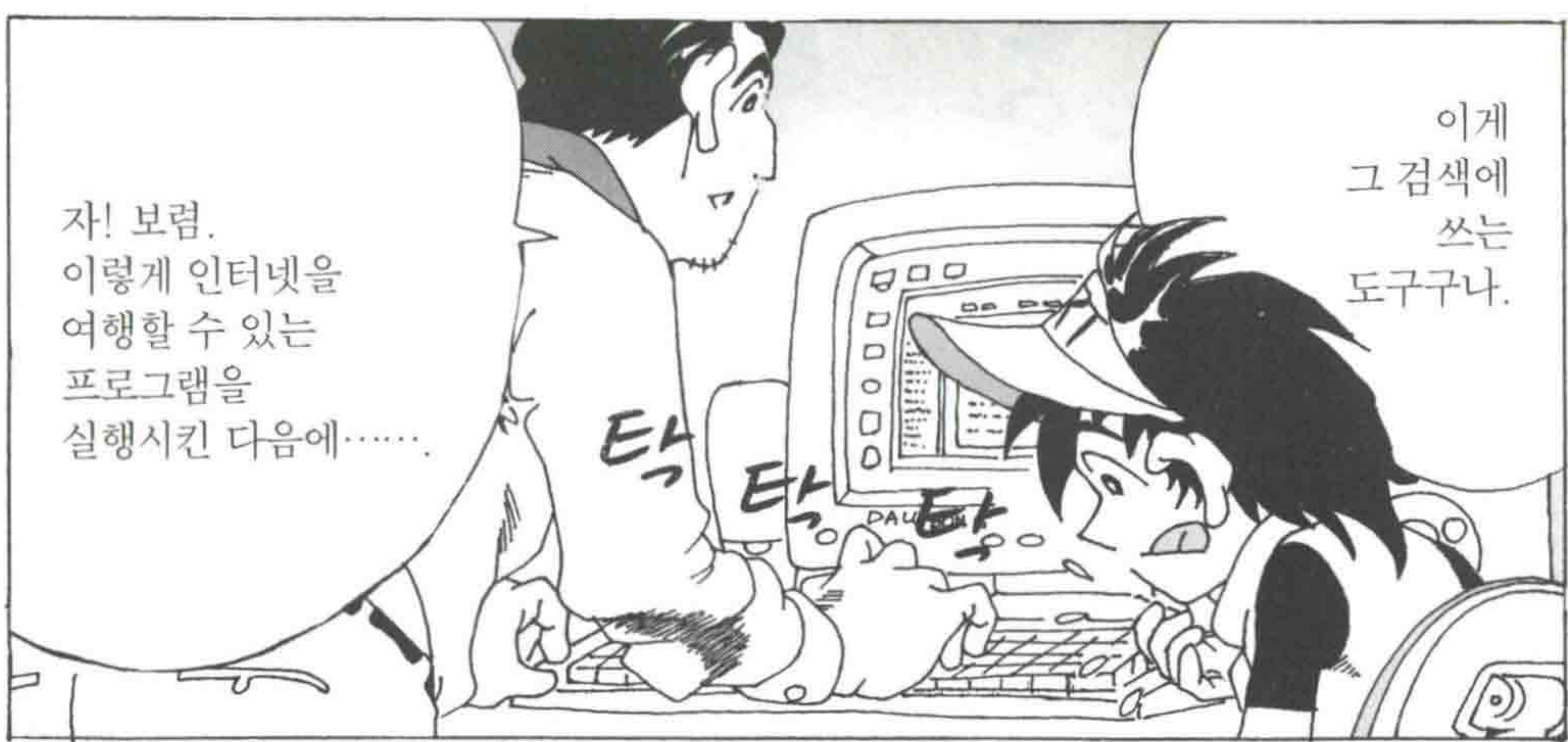


우선은 검색기관이란 곳을 방문해야 된단다.

검색 기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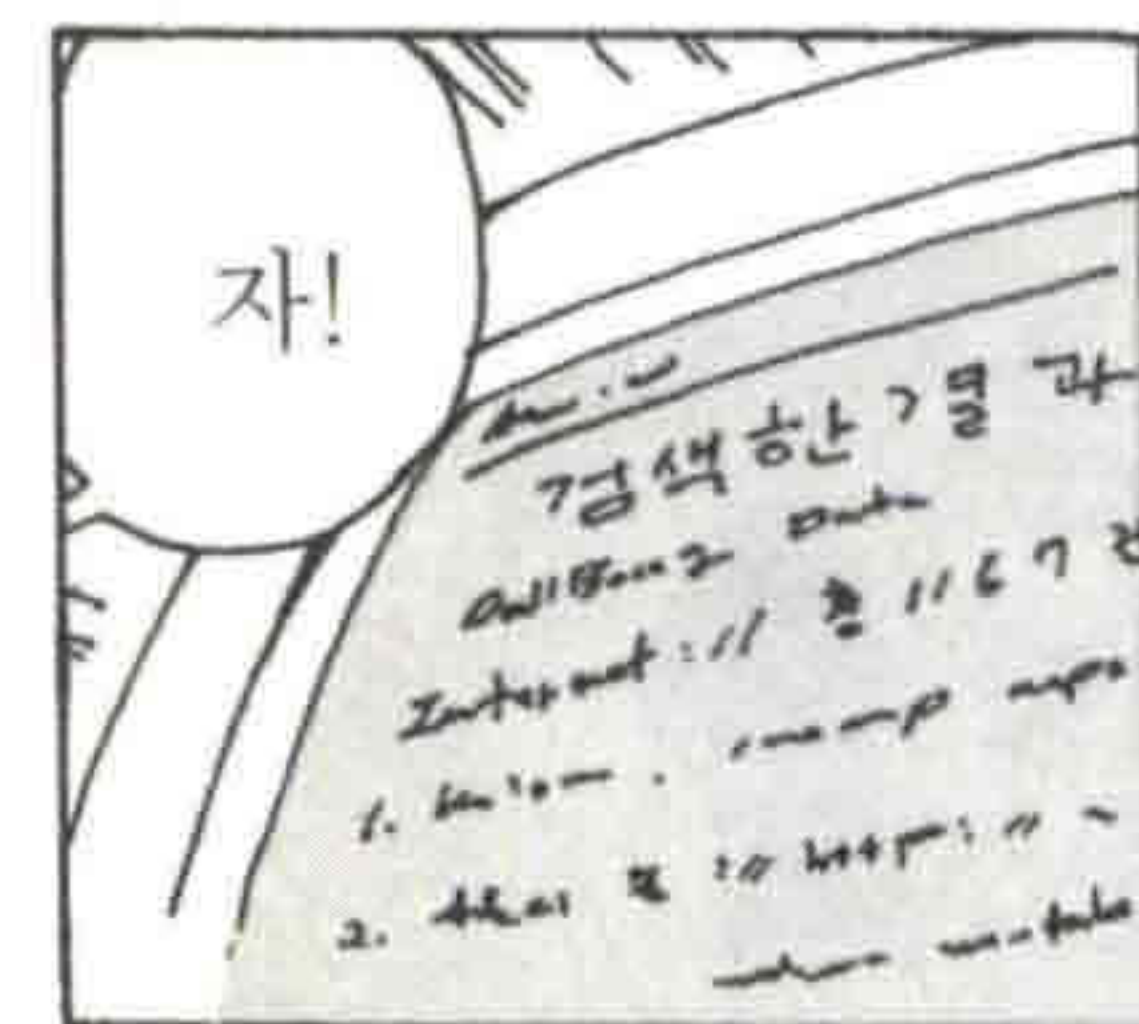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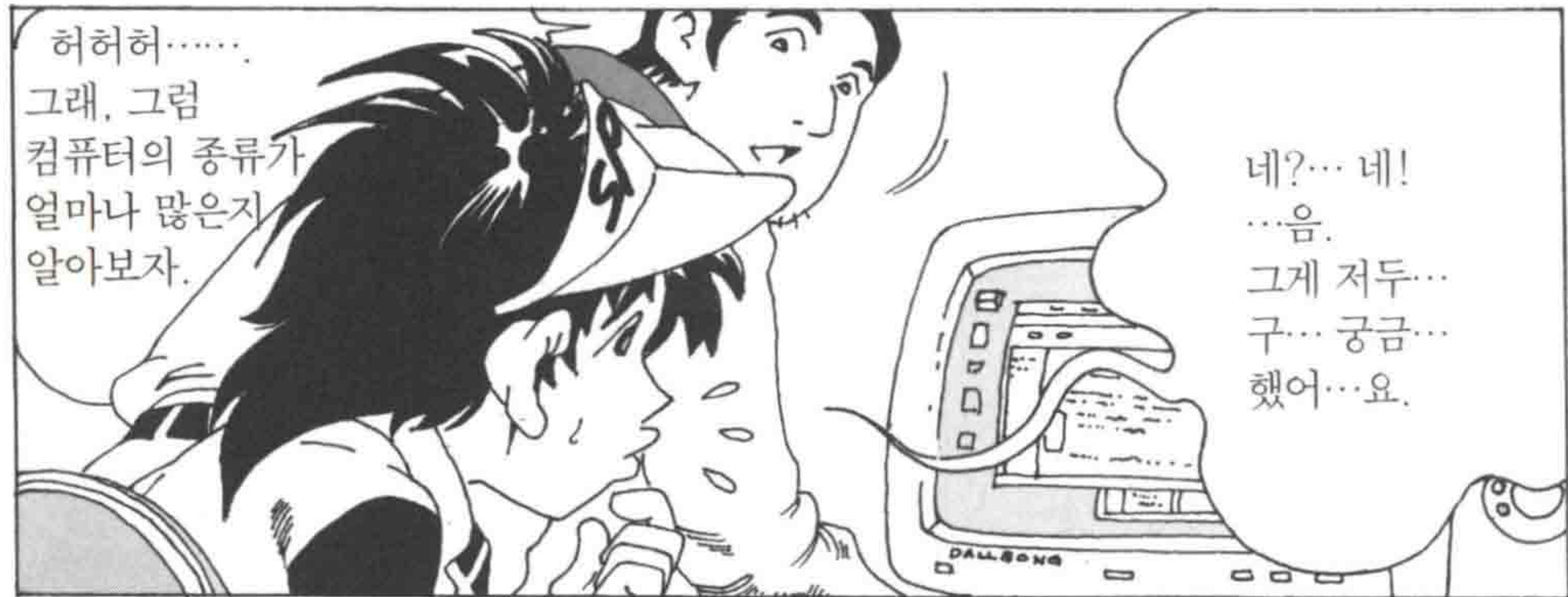
그게 뭐지?

먹는 건가?



자! 보렴. 이렇게 인터넷을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에.....

이게 그 검색에 쓰는 도구구나.





아... 아빠,
컴퓨터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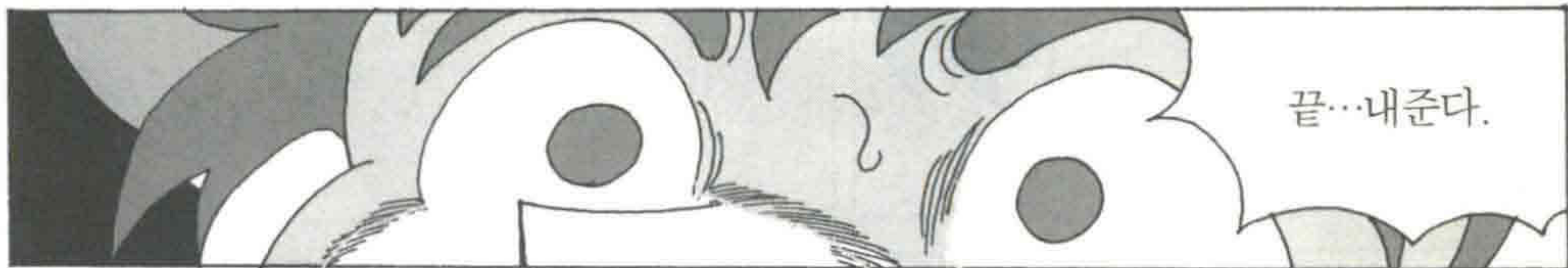
이젠
혼자
할 수
있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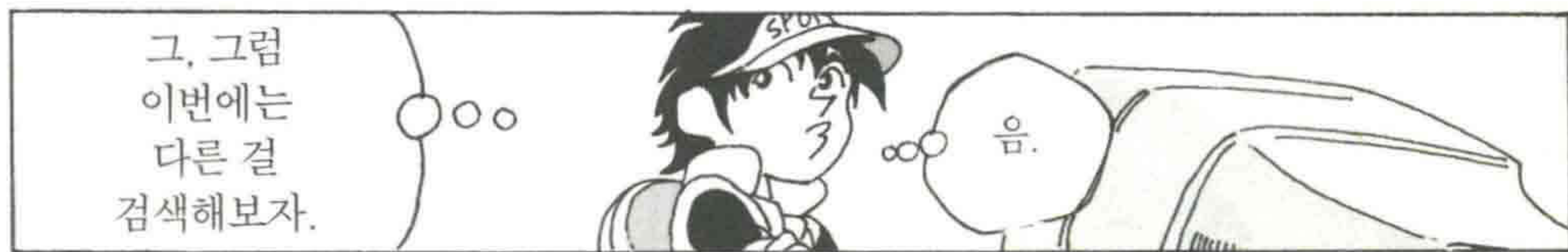
너무 늦게까지
컴퓨터하지
말고
일찍 자거라.

아

아



끝...내준다.



그, 그럼
이번에는
다른 걸
검색해보자.

음.



음.

음.



바둑바둑
에구
이 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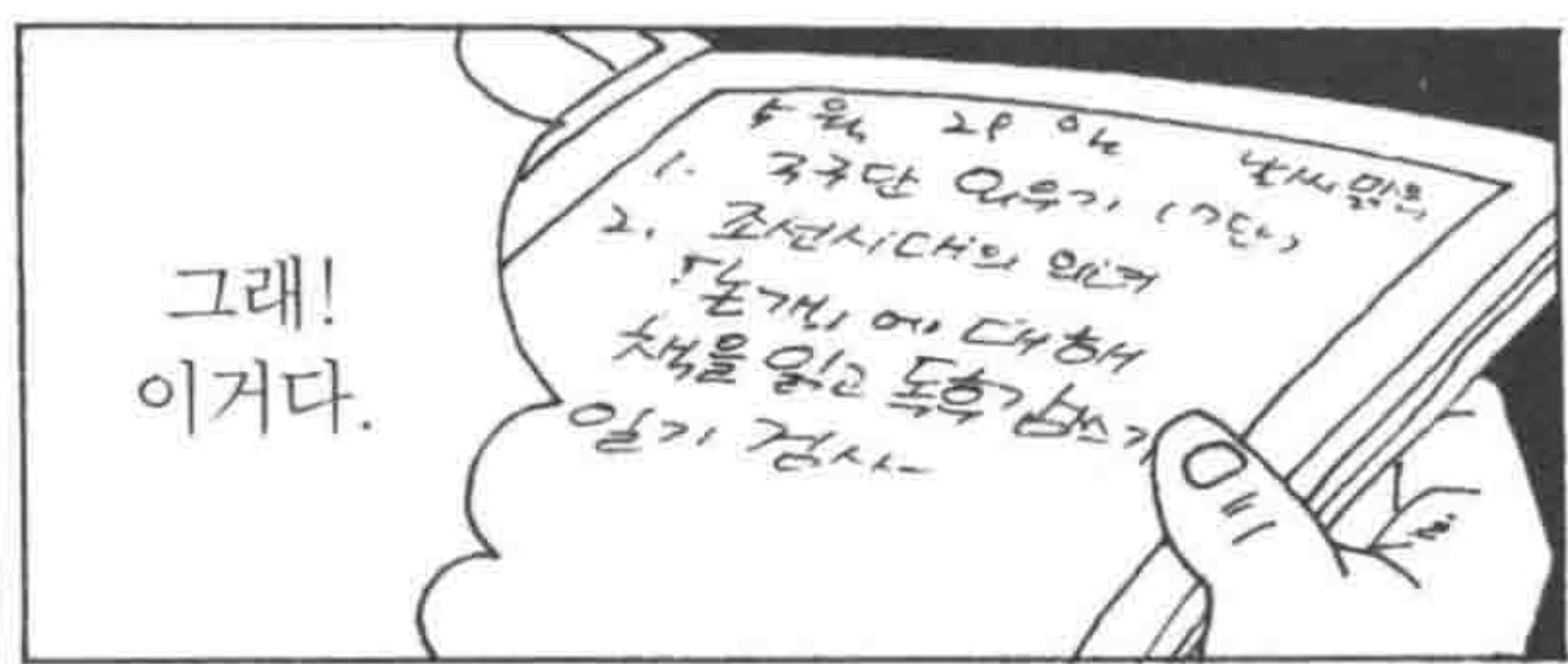
그래!
오늘
학교 숙제
중에서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
그게
좋겠다.



오늘
숙제 중에
.....



그래!
이거다.

4월 29일 수요일 밤새만
1. 국구단 인우기 (7인)
2. 조선시대의 인력
3. 논개에 대해
책을 읽고 독후감이
일기 검사



히히히.....



이렇게
검색창에
쓰고.....



검색을
누르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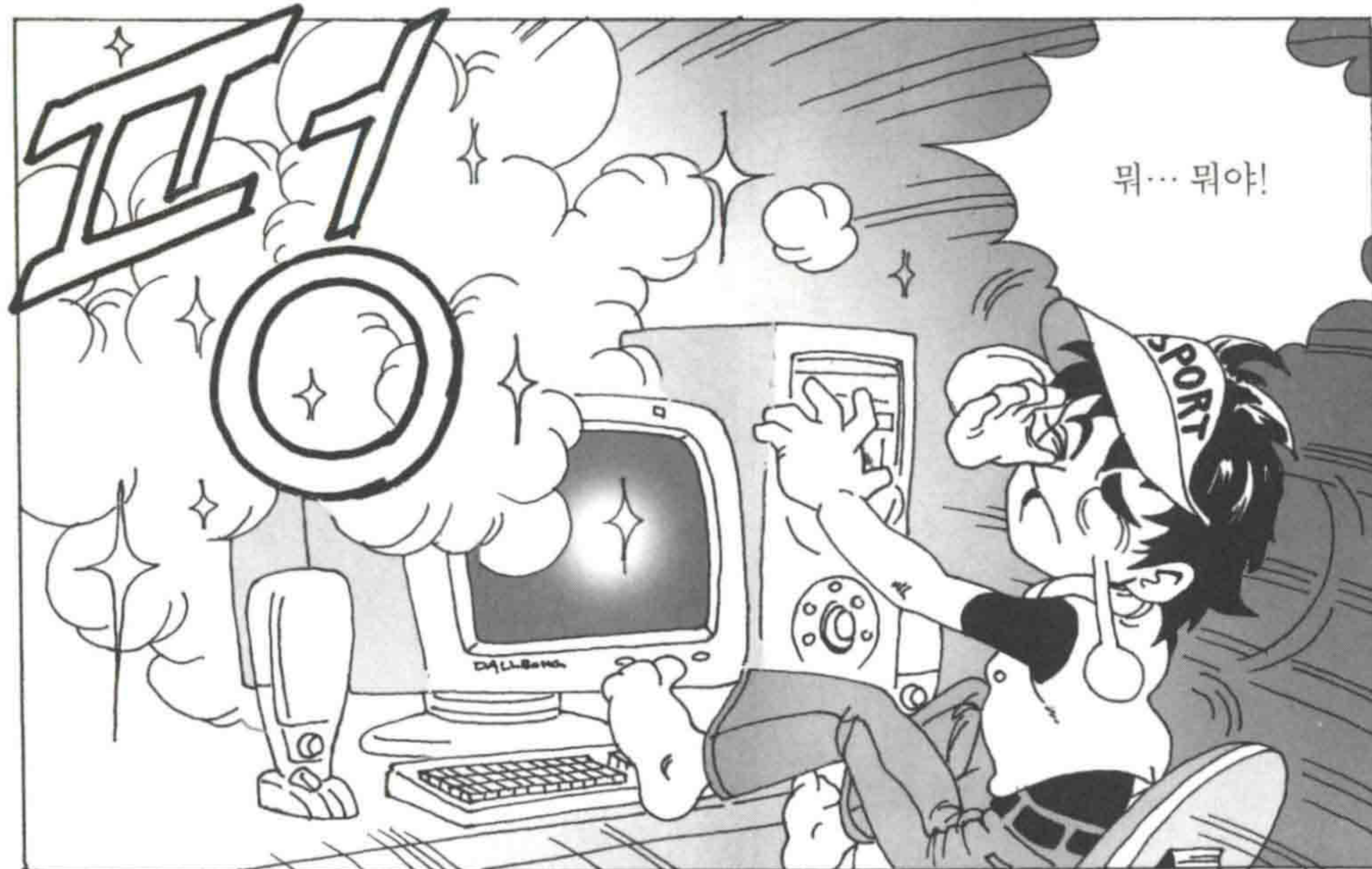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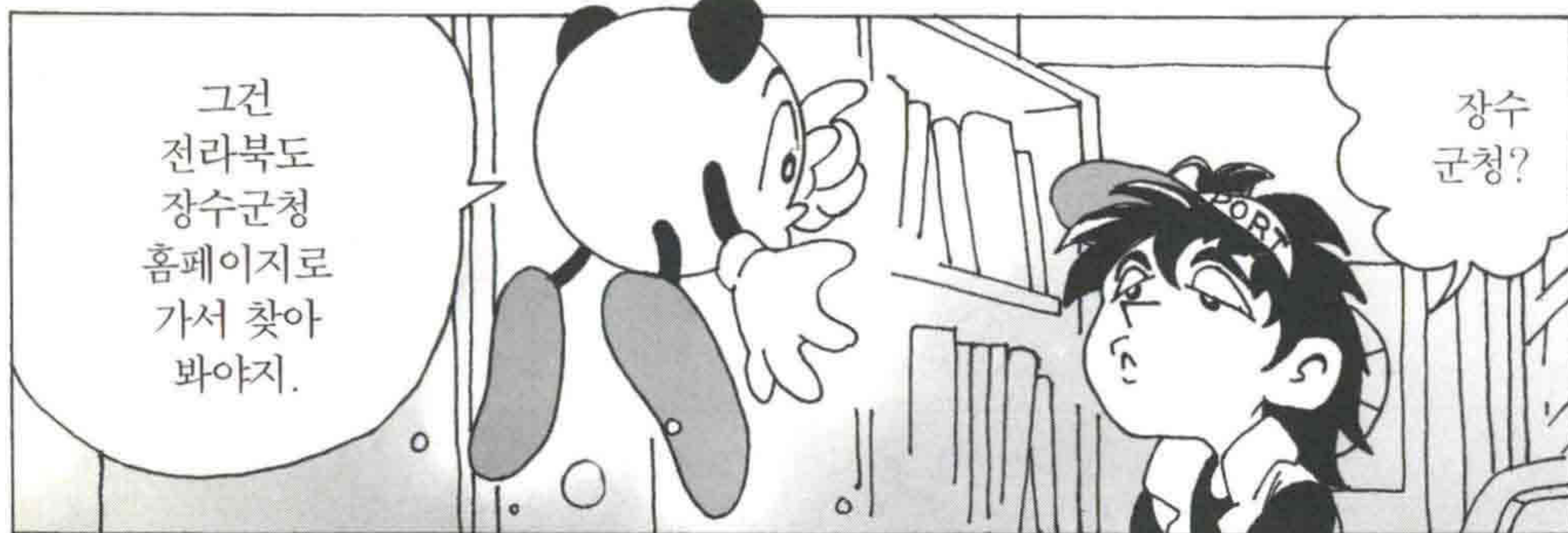
...
• ERROR
• 검색하신 결과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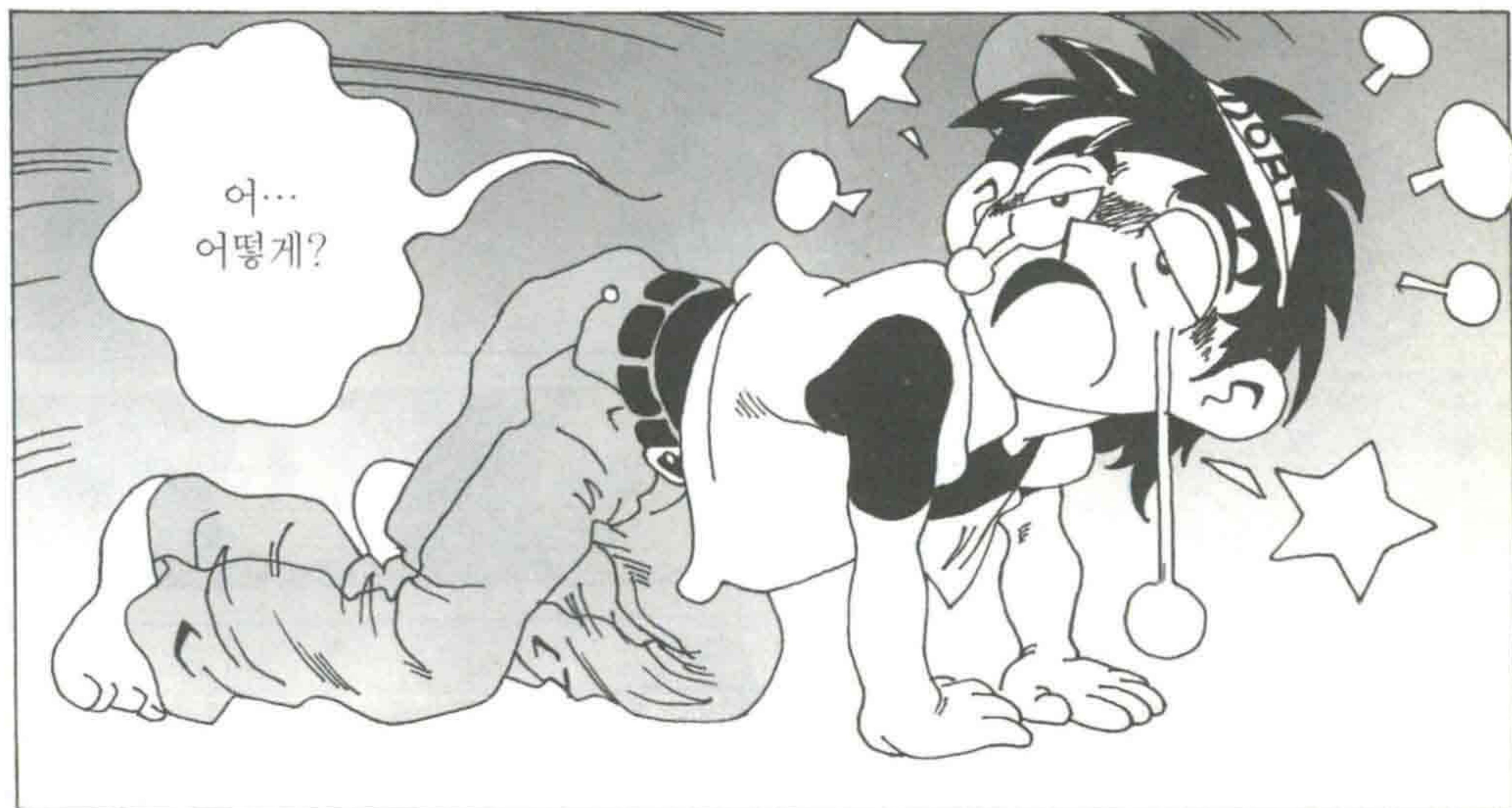
왜 안 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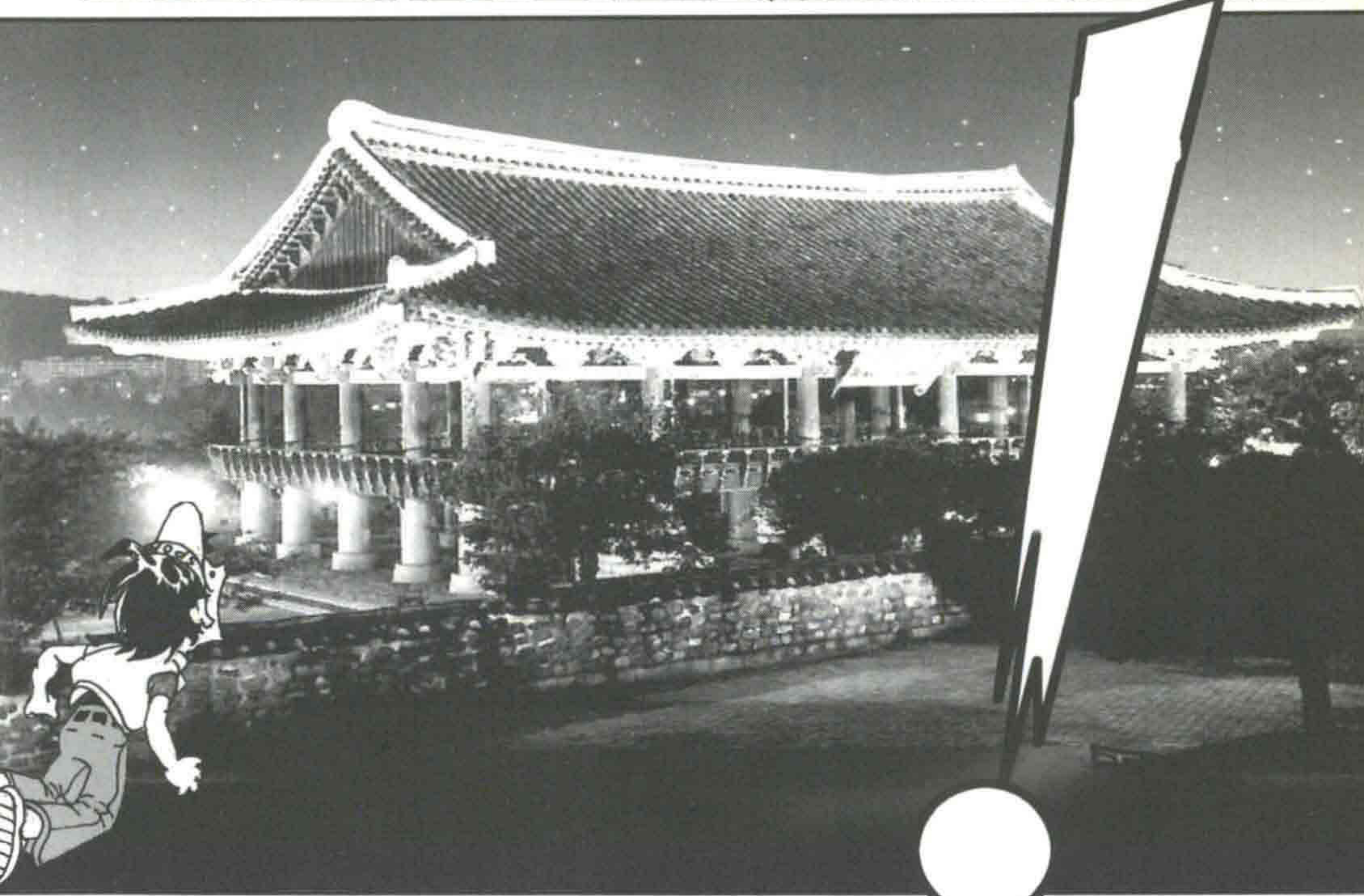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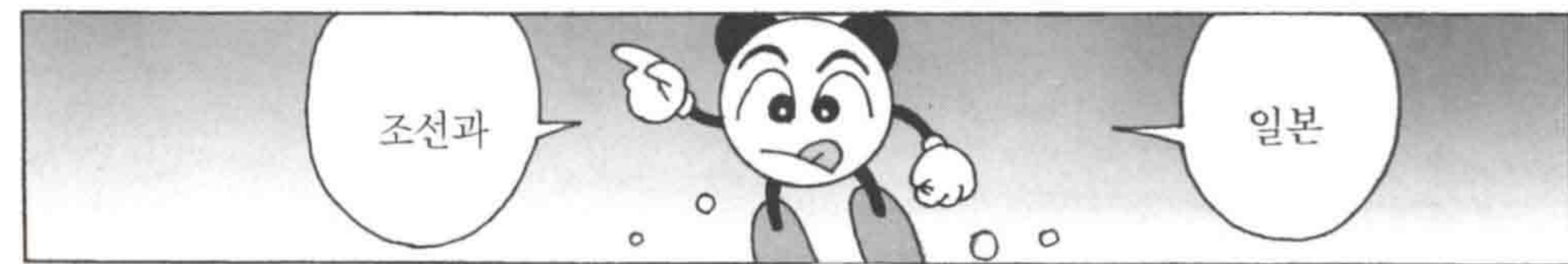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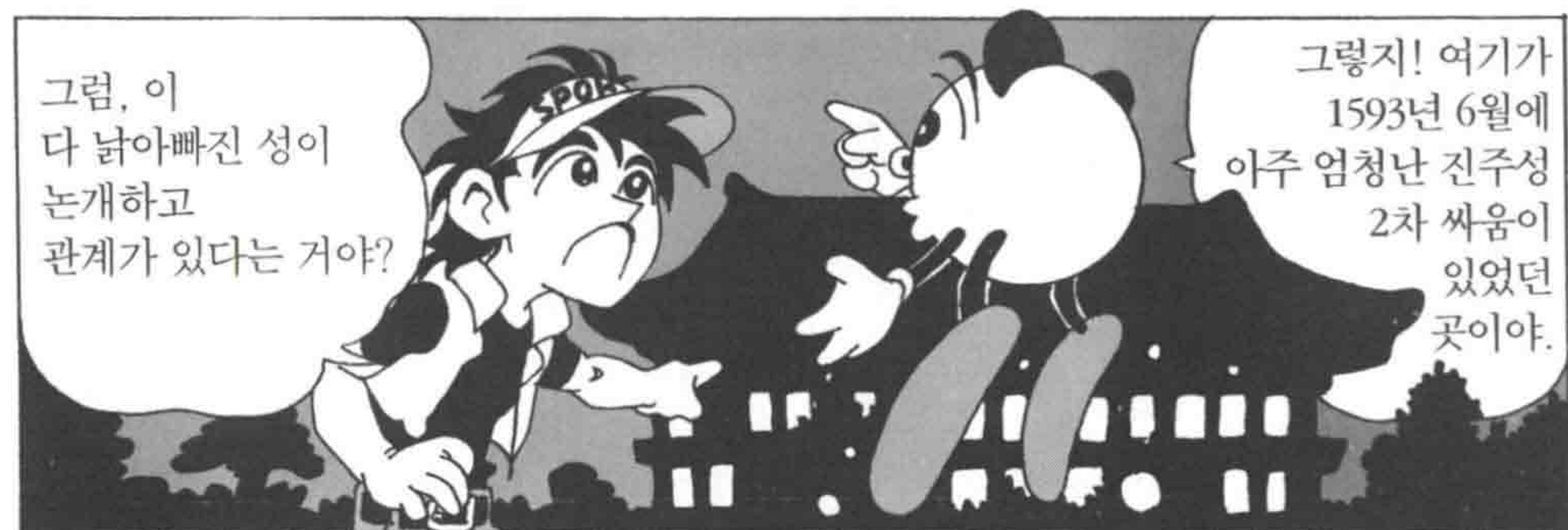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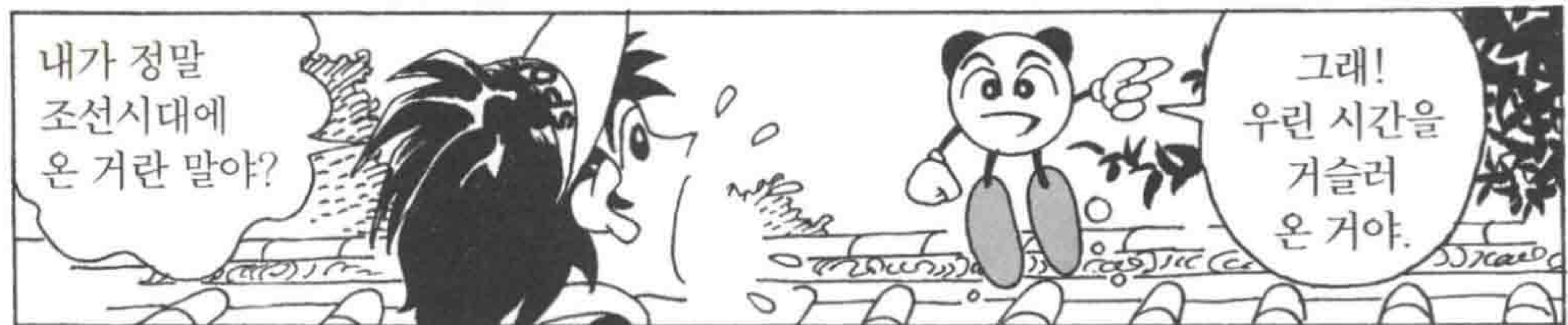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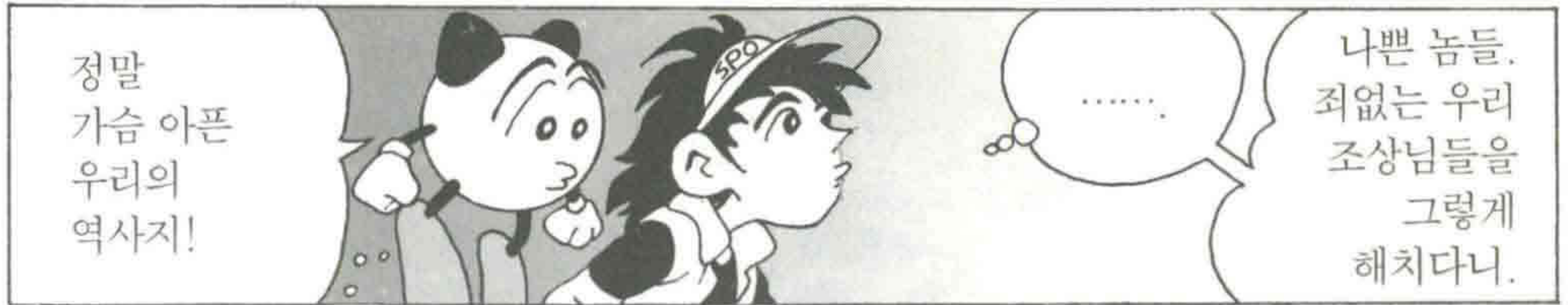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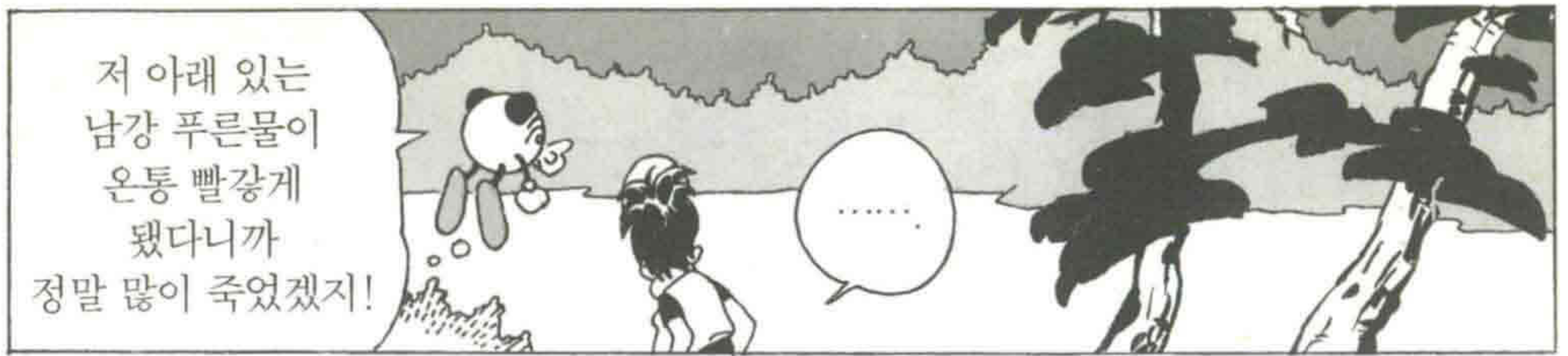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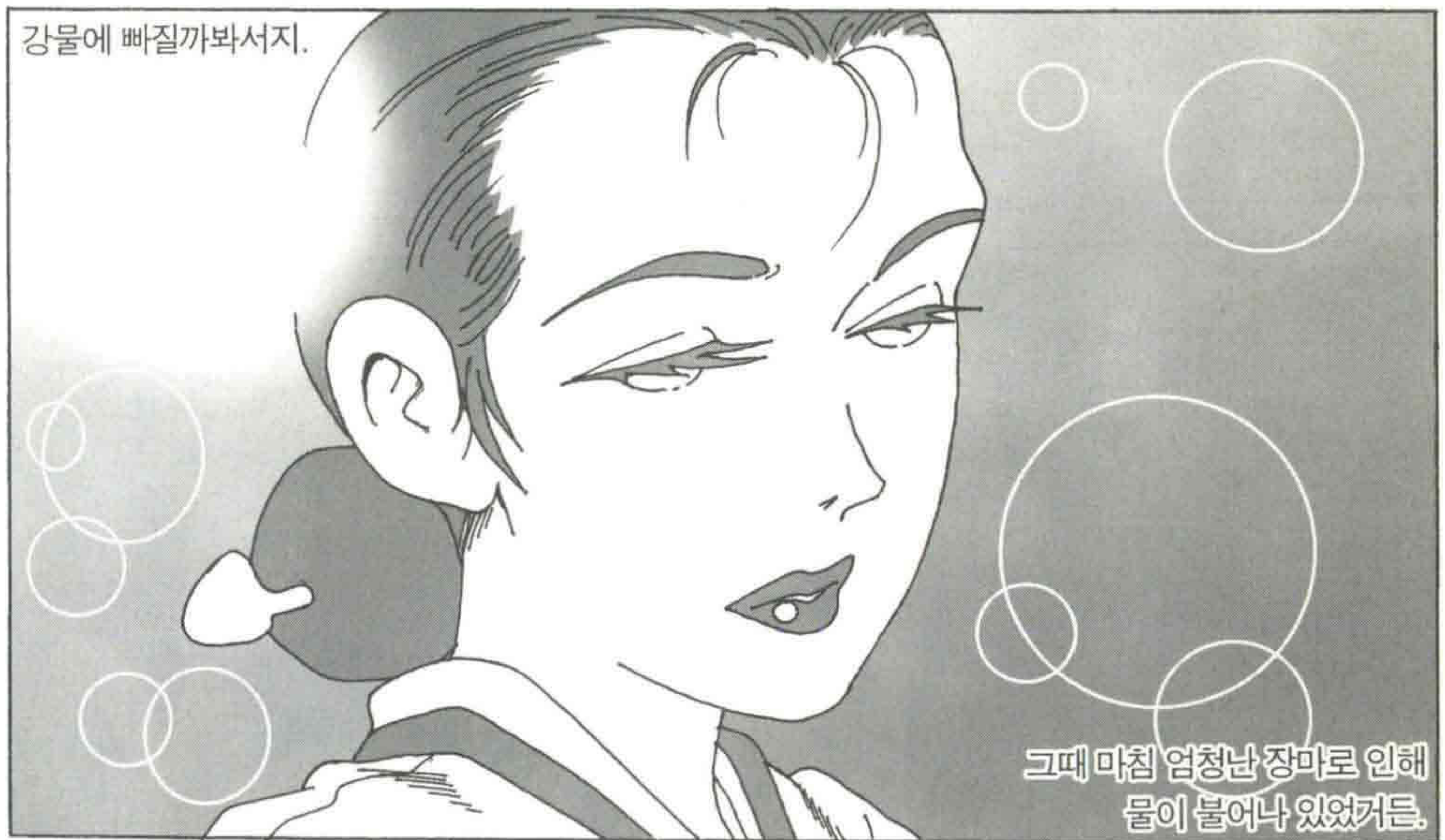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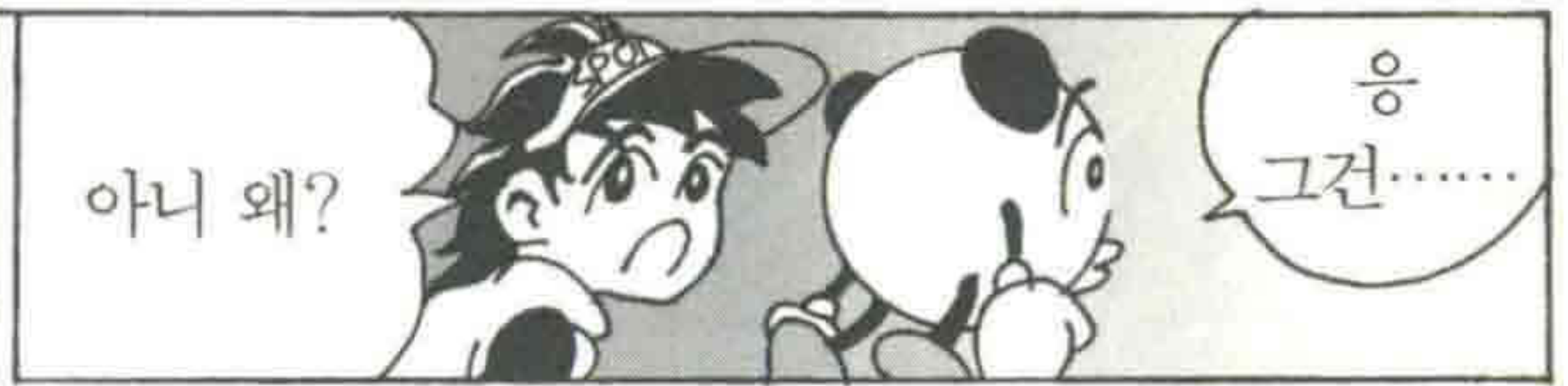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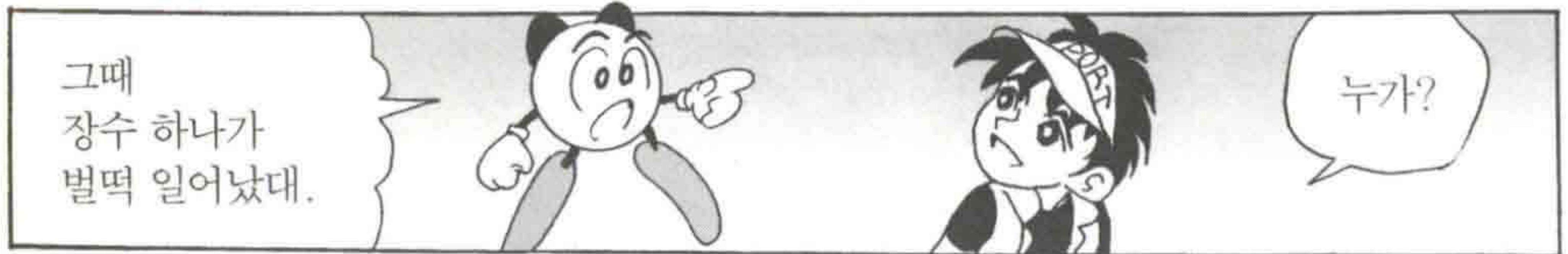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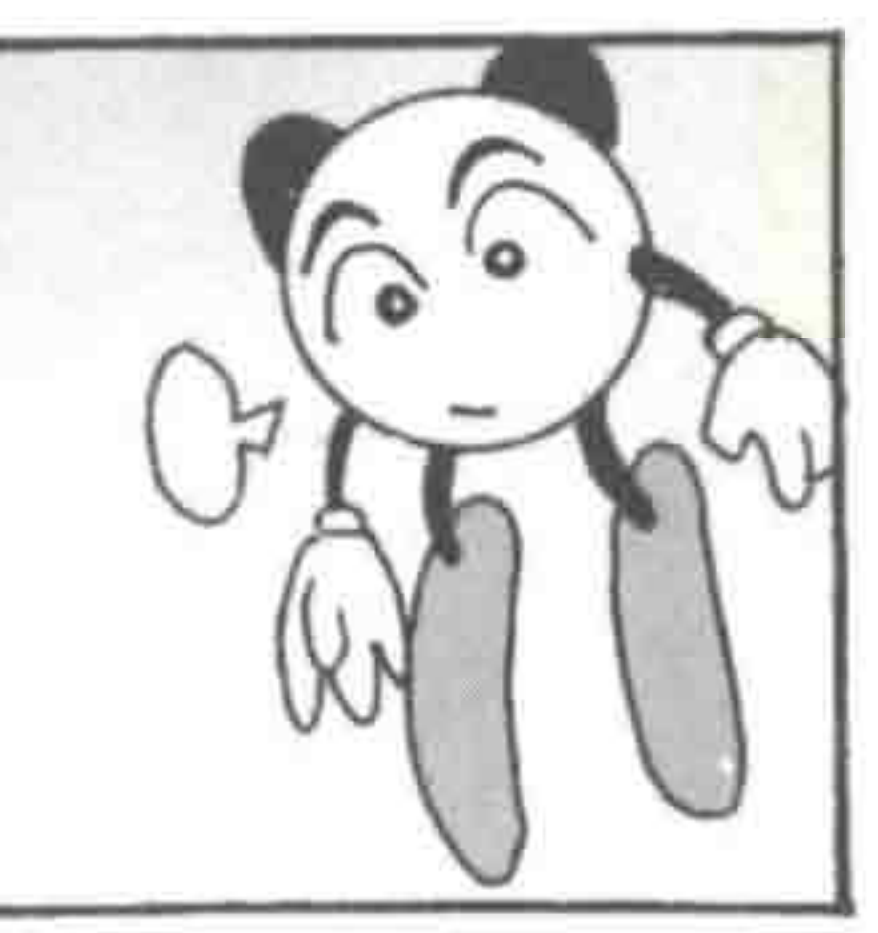




그 자태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일본 장수들은 일순
뉘을 잃을 정도였다.







오히려 잡힌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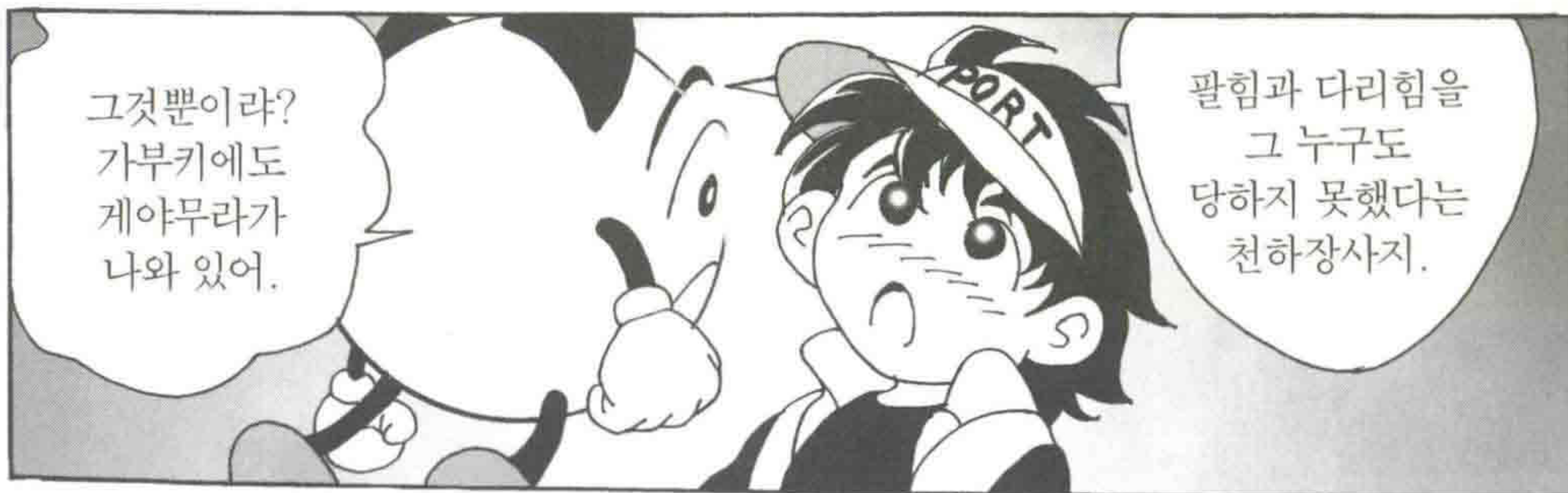
이 원수야,
너 잘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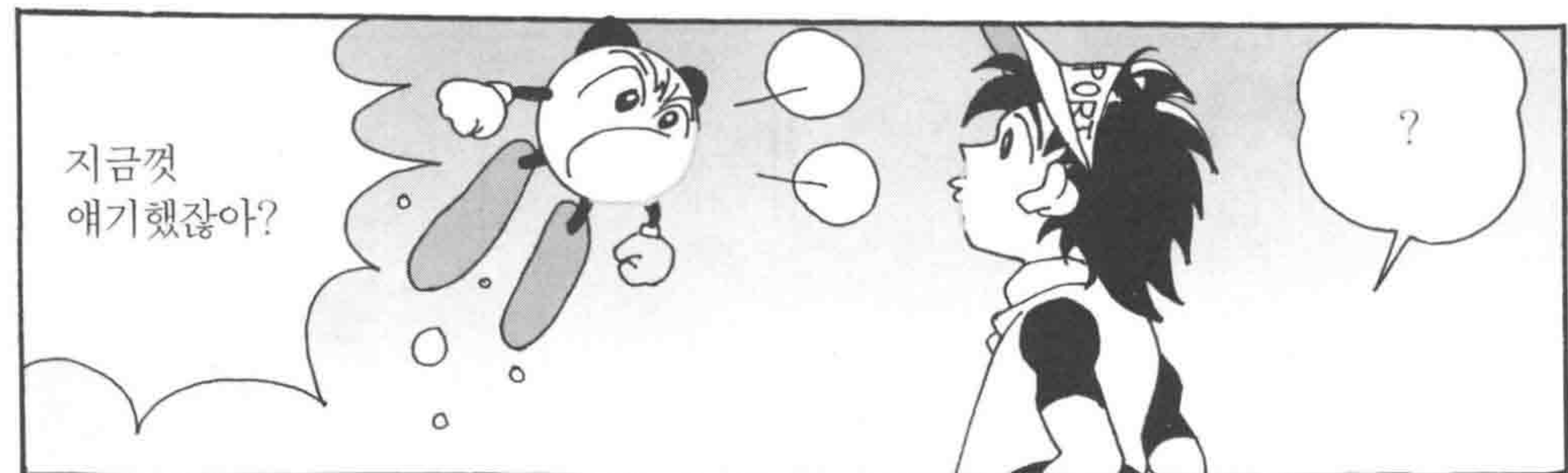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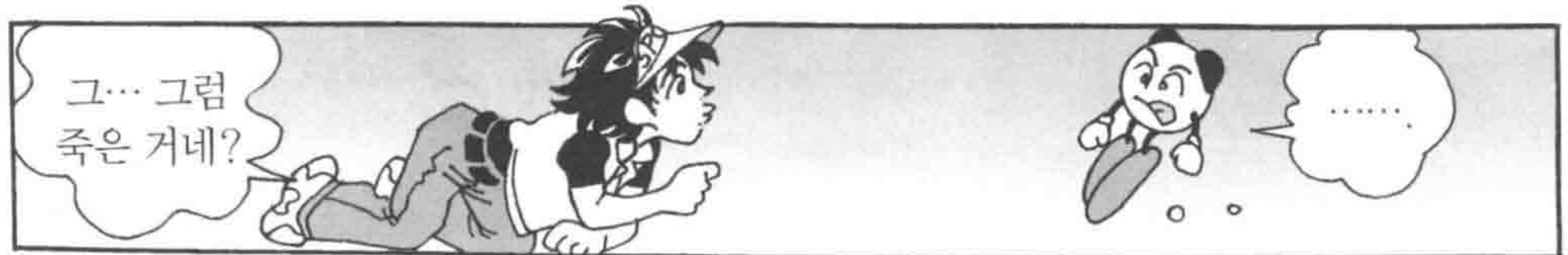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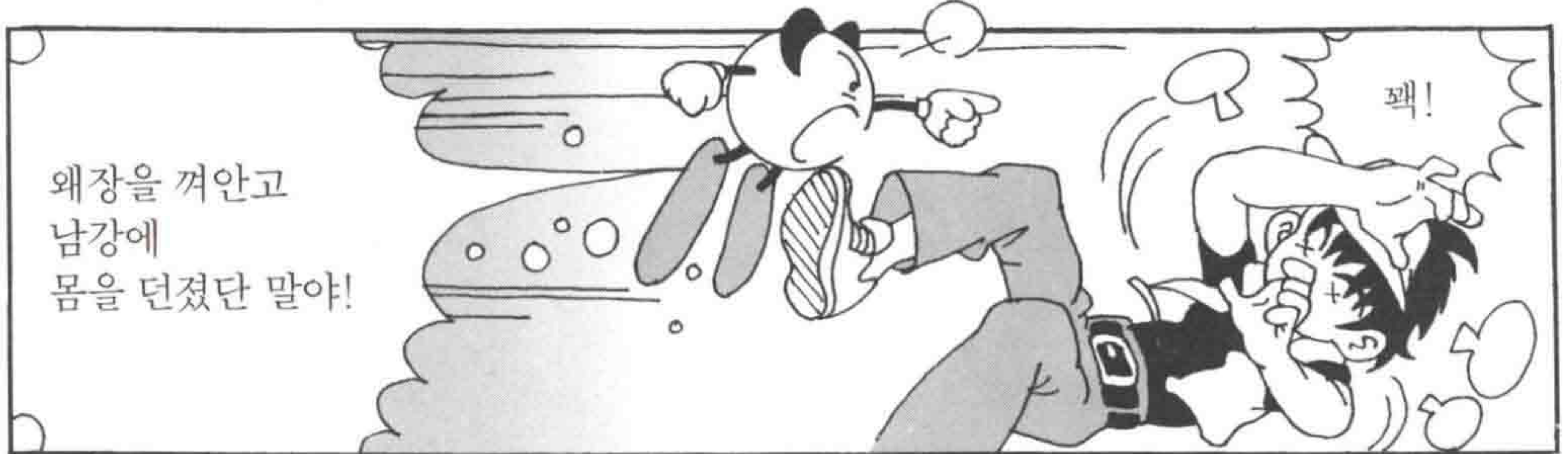
이년이
미쳤나?
왜 이래,
이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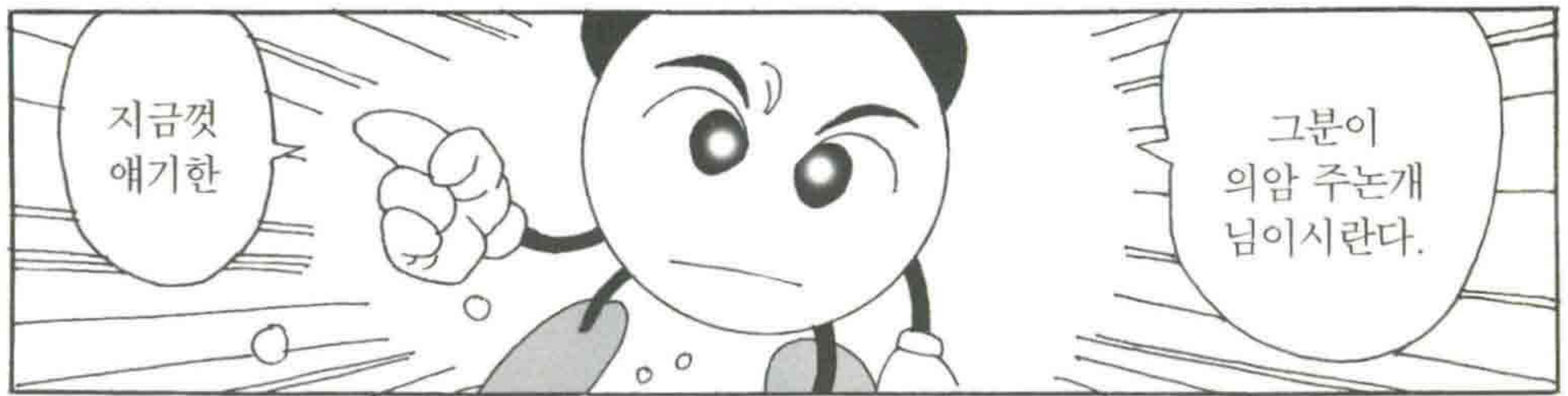
게야무라
허리를 꼭 잡고
.....

같이 죽자.
이 원수야!!

아아.....
안... 돼에
.....







그 장하고 장한 충절의 고장 장수의 딸 그 이름 의암 주논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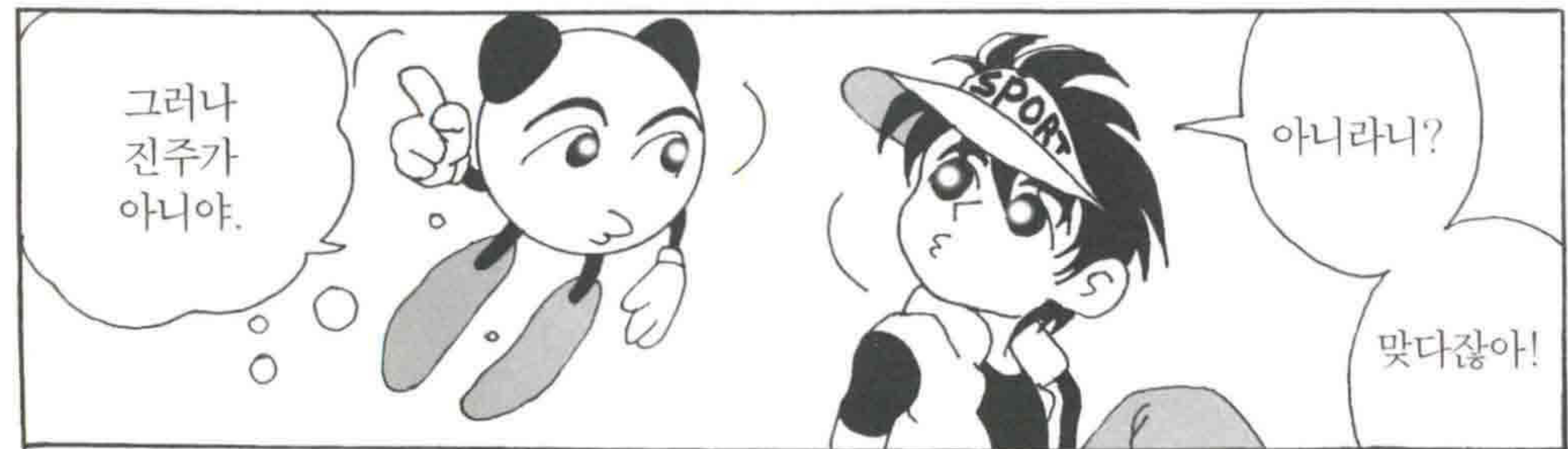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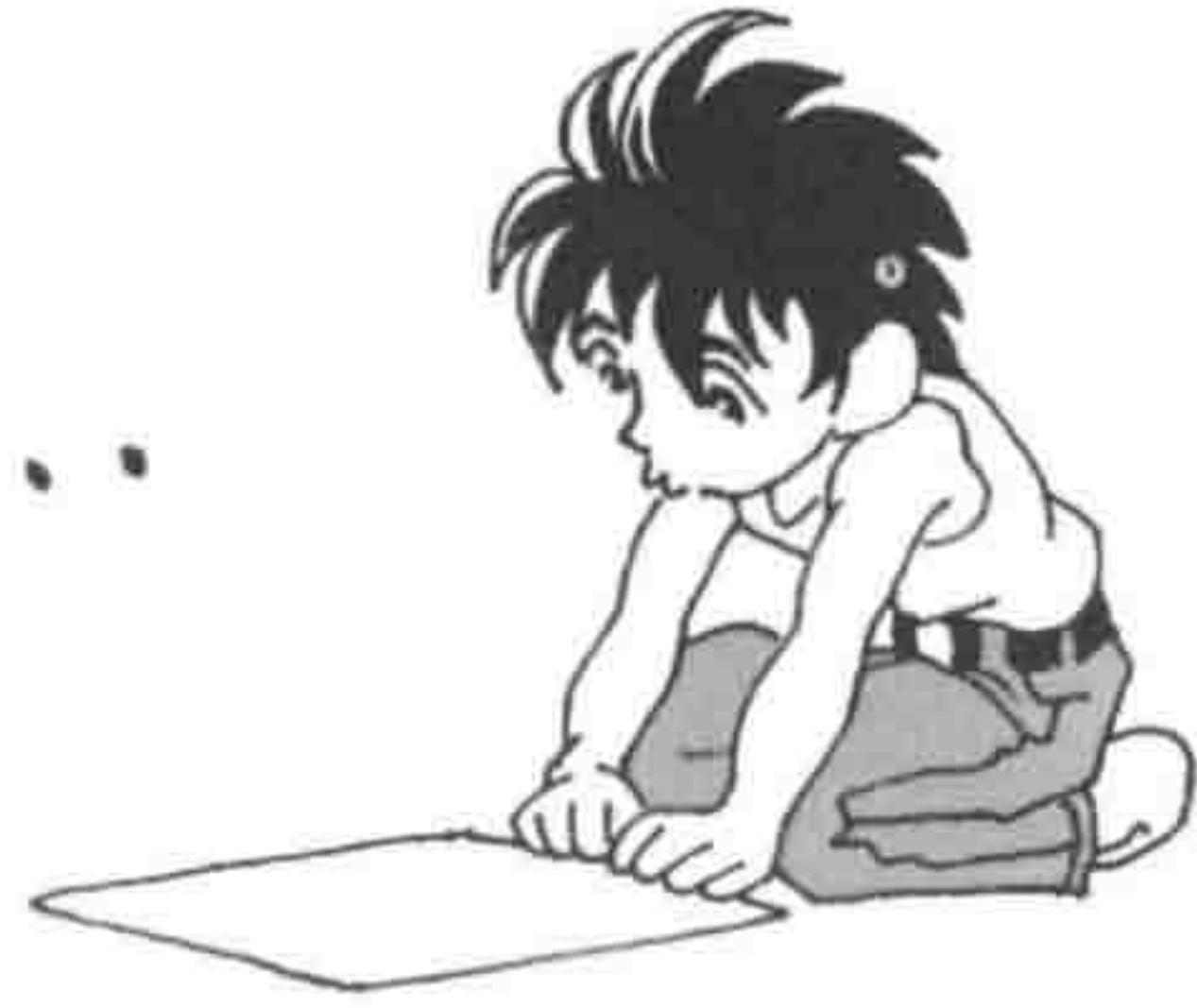
그 푸르른 남강에 왜장을 꺼안고
몸을 던진 만고의 의녀.
의암 논... 개...!!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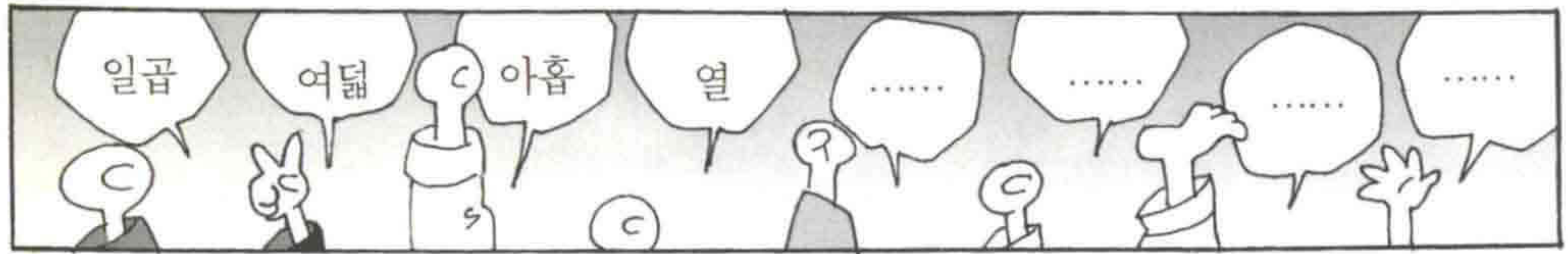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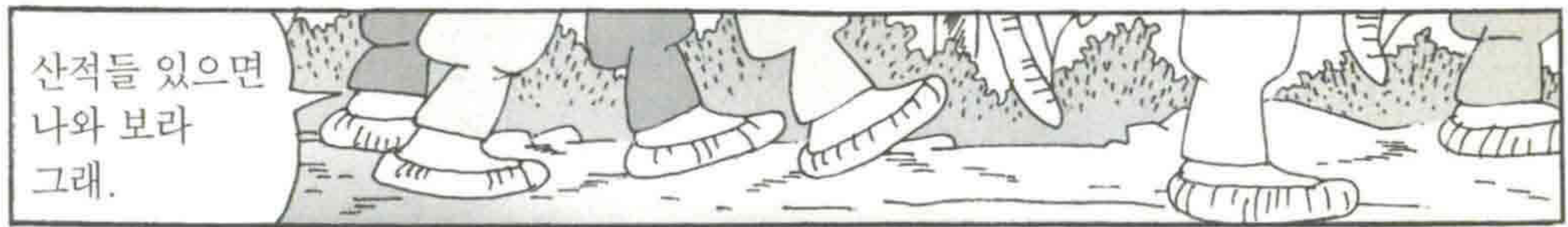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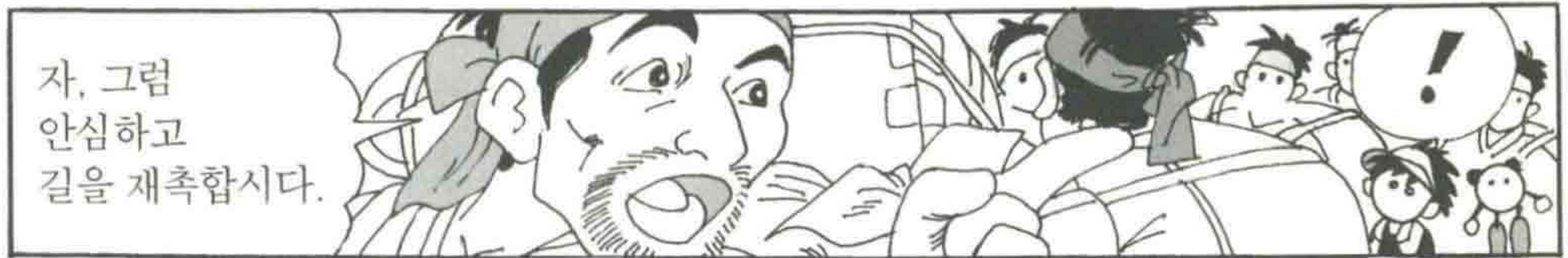
제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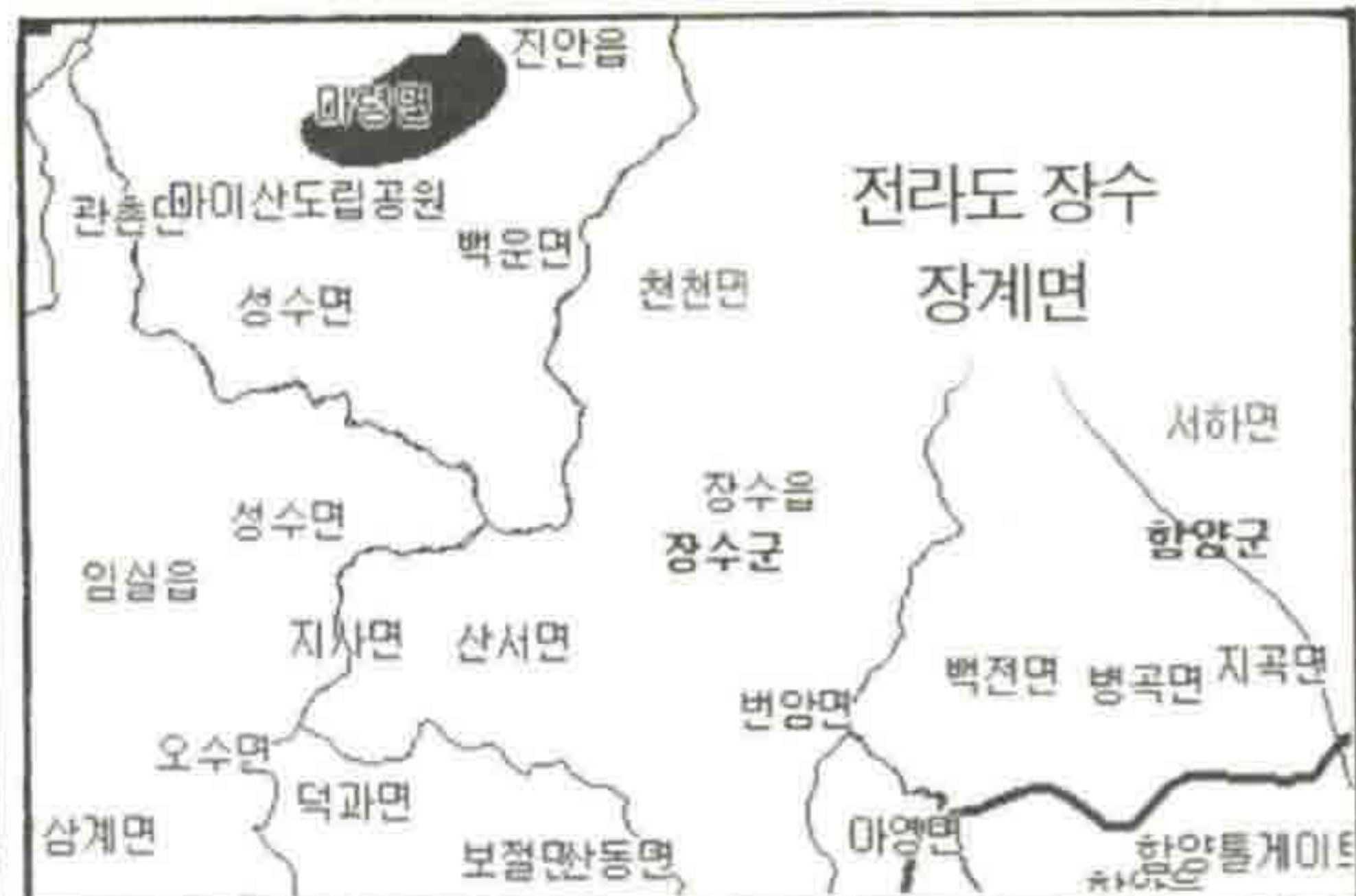
논개를 찾아서....













유달리 총과 절에 순응한 이 땅에
의녀 논개가 태어나고 자란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바로 그 논개와 관계 있는 마을이 바로
이 육십령에서 십오리 거리에 있어.



아이고,
무사히
넘어왔다.

아이고,
힘들어.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곶촌 마을이라
했는데……

화답



어이구 이거,
고개 너머
함양 양반들
아니오?

반갑소,
장수
양반들.

아고고,
다리야.

안 아픈
곳이 없네.



헌데
어디를
이렇게
가시우?

허허.



나랏님 계신 데를
가는구면.
헌데 한양엔
어인 일로
가는
것일까?



한양?

한양이
어디지?

바보,
네가 사는 곳
서울이
한양이야.



하핫하,
어인 일?

아니 그것도
모르시오,
장수 양반들?

많이 먹자.
먹는 게
남는 거다.

돼지 같다.



글을 다
깨우치면
갈 곳이야
뻘하잖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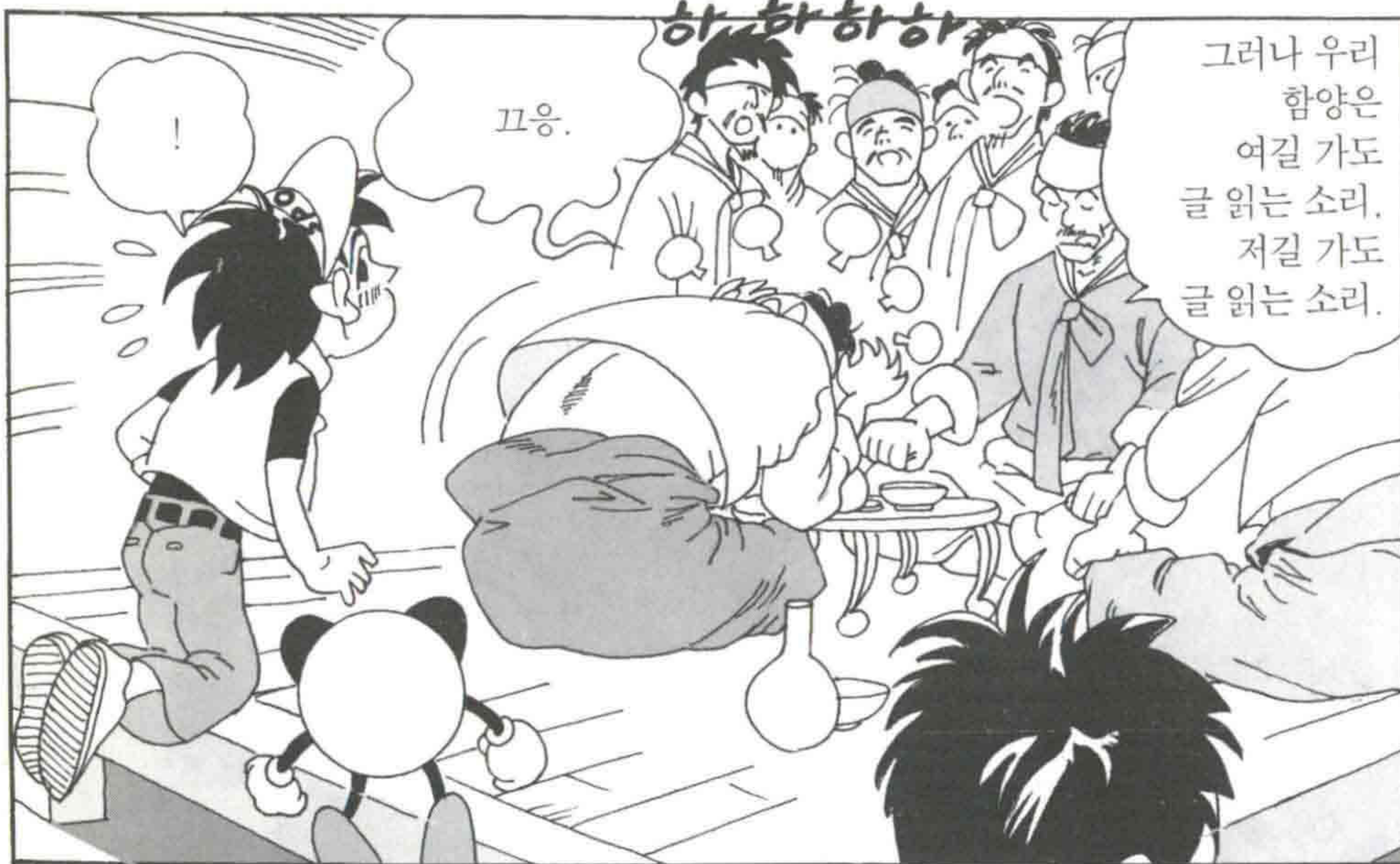
아하아.

켁켁.

바보.

탁 탁 탁











그분이 바로
논개의 할아버지가
되는 분이셨다.



그럼 장수
곶촌 마을로
이사를 해볼까?



그래서 장수로 이사오게 되었는데
이때 동행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오게 되었다.



이중 둘째 아들 주달무는 허랑방탕한
성품에 술과 노름이 주특기지만



이놈.

또
투전판에서
있다 왔나?

아이고
아버지,
다 큰 자식을
때리십니까?



쩍.

회초리로
저렇게
맞으면

너무해요.
너무해.

아플 텐데
.....

철이
안 들었으면
어린애일
텐데.



얼마든지
때리고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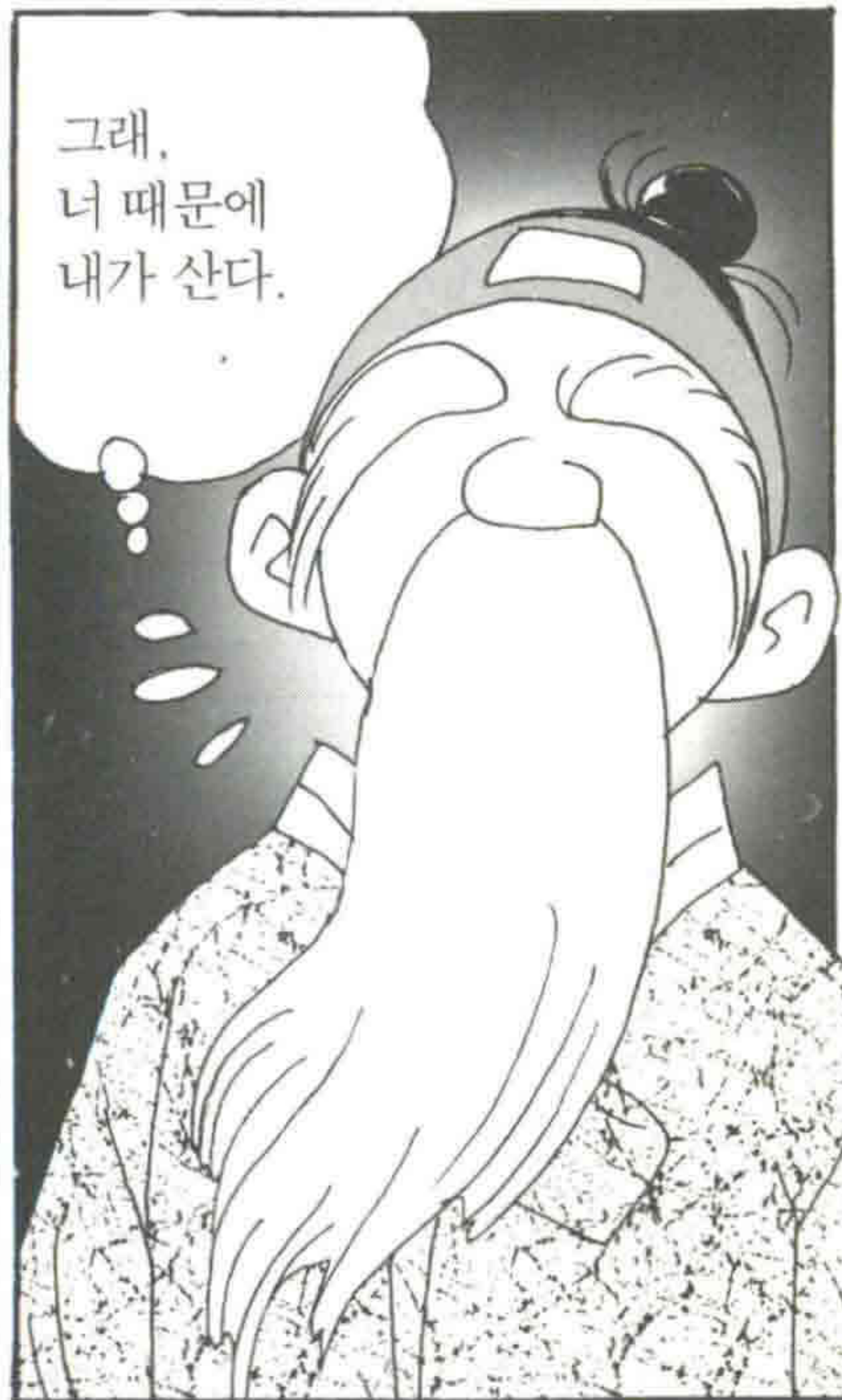


아이고.
아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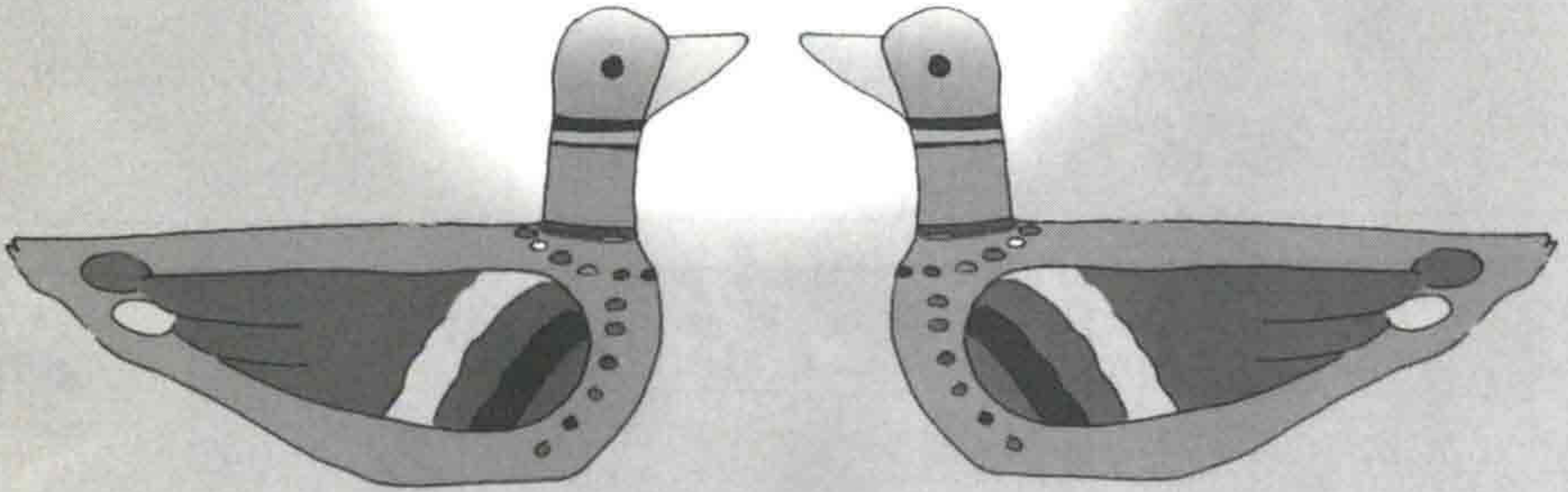
반대로 큰아들 주달문은.....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바로 이 큰아들이 나중 황석산성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웠으며
팔도병사까지 지낸 밀양 박씨 집안의 딸과 혼례를 올렸으나.....



이들 부부가 누구인가?



논개의 부모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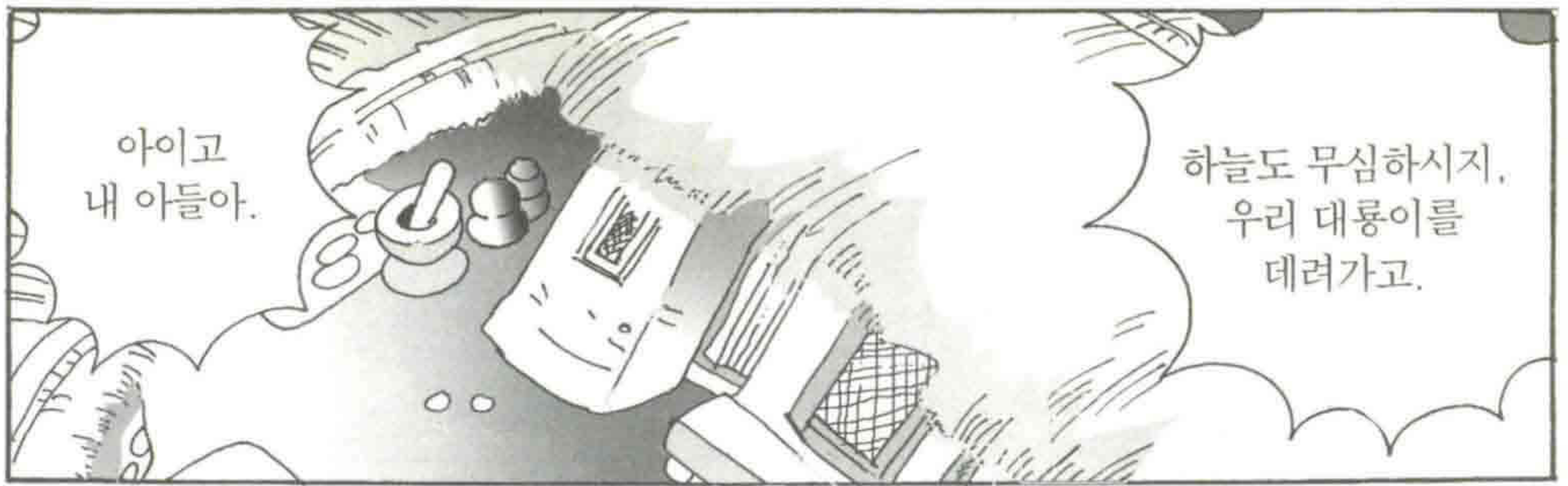


제2장

논개라는 이름의 비밀







가난하지만
행복한
생활이
있었는데
.....



가까운 절이나
가서 그곳에서
불공드리며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는 살 수가
없겠다구요.



그래서 두 부부는



귀촌 마을을 떠나
덕유산 자락의 영각사라는
절에 들어가 예불도 드리고
절의 일도 하며 살게 되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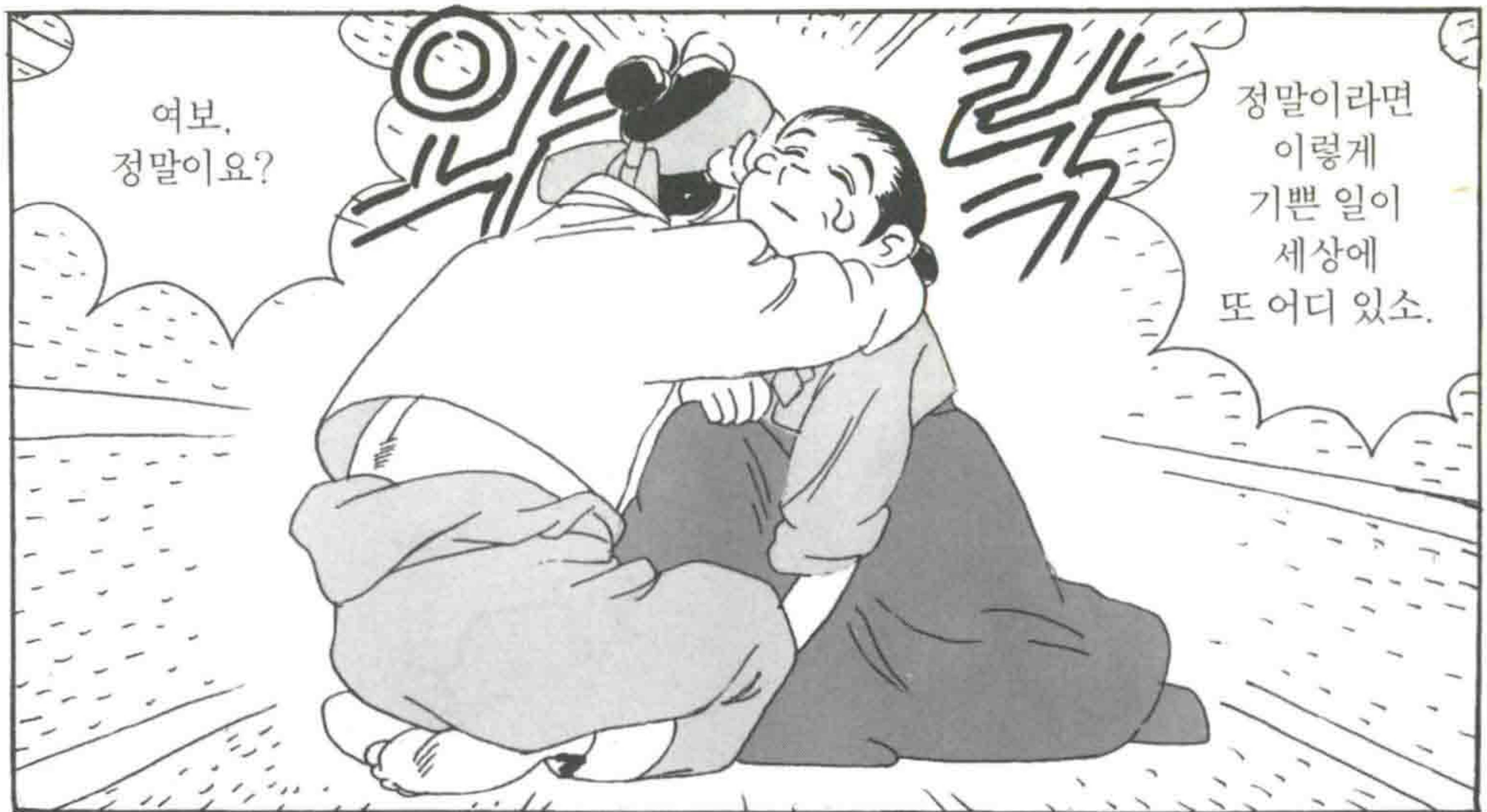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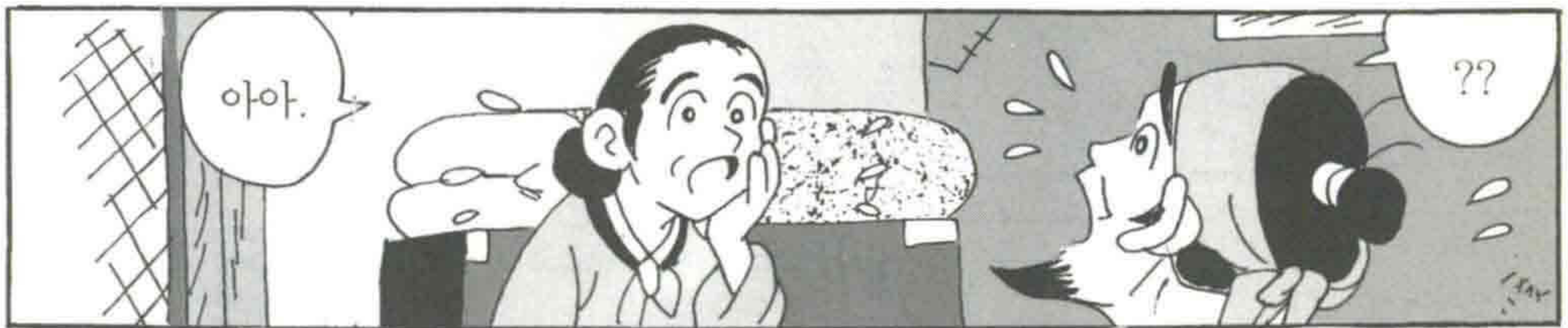
들어간 지 3년째 되는 해
불공을 드리던 어느 날 밤



부처님께 지성을 드린
효과가 있었는지



여보,
일어나
봐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희 부부 인생이
너무 외로운 것을
보다 못해 자식을
점지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는 3년 만에
영각사에서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 마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논개를 낚게 되고는

이 아기 때문에 이 부부는 세상 살 맛을 다시 찾게 되었으니



여보 여보,
이 어린 게
웃는 걸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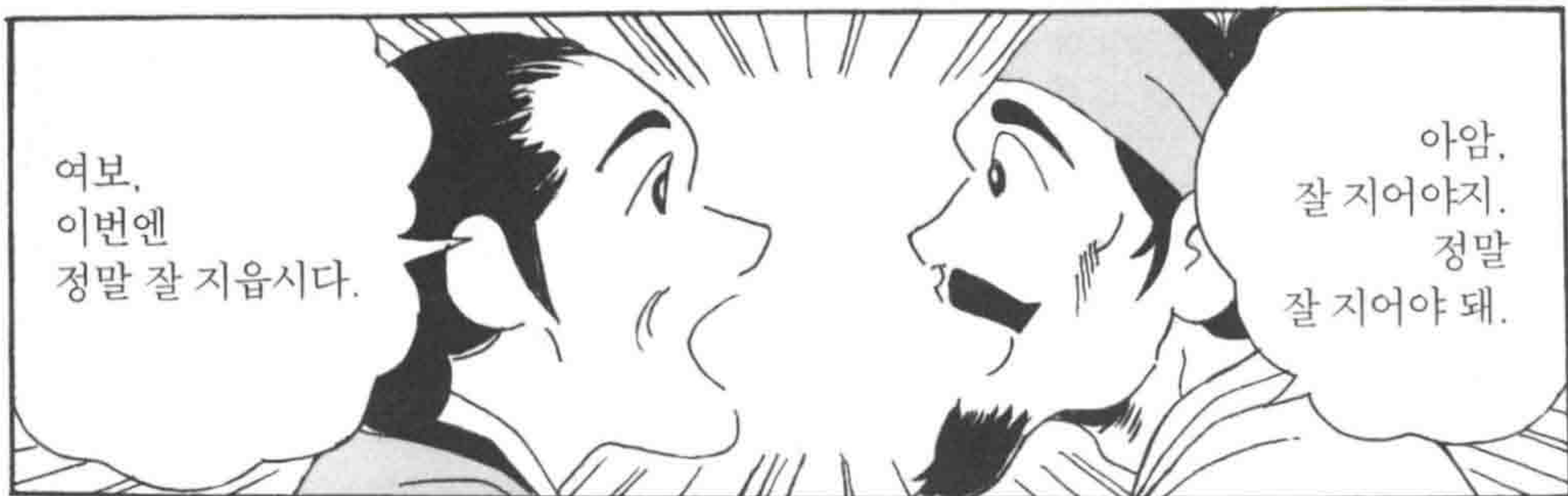
허허허.

그저 쳐다만
봐도 귀여운
아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아이

가가리느

그런데 태어난 지
꽤 됐는데 말이오,
우리가 아직
이름을
안 지었잖소.



여보,
이번엔
정말 잘 지읍시다.

아암,
잘 지어야지.
정말
잘 지어야 돼.



대룡이
녀석은
너무 크게
지었어.

맞아요,
여보.



귀한 집 자손일수록
귀신이 시샘한다고 해서
이름을 함부로
짓는 법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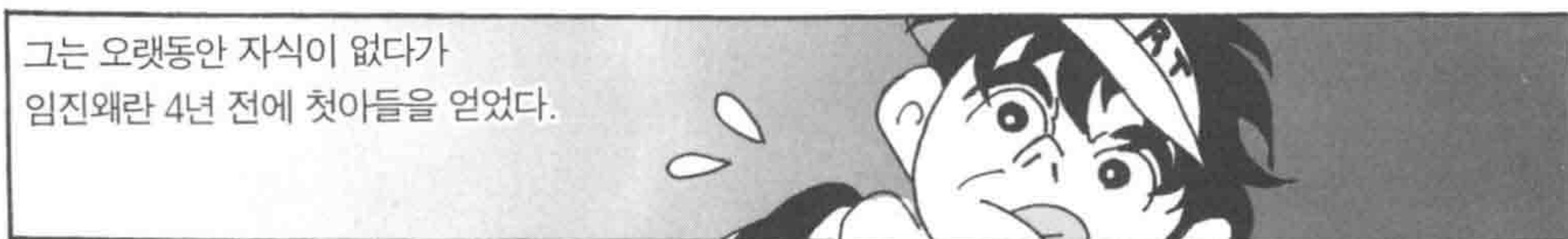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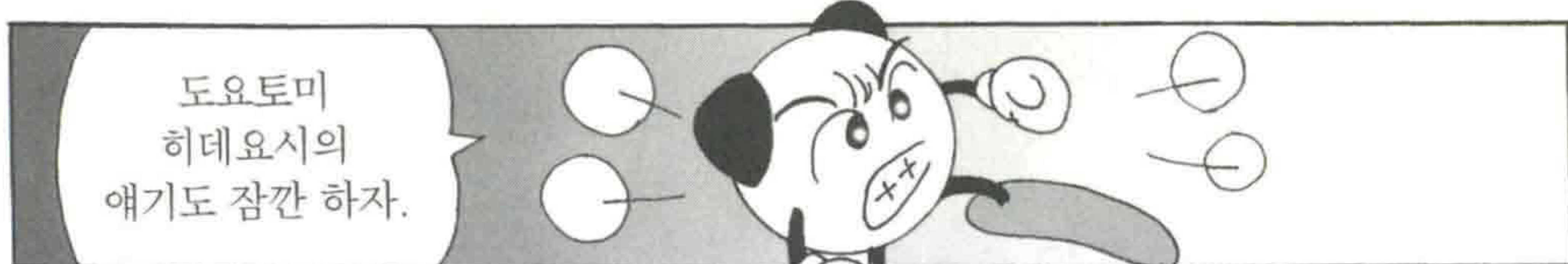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천하게 지었구나.

당시엔 역병이 한 번 돌면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어렸을 땐 개똥이, 막똥이 등
일부러 천하게 지어 조금 커서야
진짜 이름을 지어주는 풍조가 있었던 것이다.



아이고
내 귀한 자식아,
왜 죽었니,
왜 죽었어.



일본 최고 통치자에게
후사를 맡길
아들이 태어났으니
도요토미 히데요시로서는
펼쩍펼쩍 뿔 정도로
기쁘고 환장할 일.



푹하하하.

천하에 어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으리오?



임진왜란 직전 황윤길, 김성일 등
조선의 통신사들이 갔을 때에도
아들(2살 때다)을 업고
나타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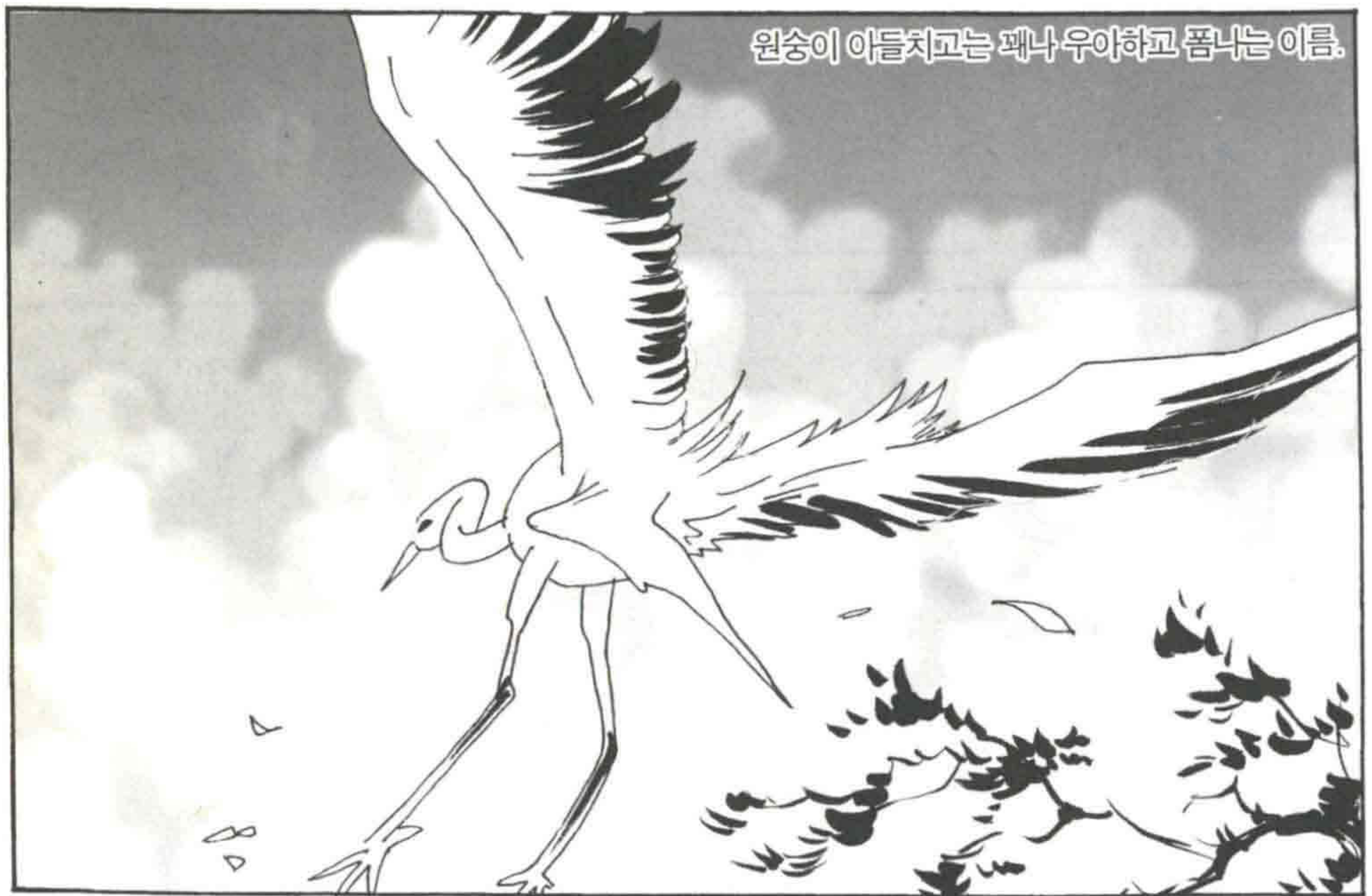
뭐야 저 원숭이?
아니 이런 자리에도
새끼 원숭이를
데리고 나와?

아구구
내새끼,
이쁜
새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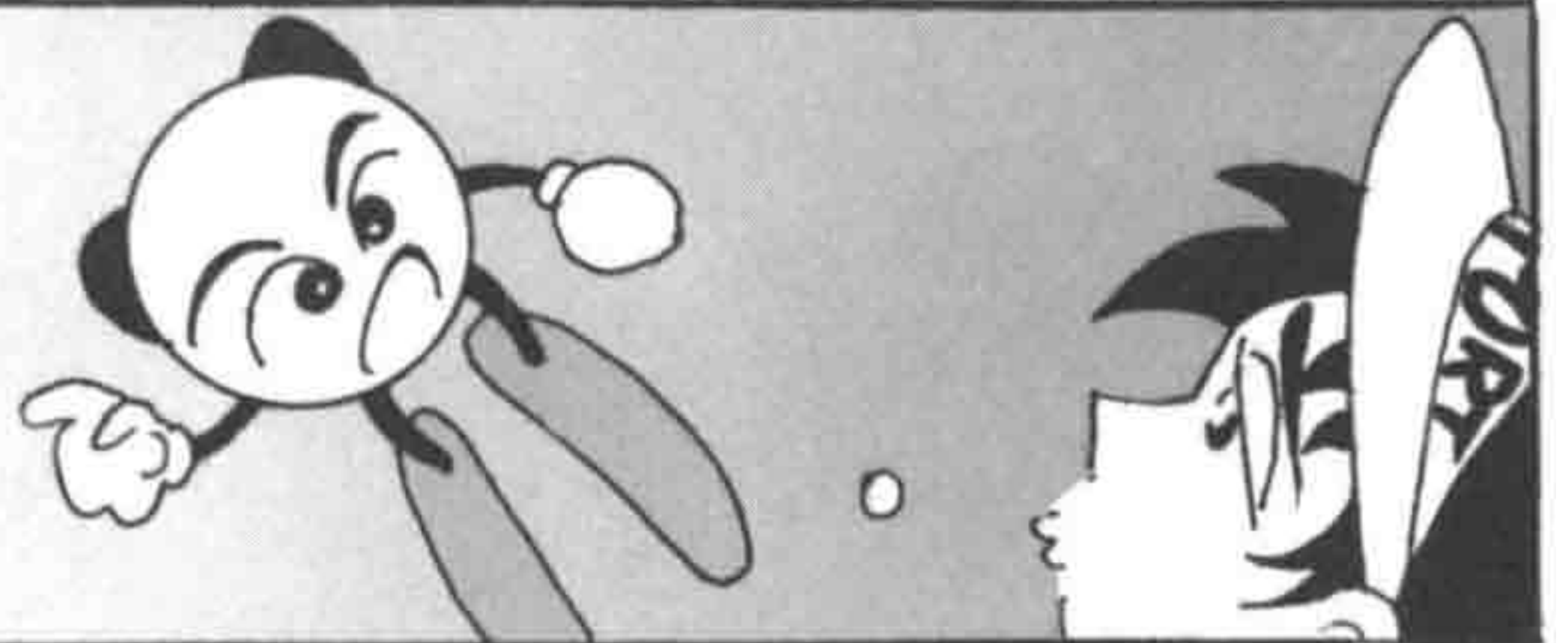
이런 오도방정까지 댄 일이
기록에 나와 있을 정도로 이빠했다.
어떤 일일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이 아들의 죽음을 잊으려고 조선 침략에
더욱 주력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좌우지간 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임신왜란이 한창일 때
다시 엄청난 굿뉴스가……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

아들이라구?

분명 아들이라
하옵니다.

조… 조상들은
우리 풍신가를
버리시지 않으셨어.
나에게 또다시
대를 이을 아들을
주다니…….



그러나 이번에도
또 죽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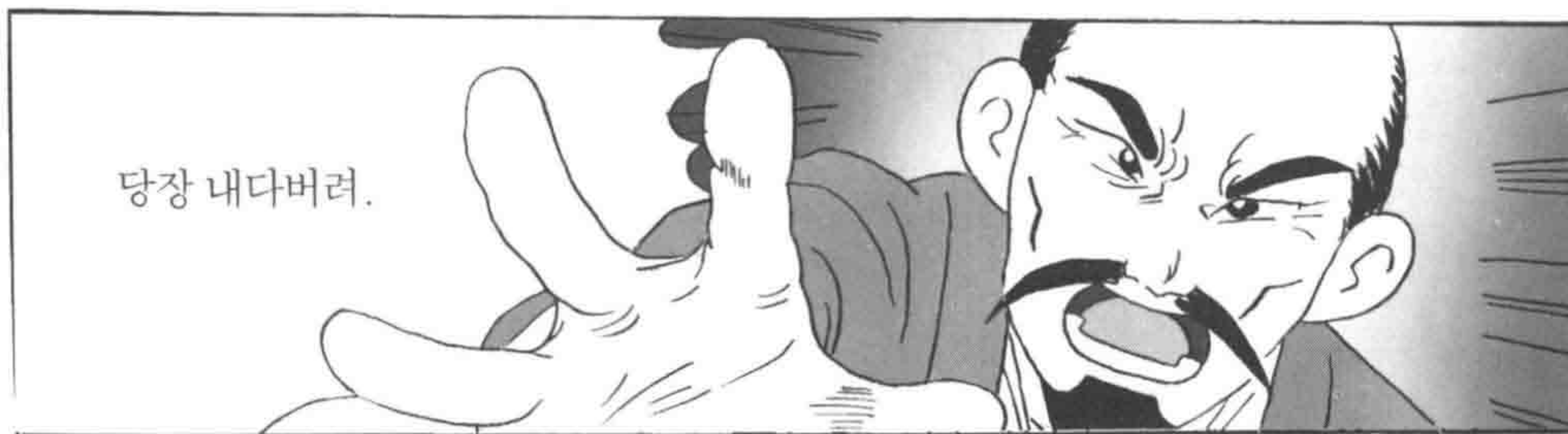
그래서
버리기로
했다.



아들놈을
갖다가
내다버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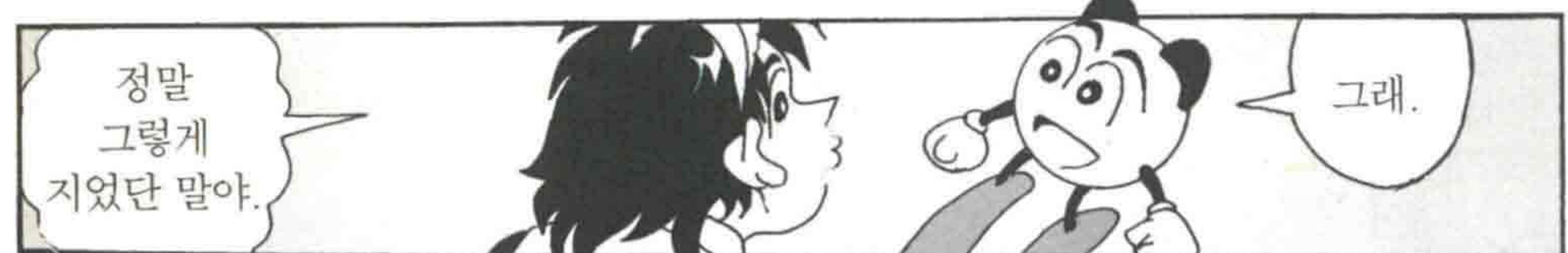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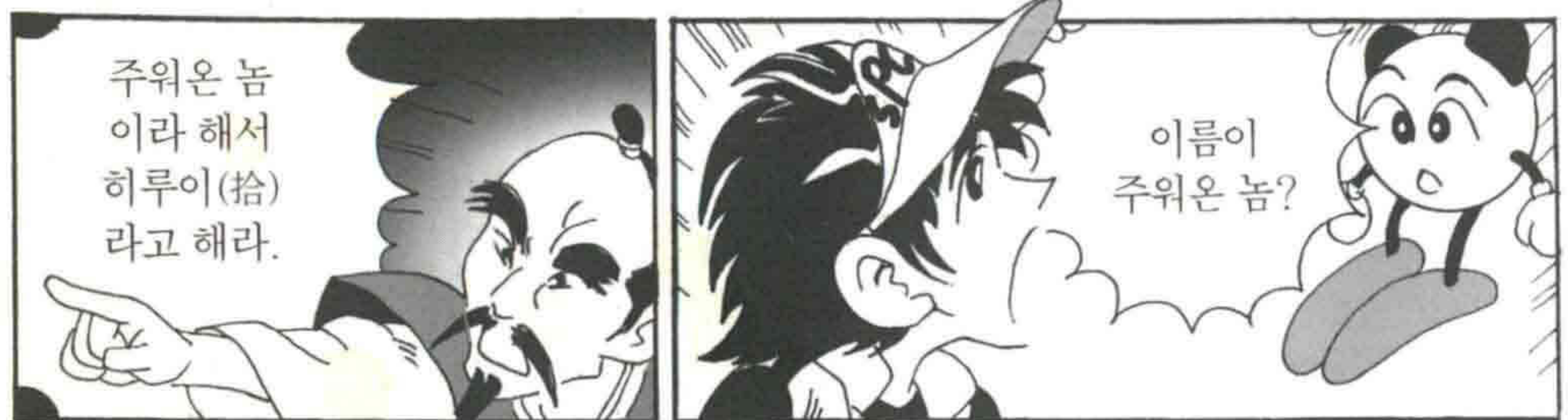
에에?

아니 그게
무슨 말씀
이신지?



당장 내다버려.





그런데 백세까지 무병장수하기는커녕



이름덕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3살 때 죽지는 않고 제법 장성해갔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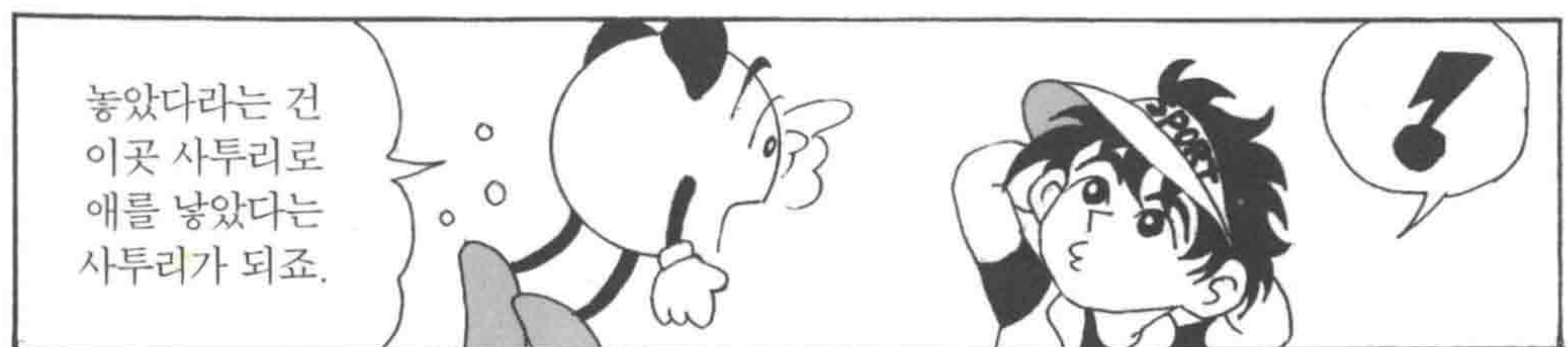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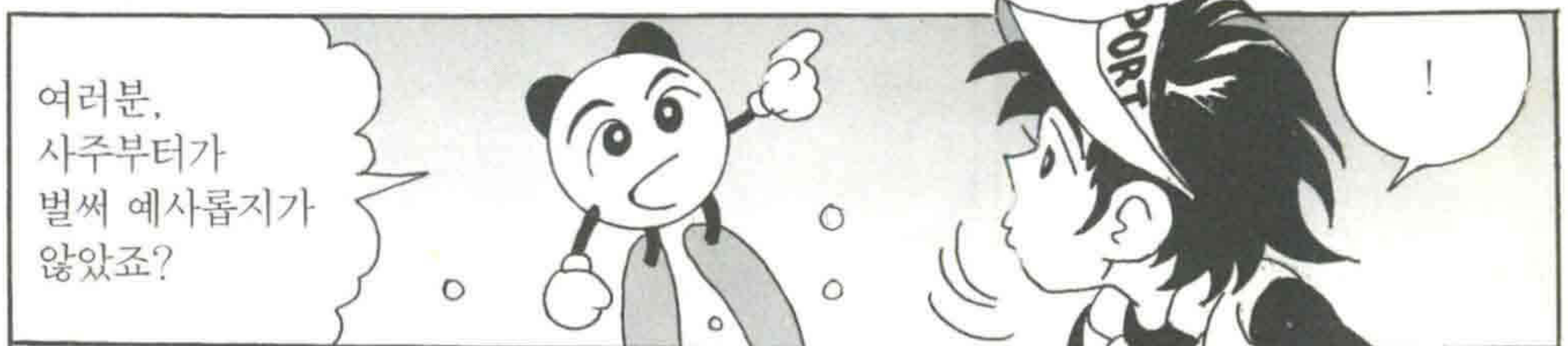


20대 초반 오사카 성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德川家康)의
공격을 받아
자결.



아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가
완전히 끊기게
된다.











어머니 또한 훌륭한 밀양 박씨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논개는 자연스레 이 두 부부 아래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커나갔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여자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어.



여자가 무슨
글이야,
부엌일이나
잘하다 시집가면
끝이지.

아암,
그게
다지.



그러나 논개 아버지는
열심히 글을 가르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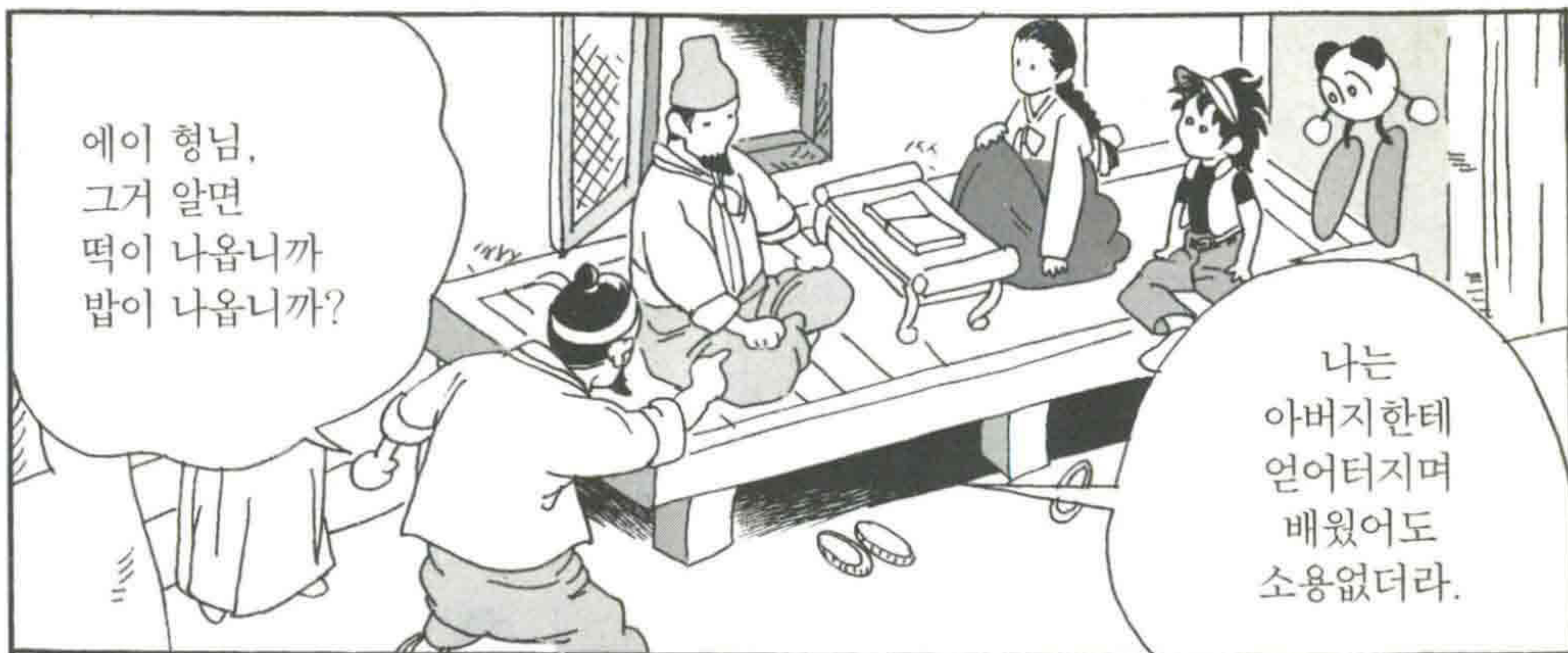
쩍.....
나는 책 읽는 게
싫은데.













형수, 사람은 술배 따로 있고 밥배 따로 있수.

때문에 부엌에 남은 밥 있으면 상이나 한 상 봐오슈.

이렇게 자기집 놔두고 논개네 집에서 뼈대는 주달무였다.



아이구, 짹짹.



배고 프다.



나두.



형수님은 어떻게 바느질도 잘하구 음식도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갖고 잘 만드오?



으아, 진짜 맛있게 먹는다.

짹 짹

배고프면 딴 생각을



그런데 참 한 가지 흠이 있구먼.

우리 엄마 흠이 뭔데요, 삼촌?

아아아, 다 먹었나봐.





나 혼자
열 아들 노릇
할 테니.



엄마야~
애 무섭네.

어린 게
발끈해가지고.



쌔통이다.

ㅋㅋ.



어쨌든 동네 사람들도
주달무라고 하면
혀를 끌끌 찧다.

어찌 그리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다를까?

쯧쯧쯧.

글쎄
말이야.



형님은 정말 인품있는 훈장인데…….



동생이라는 건 완전히, 킁킁킁.

어힘.

킁킁.

자! 물 마셔.



개차반이야.



뭔 소리여?
이 망할놈의 여편네들이.
아! 내가 개차반 되는데
보태준 거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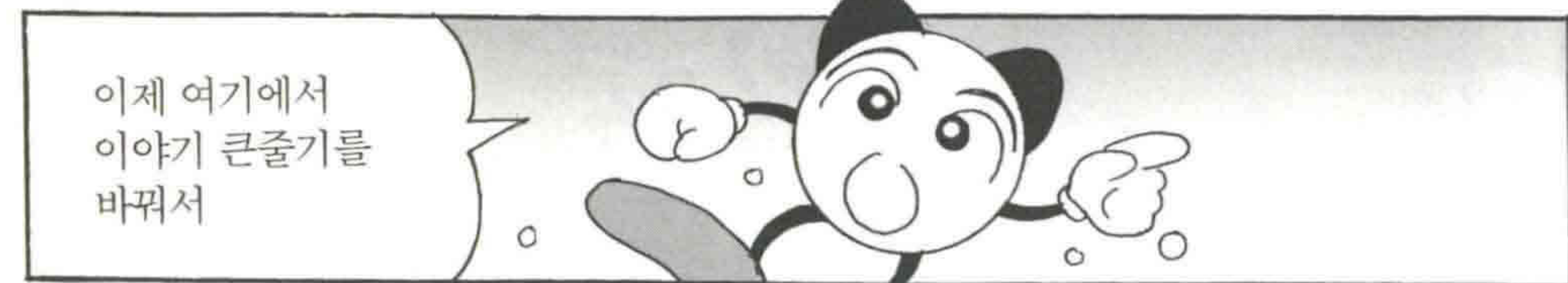
보태준 것도 없는 것들이
말들이 많아.


바로 이 주달무가 나중
논개 모녀에게 요상한 짓을 해
논개를 최경희하고
어쩔수 없이 만나게 하는 그
런 운명으로 몰아넣게 하는데,



와아,
성질
한번
못됐다.

.....






논개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사람,
최경희.



문무(文武)에 능했으며



그리고 죽어서 논개와 함께
부부로서의 연으로 나란히 묻힌 그 최경희!
일단 최경희에 대한 얘길 하기 전에
어떤 칼에 대한 얘길 먼저 해야겠다.

제3장

침경희의 키보드



전국시대
도요토미 히데요시께서
하사하신 언월도란 명검이
한날 이 전라도 땅
무식한 조선것들 집에
천대받으며 있어?



어째서 그런
불미스런 일이
생겼단
말인가?

그... 글썄
말입니다.
저도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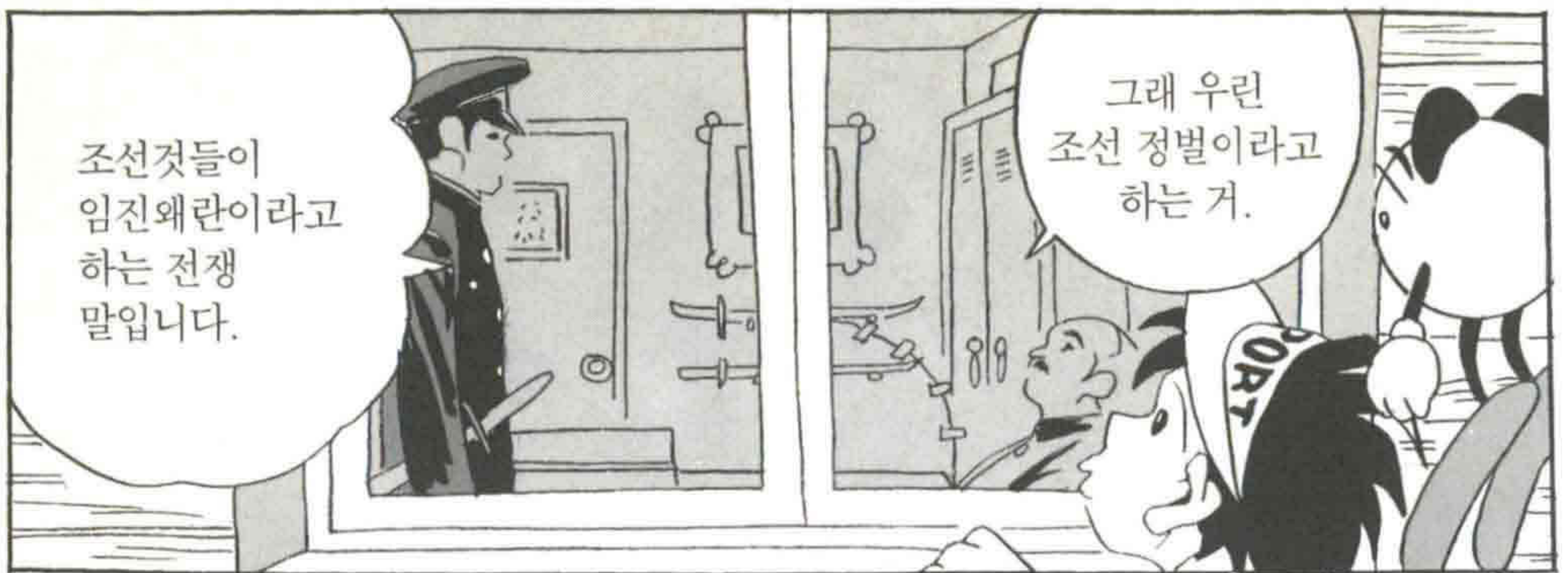
관



이거원~
너무나
불미스럽더
라구요.

빨리
얘기
해봐.





조선것들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
말입니다.

그래 우린
조선 정벌이라고
하는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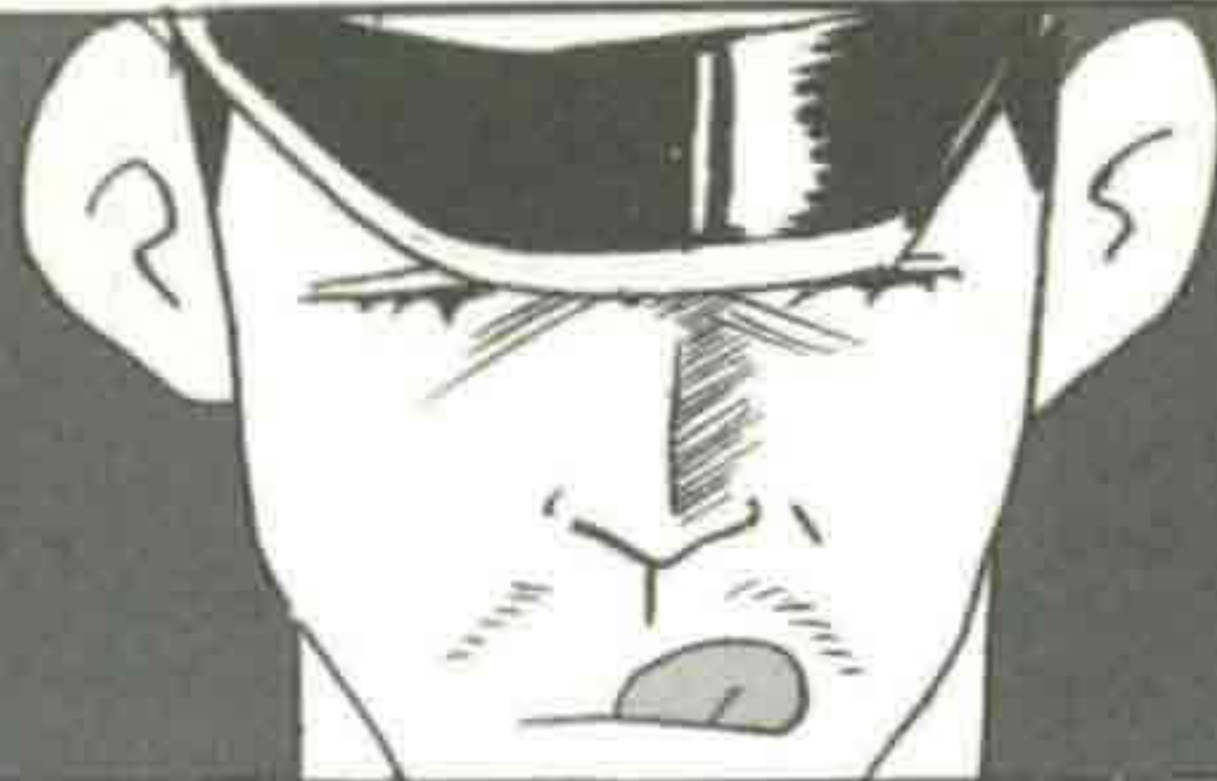
그때 그 정벌 중에
여기 화순 땅의
최씨집
조상 하나가

뭐 의병인가 뭔가 하는
쌍것들을 모아서
우리 일본군한테
덤빈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자가
우리 고바야카와
장군 부대를.....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마구 쳐부순
일이 있었는데.

그때
흰말 탄 장수
하나를 죽인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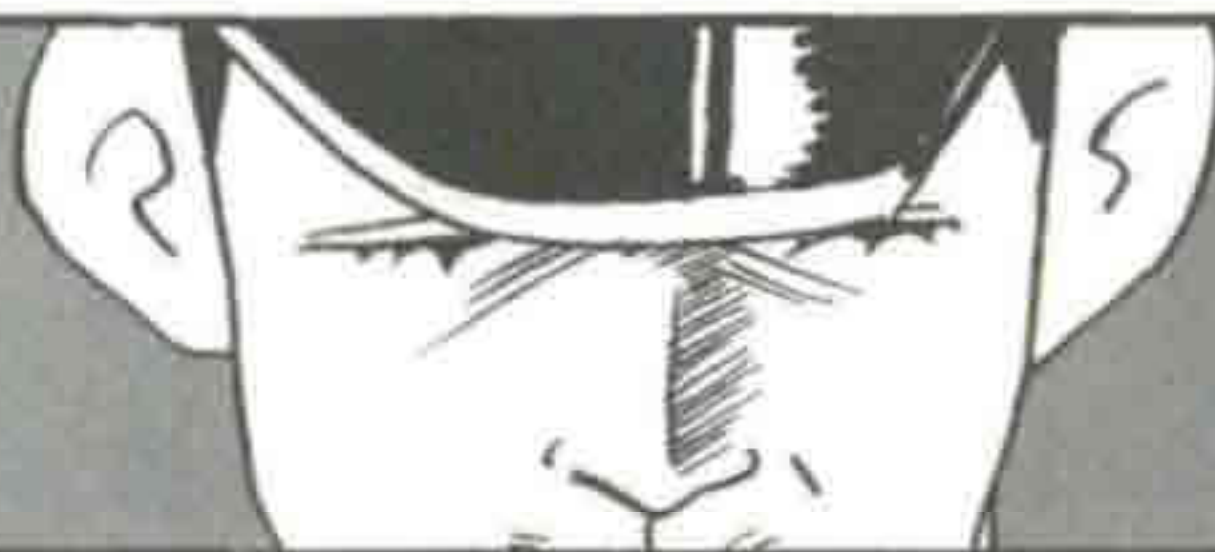
와아아

와아아

와

와

거기에서
그 명검을
빼앗았다는군요.



오오오!



이... 이런
괘씸한 조선놈~.
감히~.



그런데
그 칼이
분명
도요토미
히데요시께서
하사하신 게
분명해?

분명
하답
니다.



도요토미가(家)만이
쓸 수 있는 오동나무 문장이
칼에 새겨져 있으니까.



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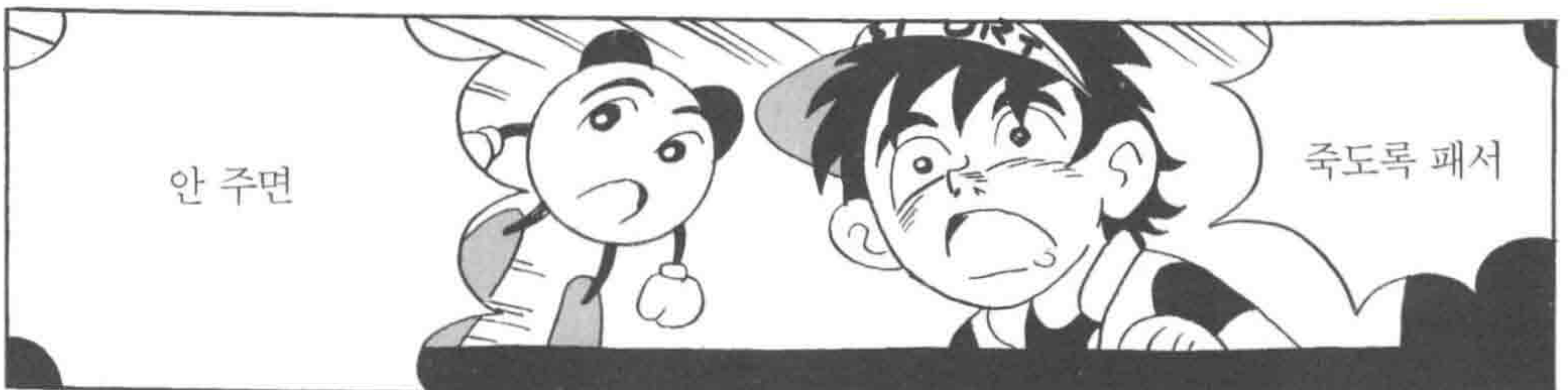
예, 7개.



음.



너희들 당장
그 최씨네 집에 가서
칼을 뺏아와.





당연히 칼을
안 내놓으니까
죽도록 패게 됐는데

아구구,
나 죽어.

아구구.



그 칼
안 내놓나,
이 조선놈아!

어디 있는지
모른다잖아,
이 일본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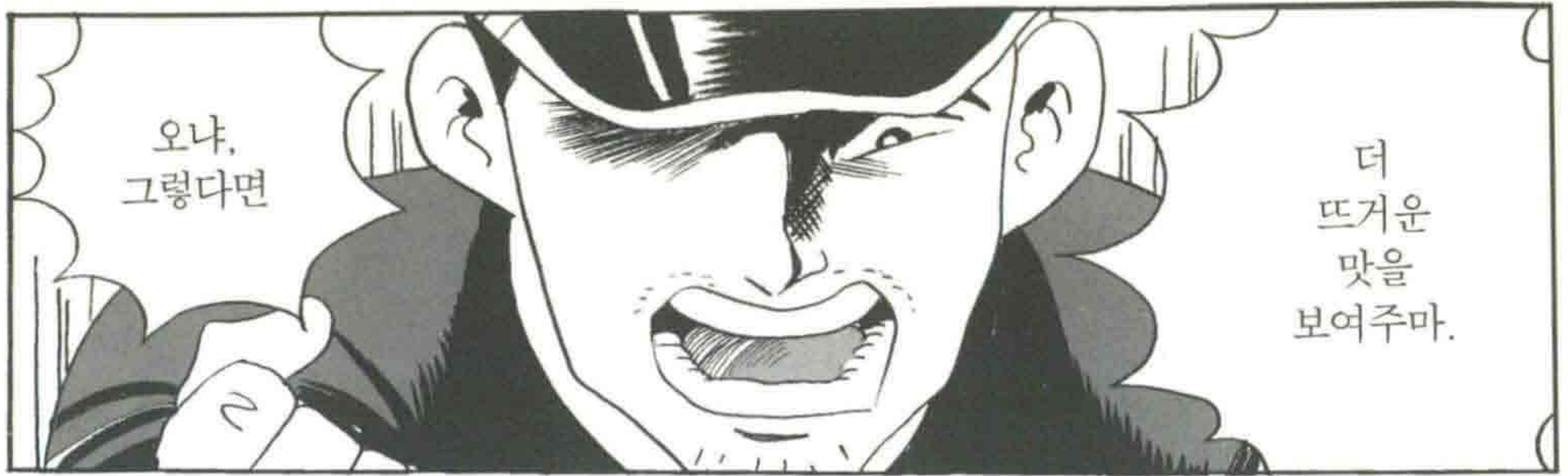


정말 몰라?

모르니까
모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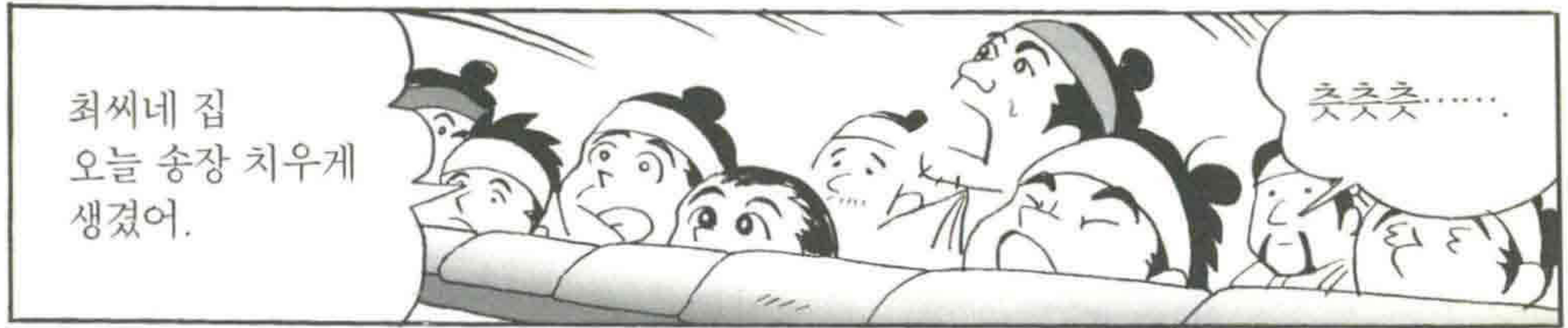


아구구.



오냐,
그렇다면

더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최씨네 집
오늘 송장 치우게
생겼어.

촛촛촛.....



이번엔 거꾸로 매달아
콧구멍에 부을 테니
물 한 빠게쓰 가져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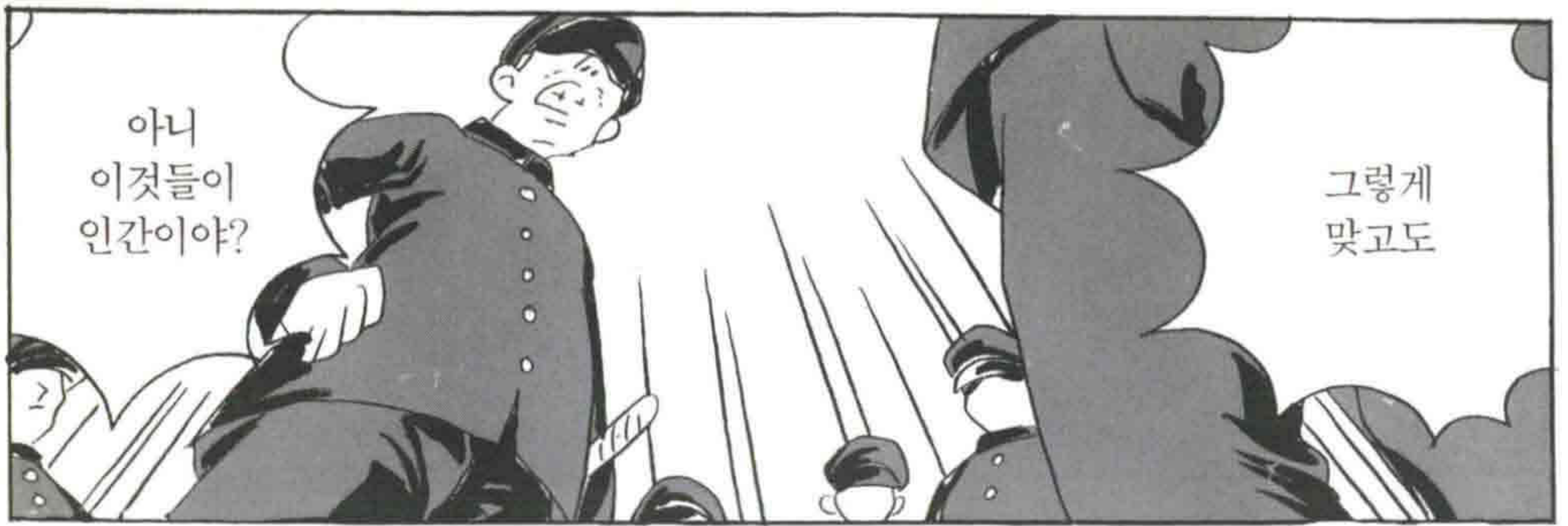
그래도 누가
말할 줄 아냐.
이 쪽바리들아.



그 칼이
어떤 칼인데
니들한테
뺏겨.



이렇듯 왜경들에게 모진 고문을 받았지만



아니
이것들이
인간이야?

그렇게
맞고도



칼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찾았어?



여기요,
부엌
깊숙한 데서
찾았습니다.

탁탁



자자

자자



바가야로, 이 칼에
오동잎 7개가
어디 그려져 있어?

바야

결국 집안을 다 뒤져봤지만



으~
독한 것들.



오냐, 오늘은
우리가
그냥 간다만
그러나.....



너희 집안은 이제
대대로 땅이나 파먹고
살 생각 해라.
조선 총독부에서
너희 벼슬길을
모조리 끊어
놓아버릴 거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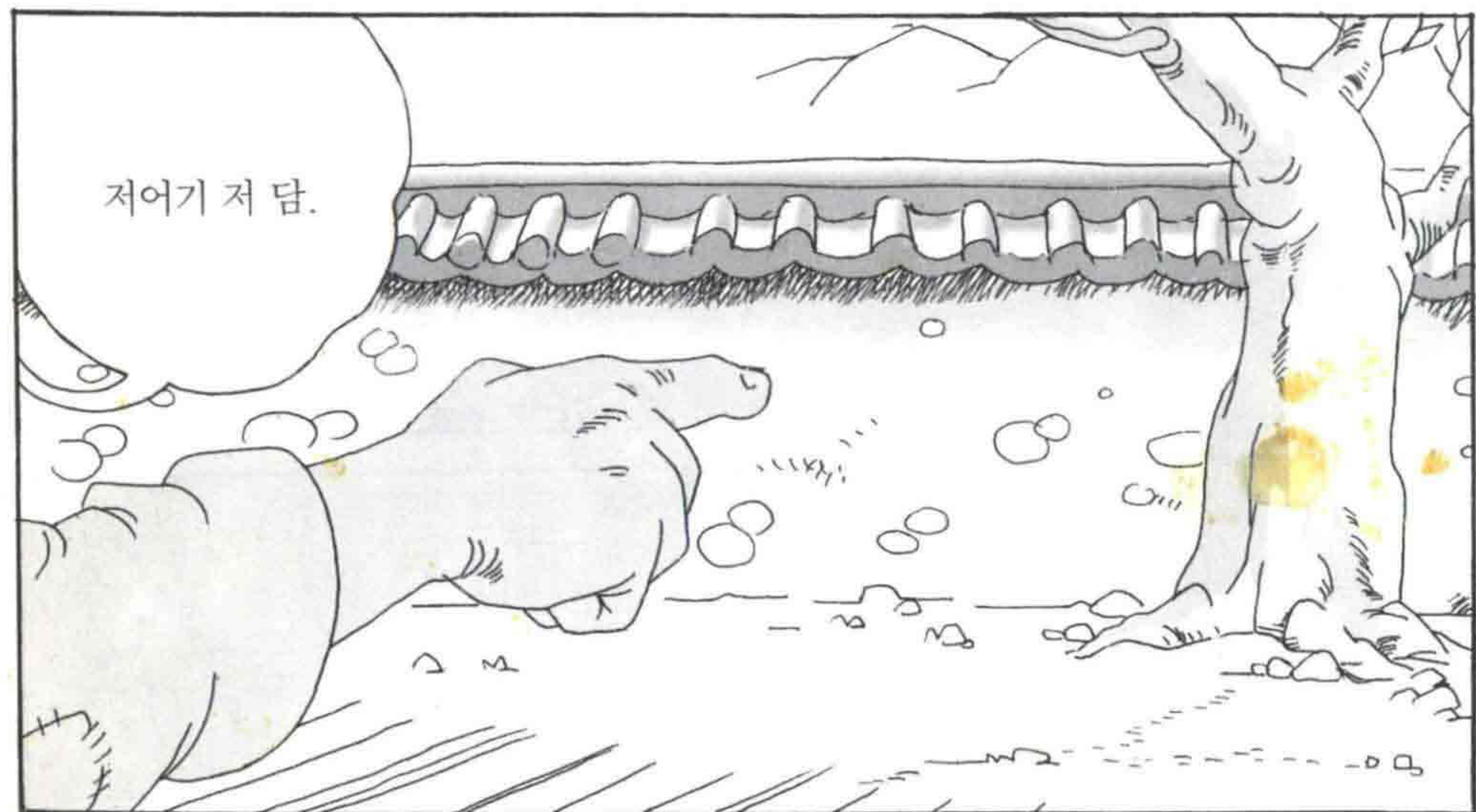
미쳤냐,
쪽바리
밑에서
벼슬하게?

돈주고
하라고
해도
안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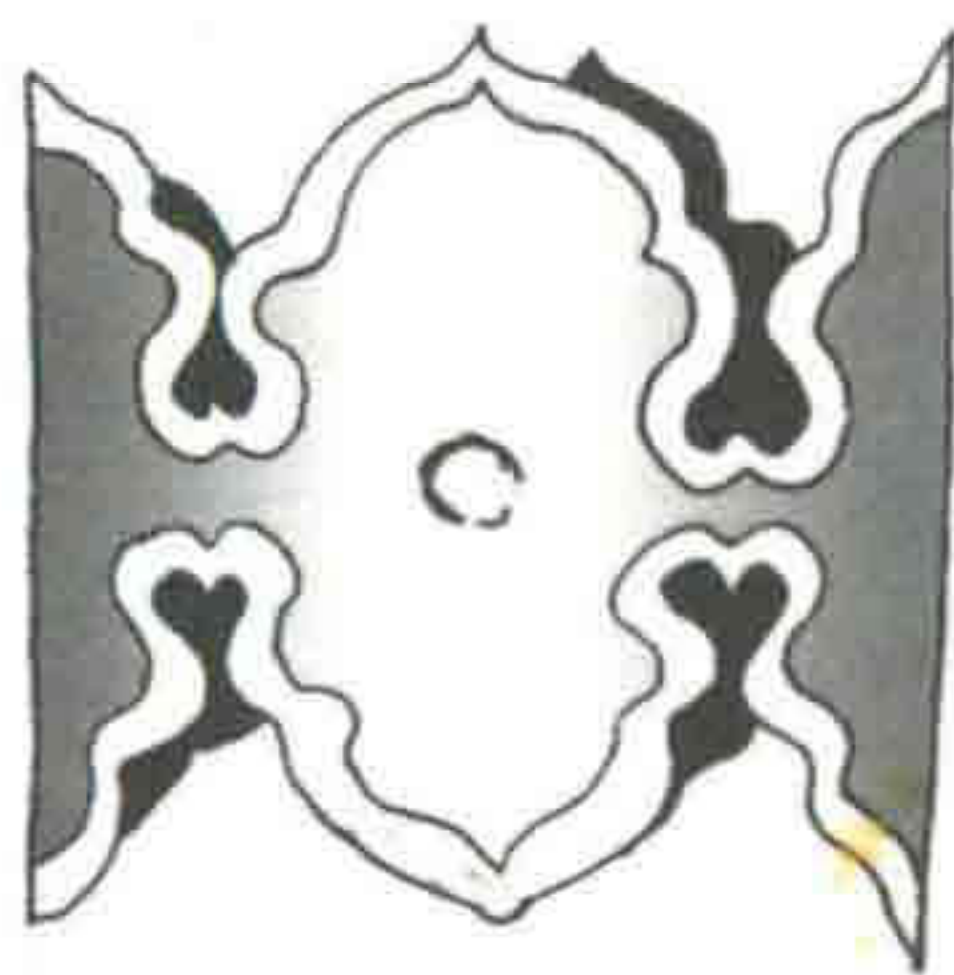
바로 언월도 이 칼이다.



8·15 해방까지 땅속에 묻혀 있다
빛을 본 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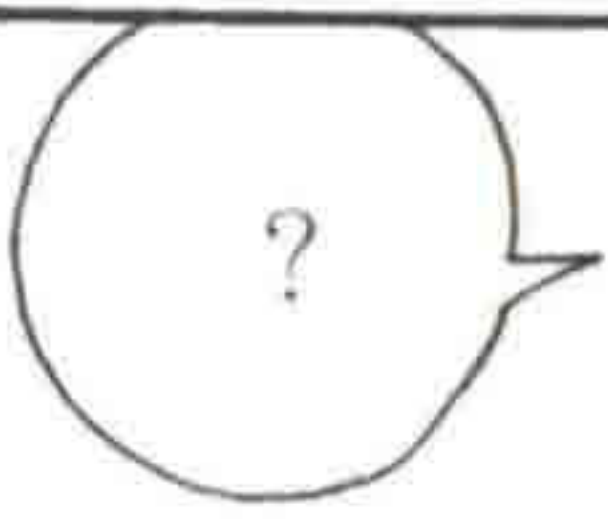
칼날과 오동잎 문장만 남은(자루는 썩어버렸다) 이 칼은
그래서 지금도 가문의 영광으로 전해져 오는데



바로 그 최경희.



앞에서 얘기한 대로 논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의 이 최경희. 줄거리를 잠깐 바꾼 것은



최경희에 대해서도 알아야
논개를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그럼 어떻게 최경희와 논개가
서로 만나게 되었으며



어떻게 최경희가 순국한 진주성에서
논개도 같이 장렬한 죽음을 맞게 됐는가.



우선 그럼
두 사람의
첫만남으로부터
얘기를 해보자.



논개의
결혼 사기
문제 때문에
만나게 된
그 알궂은 사건.



오잉?
논개 누나가
결혼 사기를
쳐?

에이
설마.



정말
이야.



우째
그런 일이.



제4장 호인비와 사기사건



논개 나이 5살 때 논개는 계속 장수에서 살고 있었고



최경희는 이때 마침 장수의 현감으로 와 있었다.





논개 누난
넘넘 이뻐.
그치?

응!
너무
이쁘고
착해.



아! 나도
얼른 커서
누나처럼
돼야지.



논개야,
논개야.

?



훈장님이
글쎄.

아버님이
왜요?



훈장님이
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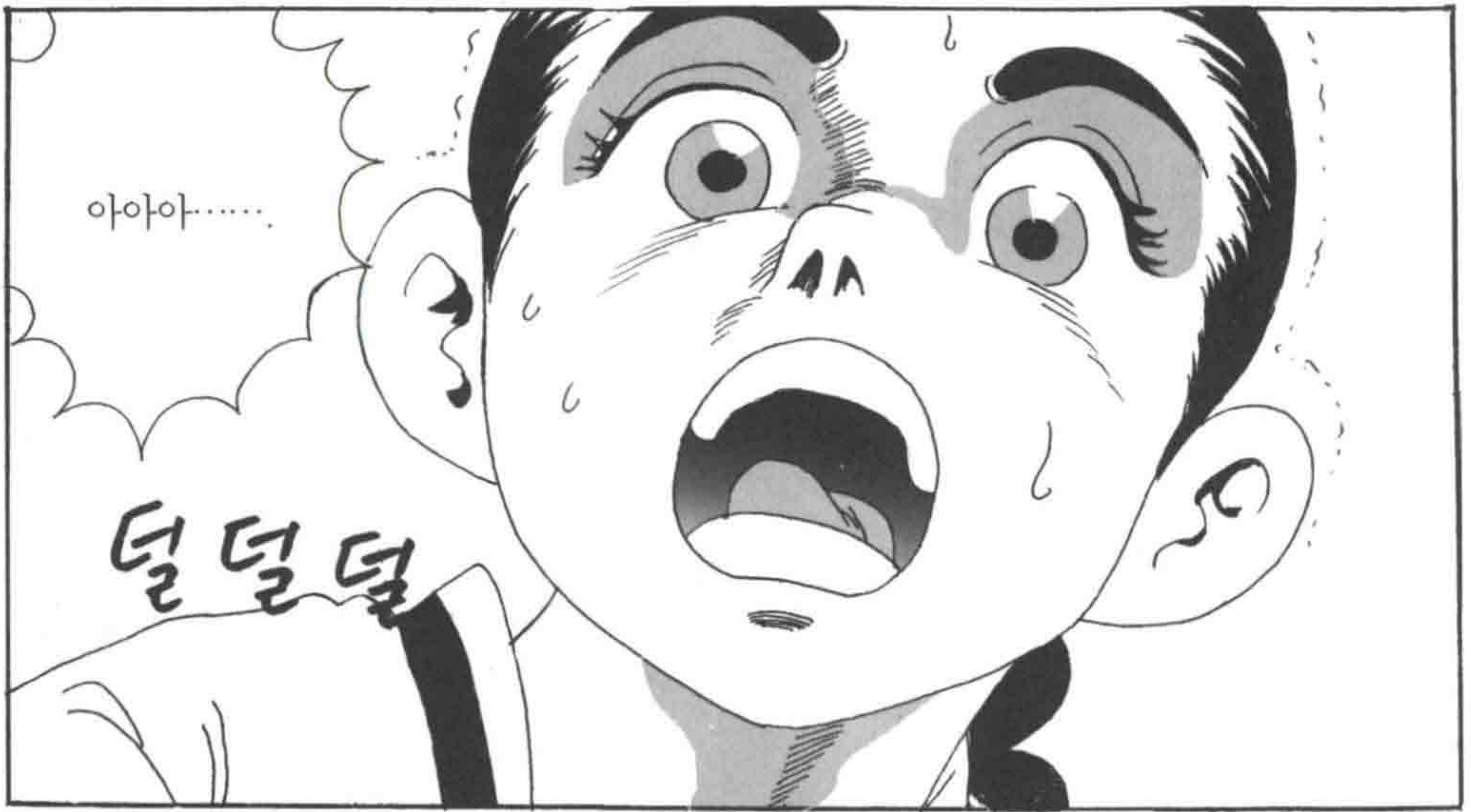
예에?



아버지가
도... 돌아가셨어요?



그래,
결국 눈을
감으셨지 뭐냐.



여보,
당신이 먼저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평생 훈장을
했으니
밭빼기라도
남긴 게
없구.
에구구.
불쌍해라.



논개야!
우리 불쌍한 논개야.
이제 우리 모녀
어떻게 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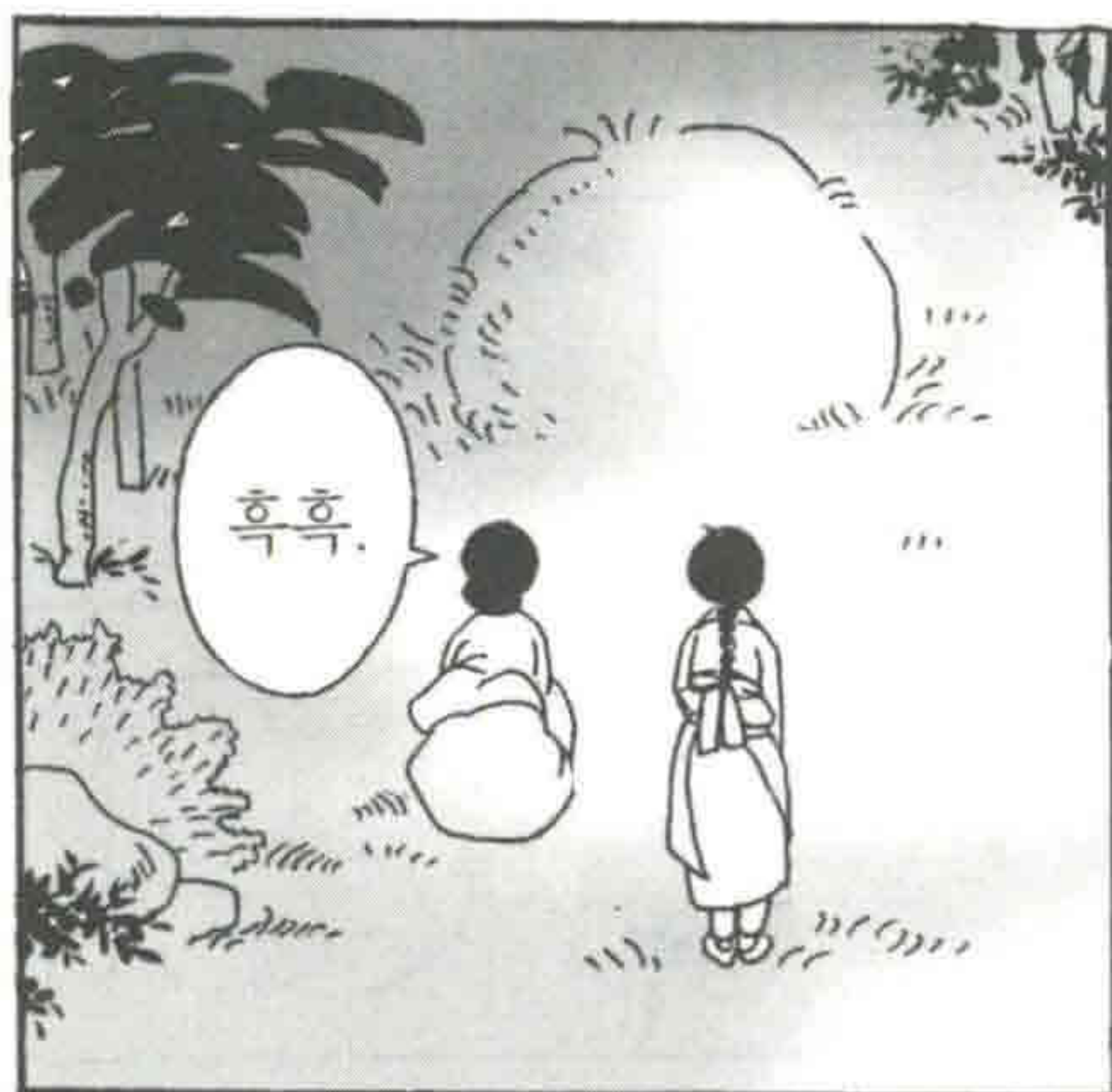
후.

후.



너하고 나
세상에
단 둘인데.

어머니,
그만 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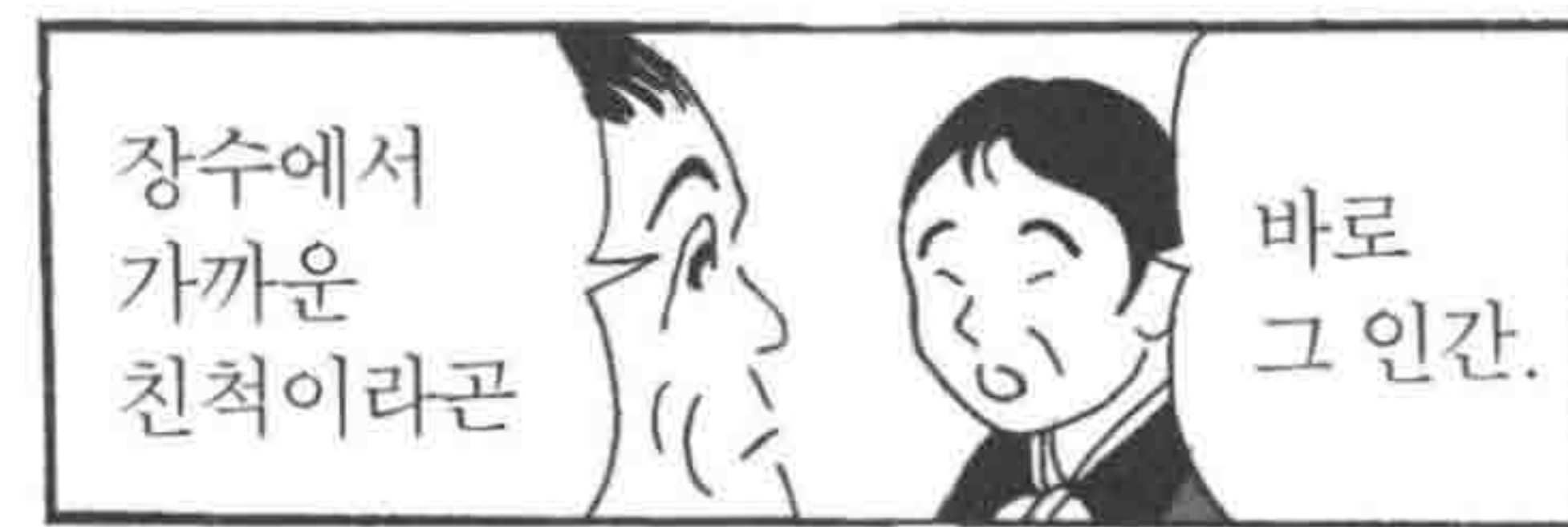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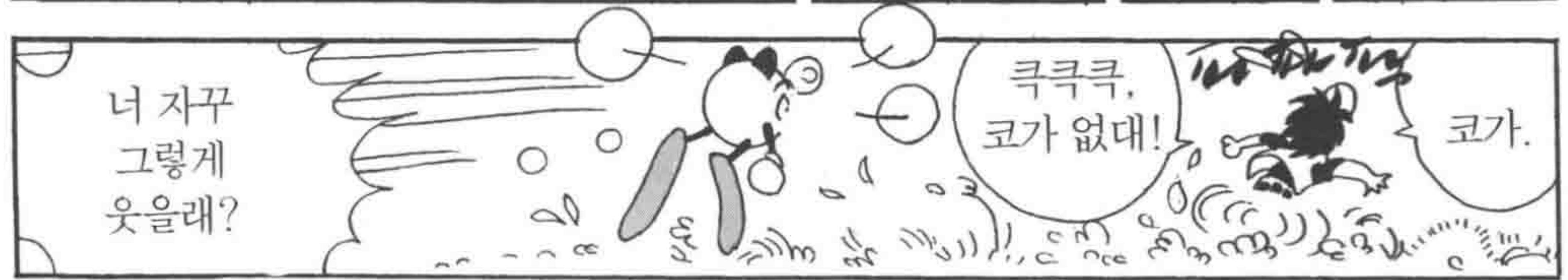
후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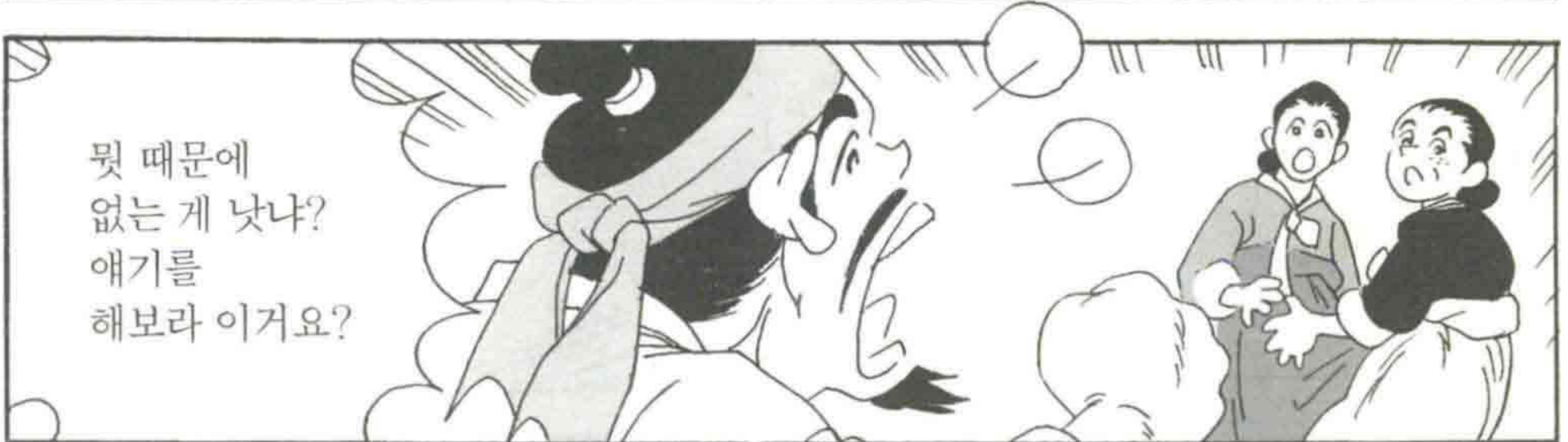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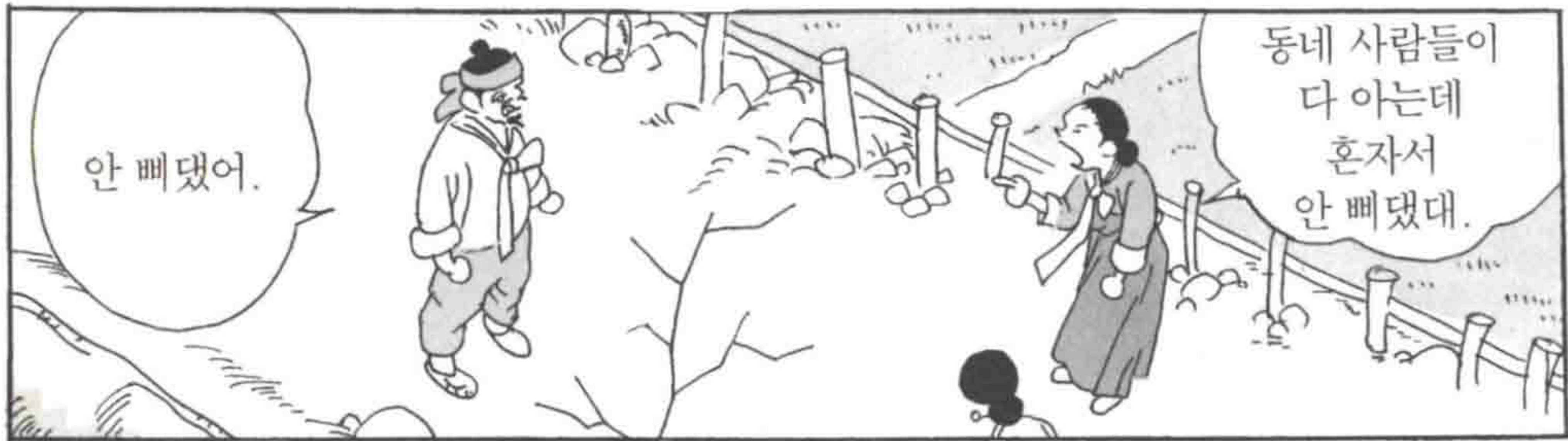
이때의
논개 나이 5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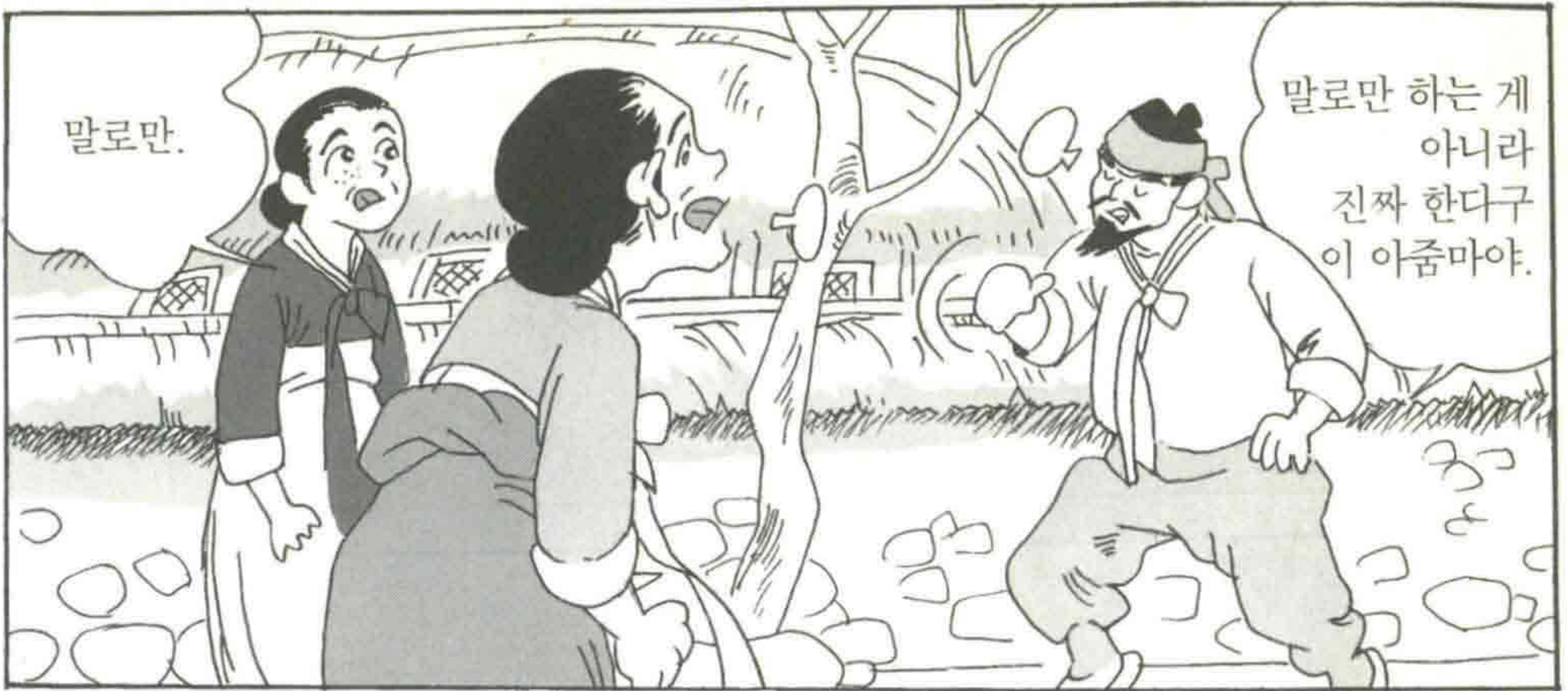


집안에서 무남독녀 외동딸이었는데
이젠 아버지조차 안 계신 것이다.











오냐.
두고 봐라.

내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더니 주달무는 논개네 집으로 쏙살같이 달려갔다.



허엄,
여기
주달무 왔수.
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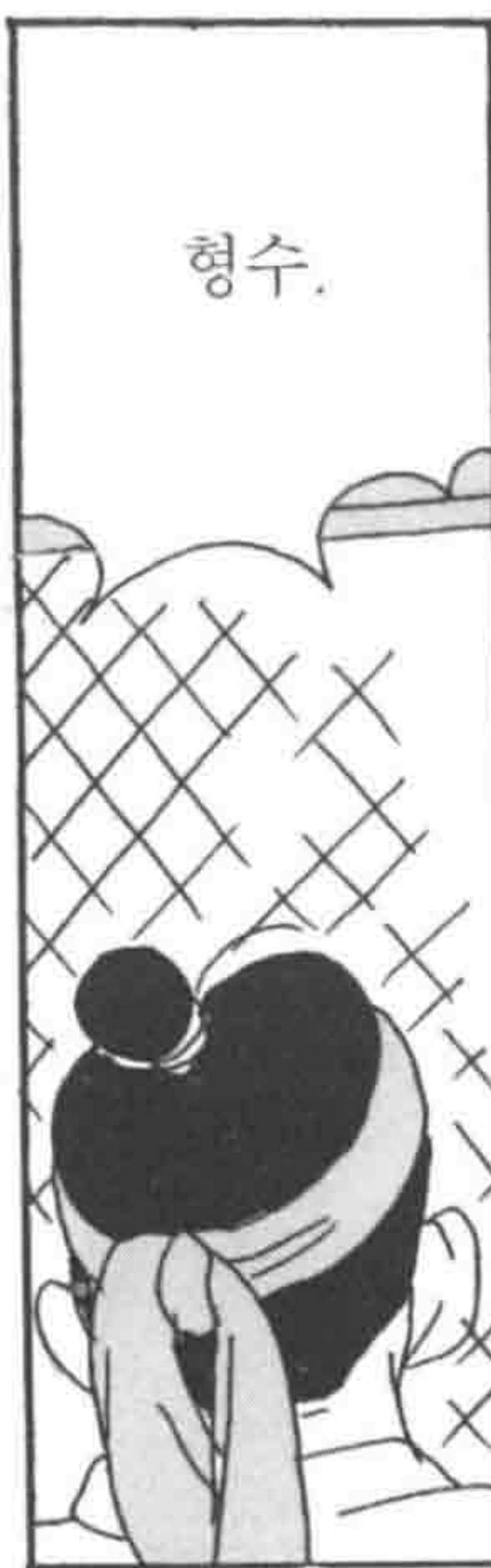
형수.



아...
안녕하세요.



어험, 넌
누군데
남의 집에
와 있냐?



형수.



삼촌이
왜 자주
온다니?



오늘은
내 쪼까
중요한
얘기 좀
할라우.

그런데 삼촌 얘기는 정말 귀가
솔깃할 만한 놀라운 얘기였다.

아니, 삼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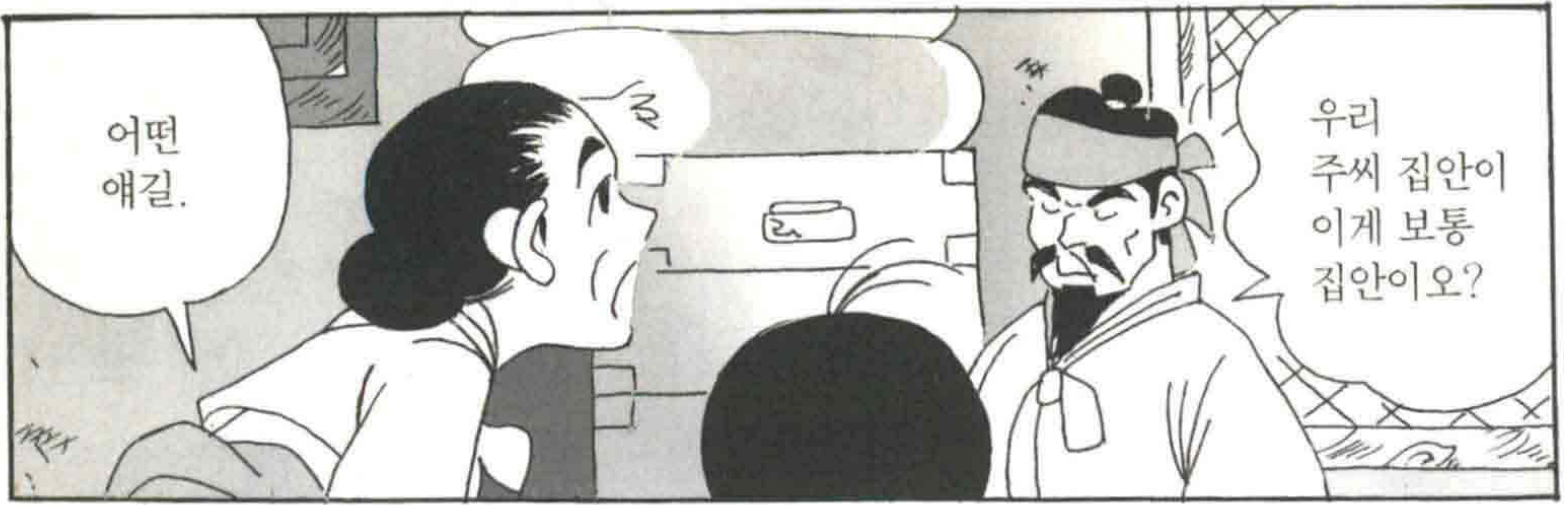
김풍헌이
집에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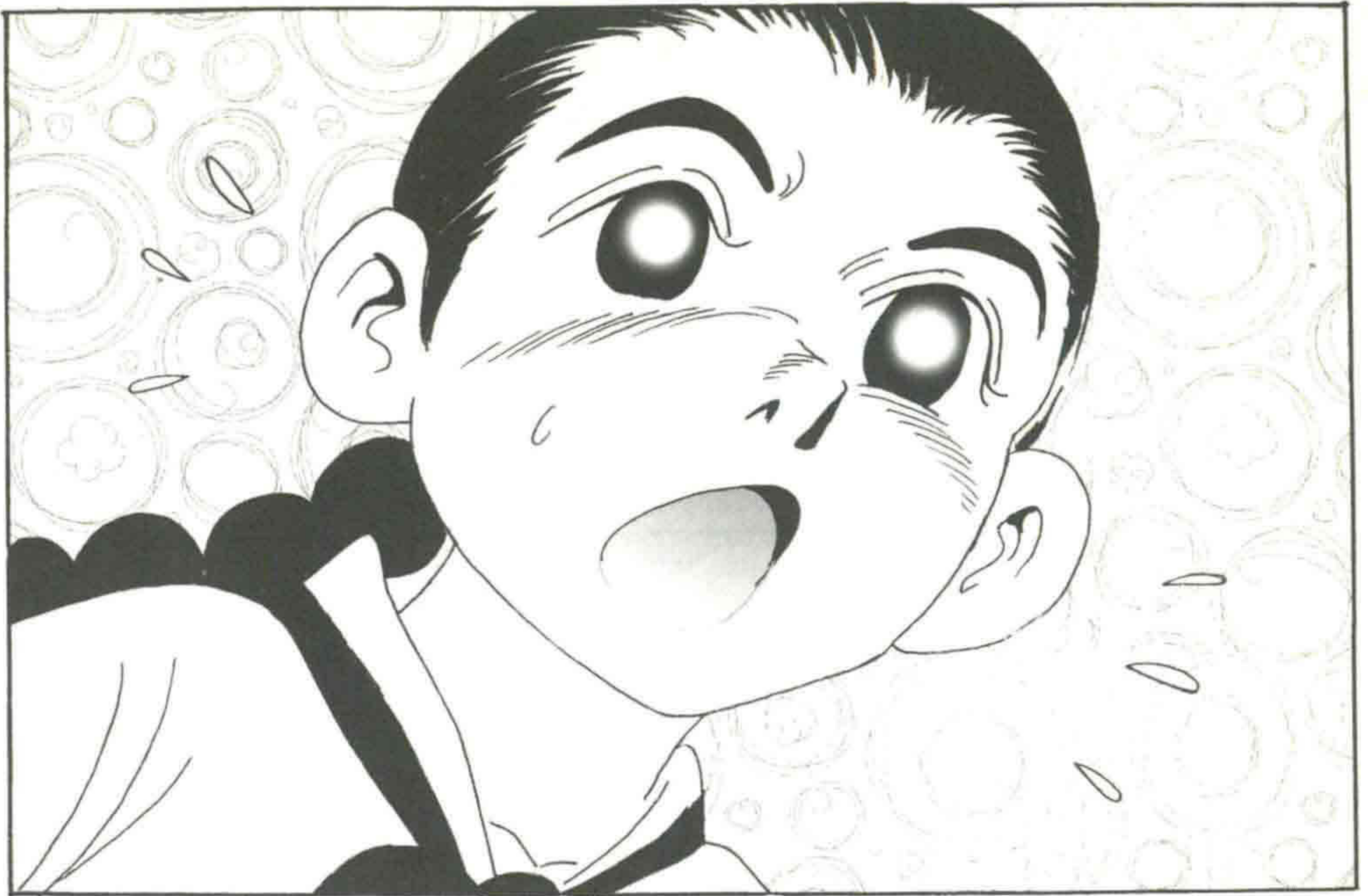
허허허~.
형수도
김풍헌이는
알고 있구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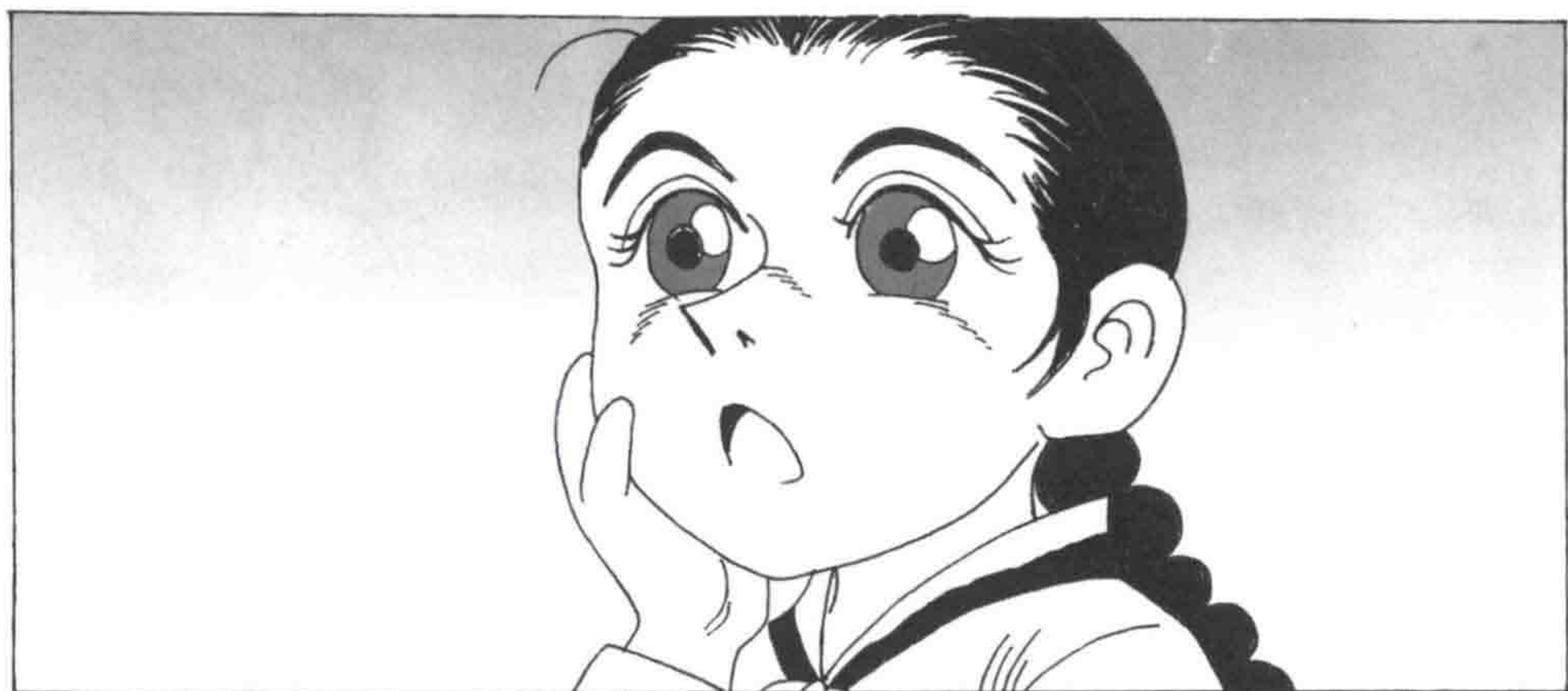
알긴
알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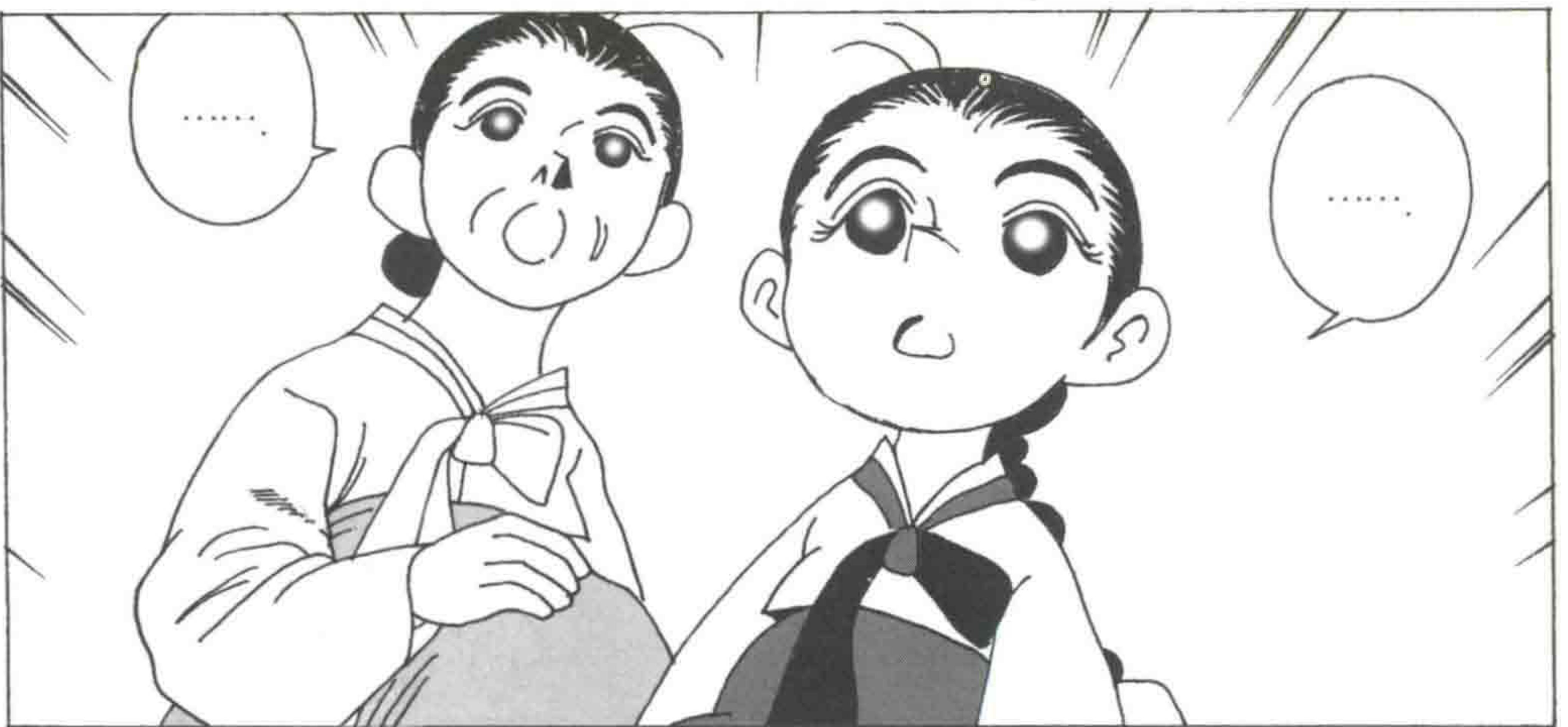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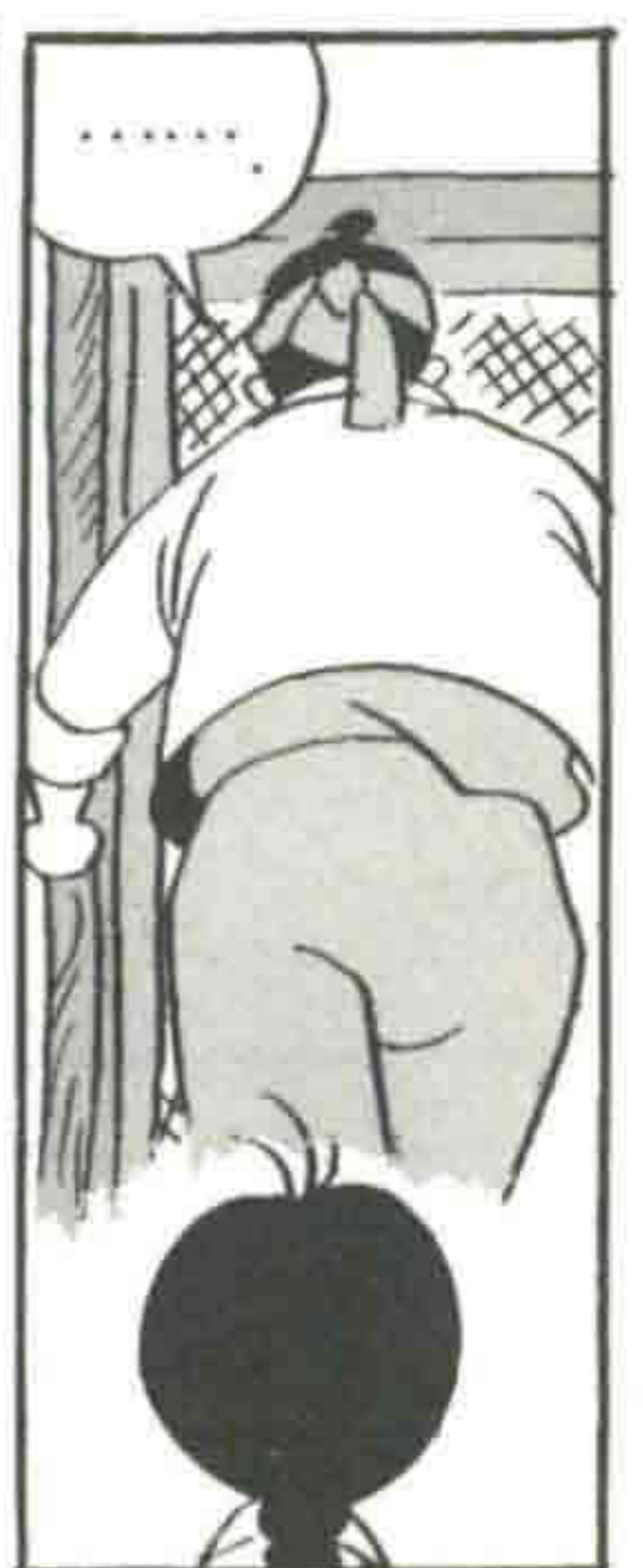
논마지기,
밭마지기 많은
이 고을 알부자
김풍헌.

그 김풍헌이가
글썸 논개 애길
자주 들었다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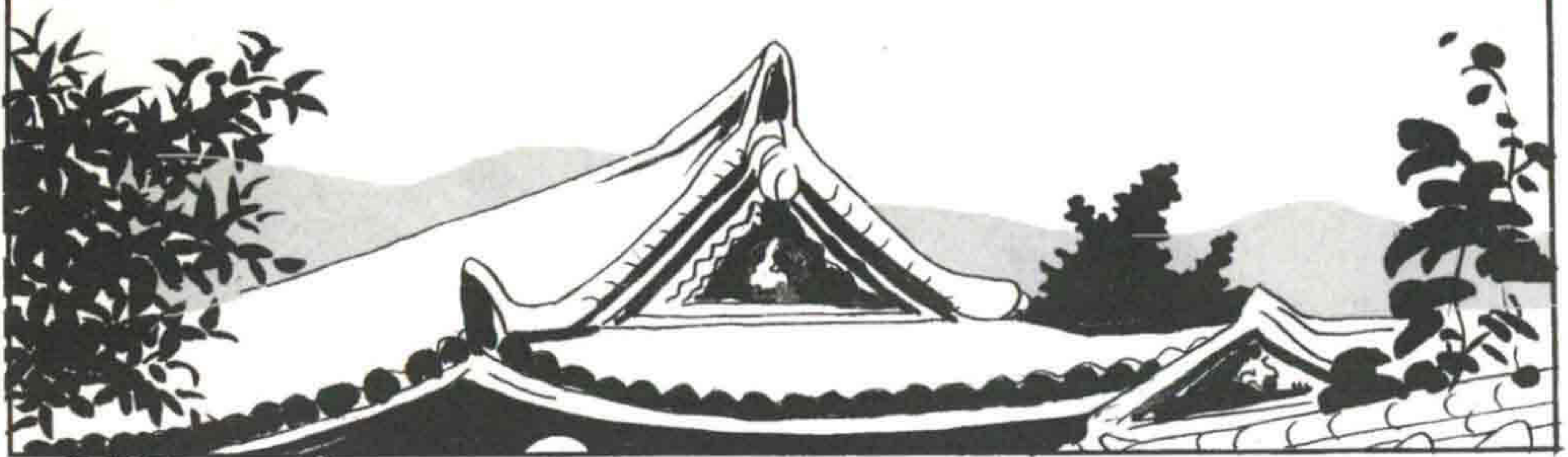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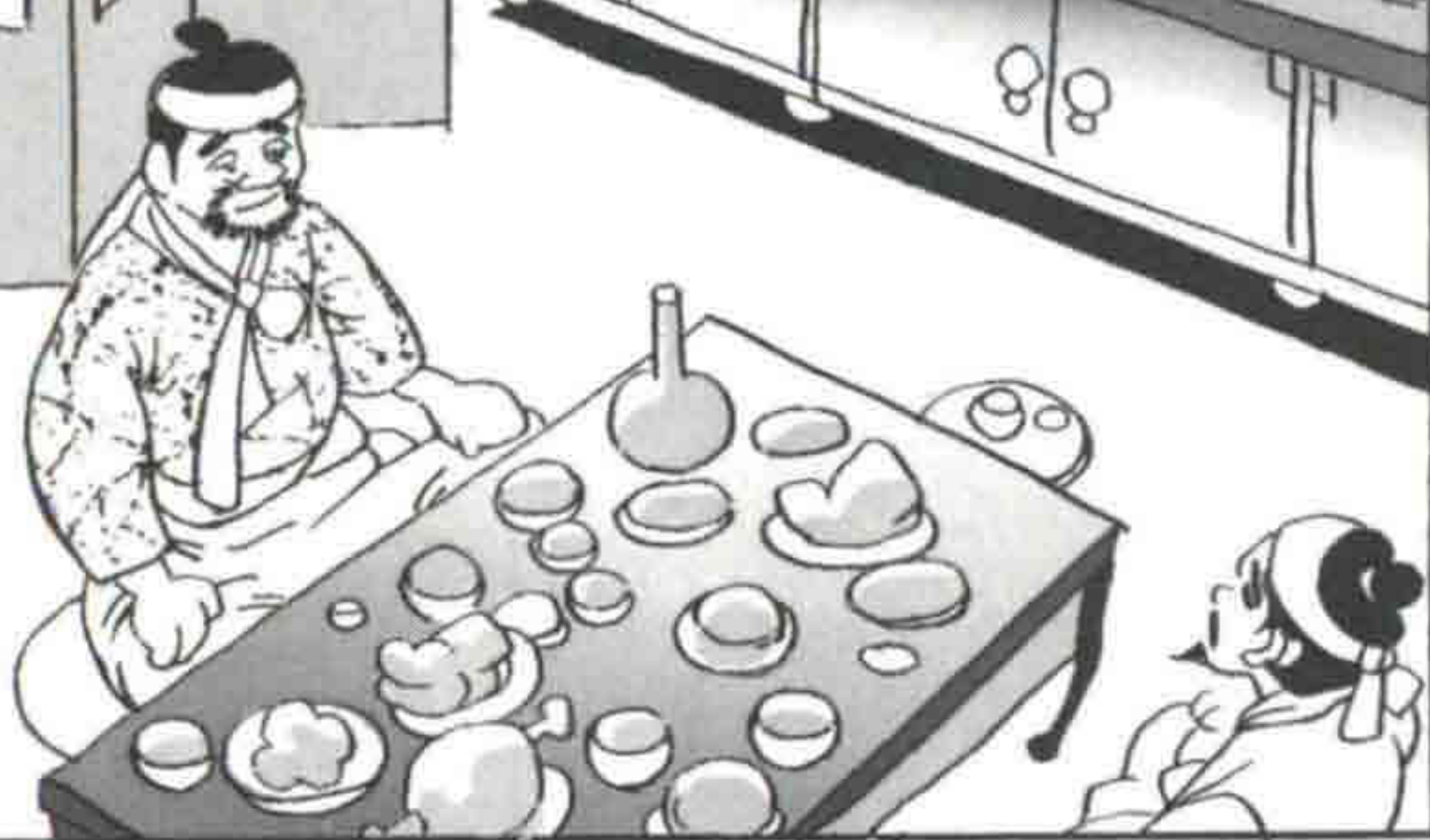




문제의 그 졸부 김풍헌네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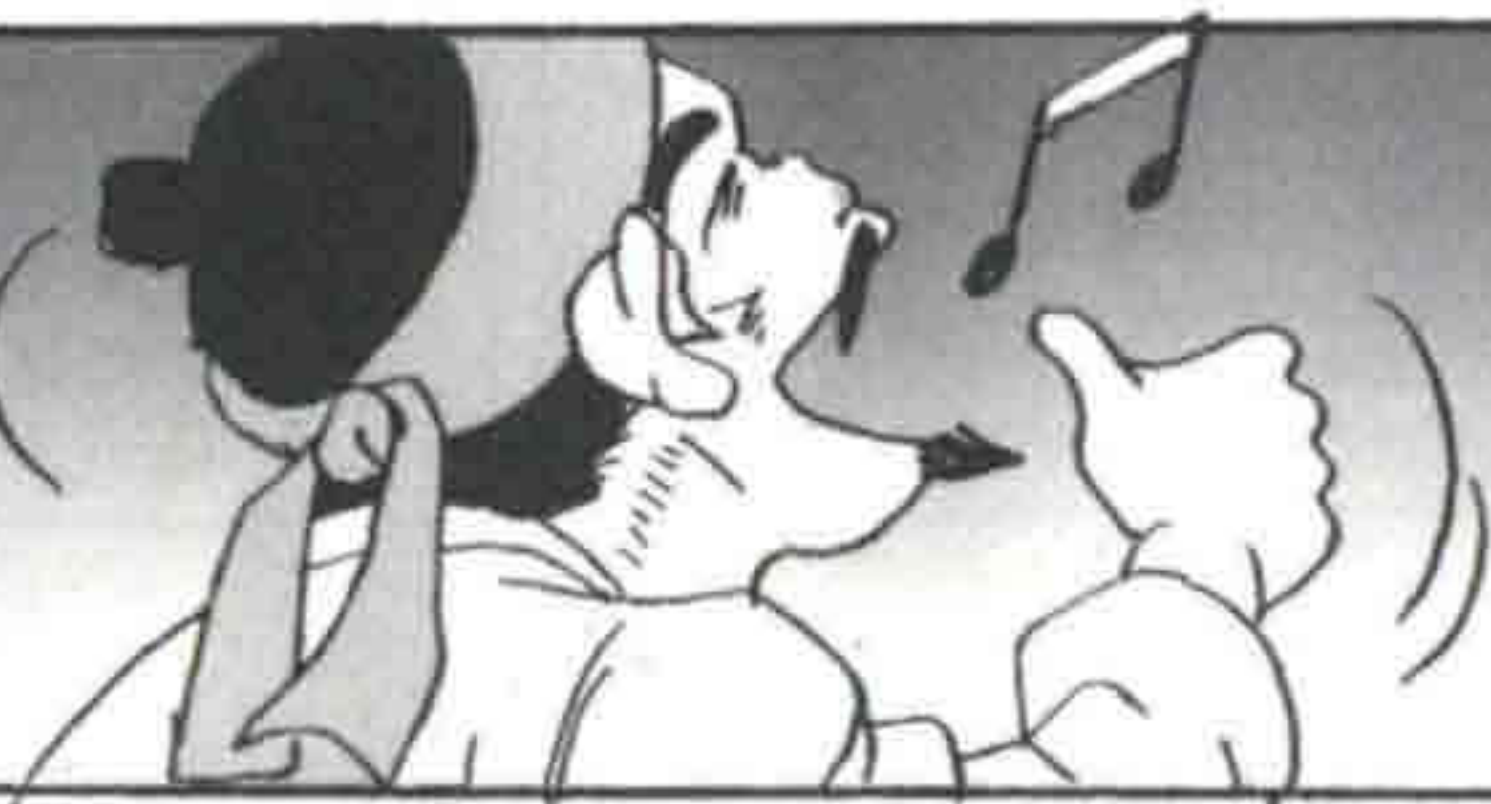
논개 에미가
논개를
민며느리로
주겠대?



내가 누구니까?
주달무 아님
니까?



주변머리가
좋아서
주!



달달달
달변이라서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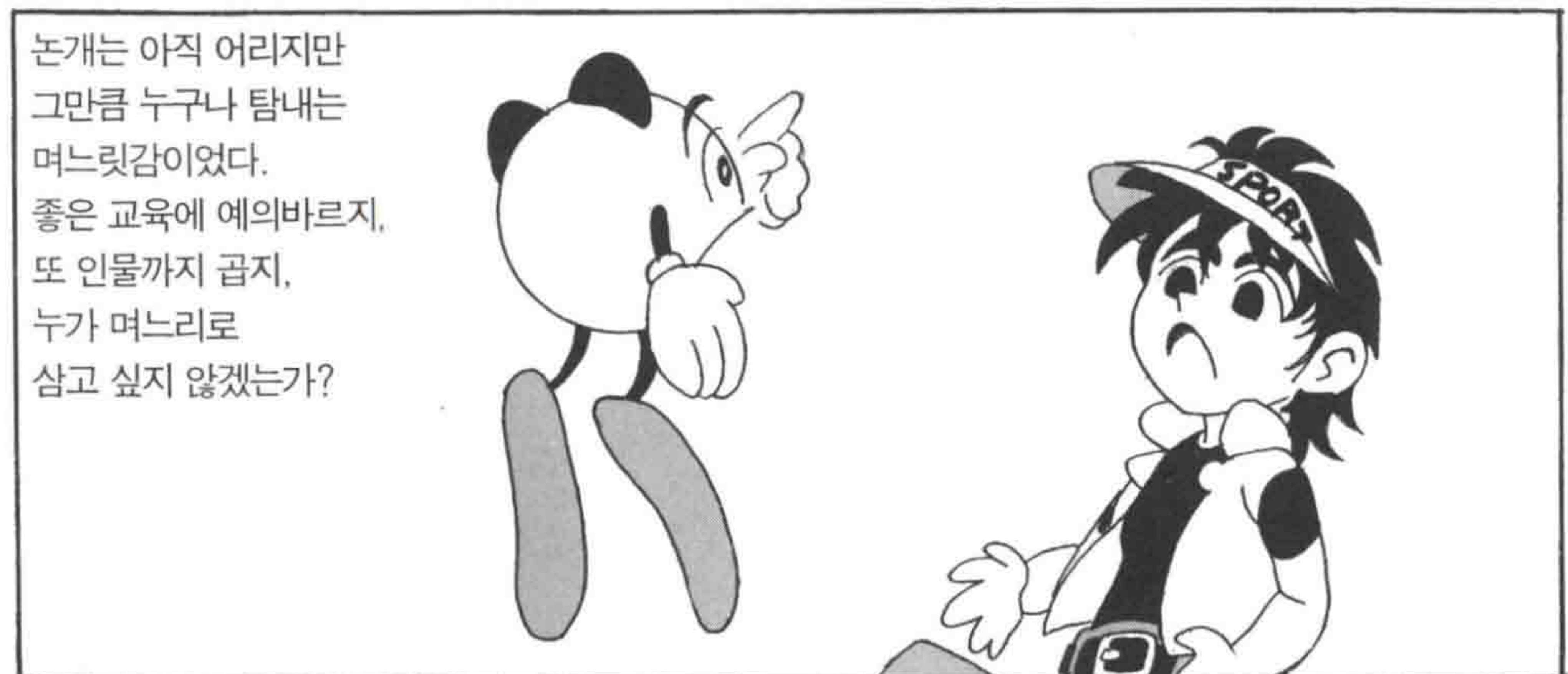


문제는 또
그으냥
해결하는 무.
그래서
주달무
아닙니까.



헤헤헤.







그럼 이제
롤루랄라하며
주달무가
가는 곳이
어디일까?



술집이지.

명월아!



○○○,
삼촌이란
사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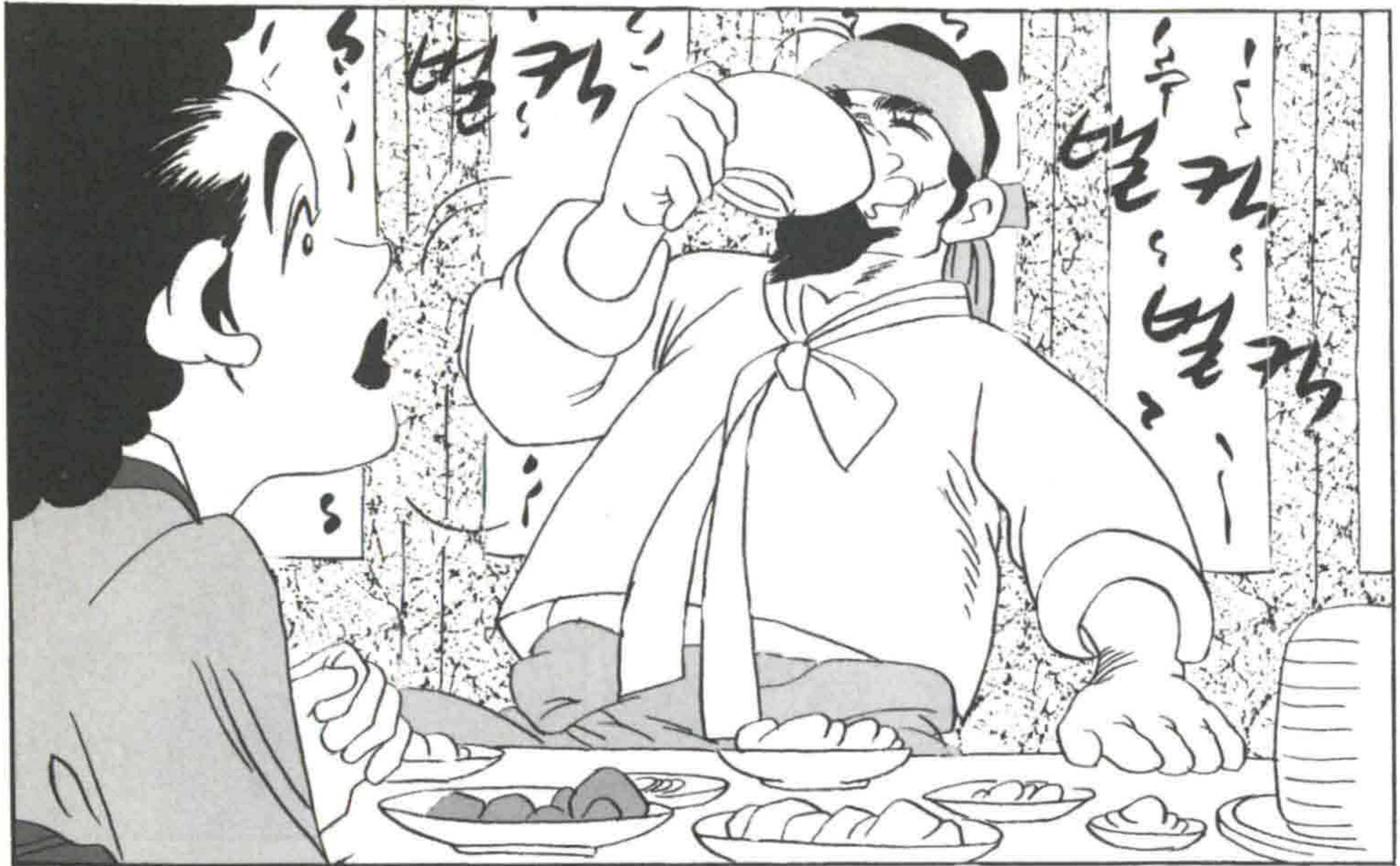
저기는
술집이잖아.



여기 술 한상
질편하게
차려오고~
또



새로운 시악시 좀
쭈쭈 뽕뽕
있으면
들어보내라.
알았냐?





만리장성을
쌓는 것
이니라.

핫핫핫.

.....



허허~, 그러나
요즘의 만리장성은
말이야 벽돌로
쌓는 게 아냐.
자~.



그럼 뭘로
쌓나요,
주씨 어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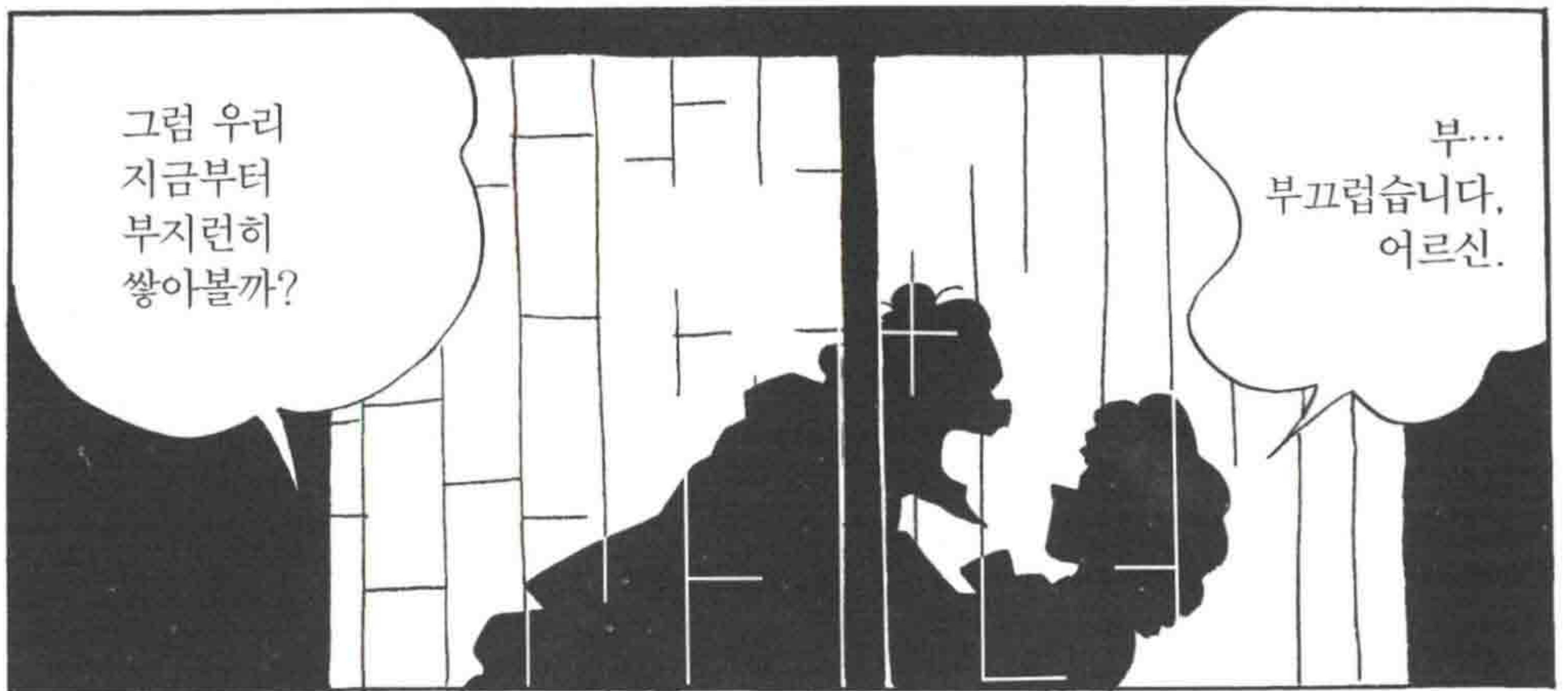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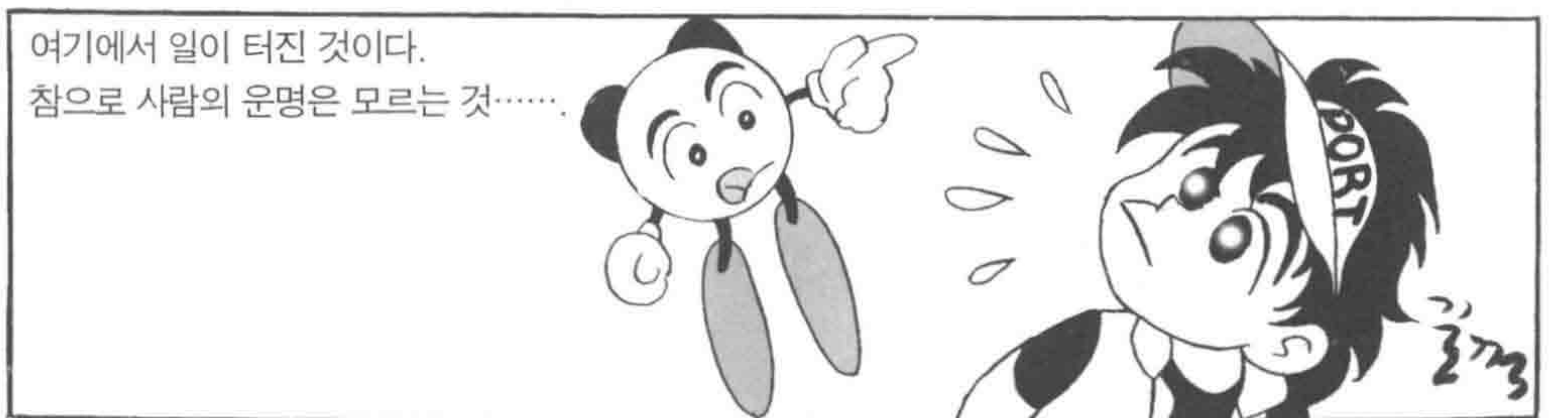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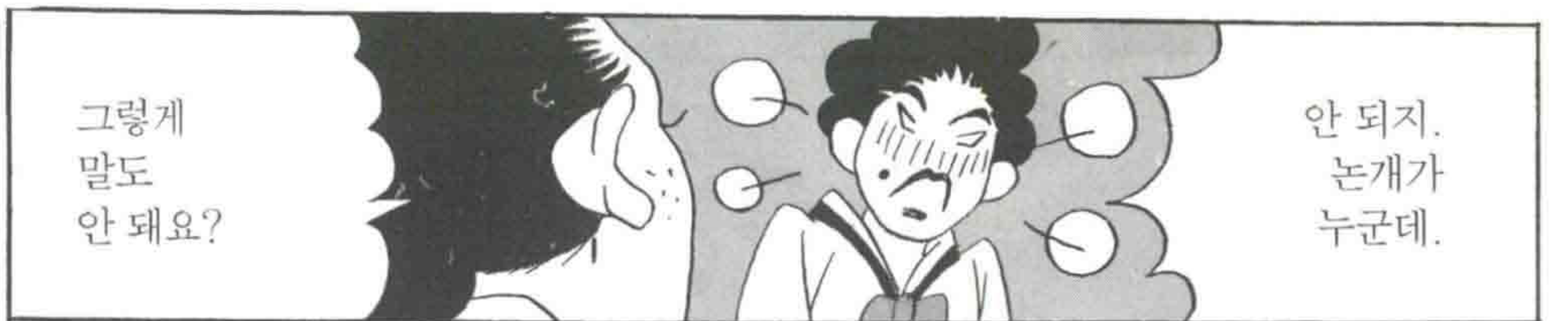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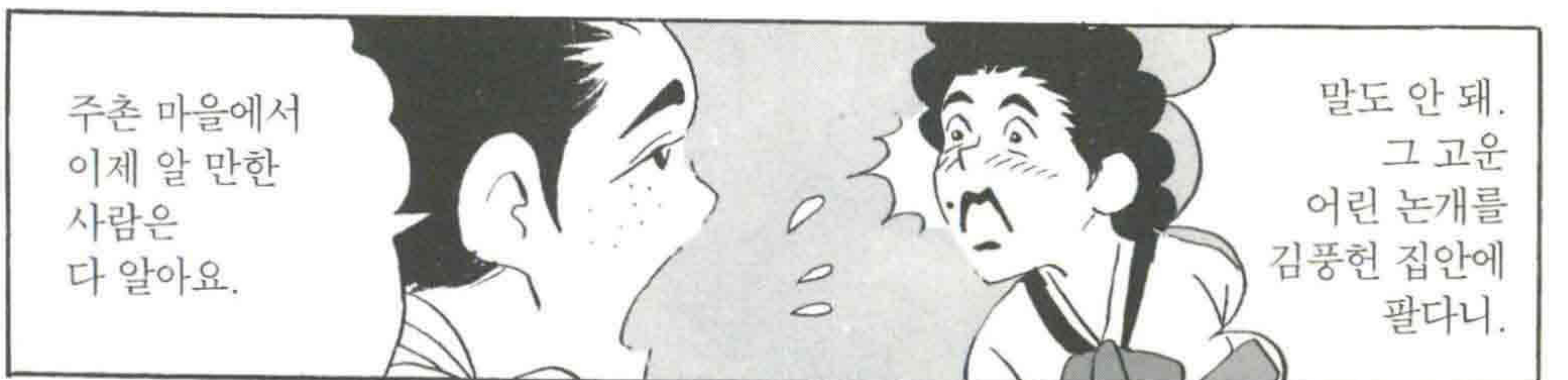
요거~.

짚!



엽전으로
쌓는 것이니라.
핫핫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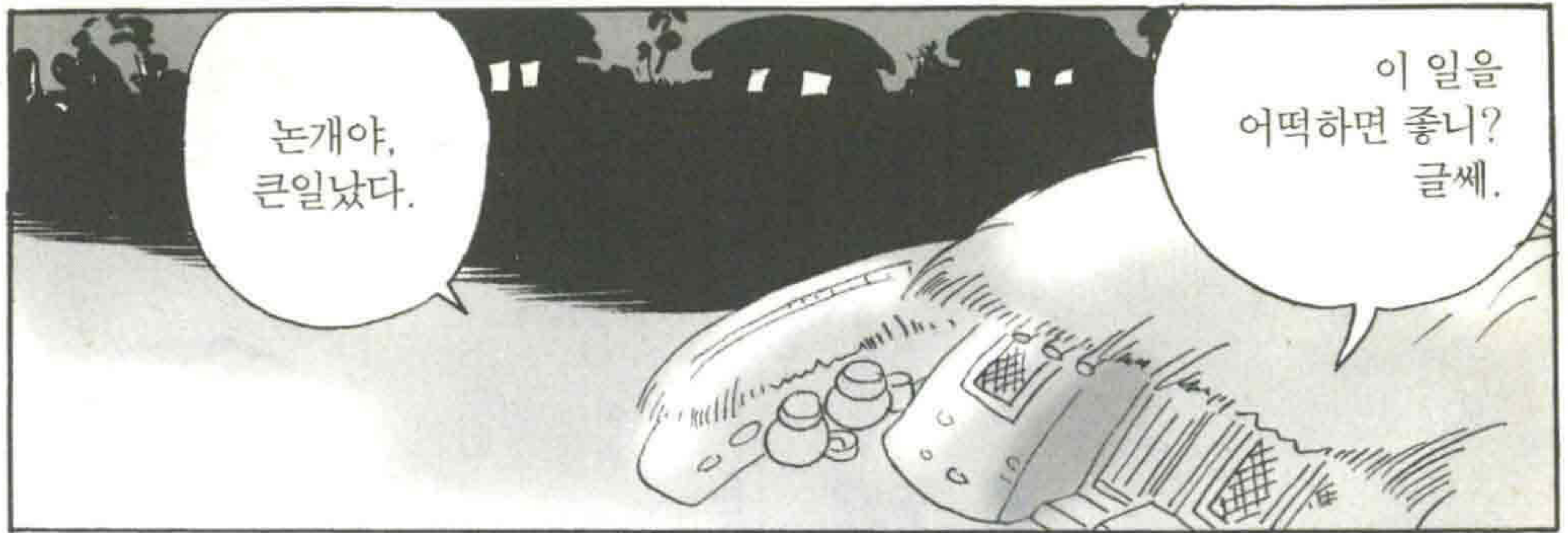




제5장

논개와 칩경희의 만남





논개야,
큰일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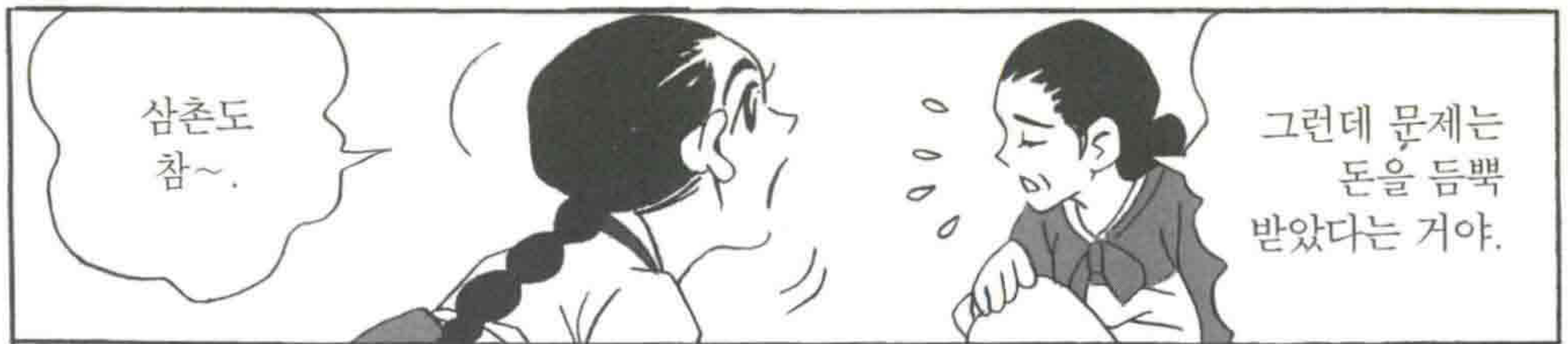
이 일을
어떡하면 좋니?
글썄.



어머니, 나를
그런 집
민며느리로
파는 거네요.



그...
그렇지.



삼촌도
참~.

그런데 문제는
돈을 들킨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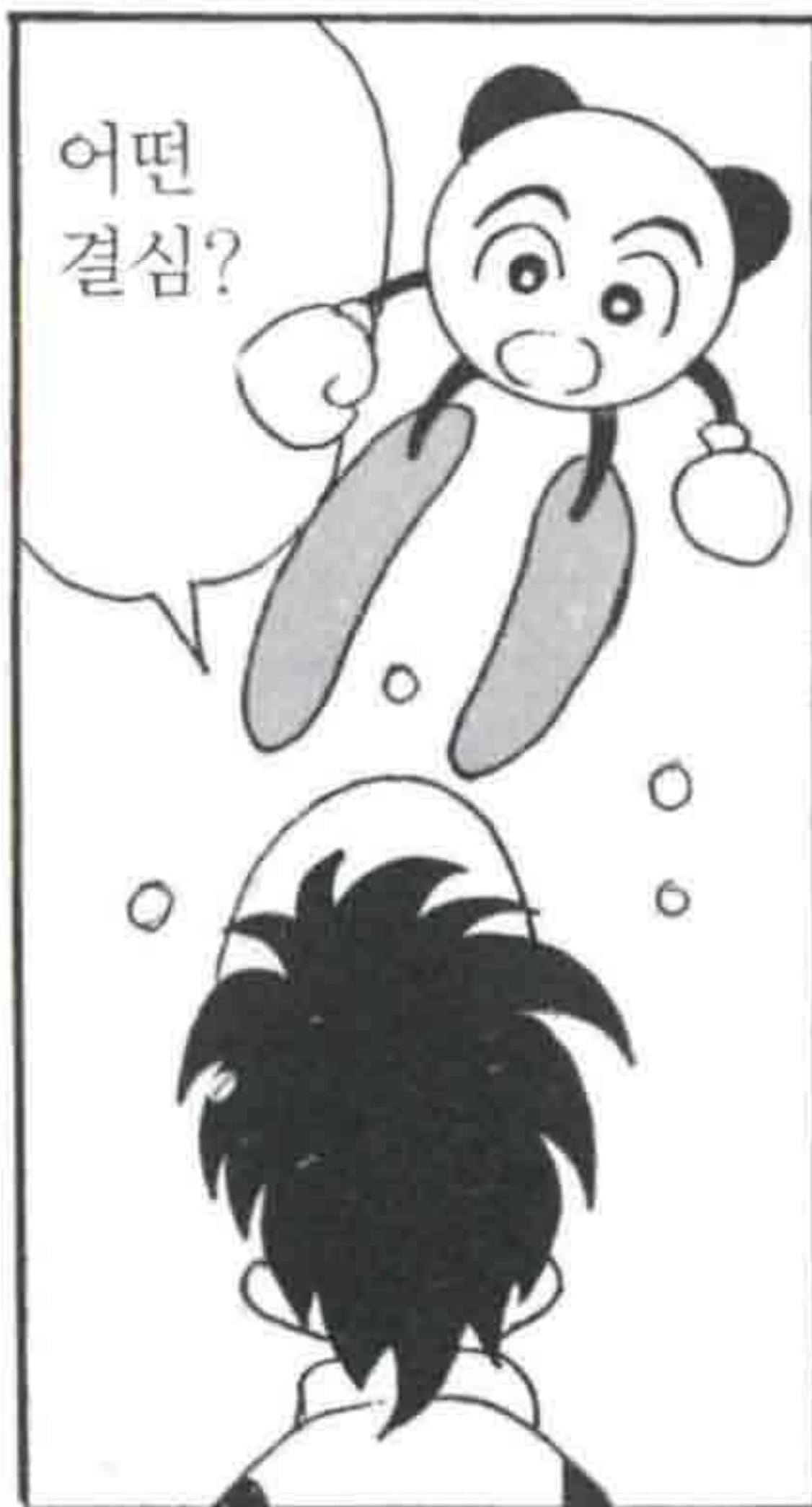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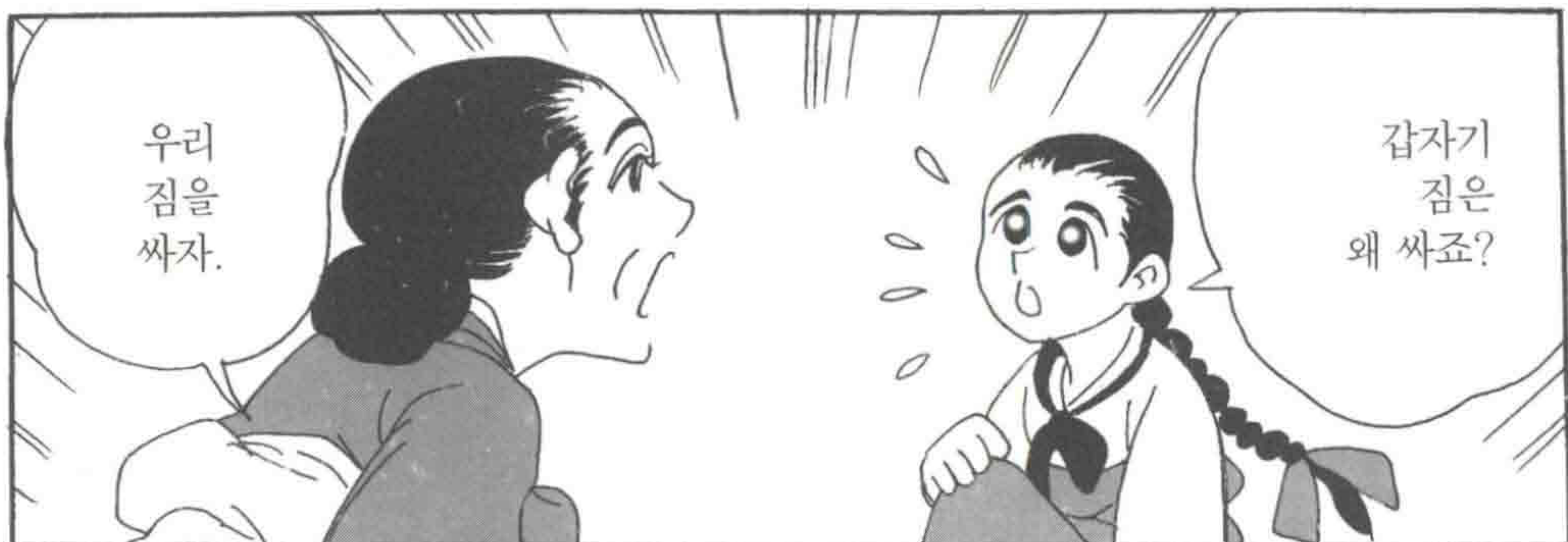
이젠
땅문서까지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

땅문서
까지요?



두 모녀는 그날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
짐을
싸자.

갑자기
짐은
왜 싸죠?



에에?

주촌 마을에서
도망가잔
말이다.



너를 김풍헌
집에다
팔 수는 없어.
알겠니?



두 모녀는 새벽 찬이슬을 맞으며
집을 나왔다.



슬픈 일이었다.

이 두 모녀는 침담한 마음으로
어디로 발길을 돌렸을까?



경상도
함양이란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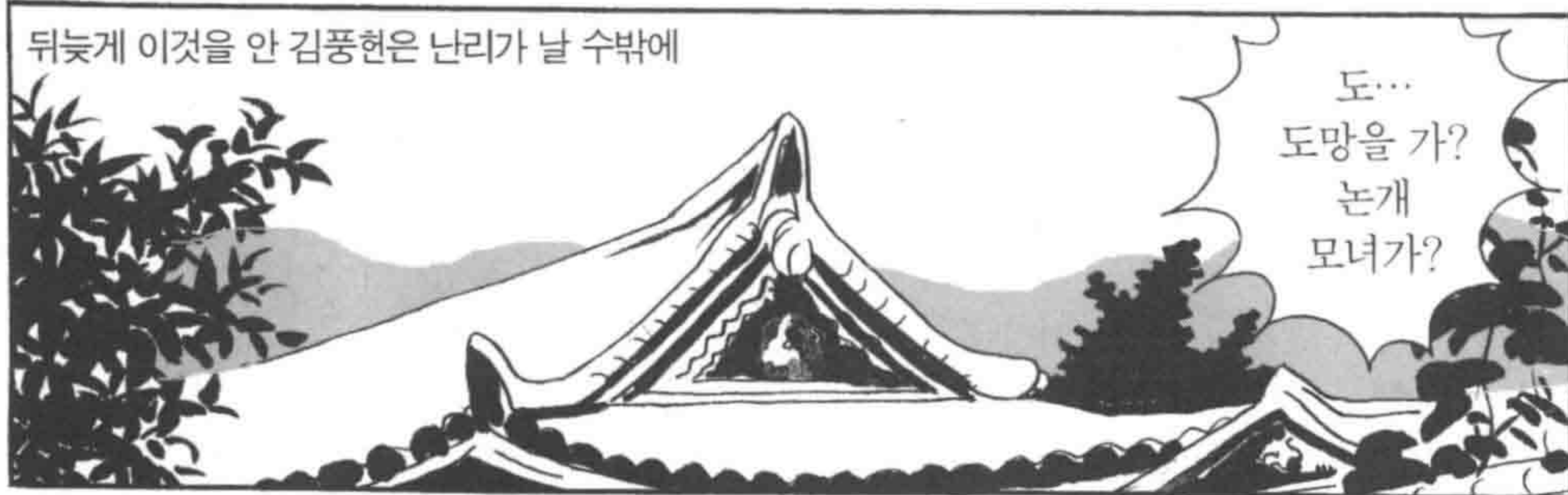


함양?



논개 어머니인 박씨 부인 친정이
함양군 서하면 봉정 마을이란 곳이기 때문.

뒤늦게 이것을 안 김풍현은 난리가 날 수밖에



도...
도망을 가?
논개
모녀가?

그...
그게
정말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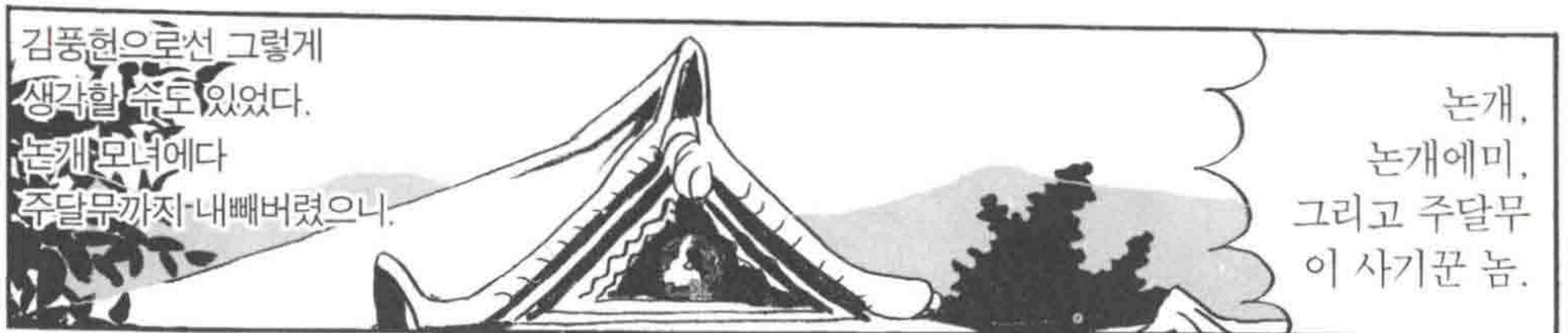
아이고
억울해라.

이것들이
나한테
사기친 거야.



그것들이
짜고서
해먹은 겁니다.

그렇다니까
글쎄.



김풍현으로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논개 모녀에다
주달무까지 내뺐버렸으니.

논개,
논개에미,
그리고 주달무
이 사기꾼 놈.



오냐~.
내 너희들을
관가에 고발해
전라도 경상도
온땅을 뒤져
기어이 붙잡고
말 테다.



가자.



장수 관아.



사또오
나리.

저는
조선에서
지금 제일
억울한
사람입니다.



저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그 사기꾼들을
속히 잡아
주소서.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얘기했는데.



허엄
그래?

듣고 있는
이 장수현감이
누구인가.



바로 최경희였던 것이다.

결혼을
하겠다고
약조하고선
돈과 패물,
그리고

땅문서까지
받아 작당해서
도망을 갔다?

조선 중기의 무인이자 문인으로 호는 일휴당, 시호는 충의,
본관은 해주. 1532년 전라도 화순에서 태어나 기대승 등의
문하에 들고 이후 벼슬길에 오른 후 1592년 의병장으로
의병 활동을 시작해 진주성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친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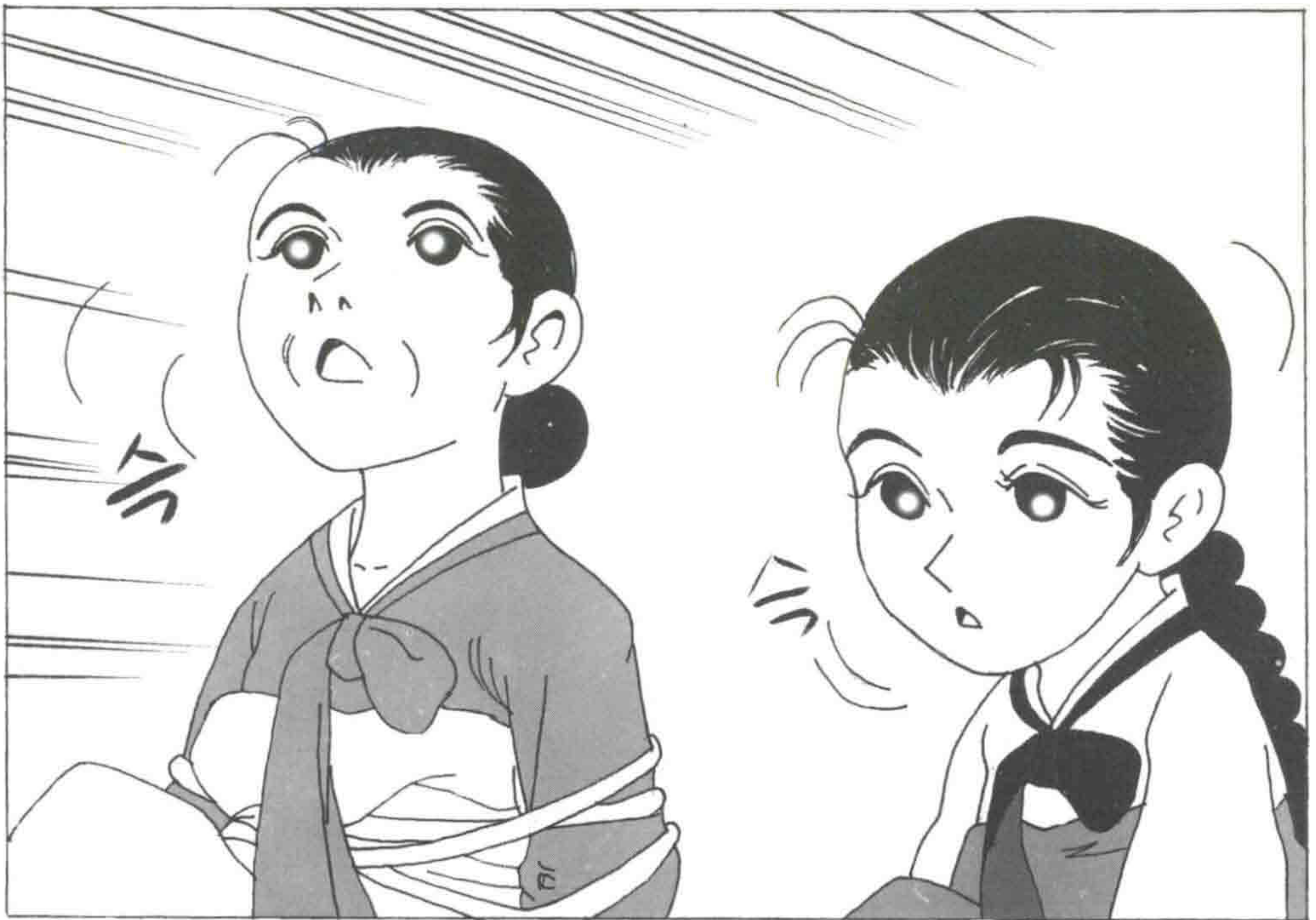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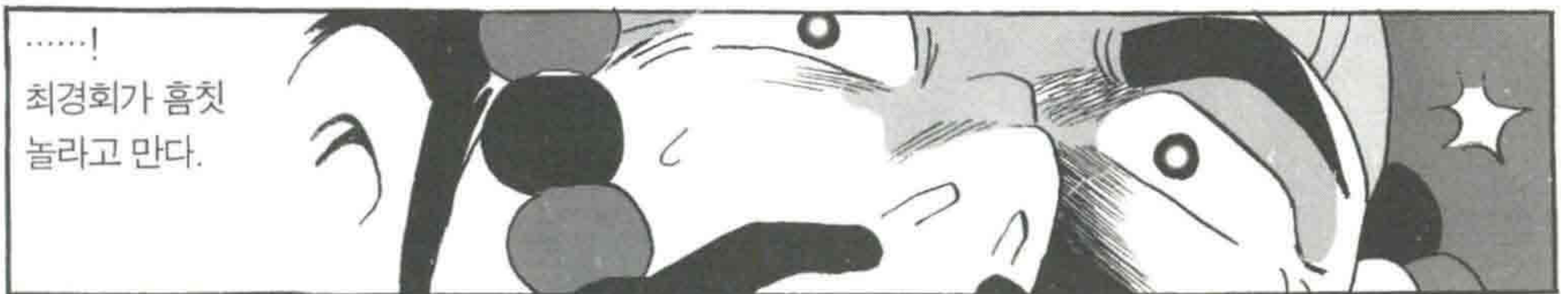
장수 관아의 서슬 퍼런 앞뜰,
논개와 최경희의 첫 번째 만남 자리가
바로 여기가 된 것이다.



죄인은
머리를
들라.



의병장 최경희와
만고의 의녀
논개와의 첫만남.



어머니라는 사람은
덕성이 있고
기품 있는 얼굴이었으며



문제의 그 딸아이는 아직 어린아이였으나
얼굴이나 몸자태가 몹시 참하였다.



어디를 봐도 그런 결혼을 빙자한
사기에 연루될
나쁜 구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으로
예쁜 여자
아이로고.

그러나 김풍헌이 살기등등
옆에 서 있고 또한 죄인으로
압송되어왔으니
문초는 해야 되는 것.

그래 너희 모녀가
김풍헌이란 자의
재산을 갈취
하기 위해





결혼한다는
거짓 약조를 하고
돈과 땅문서를 품고
야반도주
하였다는 게
정말이더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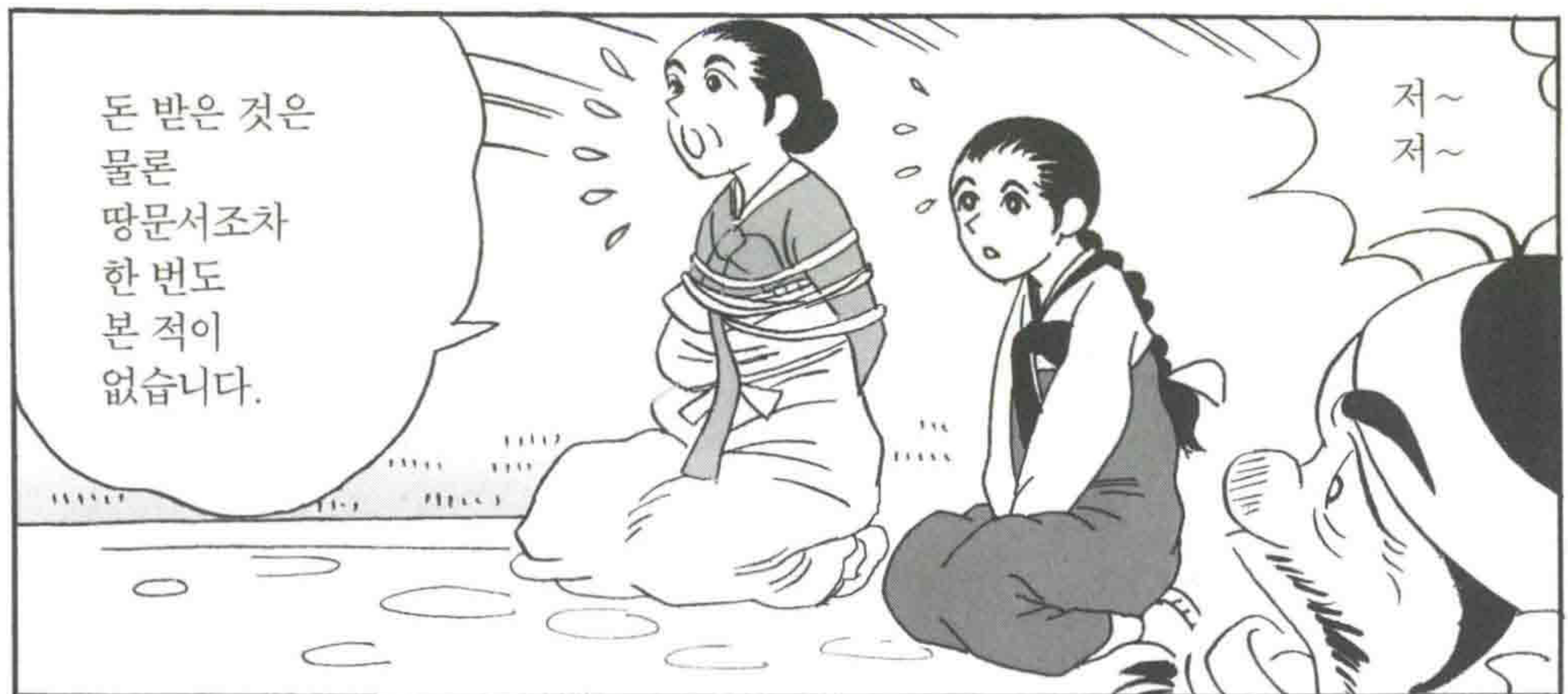
정말이구 말굽쇼,
사또 나리이.



아니옵니다,
사또.
저희는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하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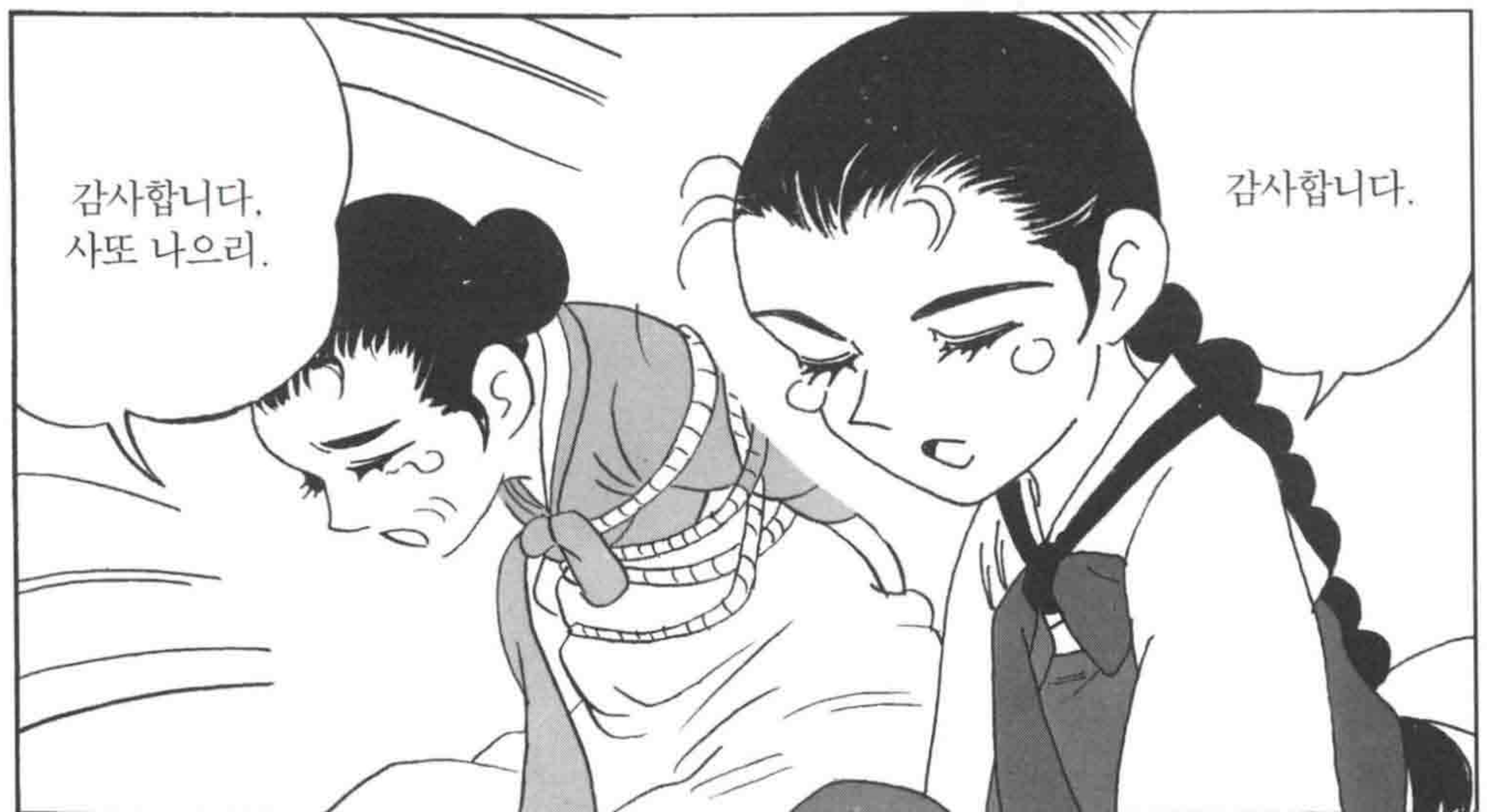
돈 받은 것은
물론
땅문서조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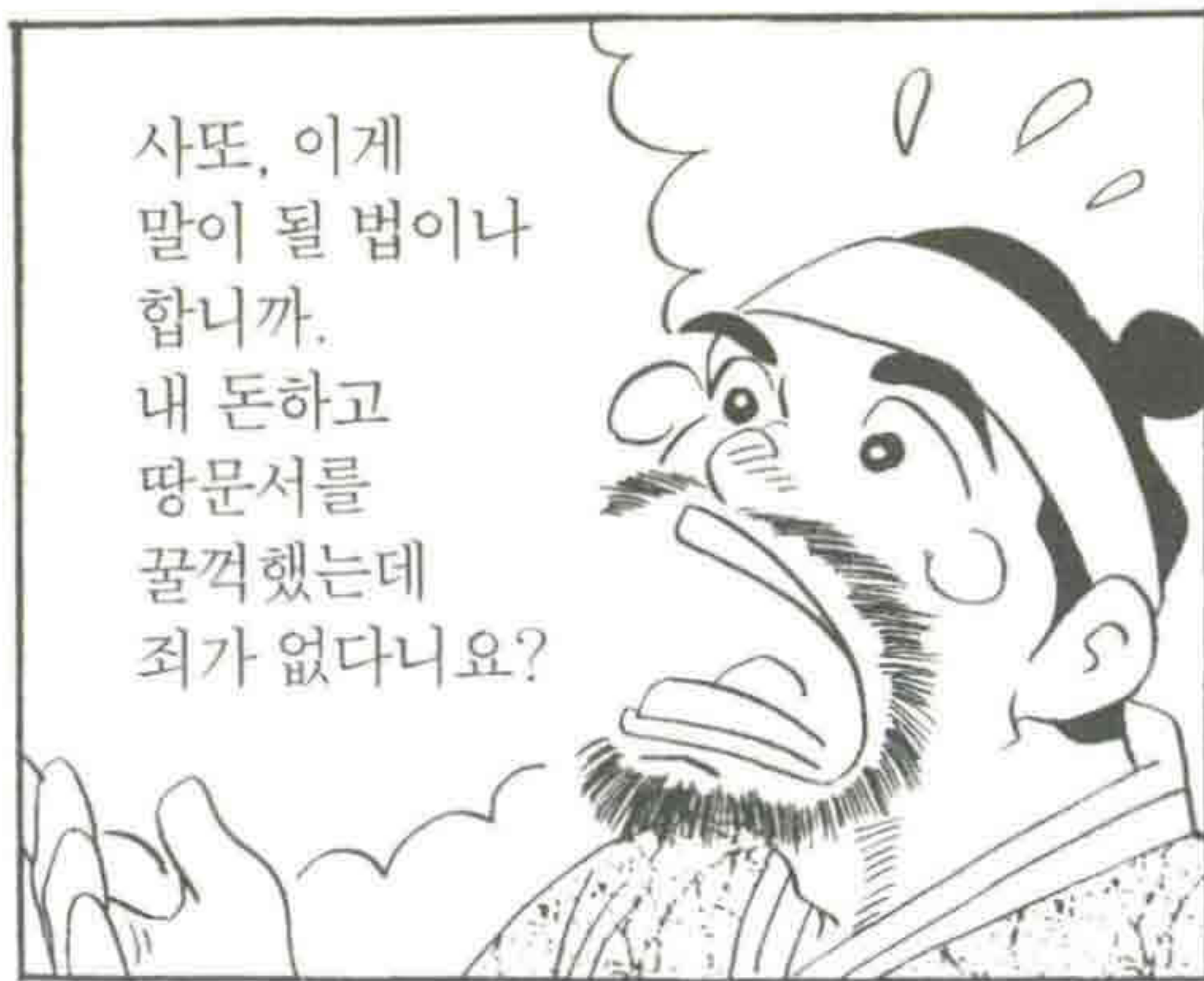
저~
저~



새빨간 거짓말.
지들끼리 짜고
나뉘가졌으면서.

뭐?
본 적이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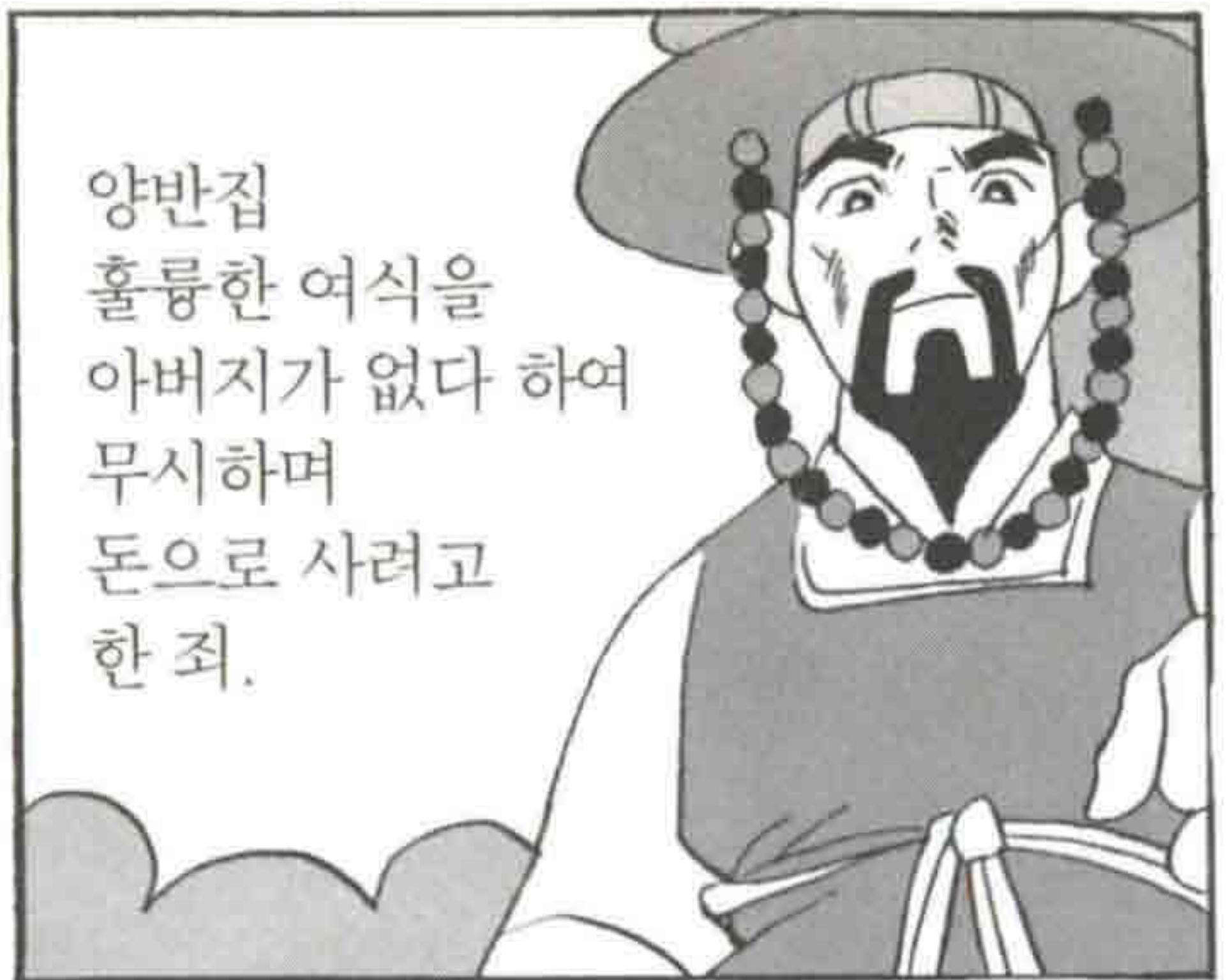




김풍헌
너에게도
있느니라.



에에?



양반집
훌륭한 여식을
아버지가 없다 하여
무시하며
돈으로 사려고
한 죄.



그래서
네놈 불기를
때려보내야
하겠다.



아이고~
내 불기,
아니됩니다.

사또오,
아니되지요.



아니되긴.

끄아악



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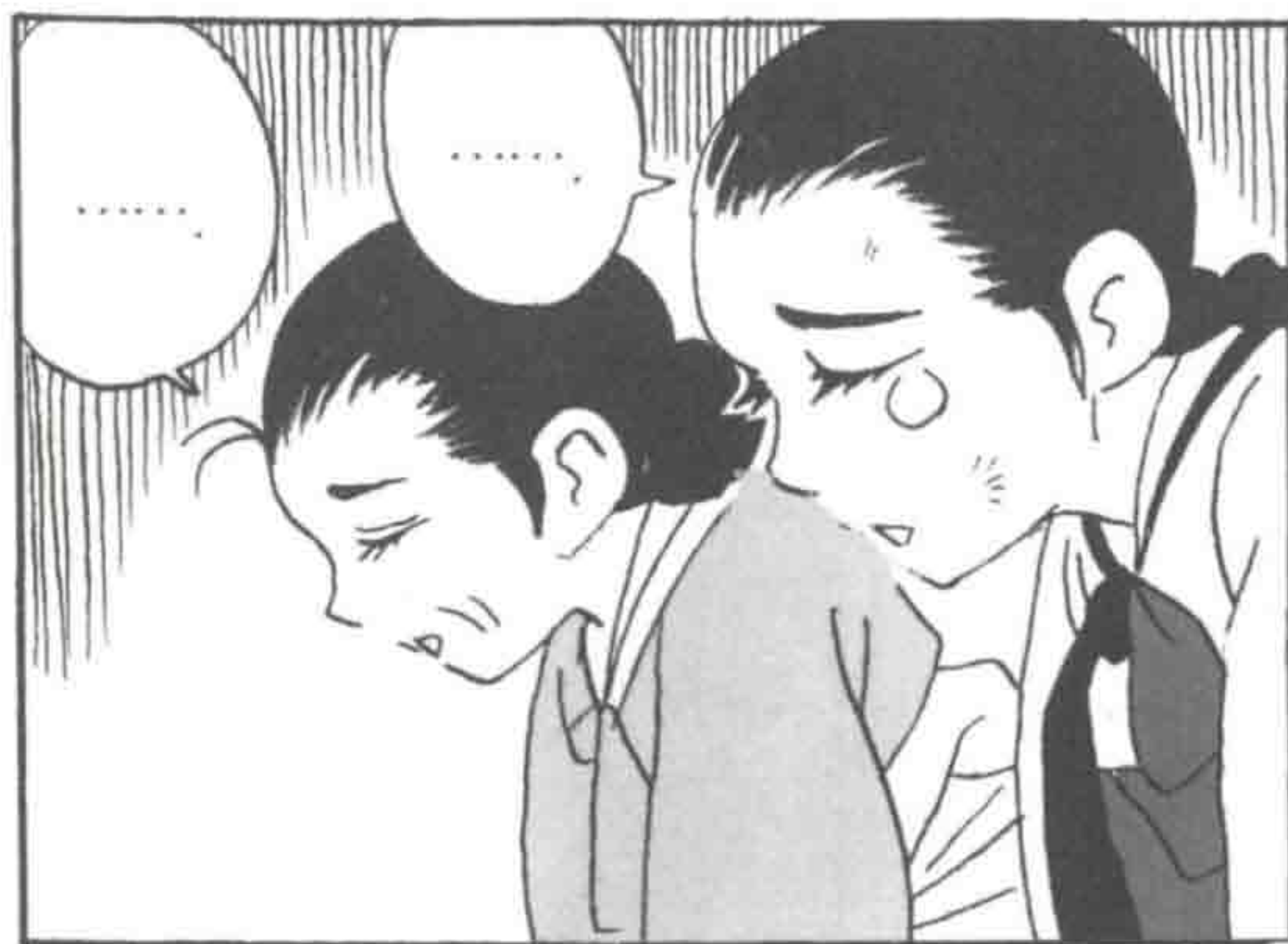
으아악.



최경희는 분별력 있고 현명함이 있는
현감이었다.



논개 모녀의 죄 없음을 금방 알아차린 최경희.





주촌으로 간다 해도
김풍헌이
무슨 보복을 할까
두렵고
또 함양 친정으로
간다 해도
역시 그쪽 분들
보는 앞에서 잡혀왔으니



가문의
수치로
생각할
것인즉



어디 마땅히
갈 만한 데가
생길 때까지
저희 모녀
이곳에서
머무르면
안 되겠는지요?



허허...
듣고 보니
참 딱한
사정로고.



그래서



사또어른
제발 저희 불쌍한
모녀의 사정을
살펴주소서.





알겠다.
갈 때가
생길 때까지만
머물도록
하여라.

가...
감사합니다.
사또 나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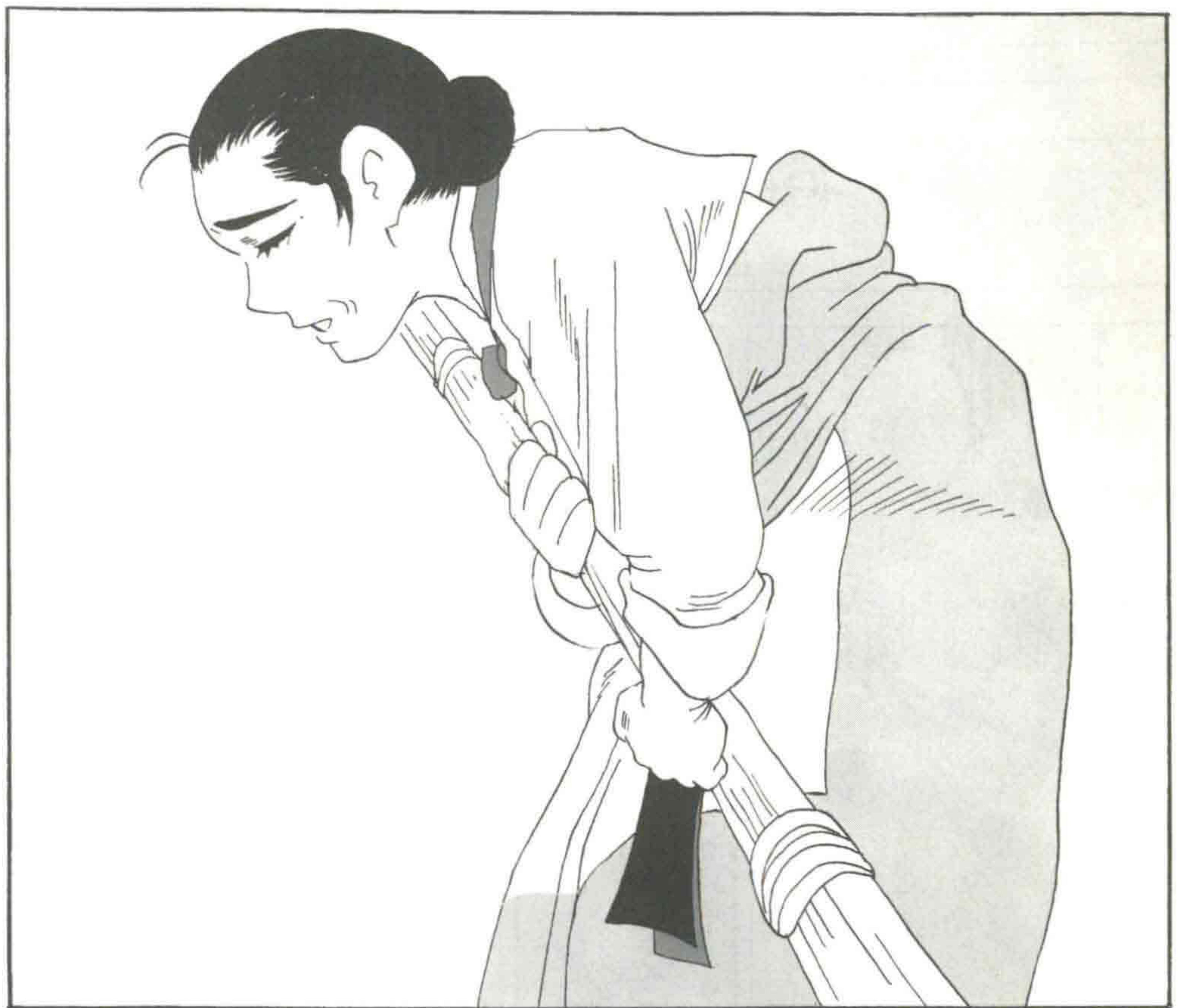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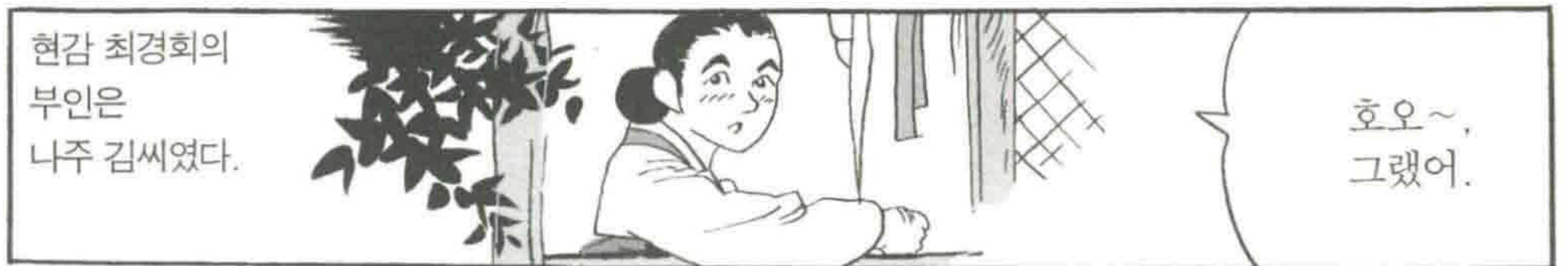
와아,
최경회
아저씨
짱이다.

히히히.



이렇게 해서
두 모녀는
장수 관아에
머물게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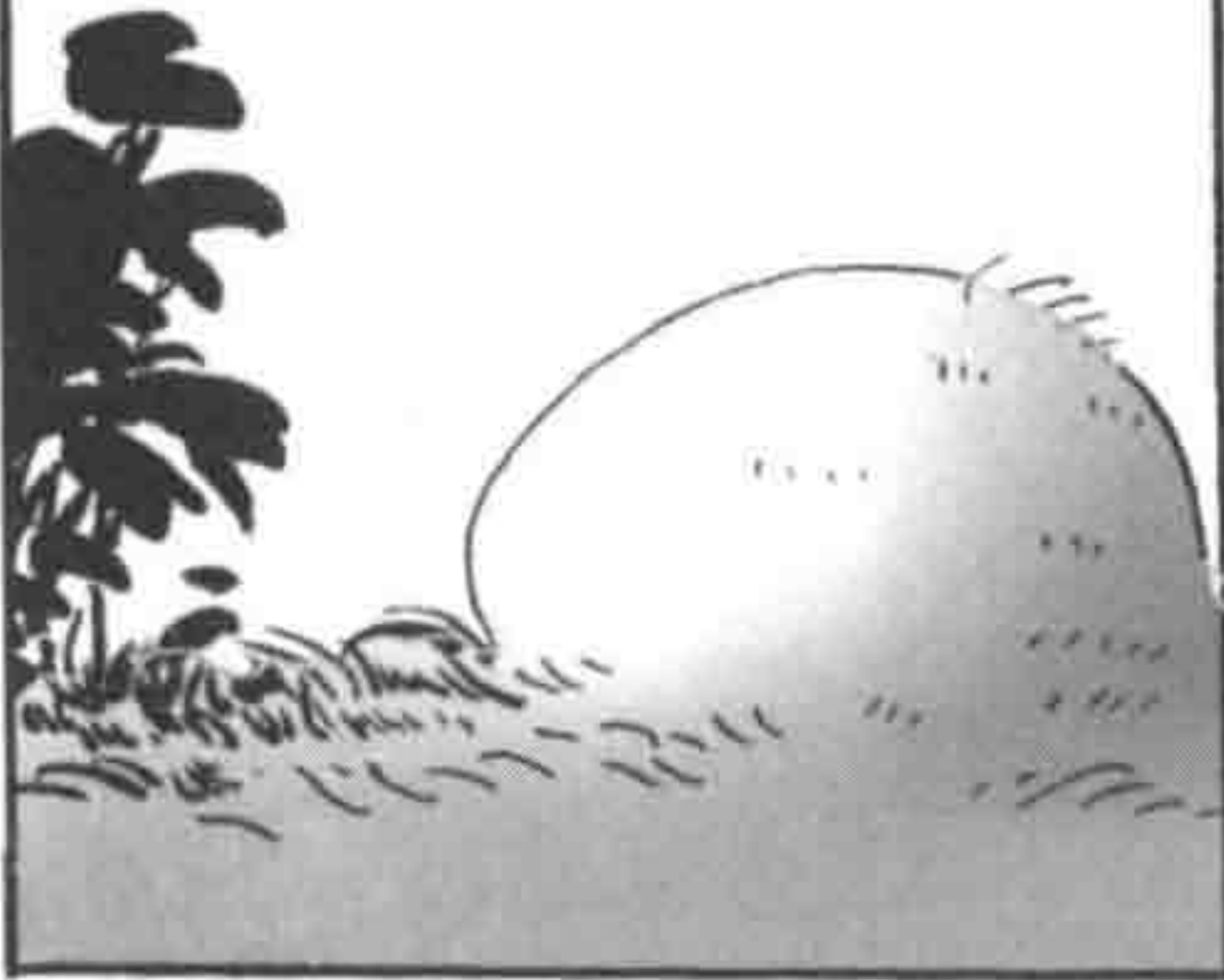








그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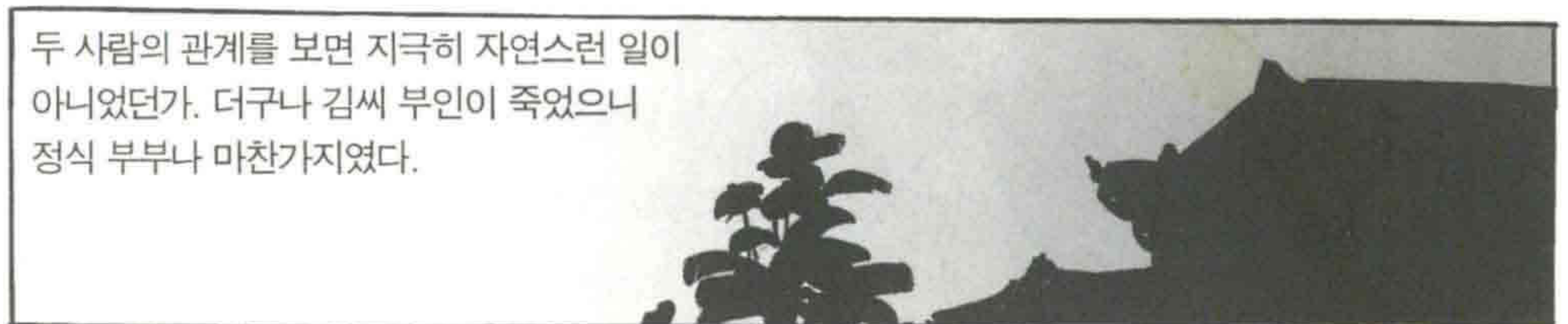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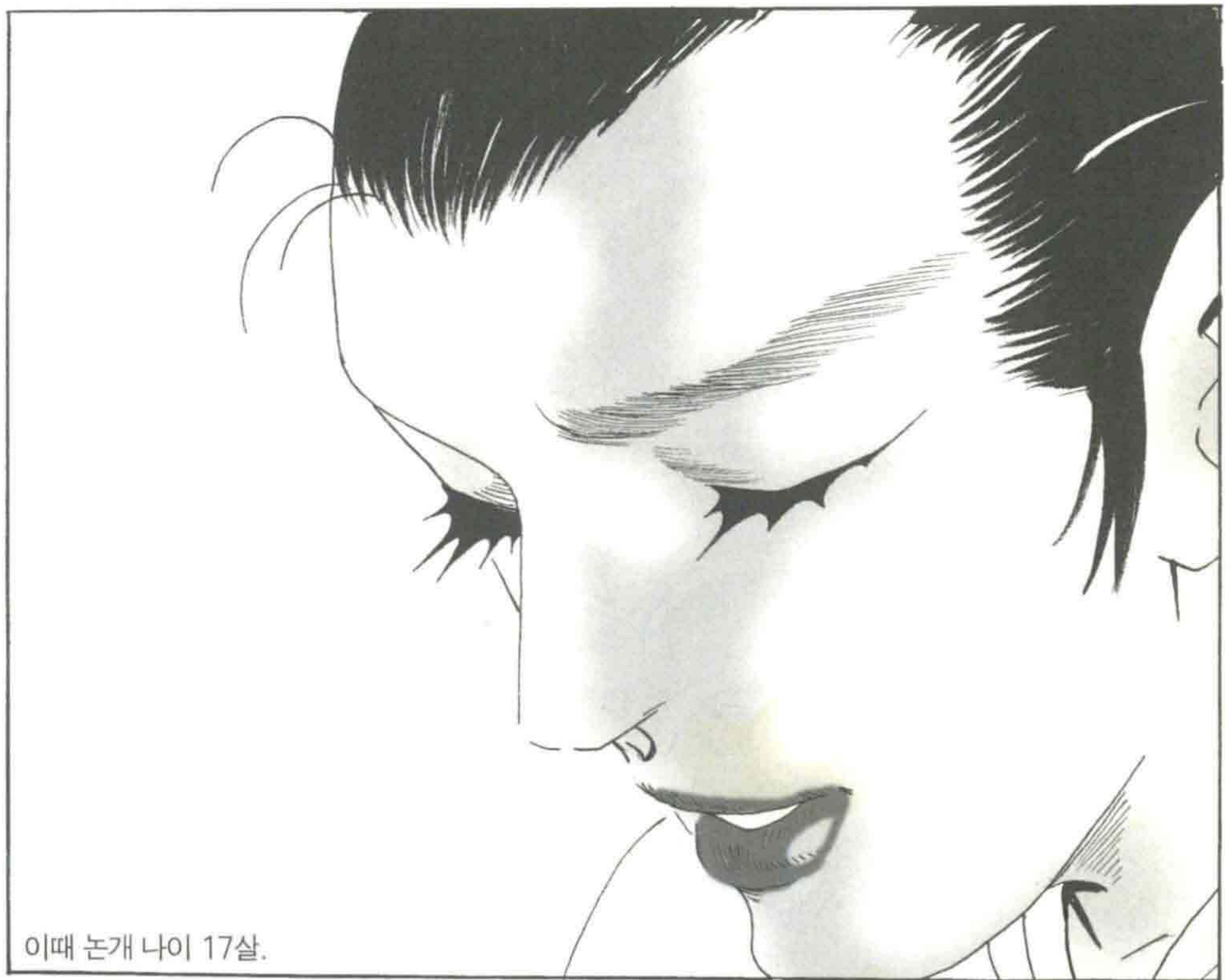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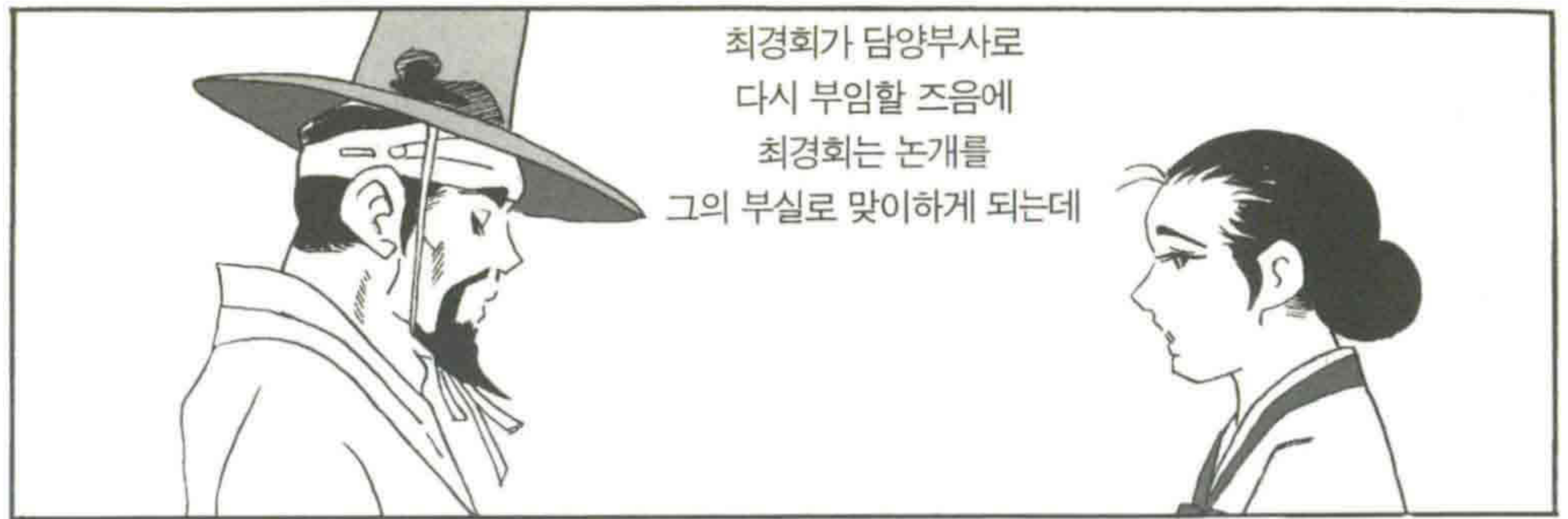


뒤이어 최경희 부인 나주김씨도
세상을 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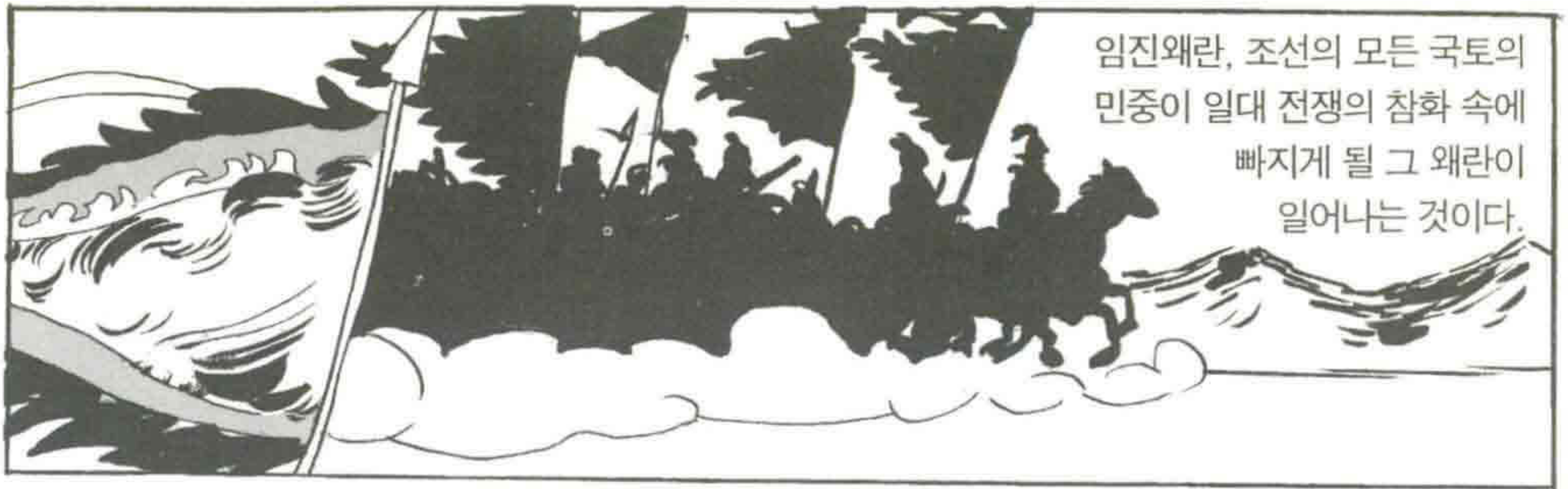
홀로 남은 최경희의
음식과 수발을
정성껏 들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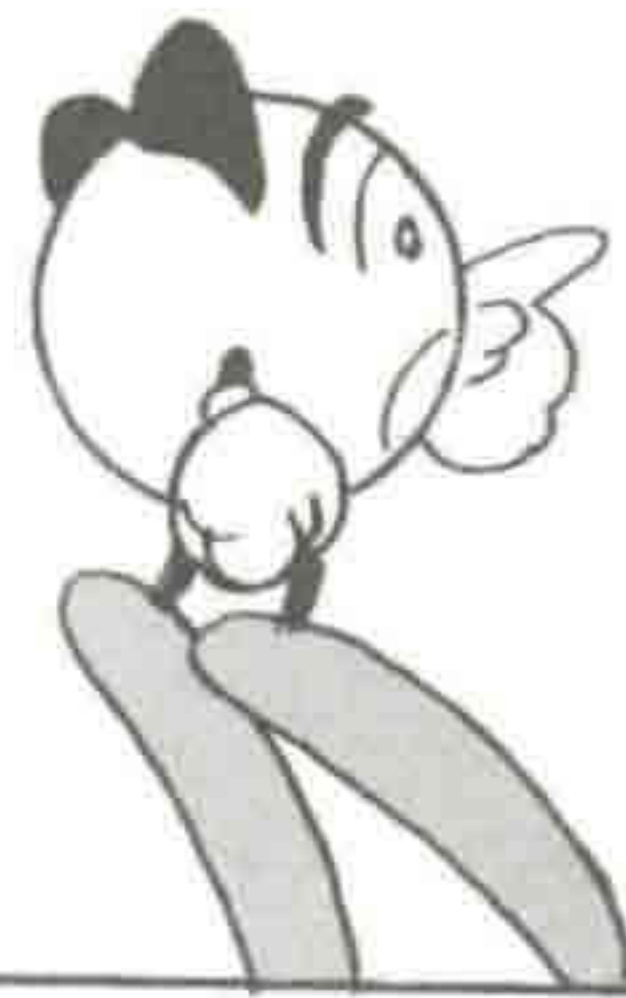
이때가 1590년. 그렇다면 2년 후에는
어떤 광풍이 우리 민족에게
몰아치는지 이 책을 읽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것.





임진왜란, 조선의 모든 국토의
민중이 일대 전쟁의 참화 속에
빠지게 될 그 왜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바로 그 전쟁 2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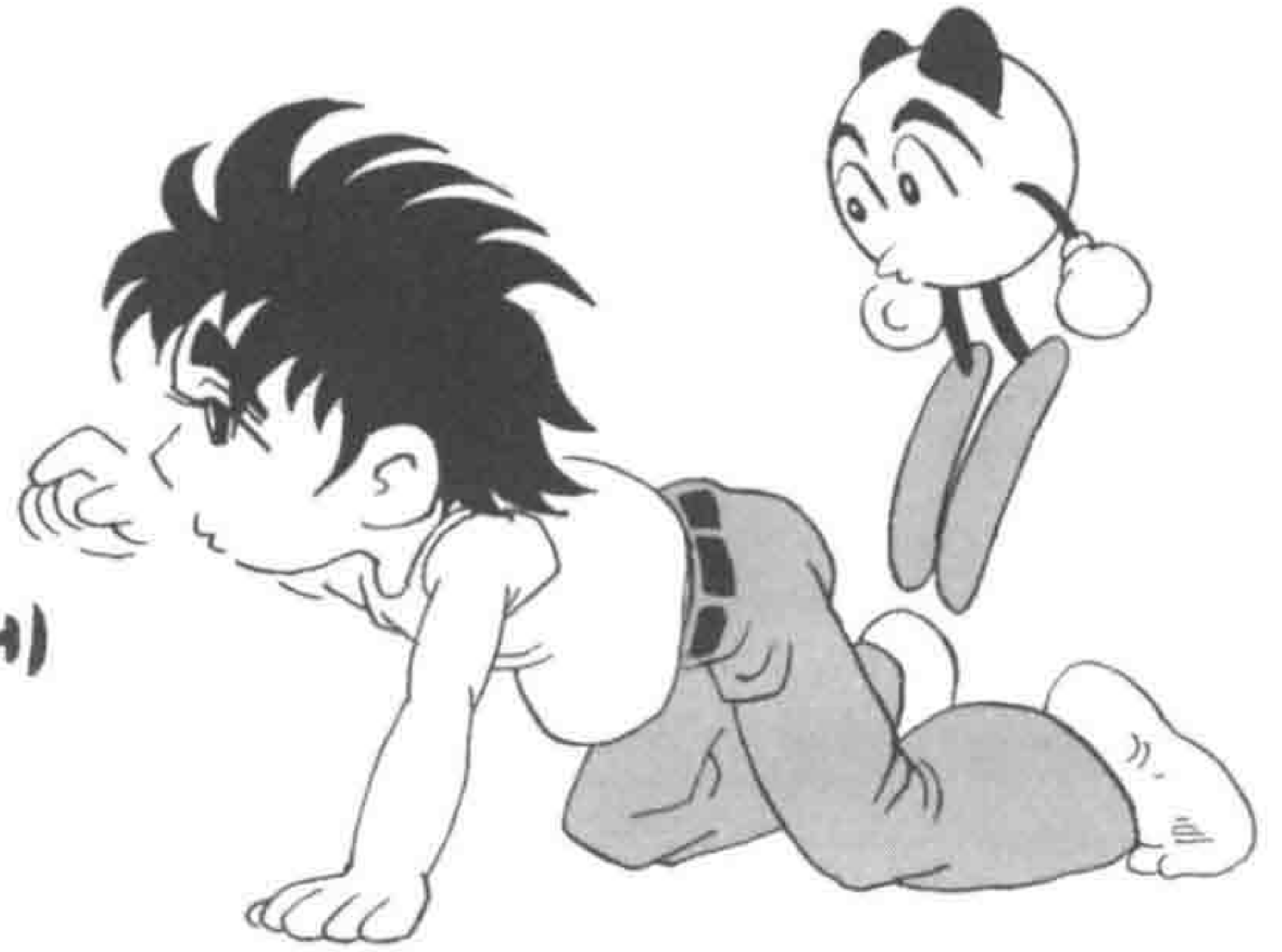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논개는 최경회와
부부의 인연을
맺었던 것이다.



제6장

일본의 천하장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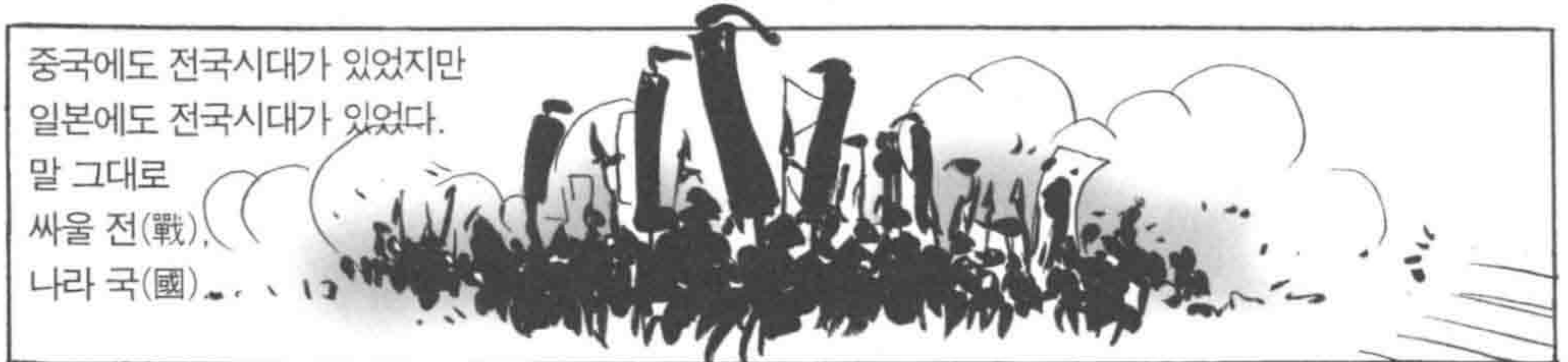
게이마쿠라 도쿠스케



일본의 전국시대.



중국에도 전국시대가 있었지만
일본에도 전국시대가 있었다.
말 그대로
싸울 전(戰),
나라 국(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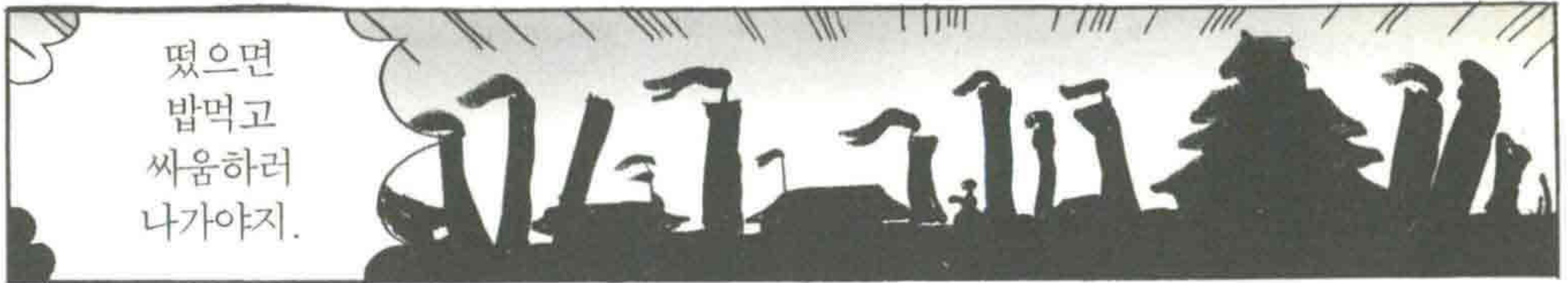


온 나라가 그저 자고 일어나면 전쟁만 하는 시대.





해떴냐?



떴으면
밥먹고
싸움하러
나가야지.



누가 내 갑옷
입었어?

안 벗어 너?

내 칼을
누가 빼갔냐?
빨리
자수해라.



와 해뜨기
무섭게
싸우러
나가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쓰러질 세력들은 쓰러지고



자결할 장군들은 자결하고



항복할 세력들은 항복해서
밀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거의 일본 국내를
오다 노부나가라는 자가
휘어잡나 싶었는데





웬걸, 밥짓는 놈 따로 있고 먹는 놈 따로 있다고, '오다 노부나가'라는 자가 하룻밤 사이에 습격을 받아 죽고 나니



그 밑에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란 거의 원숭이 닮은 꼴 놈이 운수대통으로 자리를 꿰차

ㅎㅎㅎ, 말 그대로 운수대통이지 뭐.



일본 전토를 지배하게 된 그런 시대였다.

이제 나보다 센 놈 있으면 나와봐 해도

오는 놈 하나 없다.

자신

ㅎㅎㅎ 잘 찍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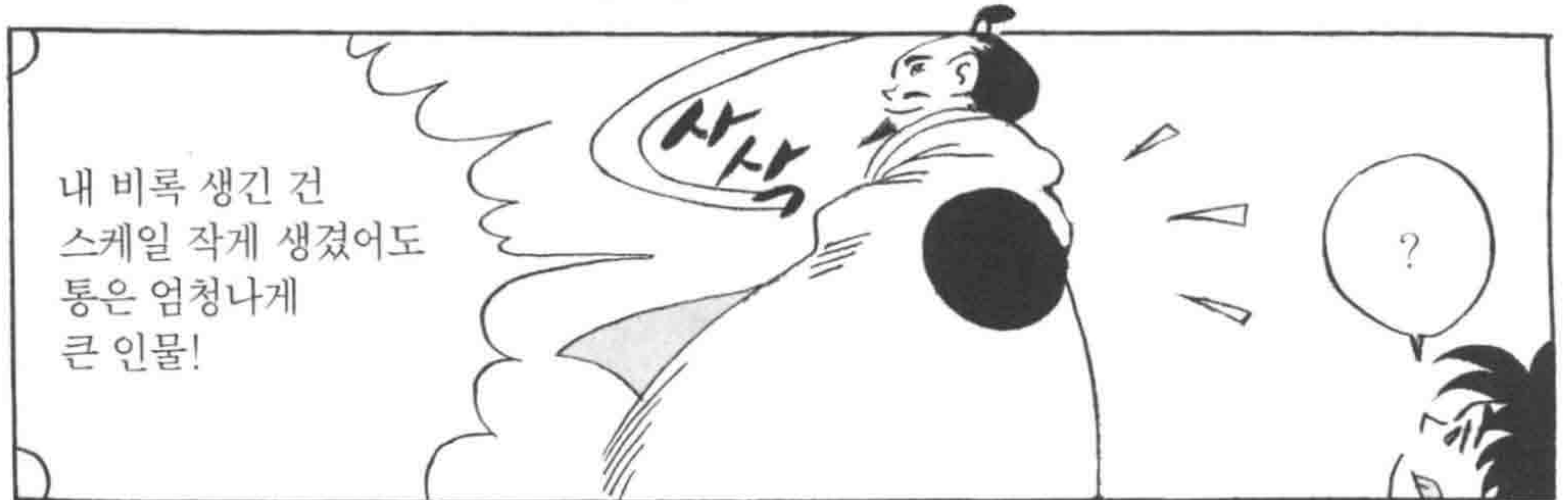
나!
오!
왕!
됐다



내가 누구냐.
일본에서
나보다 높은 놈이
없는 천하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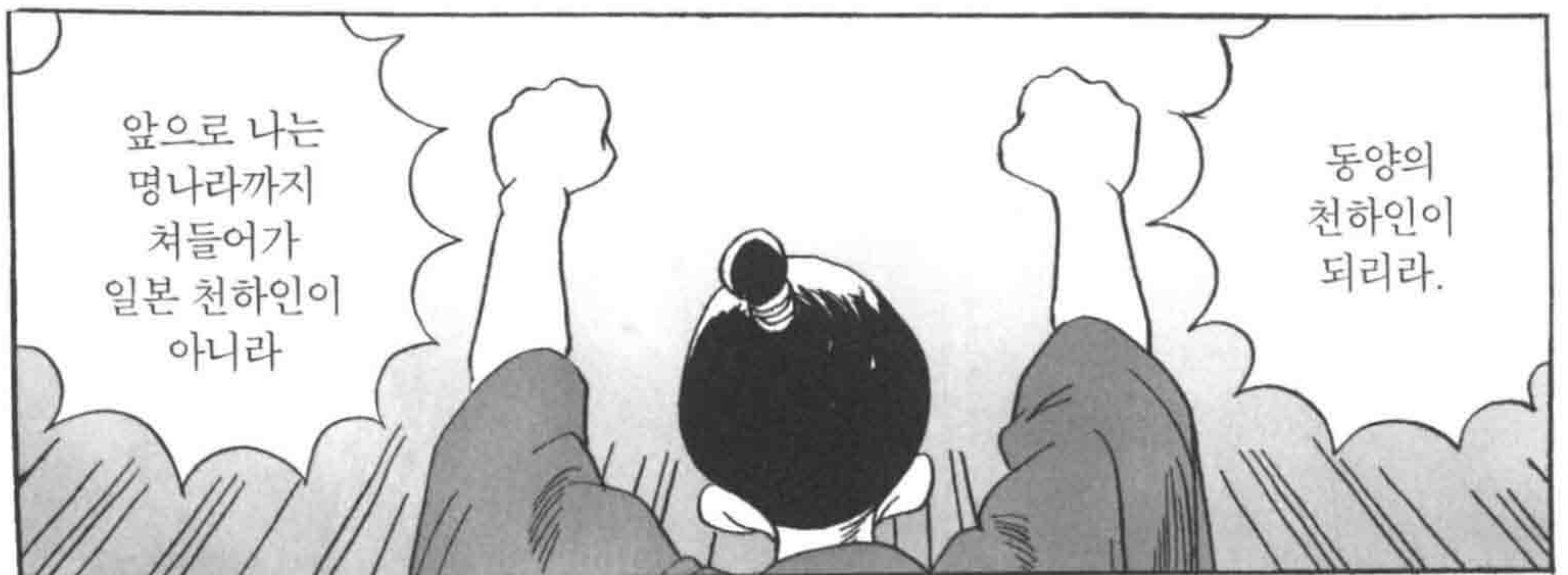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에서
천하인으로
부르는
관백이
되었다.

방정떨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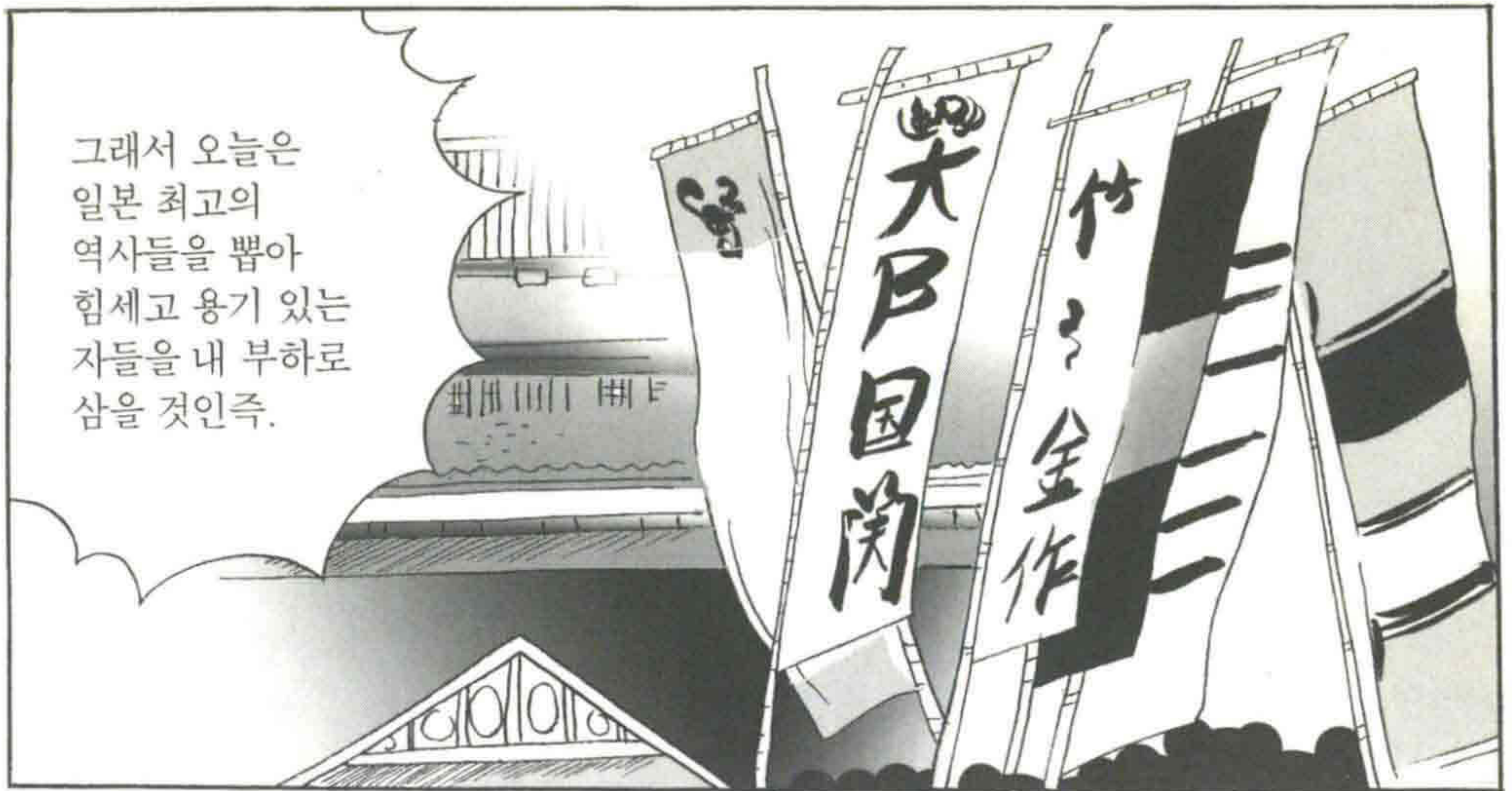
내 비록 생긴 건
스케일 작게 생겼어도
통은 엄청나게
큰 인물!

?



앞으로 나는
명나라까지
쳐들어가
일본 천하인이
아니라

동양의
천하인이
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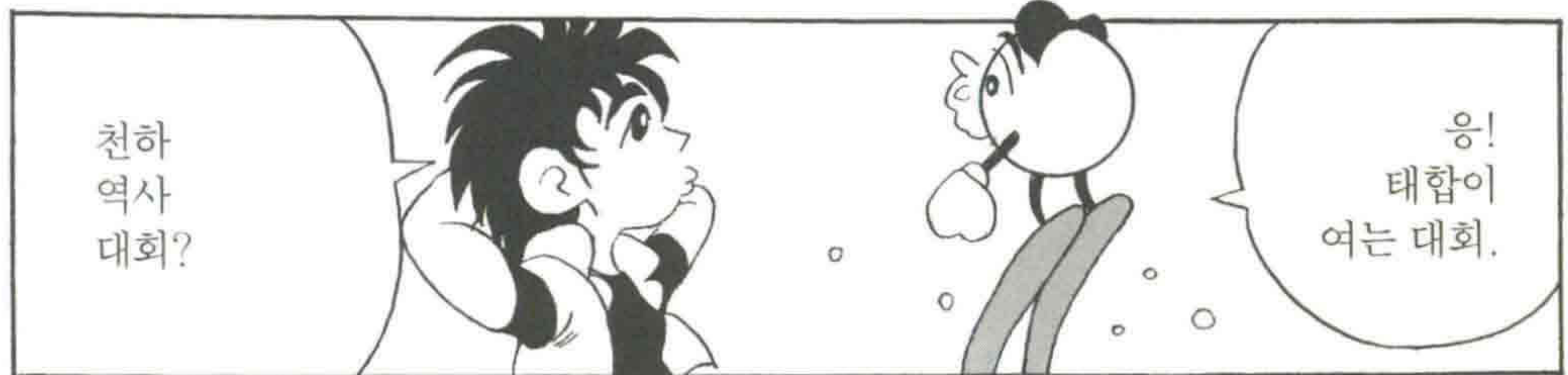


그래서 오늘은
일본 최고의
역사들을 뽑아
힘세고 용기 있는
자들을 내 부하로
삼을 것인즉.



대회 준비를
다 마쳤느냐?

그렇습니다.
태합 전하.



천하
역사
대회?

응!
태합이
여는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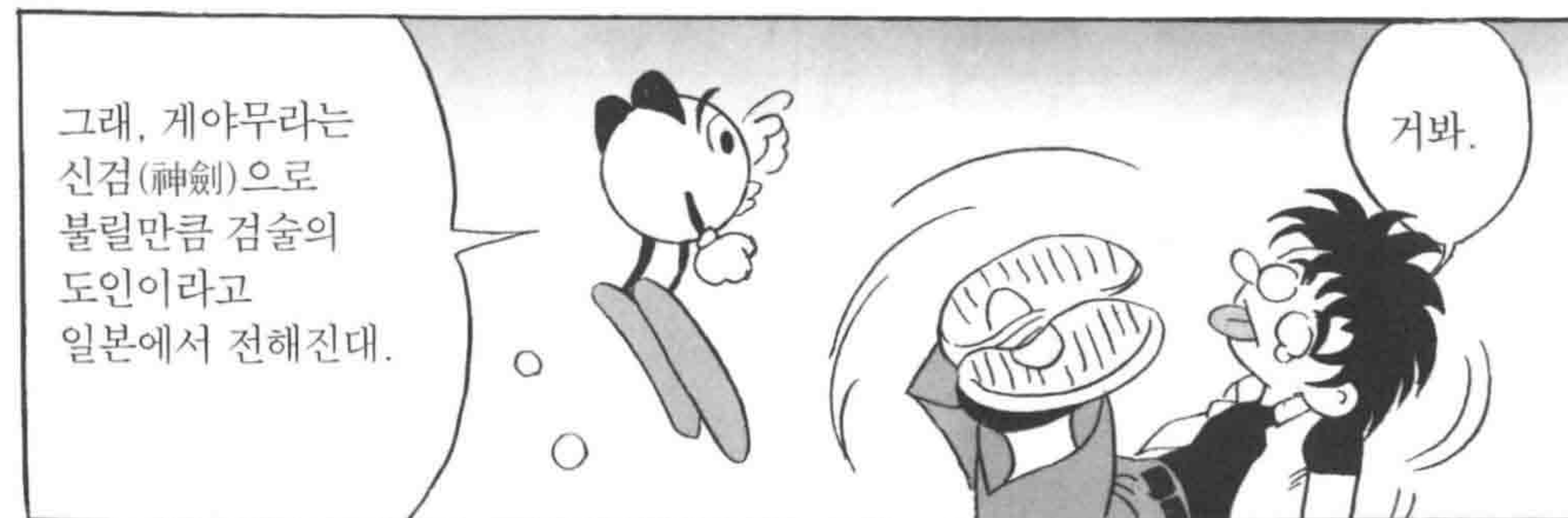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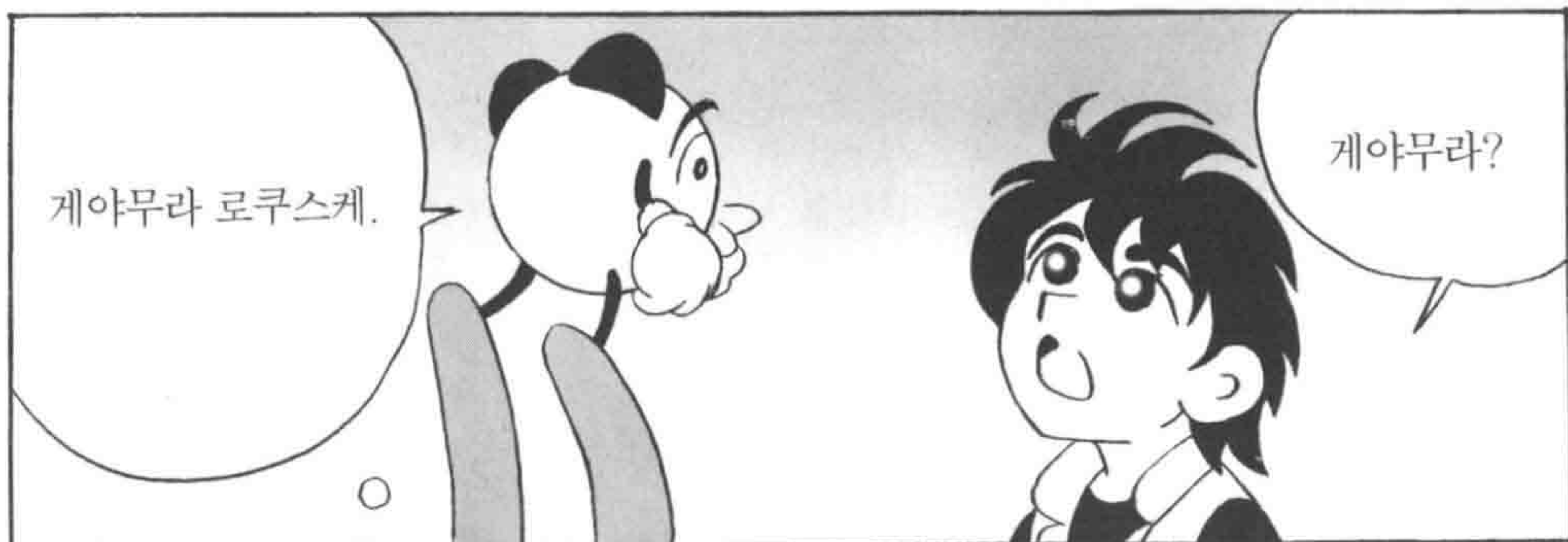


뽑아서 부하로
쓰려고
그러는구나.

응, 자기
밑에 두고
쓰려는
거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

딱 한 사람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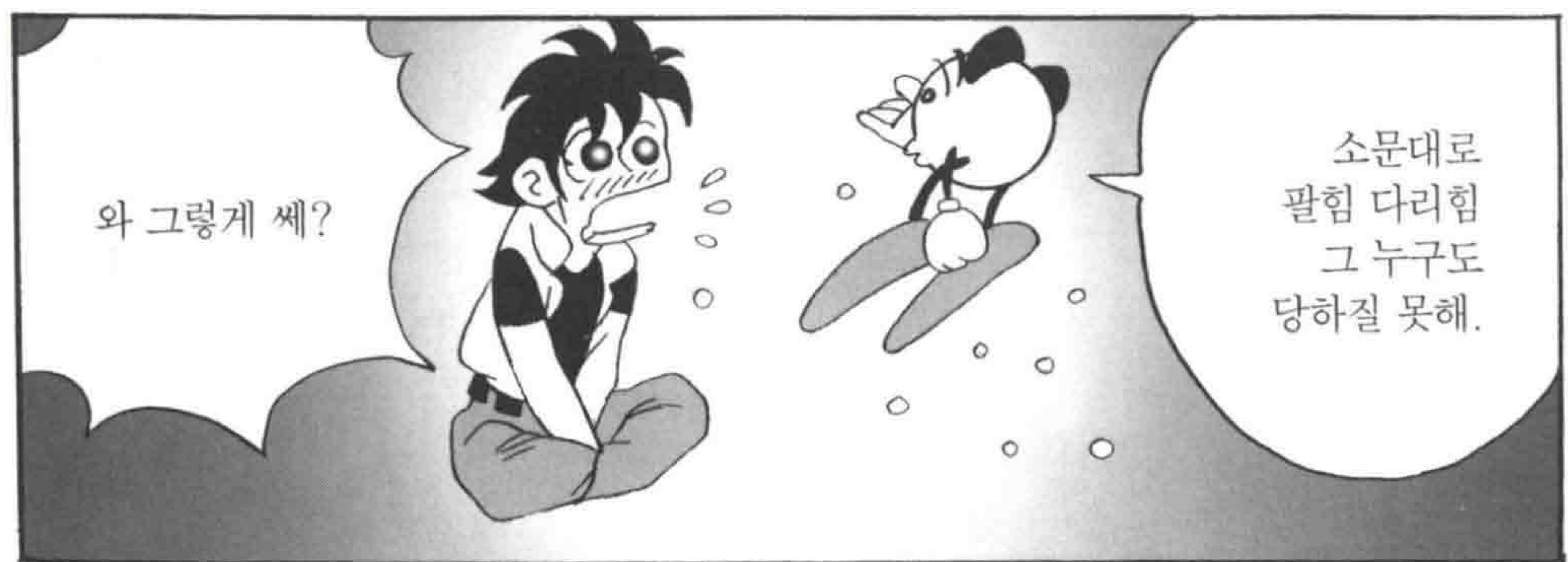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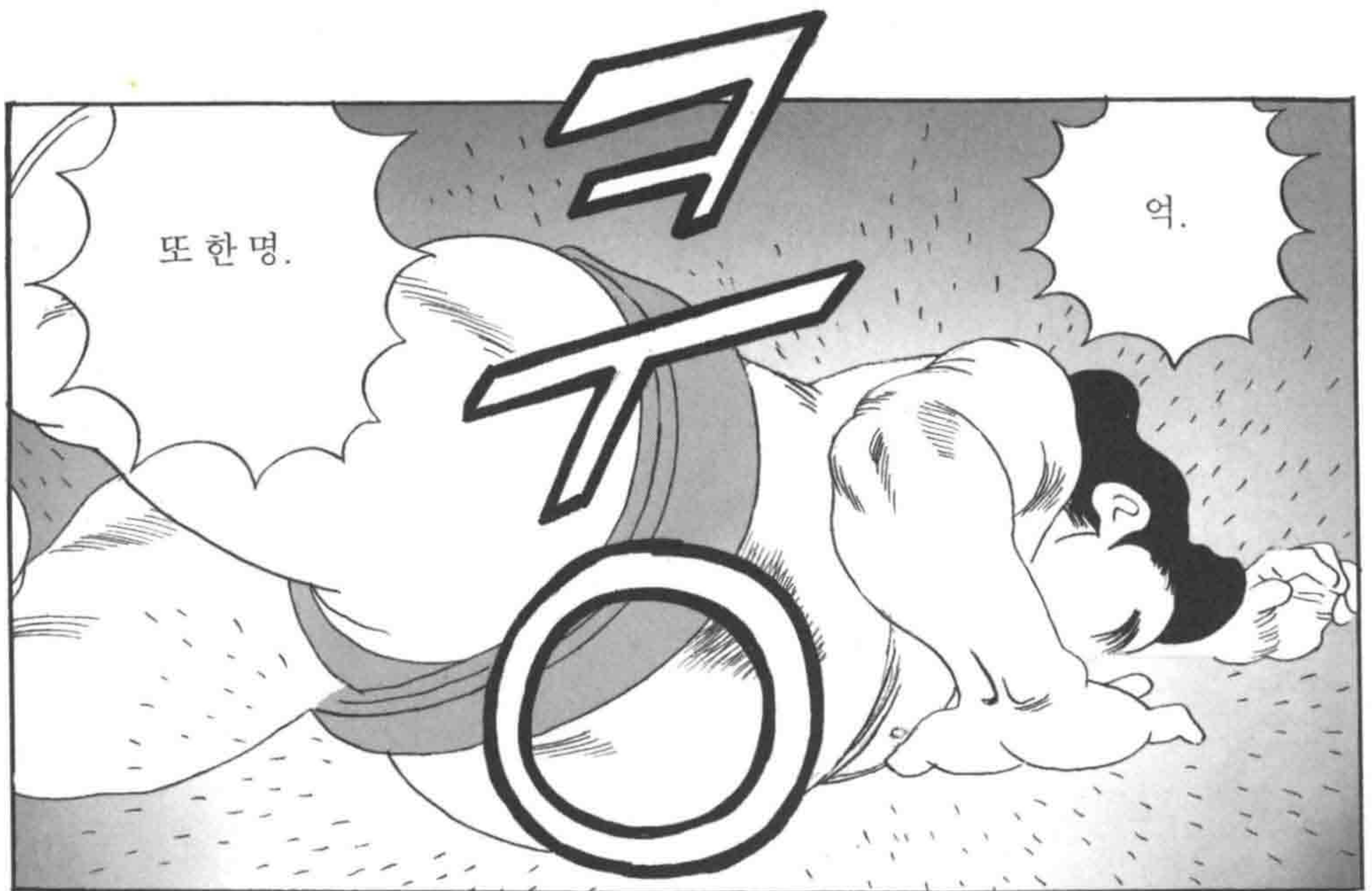
시합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그 밑의 유명한 수하 장군들이 모인 가운데 벌어졌는데



역시
게야무라 로쿠스케가
그중에서도 제일 뛰
어났는데 어느 정도
뛰어났느냐 하면

아니 벌써
몇 명째를
이긴 거야?

하도 많이
이겨
셀 수가
없겠어.





자.

31번째 꼬꾸라질 놈
나와봐.

으.

켈.



너 나가.

사... 싫습니다,
혀... 형님이
먼저 나가십쇼.



네가
나가야
힘빠진
담에 내가
나갈 수
있잖아.



씨이.

나만
먼저
나가래.







우리 성의 병사중
가장 날래고
힘센 자를 내보내
게야무라를
이기도록 하여라.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 하나가 나왔는데

힘이 많이
빠졌지.
요놈아,
그래서 내가
.....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도
나가 떨어졌다.

저... 저게
인간이냐?
괴물이냐?



그리고는 36번째 상대한테 겨우 졌는데



게야무라가 넘어졌다.

결국은 넘어졌어.



일본의 야사(野史)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수하 중 가장 전투적인 장군 가토 기요마사를 게야무라가 좋아했는데

그의 부하가 되려고

일부러 넘어진 거다. 왜.

바로 이 괴력의 장사가 누구인가?



당대 일본 최고의 검객(劍客)이면서도 장사로 후에 가토 기요마사의 선봉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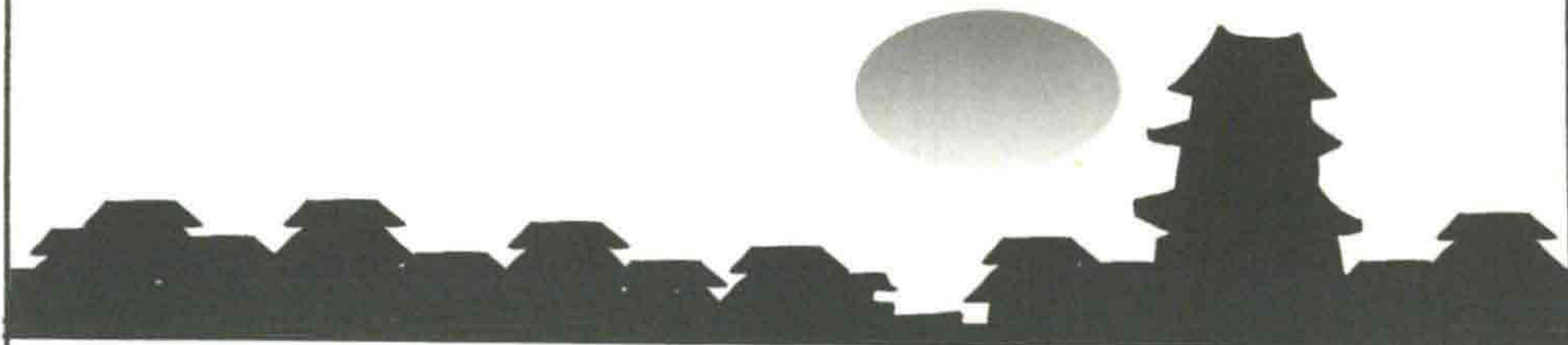


가부키로서 지금도 "히코산 곤겐치 가이노스케다치"란 이름으로 공연되는 그 주인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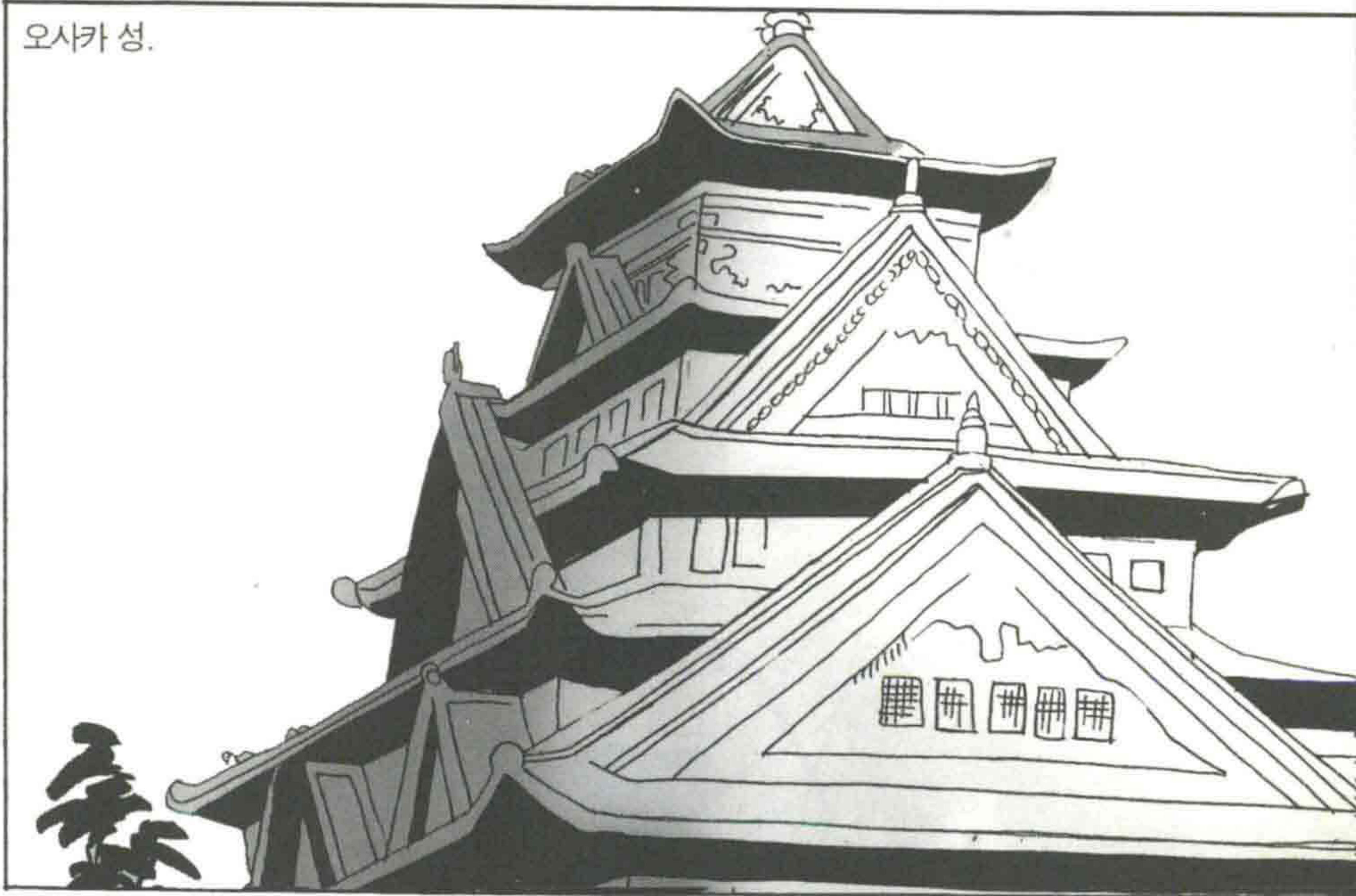
그가 바로 논개의 가락지 사이에 끼여 남강 푸른물에
빠져 죽게 된 그 왜장이었던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본거지.



오사카 성.



예에?

명나라를
진짜로
치시겠다구요?







그러나
중국과 조선은
굉장히 친합니다.

쉽게
안 비켜
줄걸요.



히히히.

그것들이
안 비켜줘?



성문 닫아 걸면
성을 때려 부수고

길을 막고
진을 치면
진을 쳐부수며
올라가면
되잖아.



말은 된다.

돼.



우리 일본의
가장 용맹한
장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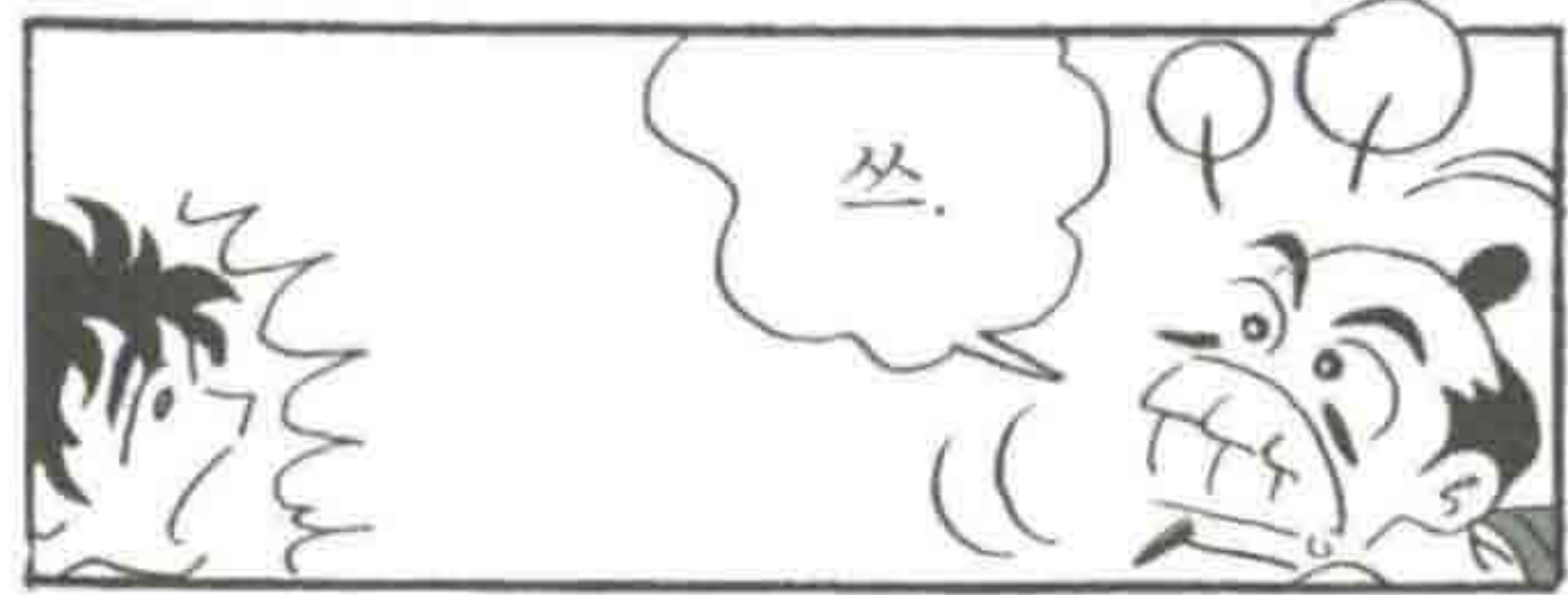
너희에게 16만 명의
날래고 강한
병사들을 줄 테니
한 달 안에
조선을 점령하라.
그 길로
명나라까지
깨부수도록
하여라.



그렇게 되면
나는
중국 황제도
겸하게
되는 것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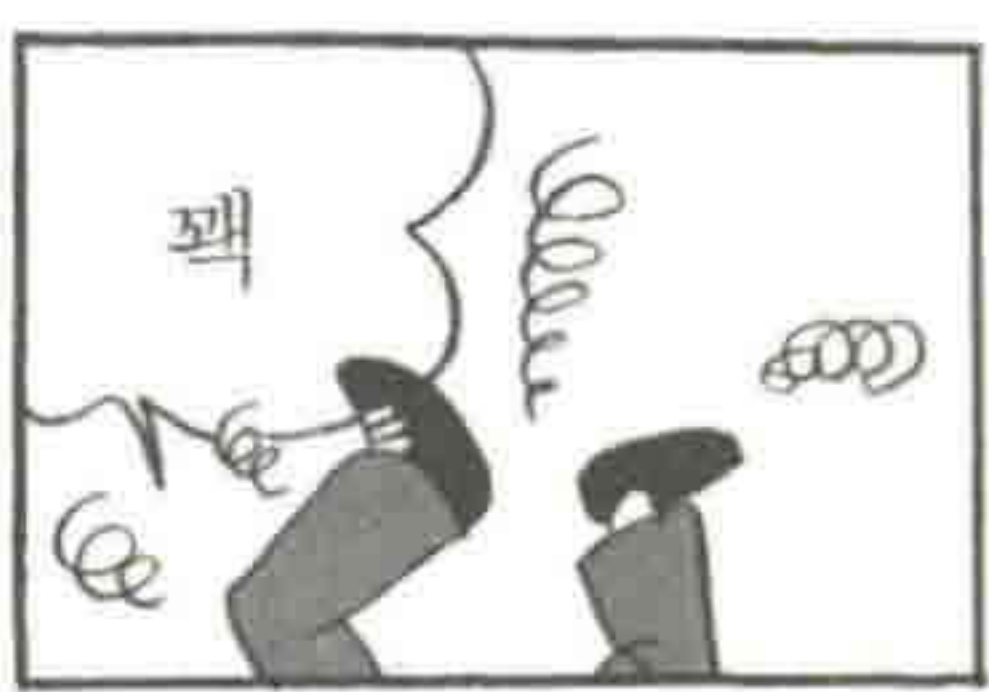
재
돌았나봐.



쓰.



넌사악



팩



가아아아아아



너희들에게도
중국의
그 넓은 땅을
골고루 나눠주어
왕처럼 살게
해주겠다.

두 번째로 한심한 자가
있었으니
가토 기요마사인데
이놈은 자기가
진짜 중국땅을
얻을 줄 알았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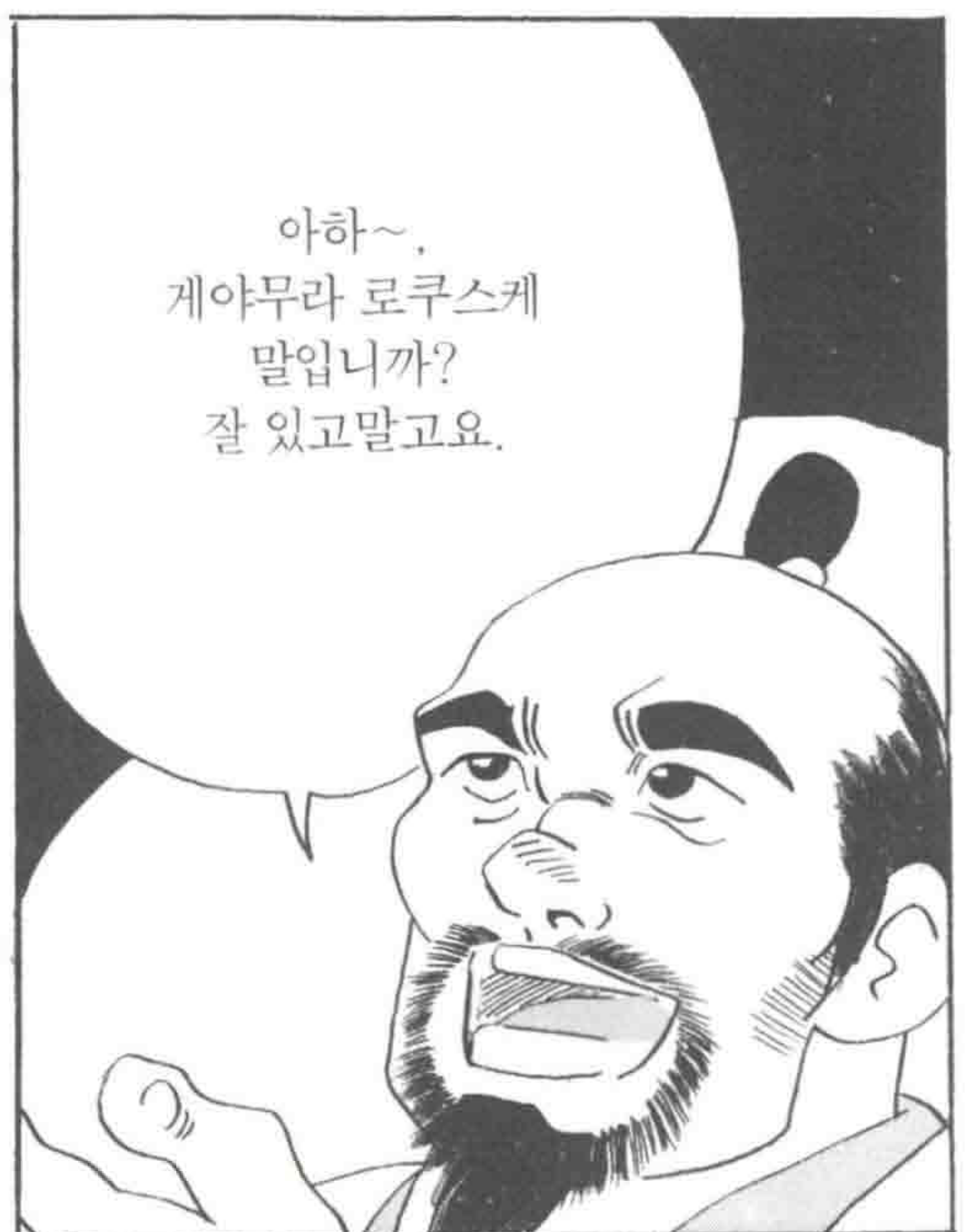
알겠습니다.
태합 전하.

그럼 조선에
가장 가까운
나고야쵸가
쳐들어갈
준비를 하거라.

알겠습니다.
태합 전하.

잠깐
가토 기요마사.

.....!





게야무라는 워낙 힘이 장사고 날래서
조선 역사 수백 명을
혼자서 다 패대기치고
도륙할 수 있으니까
안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핫핫핫.

그래.
그래서
데리고 가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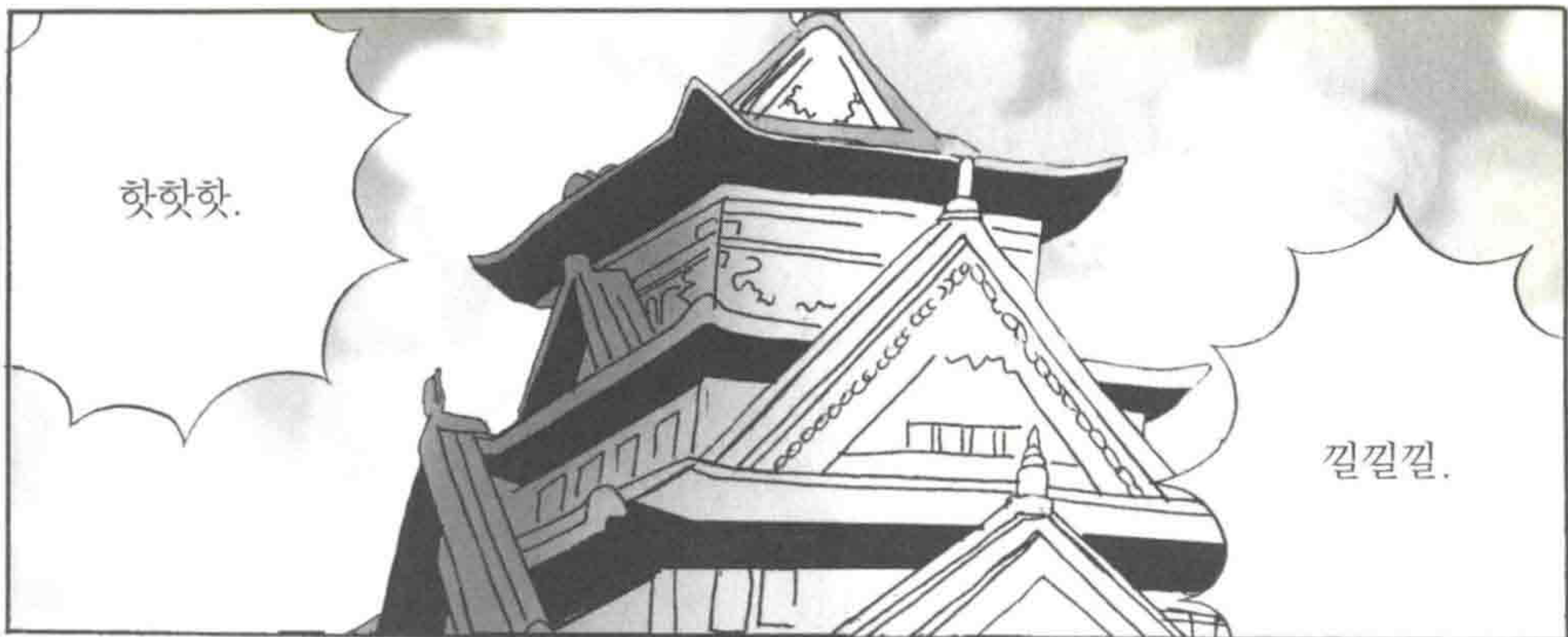


그러나
그 전에.

?



게야무라가 떡하니
우리 일본군 앞에
버티고 서 있으면
조선군들은
아예 칼을
버리고
다 도망갈걸.



하하하.

낄낄낄.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가토 기요마사가
이 게야무라 로쿠스케란 장수가
조선의 19살짜리 여자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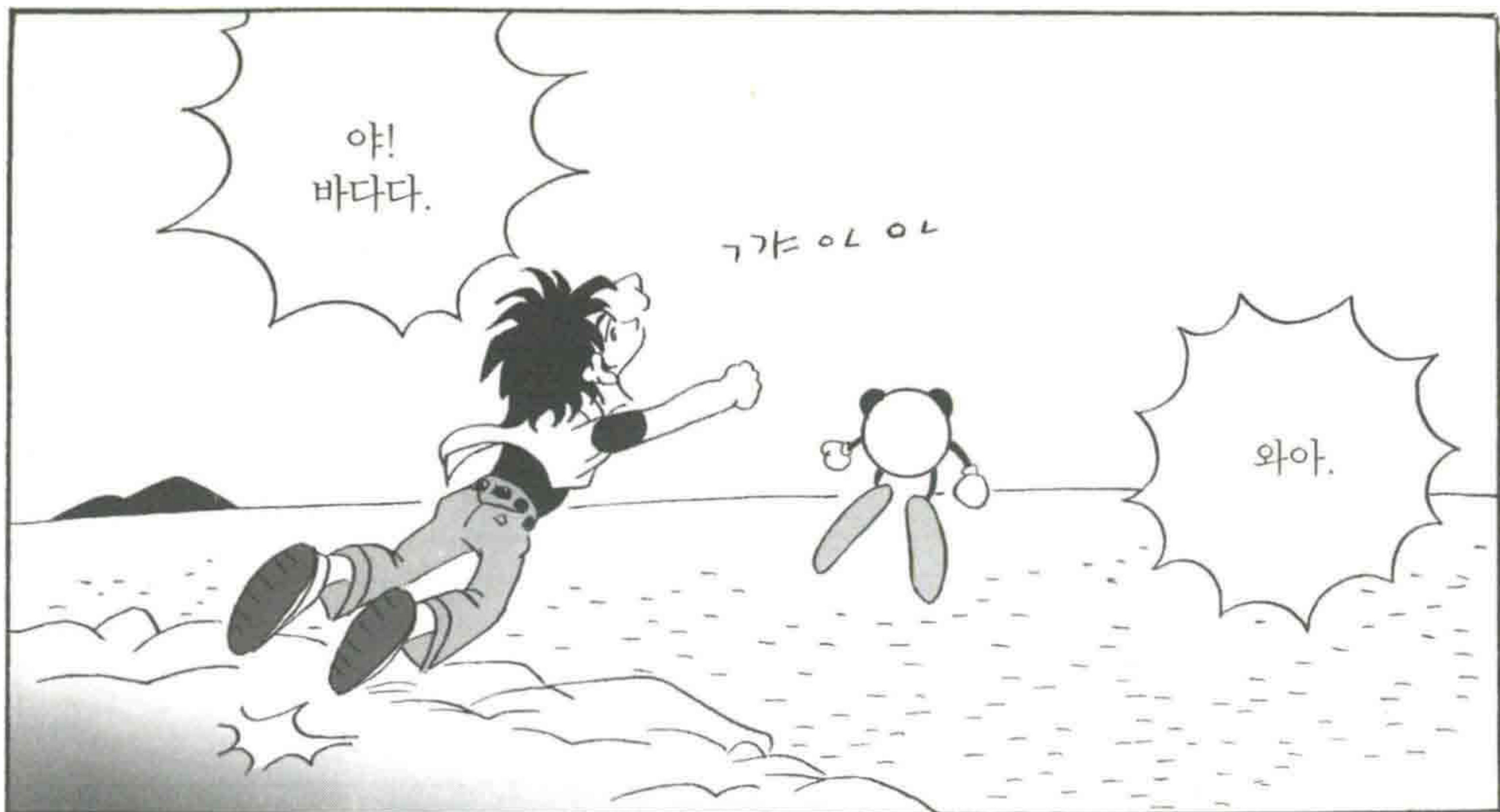
죽임을 당해 시체만이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줄 꿈에라도
생각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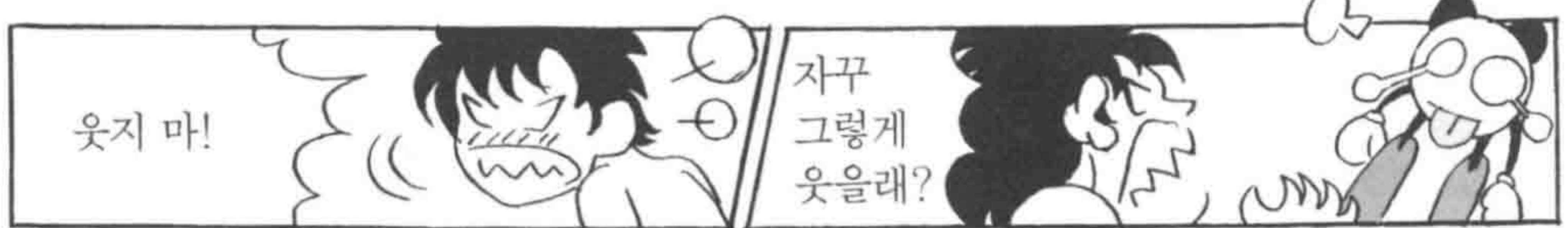
어쨌든 전쟁 준비를 끝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 임진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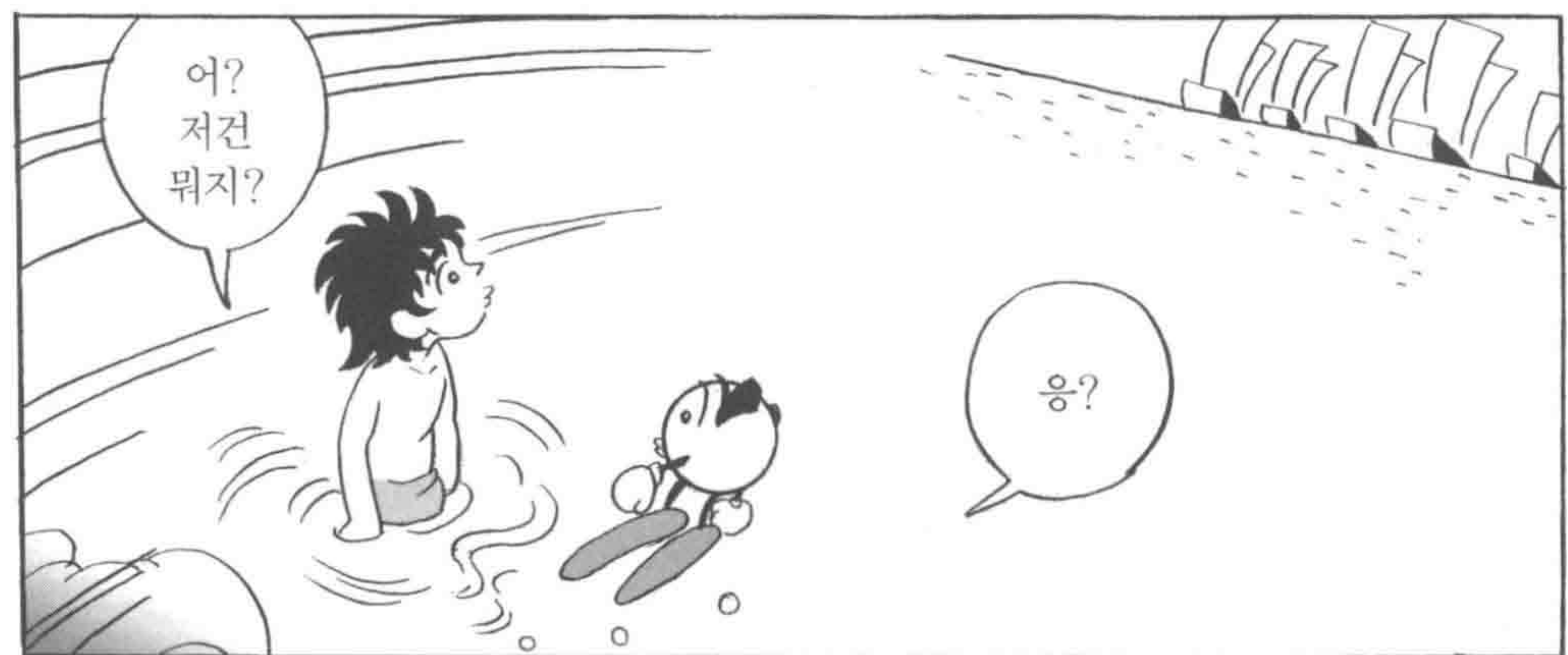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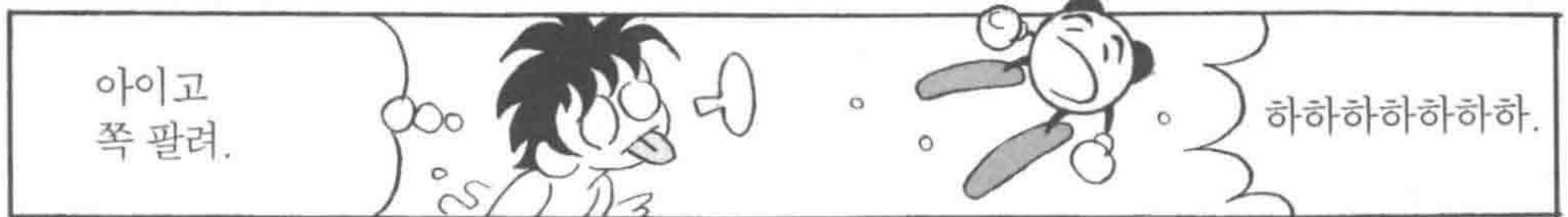


조선으로
출정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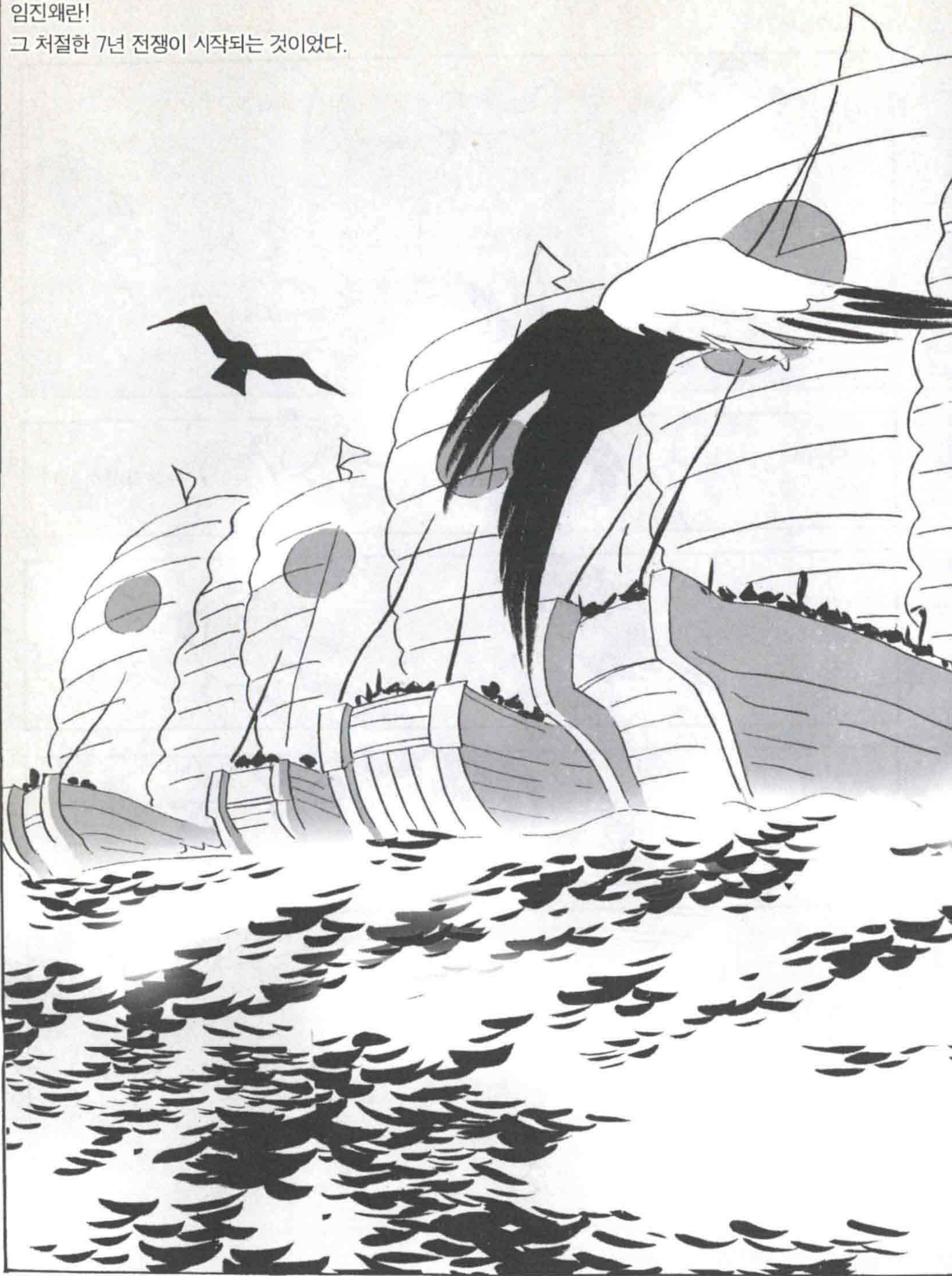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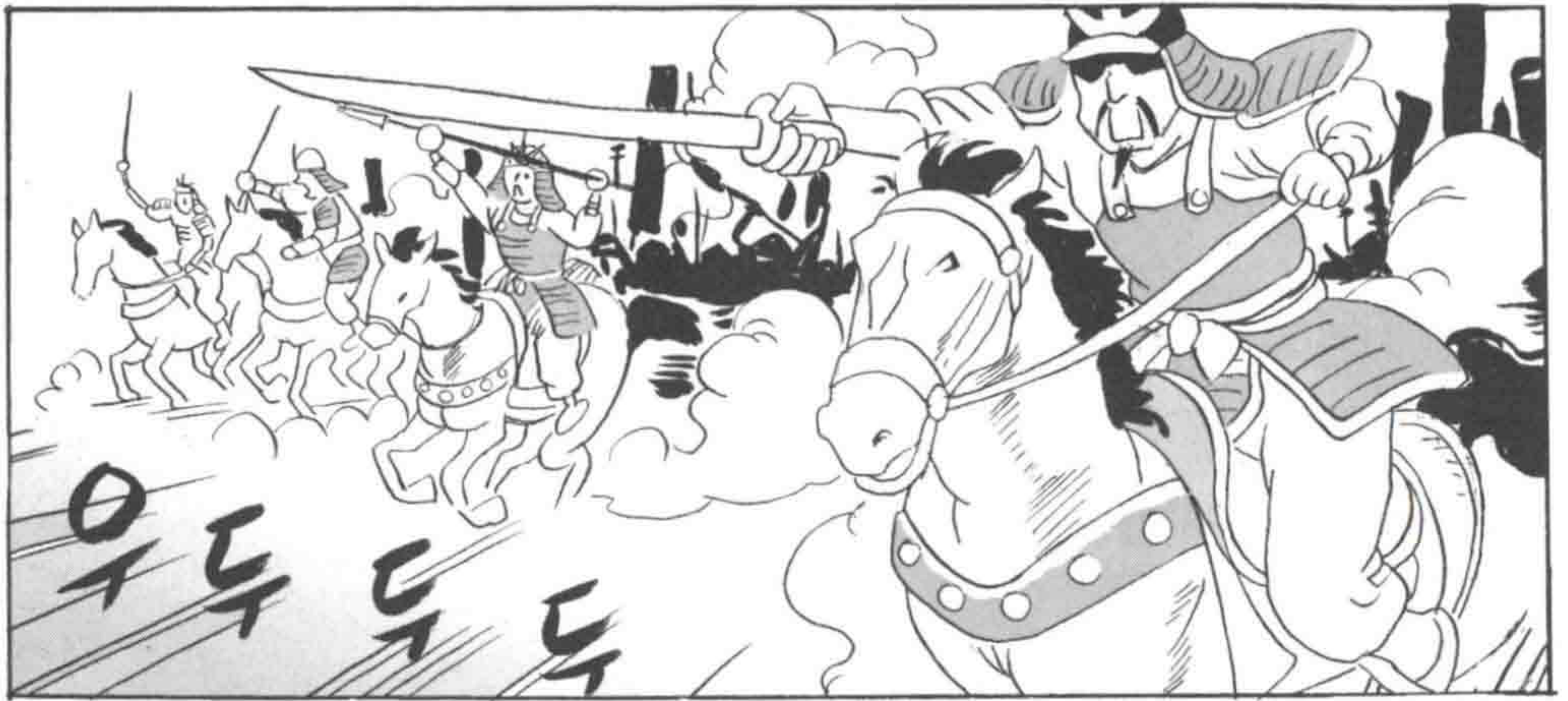


임진왜란!

그 처절한 7년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안 된다.
이렇게
물러설 수만은
없다.
이러다가는
임금이 계신
대궐까지
왜놈에게
내주게 돼!



다시 대오를
정비해
왜놈들을
죽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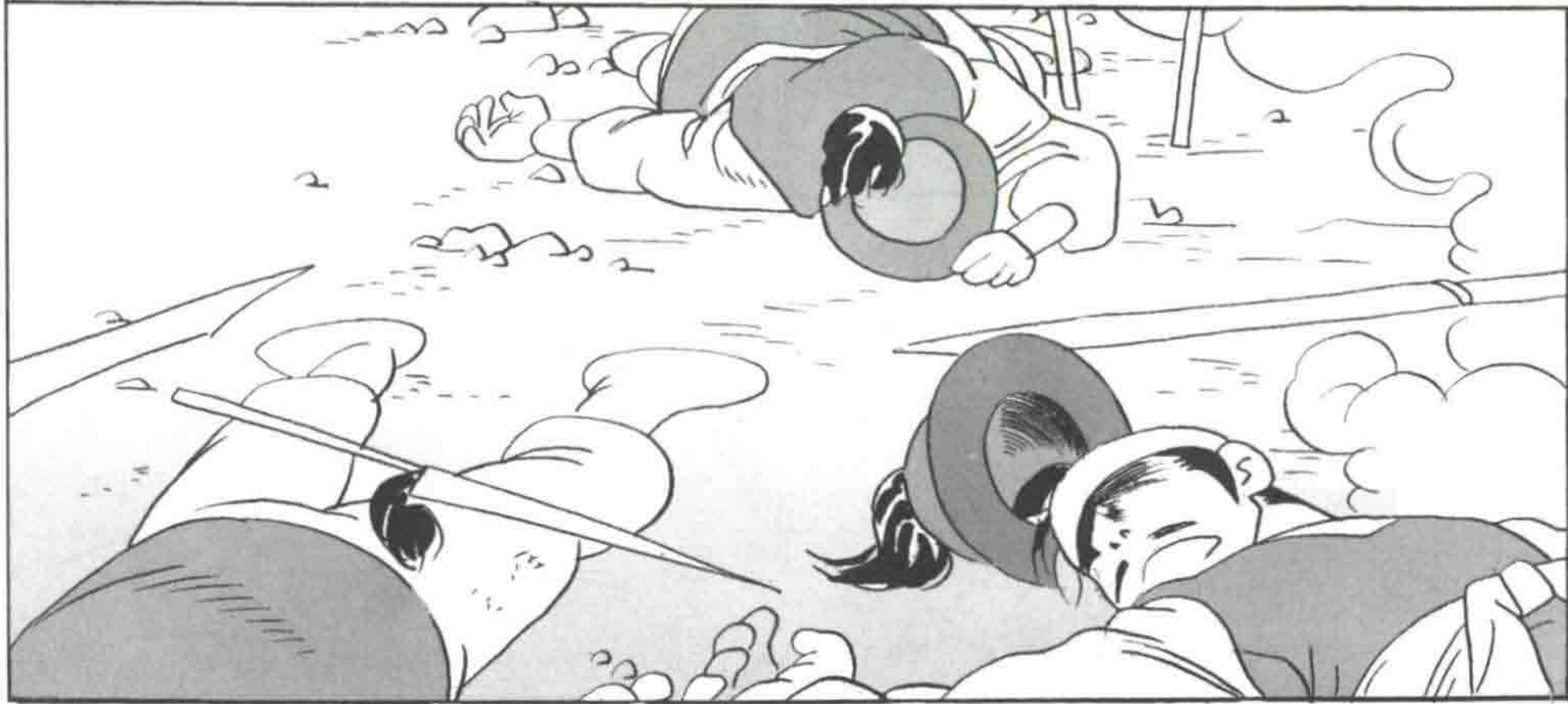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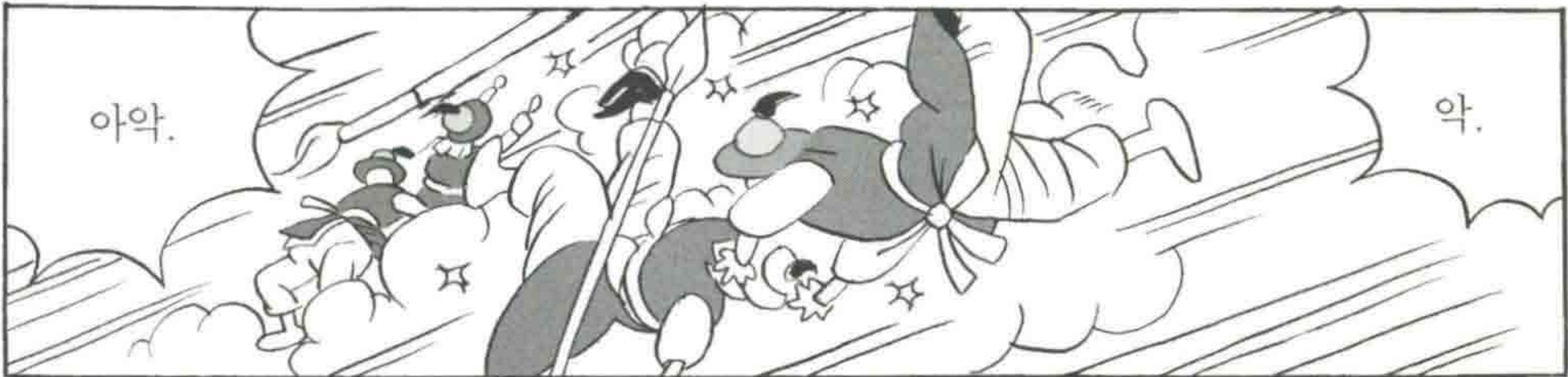
죽여!
나를
따르라!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와아아아아

돌격!
조선을
지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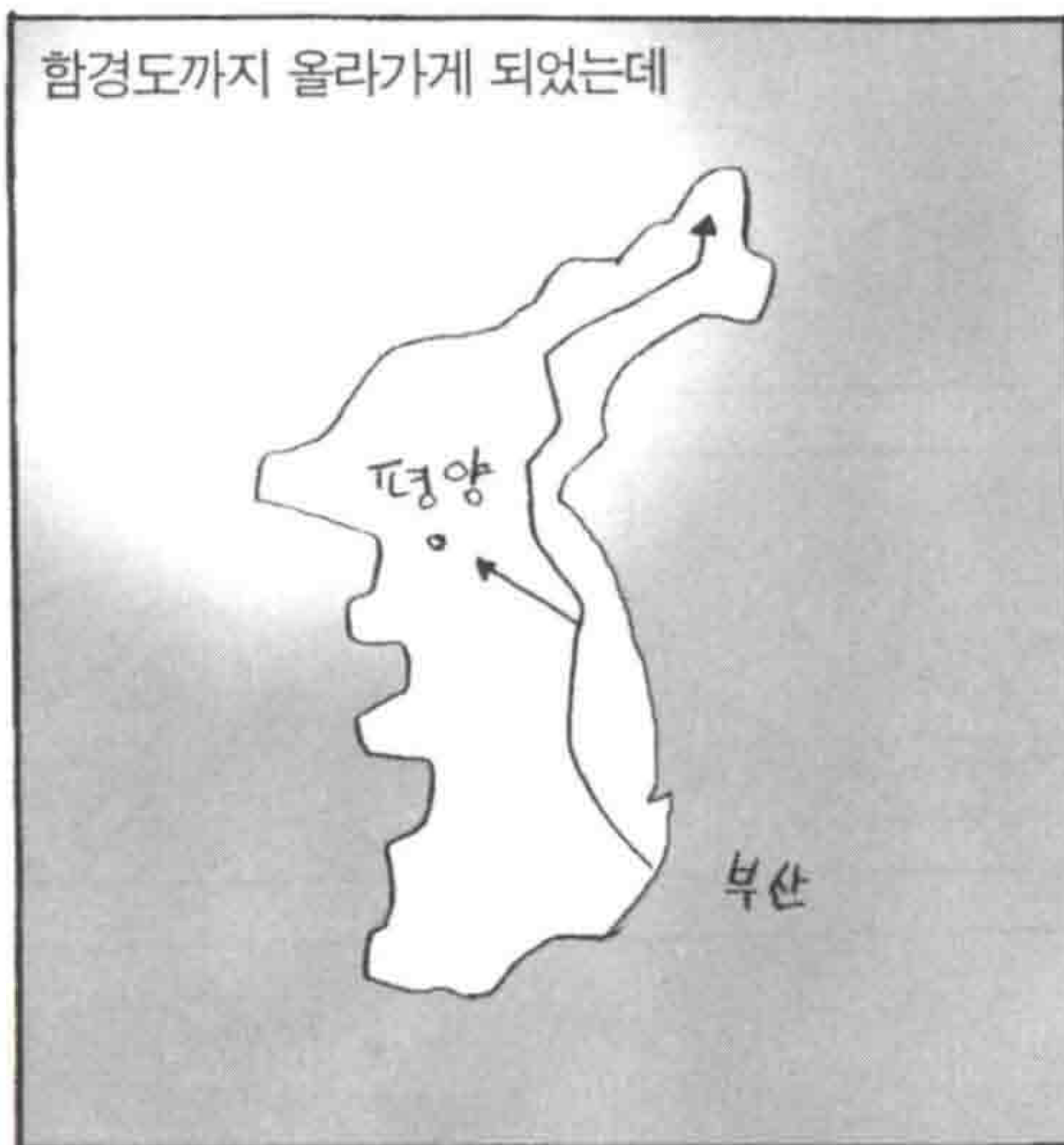
일본은 승승장구 싸울 때마다 승리를 했고
조선국토를 치고 올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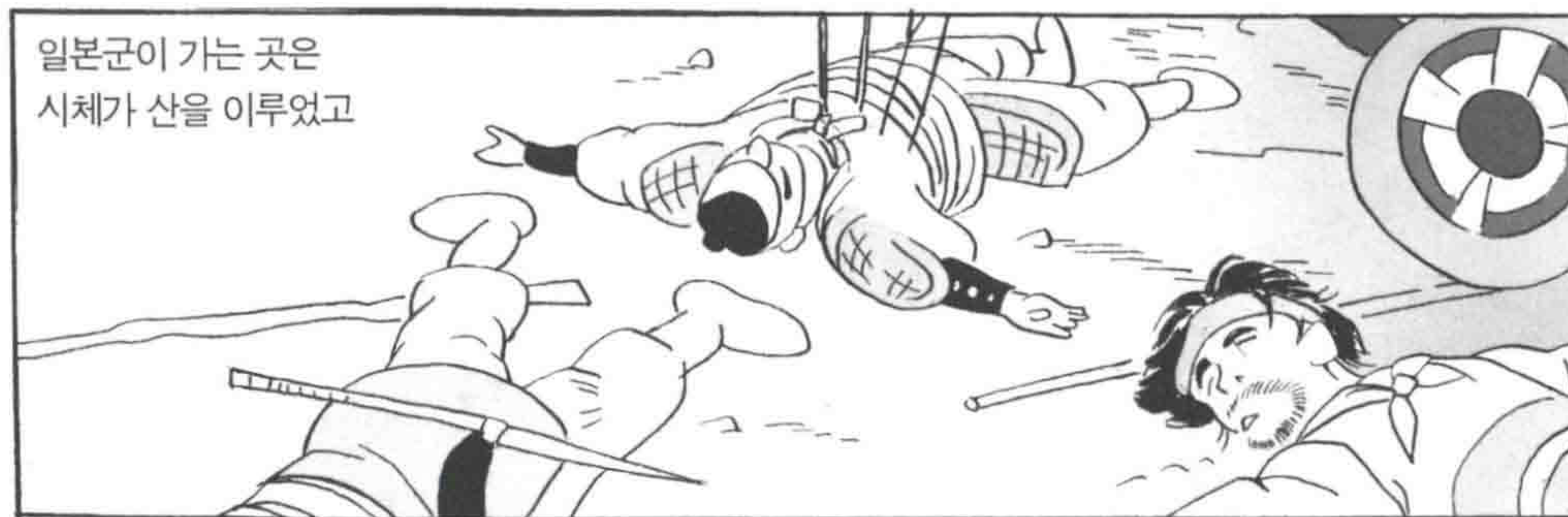
한양과 평양을 점령하고



함경도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일본군이 가는 곳은
시체가 산을 이루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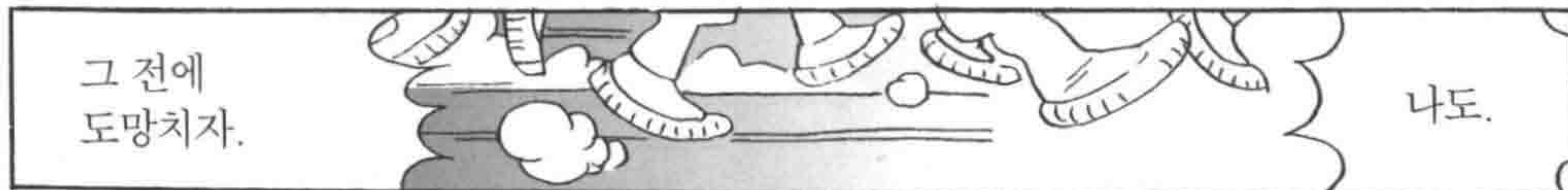


싸우면
싸울 때마다
졌지.

!



즐기차게
졌겠네.



그 전에
도망치자.

나도.



저저,
멍청한
관군들.

싸우기도
전에
도망을
가요.



아니?
일본군들이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데
그래?



그럼
싸우지도
않고 도망을
쳤단 말야?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쩍.

그래도
싸워보긴 해야지.
아무리 일본이
무섭다고
.....



그리고 최경희도 일어섰던 것이다.



다시 전라 장수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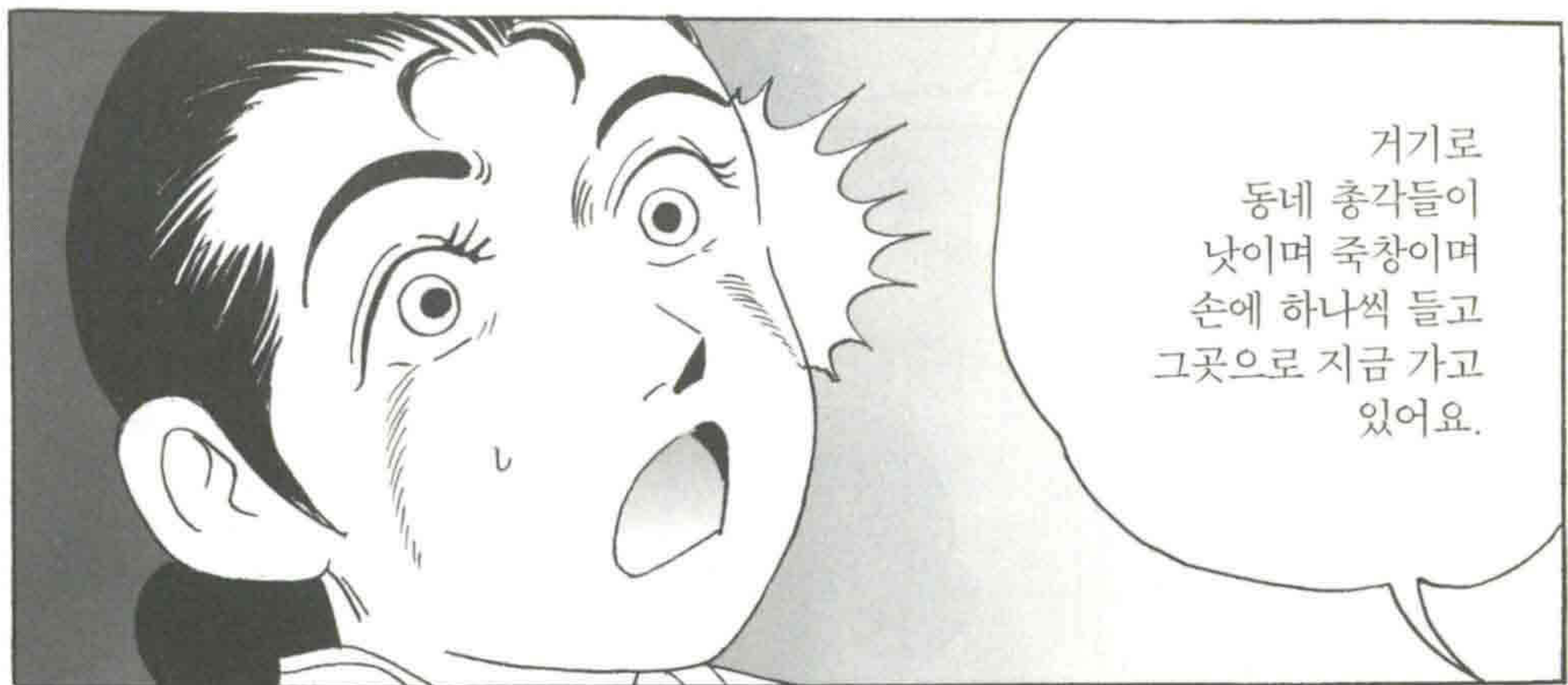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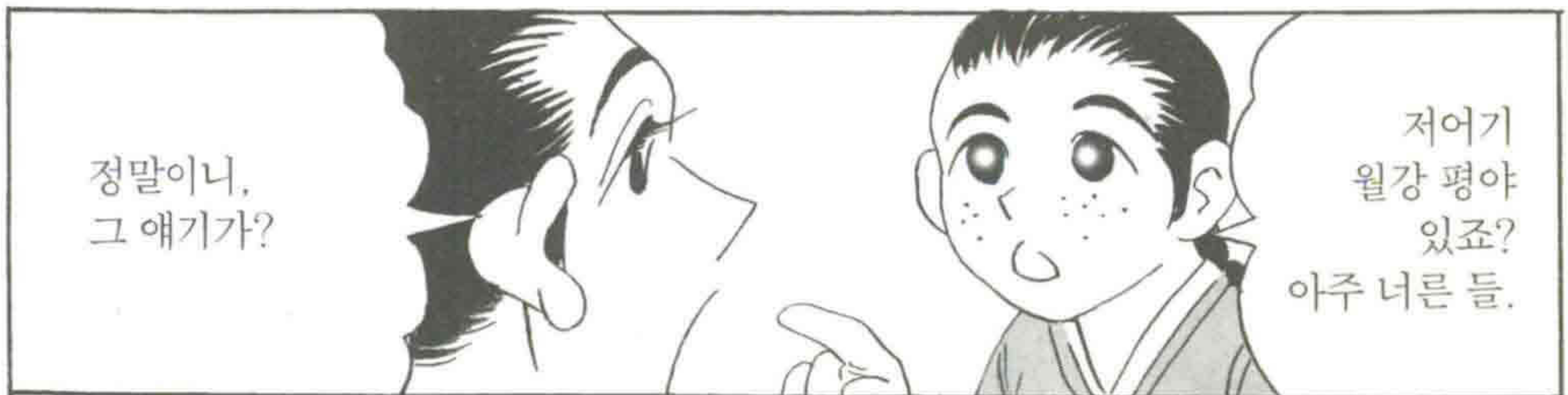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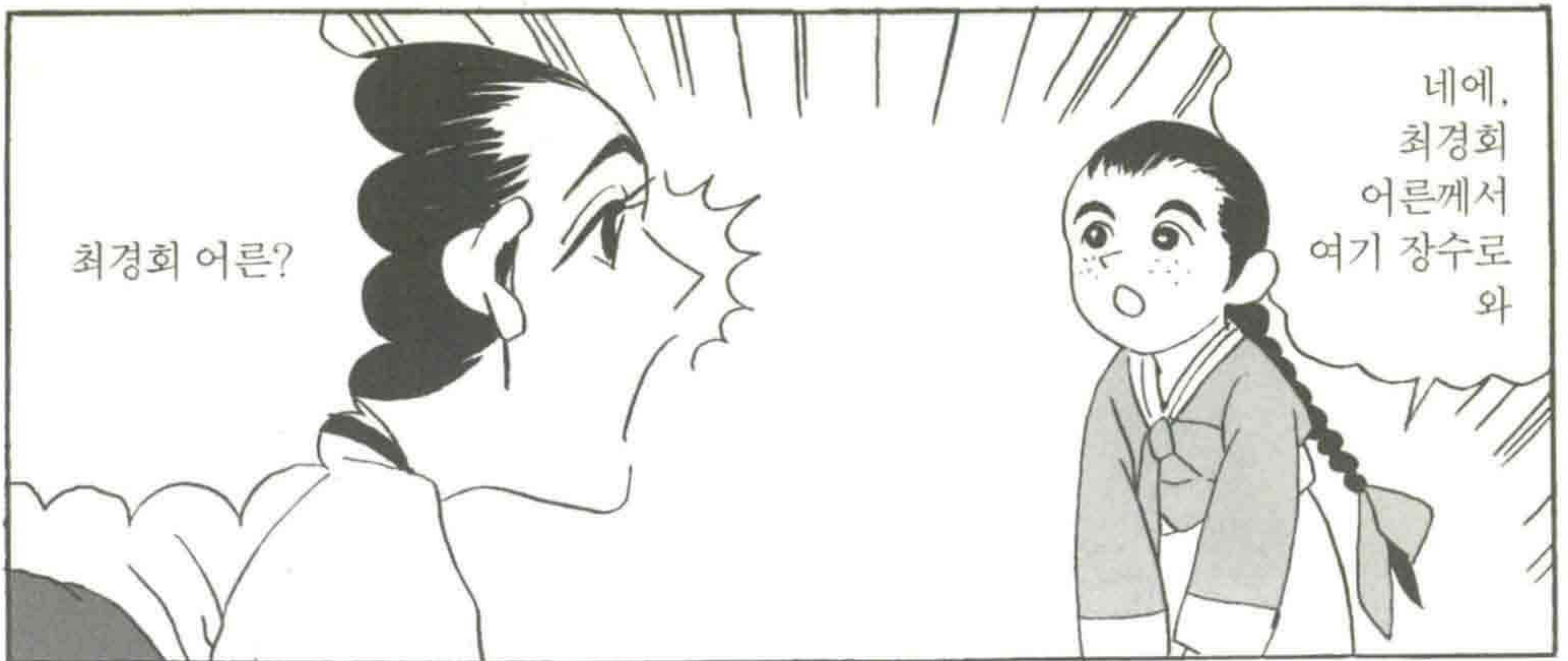
논개
아씨

누가
밤중에 이리
호들갑이냐?



왜놈들이
장수땅에라도
들어왔다던?

그... 그게
아니고요,
저... 최경희
어르신 있죠.





어...
어르신께서
의병을.....



논개는 생각했다. 2년 전인가 논개는
최경희 부실로 들어가 참으로 귀여움을 받으며
부부로서 잘살았었지 않았는가.



그런데 1590년 12월
최경희 어머니 순창 임씨가
돌아가시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논개야.

네
어르신.



내 너에게
참으로
못할 말을
해야겠구나.





그때 생이별을 하게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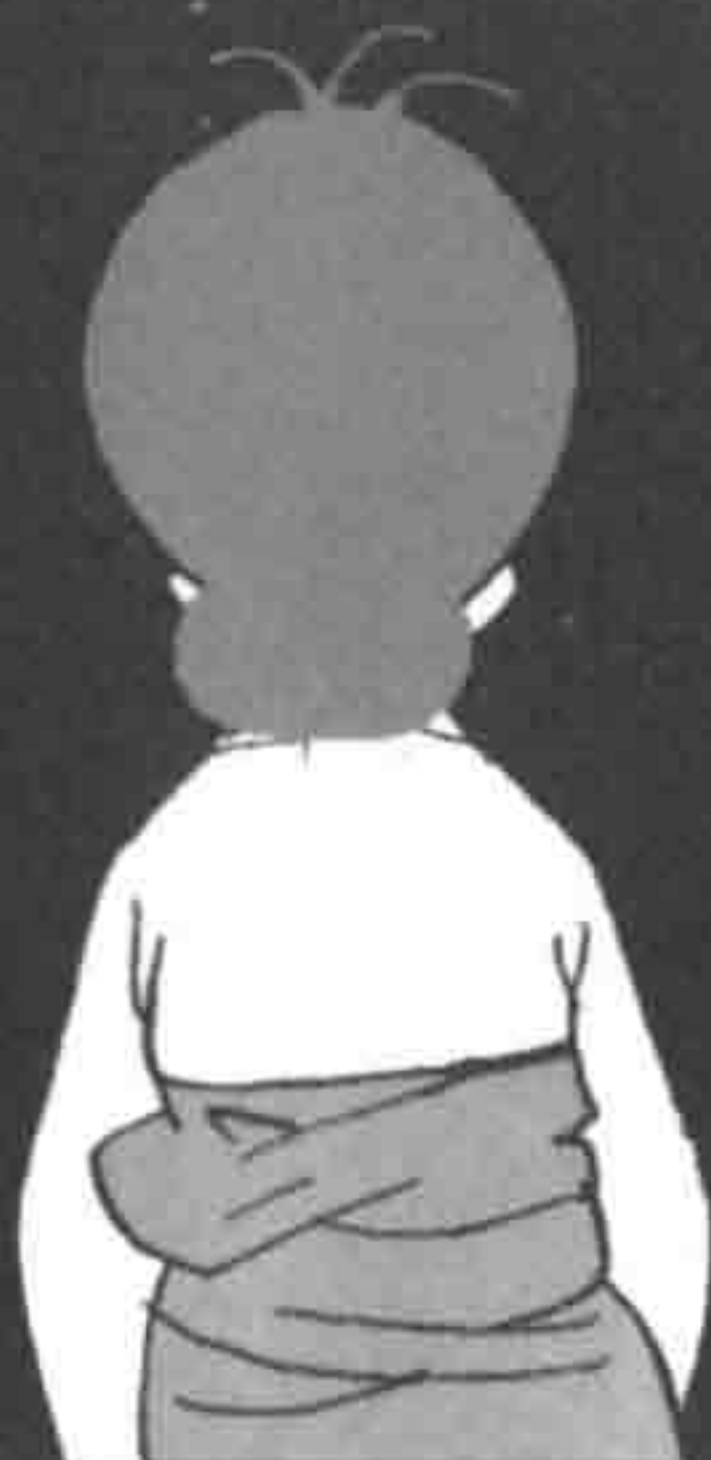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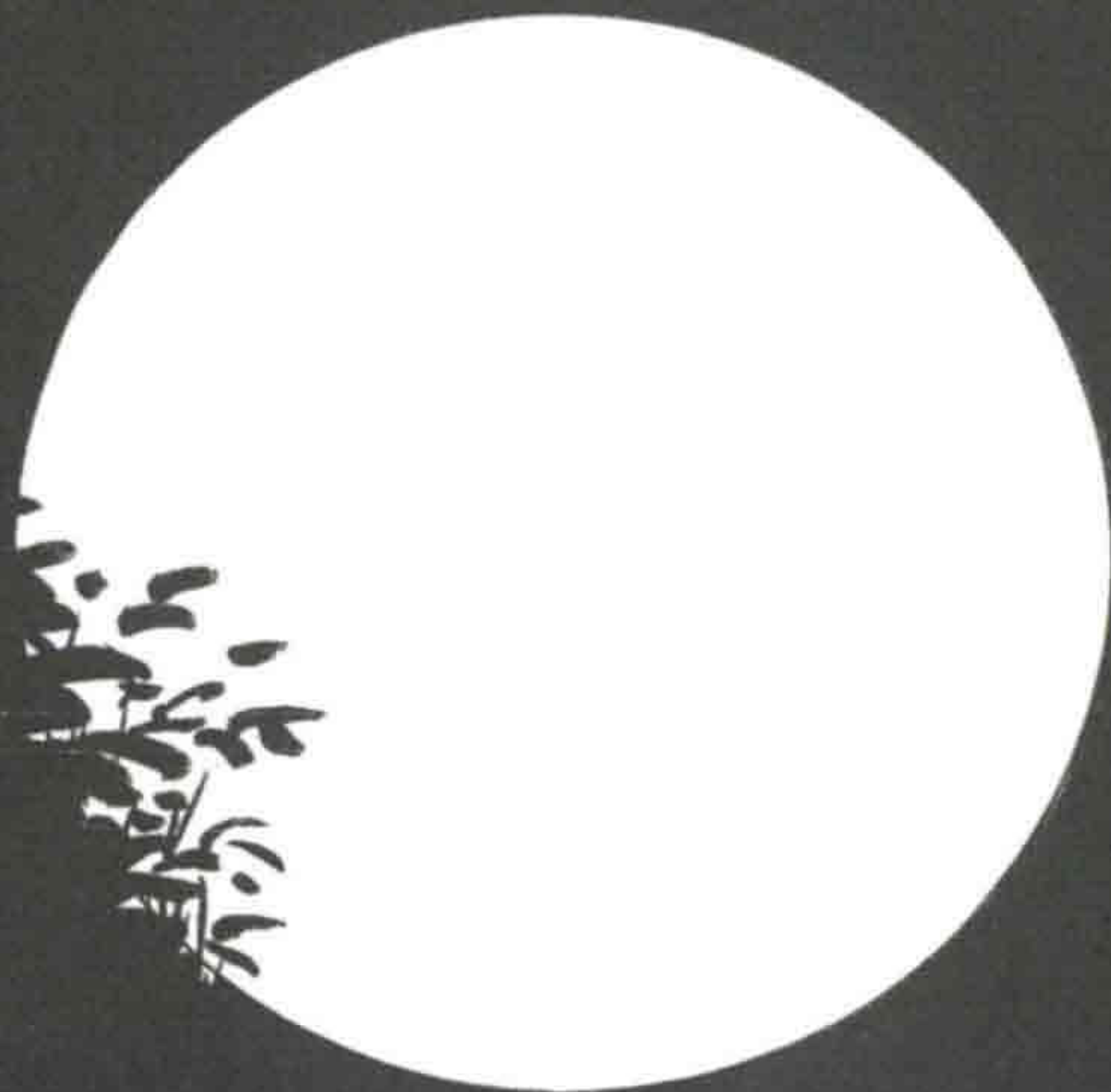
그런데 나라가 위태롭다고
다시 고향을 나와
의병을 모으신다니.....



정말로
정말로

흡릉하신 분.

.....





장수에서 무주에서 진안에서 의분에 찬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와글와글 북적북적



자넨
어디서
왔는가?

남원.



자넨?

임실이제.

우리
용담 사람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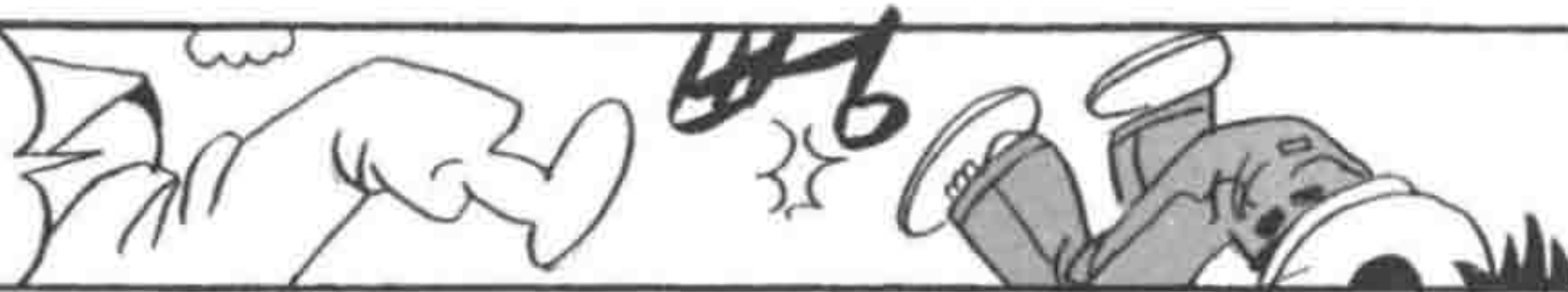
넌?

저는
서울에서
왔구요.
쌈 잘해요.



마! 넌 가서
공부나 해.

꽤.



이렇게 해서 월강 평야엔 8백 명의 의병들이 모였는데



원래가 무인이기도 했던 최경희는
이들을 맹훈련시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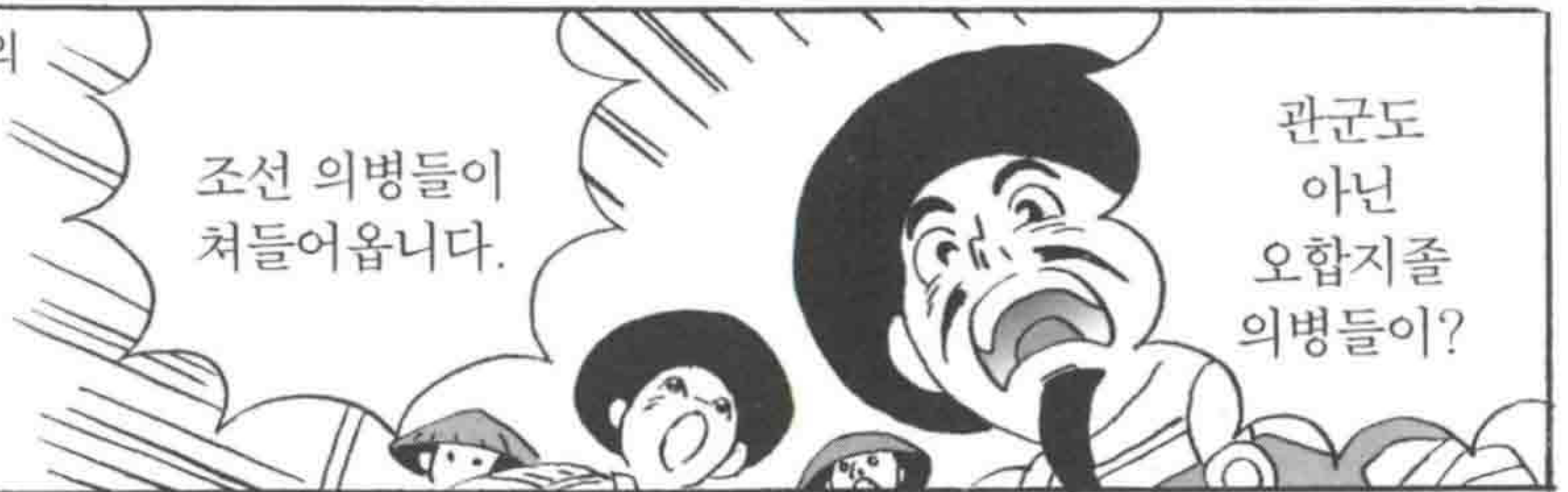
1592년 9월 밤안개
자욱한 날.



유명한 고바야키 부대의
정예군을 상대로
첫 전투를 벌였는데

조선 의병들이
쳐들어옵니다.

관군도
아닌
오합지졸
의병들이?









이에 충격을 받은 왜군들은 무주 쪽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퇴각했는데 그중 한 일본군 부대의 장수가



나는
퇴각을
못해.

히히히



최경희라는 놈이
일본군을 이기고
있다 하는데
내가 그놈을 잡아
이 칼로 죽여버리리라.

☆☆

최경
☆☆



도요토미 히데요시
태합께서
하사하신
이 명검으로
말이다.

우르르

르르

르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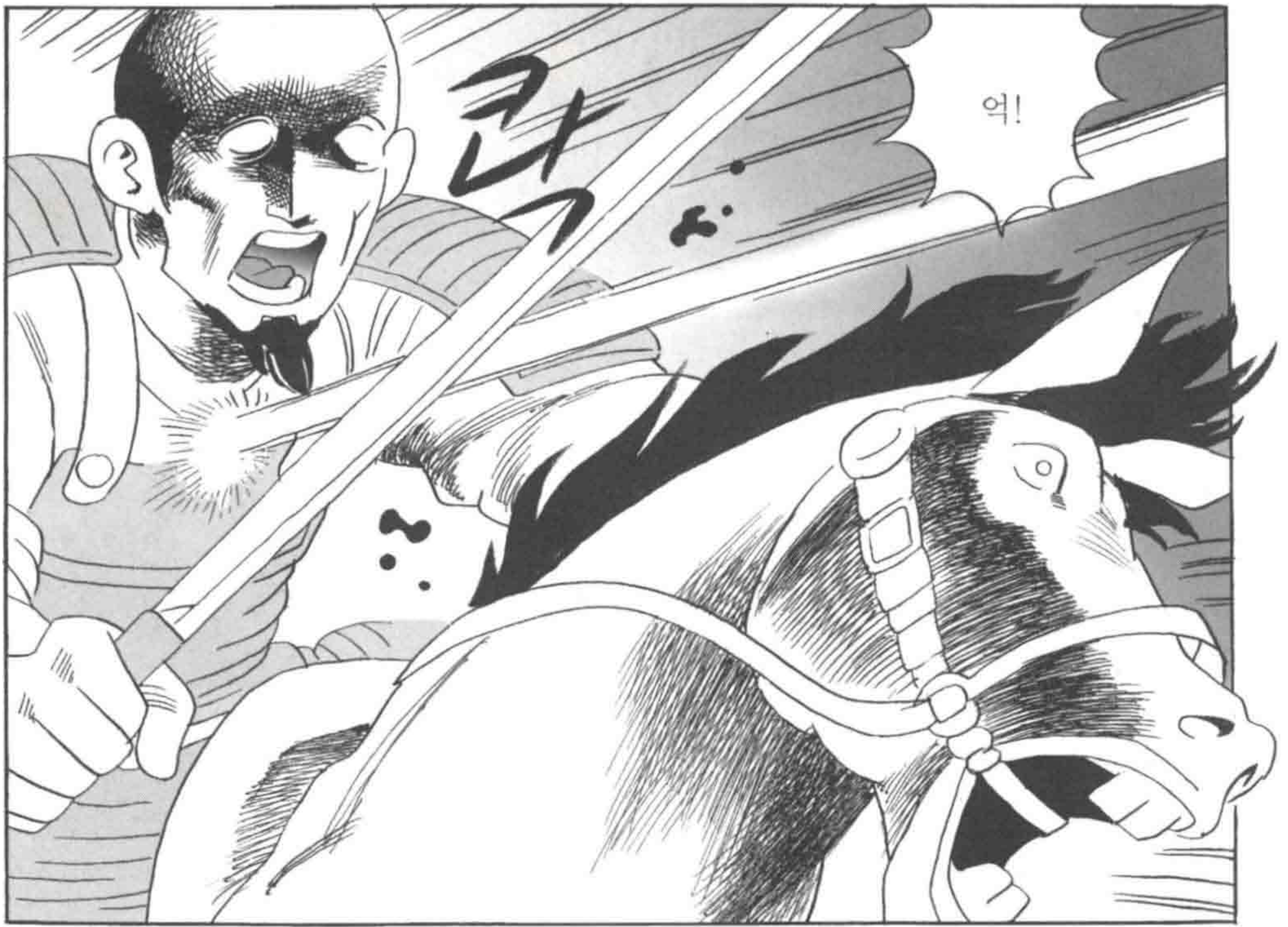
르르

르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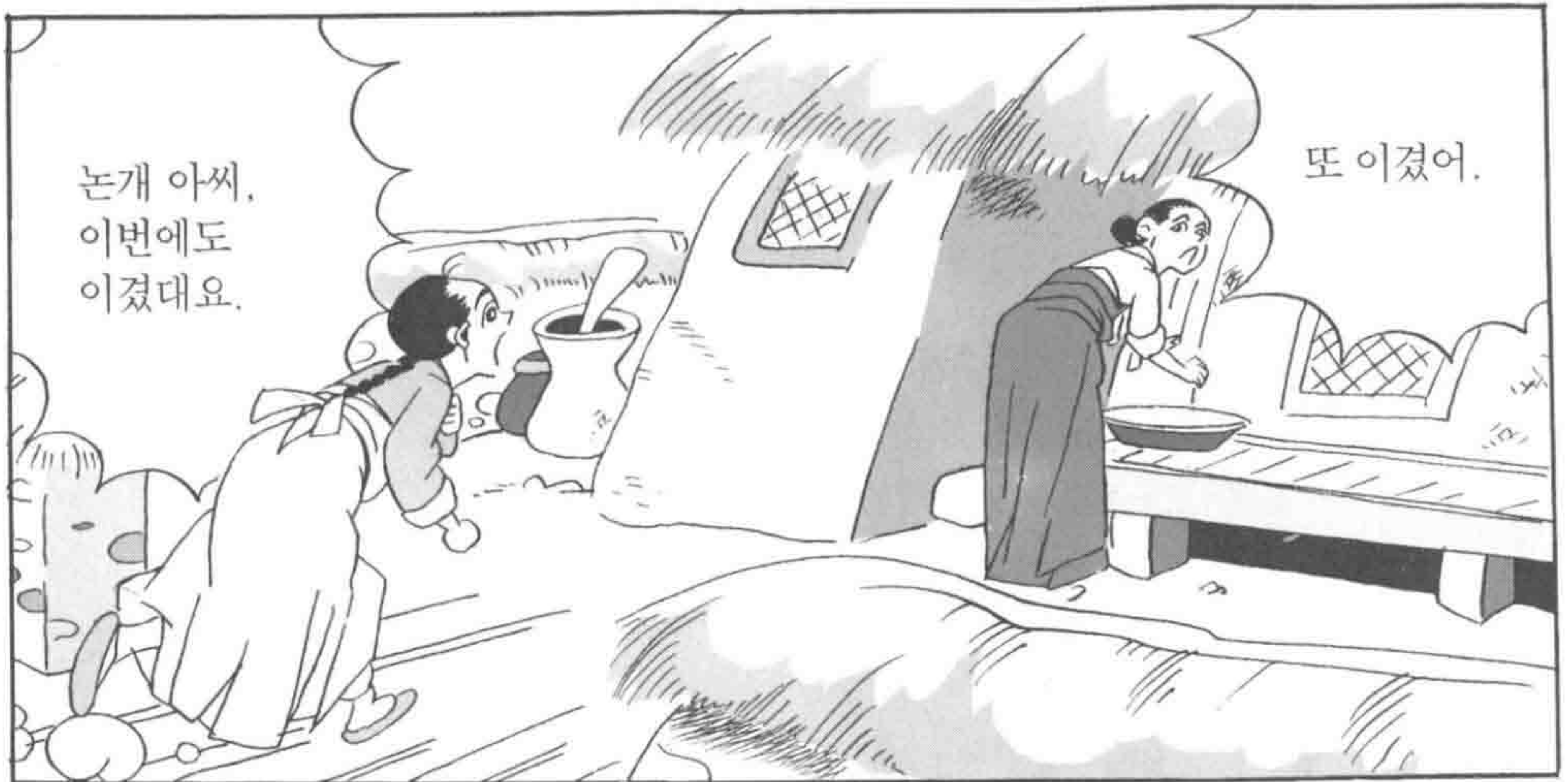
르르

다시 가자.









논개 아씨,
이번에도
이겼대요.

또 이겼어.



근데 이번엔 백마 탄
왜군장수까지 죽이고
보검까지
빼앗다는
데요.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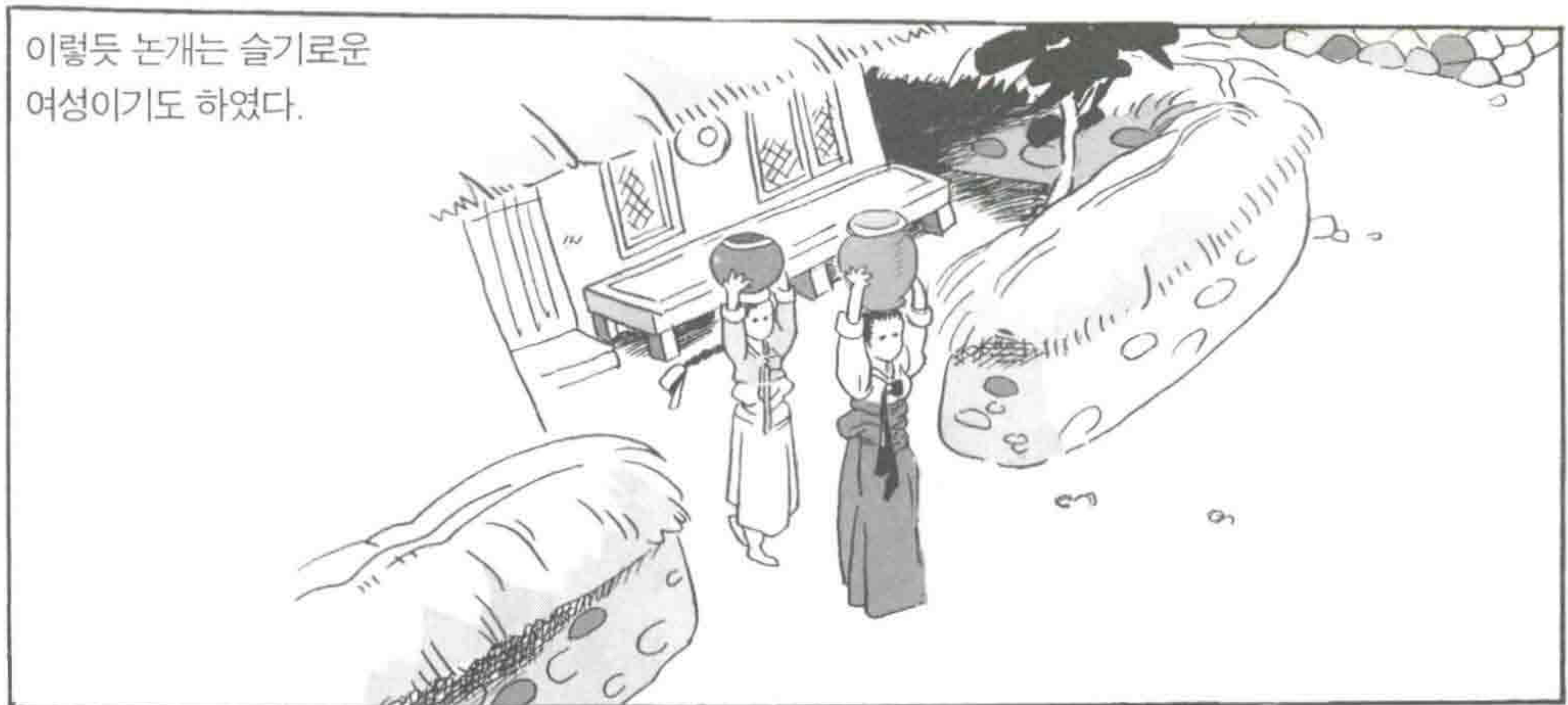
웅성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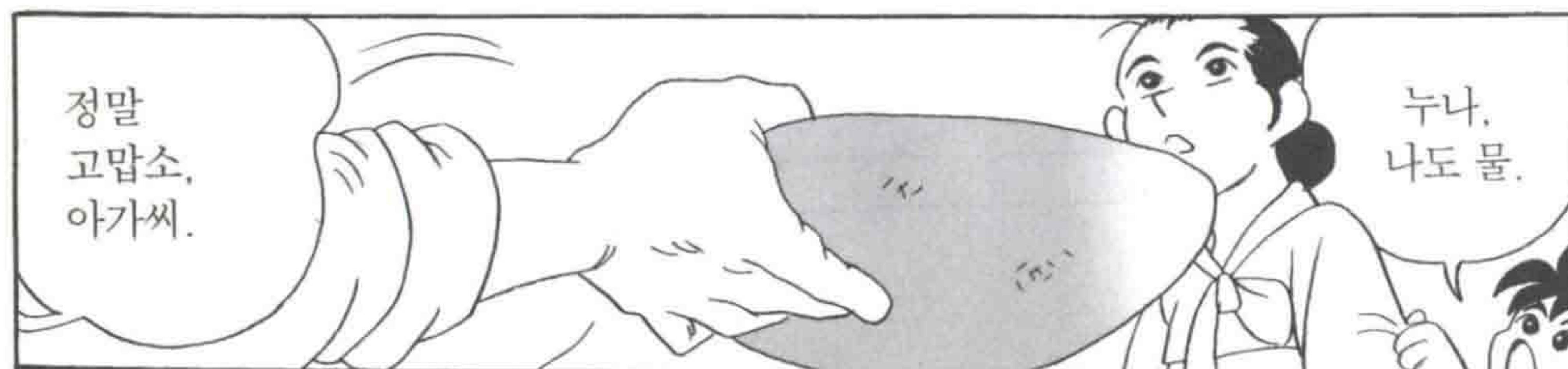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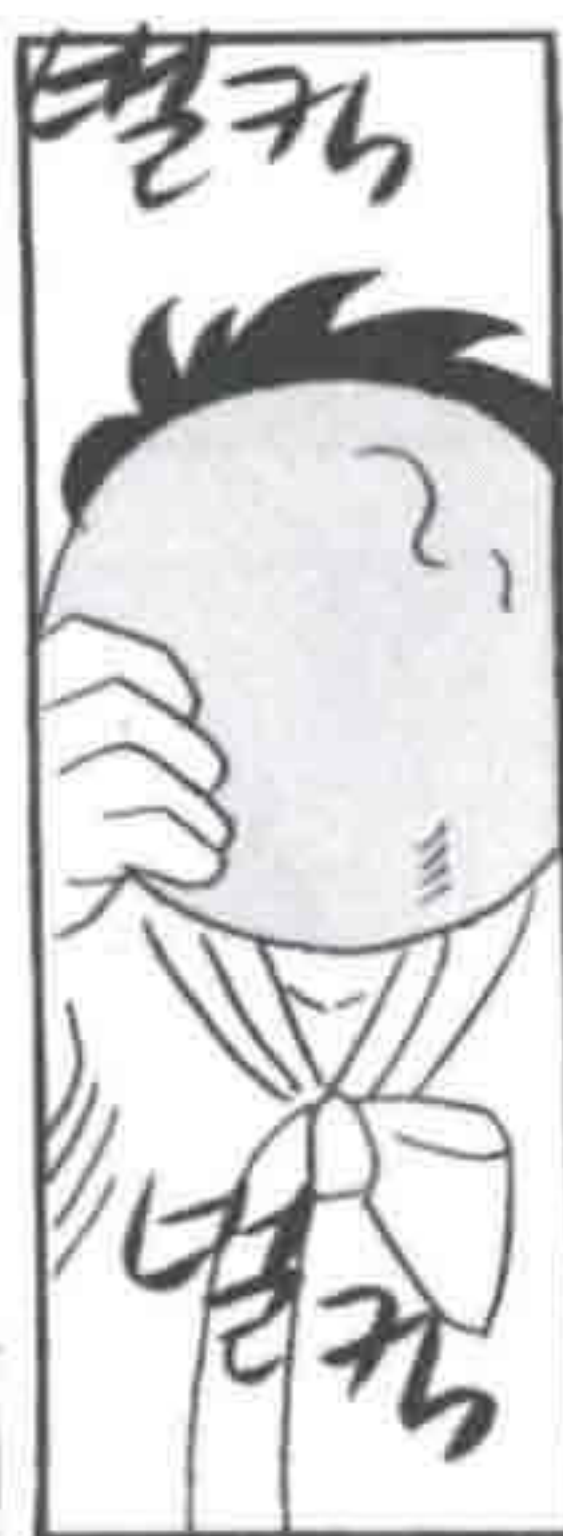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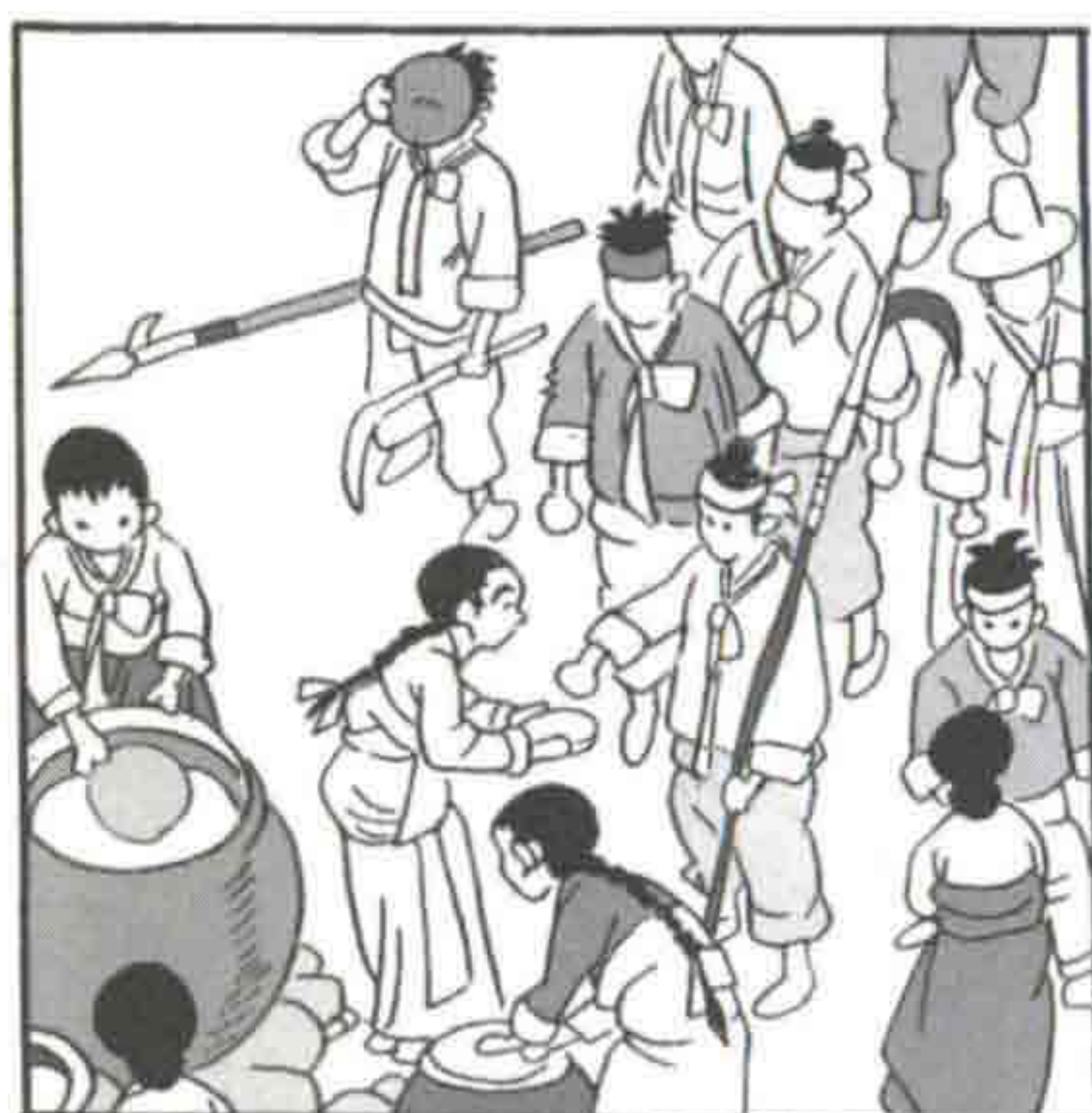
이게
무슨
소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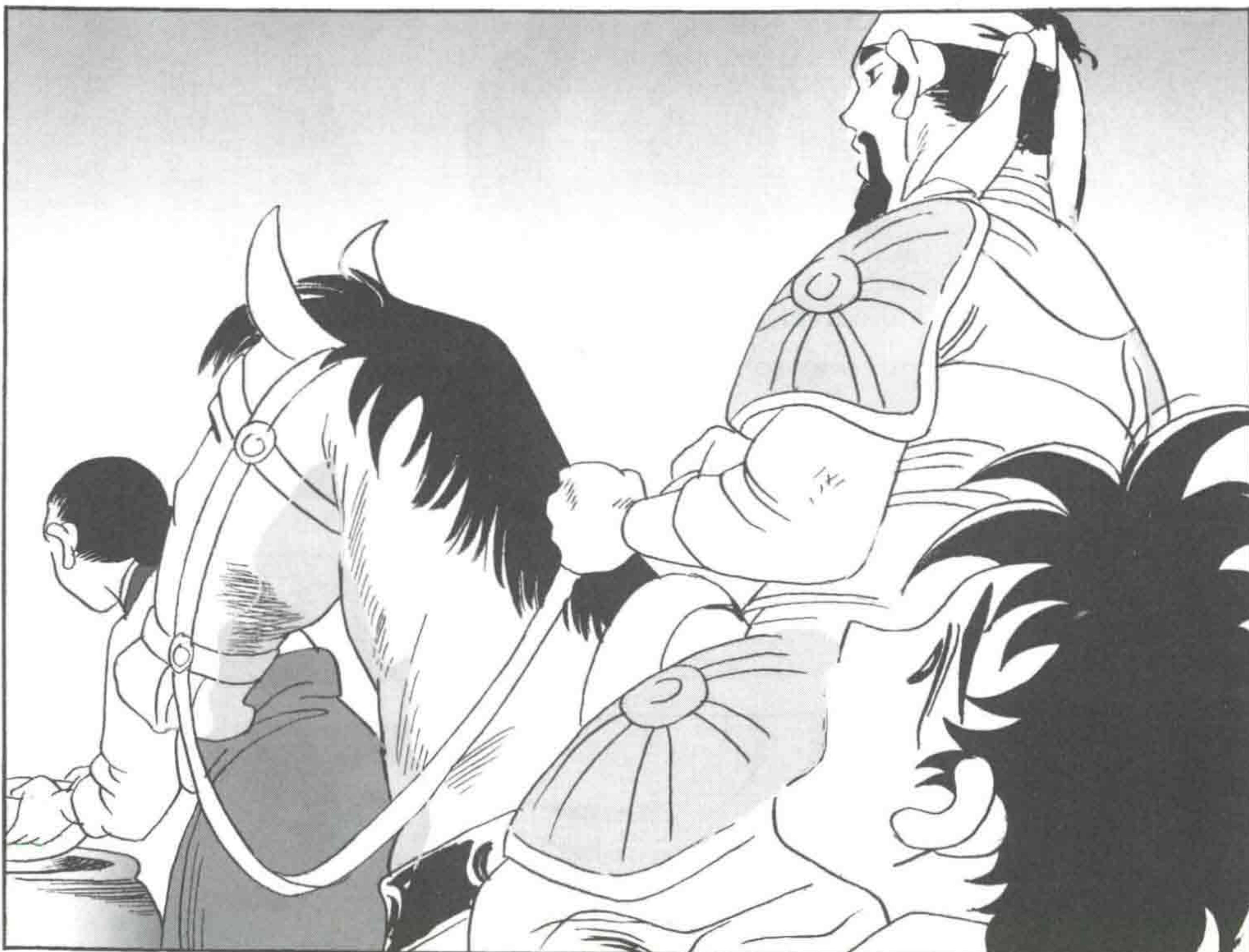


의병들이
온다.

왜놈들을
또다시 무찌른
최경희
의병부대가 와!









그래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허허허, 내가
참으로 미안하구나.
어린 너를 이렇게
홀로 놔두고
고향으로 내려갔으니.



아니옵니다.
어르신.



효는 사람의
근본인데
어찌 3년상
치르러
가시는 분을
제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래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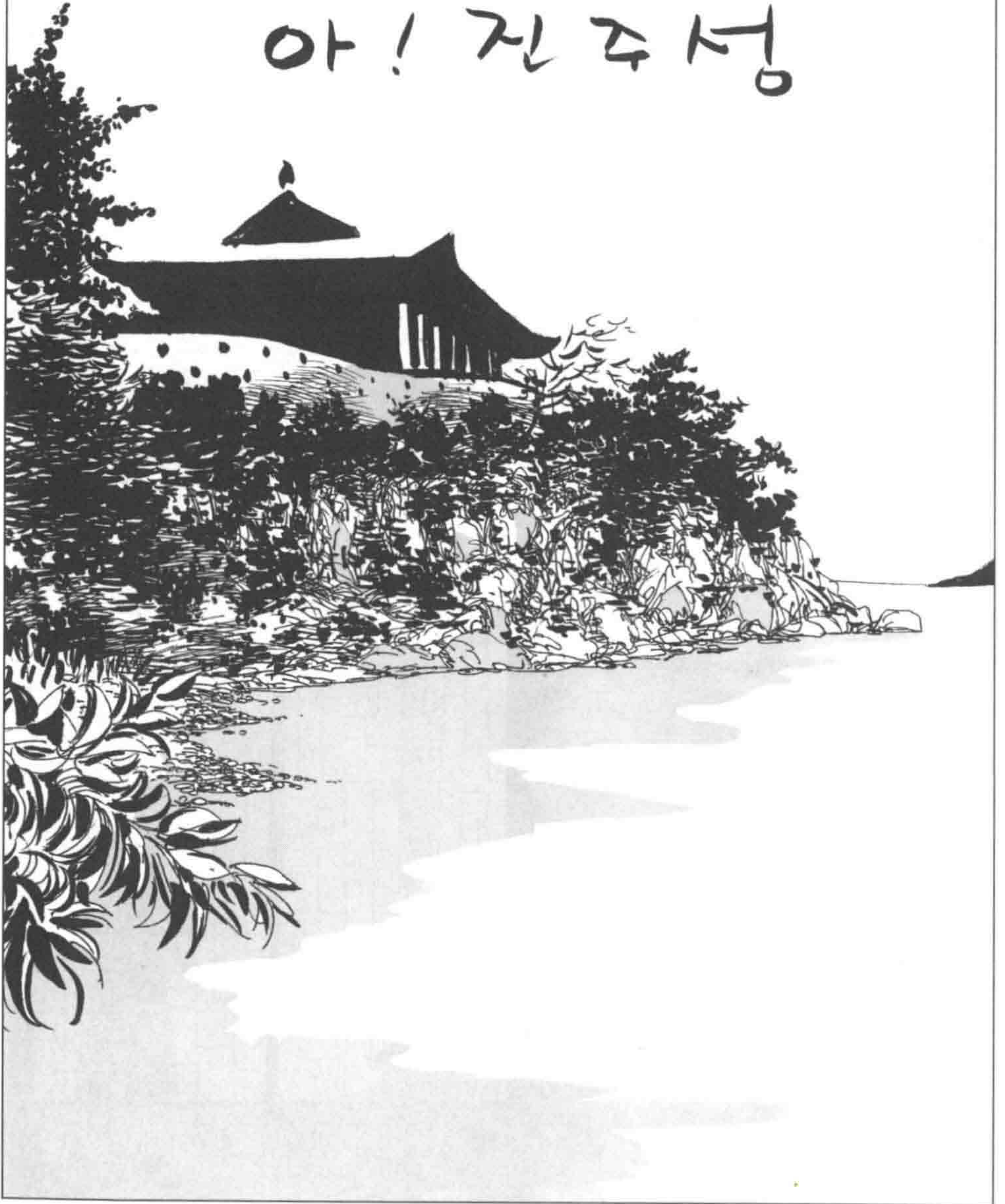
아니야.

어떤 역사가들은 이런 얘기도 한다.
최경화가 자기 고향인 화순에서 의병을 일으키지
않고 장수까지 온 것은 그곳에 두고 온 늙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 7 장

아! 건국성



임진왜란 초기 전혀 준비도 안 된
조선을 신나게 유린했던 일본군들은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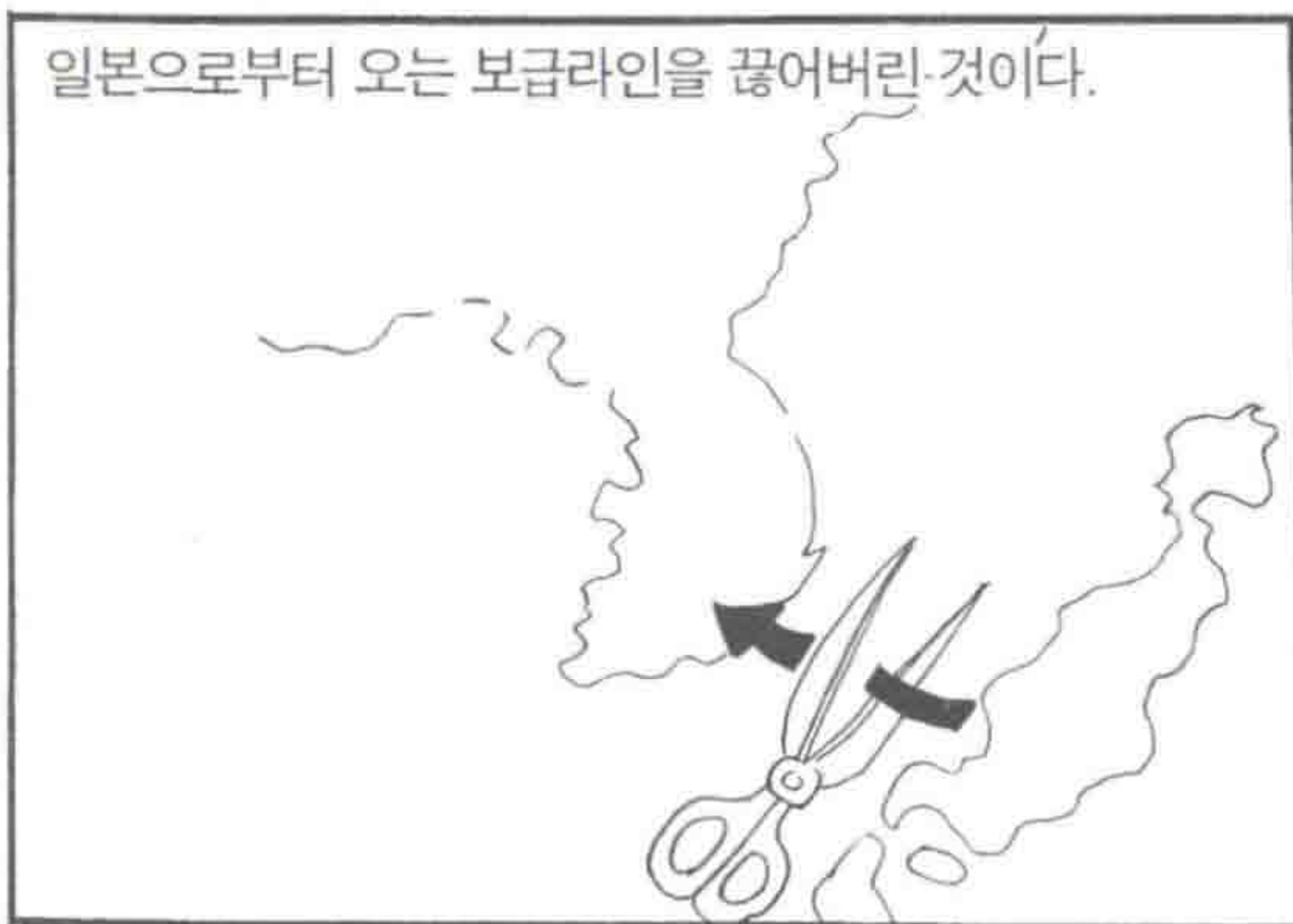


야호!
나두 알아.
이순신 장군!!

드디어
때가 왔구나!
호호.....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조선 수군에
귀신같은 해전의 명수가 나타나더니.....







그래서 일본군은 경상도까지 쫓겨 내려간 후
그들 병력을 재정비해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지 않겠소?

아암~,
그럴 순
없지.



우리 다시 한번 냉철하게
작전회의를 해서
조선을 재차 집어먹을
방법을 생각해
보자구.



내가 말ियो,
이 조선지도를 보니까
전라도를 점령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이번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걸 알았소.

전라도가?

조선의 전라도는
넓은 평야지대가 많아
거기에서 술한 곡식이
생산된단 말이지.

그래 함경도까지
올라가봤는데
전부가 징그러운
산이었어.

평양까지 갔는데도
마찬가지야.
가는 길에 보이는 건
온통 산에다 고갯길.

정말 땀캐나
흘렸지.

구로다 나가마사

고니시 유키나가

그런데
이 전라도를
빼앗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조선것들은
임금부터
다 굶어
죽는다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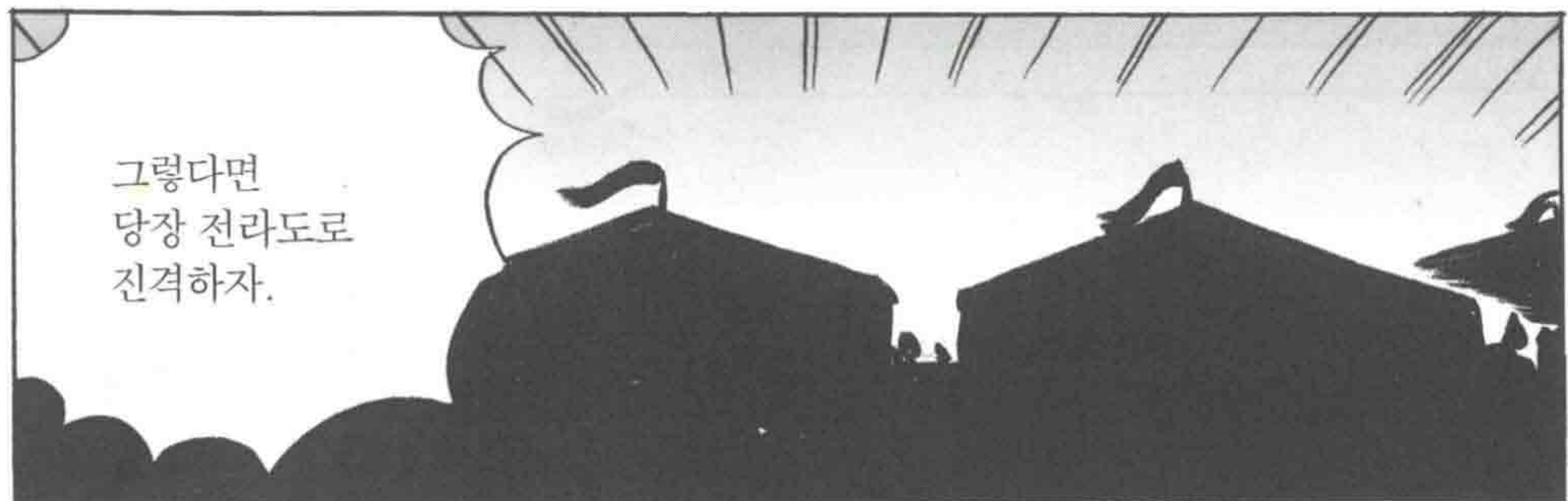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그 징그러운
의병놈들도
뭘 먹고
싸울 거야?



맞다.
곡창지대를
빼앗으면

그것들의
밥줄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



그렇다면
당장 전라도로
진격하자.



가자구.



그런데
문제가
있단
말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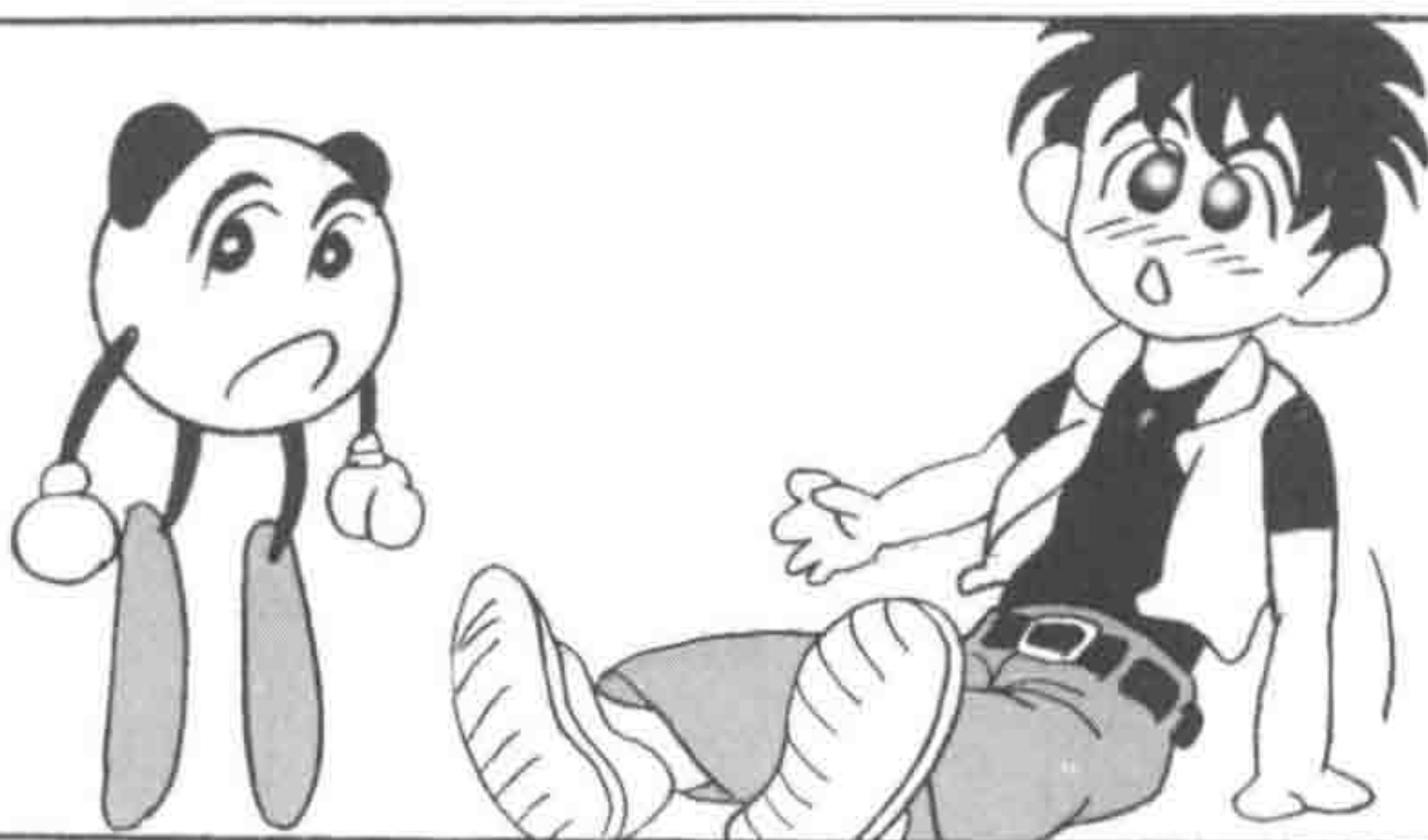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전라도로 가는 길목에
아주 튼튼한 성 하나가
따악 버티고 있거든.



진주성.

으아~
그 재수 없는 성.

일본은 그 전해에 2만 명을 동원
진주성을 공격했지만
큰 손해만 보고 철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 복수도 할 겸
전라도를 점령해
조선의 곡창지대를
차지할 겸
모든 병력을 동원해
진주성을 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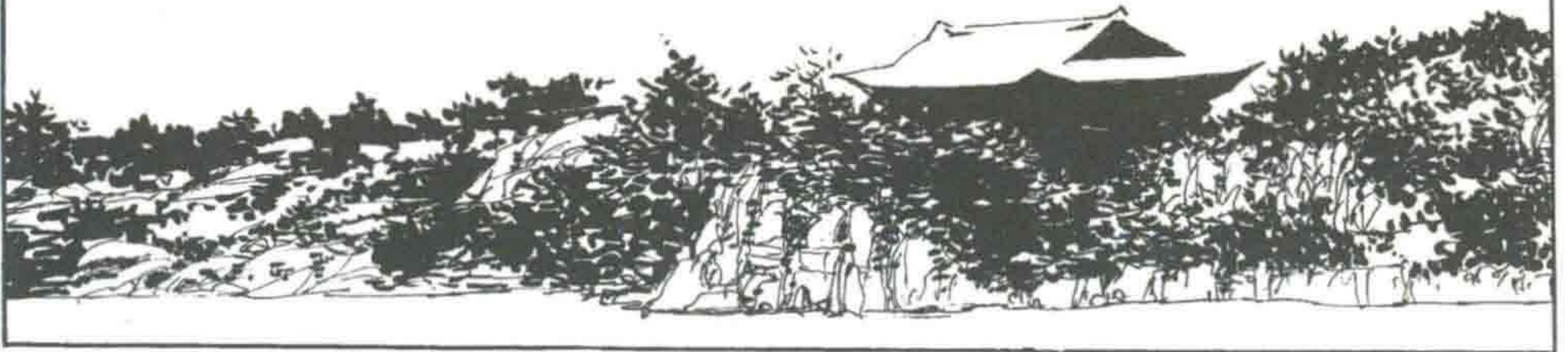


자!
돌격!





진주성에 풍운이 닥쳐오고 있었다.



10만 대군의 정예 일본병들에 비해



진주성의
병력은
의병을 포함
겨우 3천 명뿐.



아니
그렇게
적어?



세상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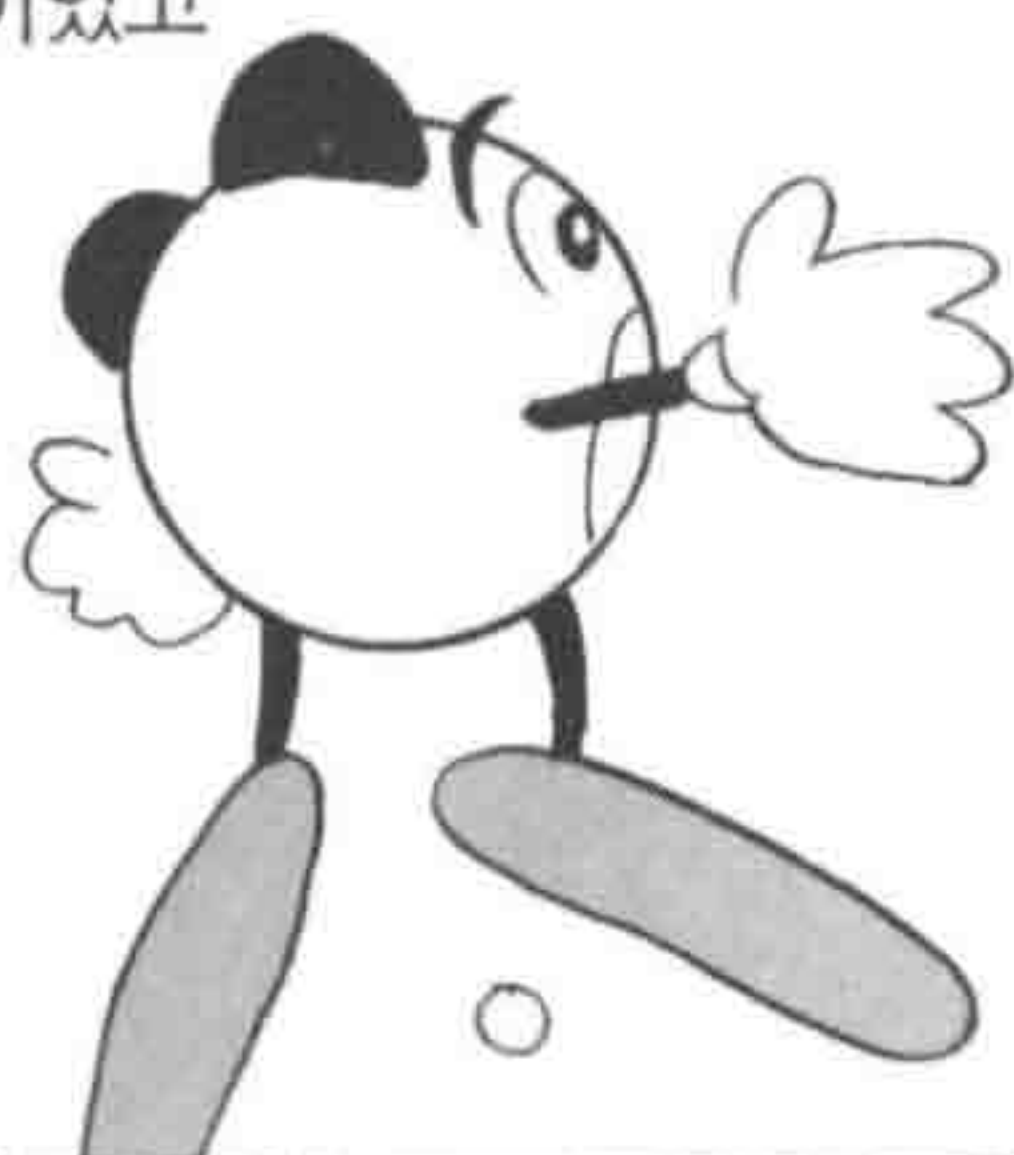


그리고 몰려드는
부녀자와 노인네들
6만여 명이
같이 있었다고
한다.



겨우?

이들을 지휘하는 조선 장수들은
김천일, 고종후, 황진 장군 등이었고



최경희도 장수 근방의
의병 4백 명을 이끌고



진주성으로 들어갔다.

骨鳥

정녕 죽음을 각오하고
성문으로 들어간 것이리라.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왜적들이
벌써 50리 밖까지
와 있습니다.

성을
더 튼튼히
쌓도록
합시다.



밤낮으로 허술한 곳을 수리하고

깡깡 깡깡



밤낮으로 무기를
다듬고 만들었다.

깡깡

그러나 제1차 진주성 전투 때
외각에서 싸웠던 최경회는



알고 있었다.



이 전투는 너무도
어려운 싸움이라는 걸.



임진년에 졌던 왜군은 그만큼 진주성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있을 것이며 복수심으로 불타 더욱더
강공으로 나오게 된다.





더구나 이번엔 일본에서도 최고의 맹장들인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가 직접 지휘까지 한다고 하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는 겨우 3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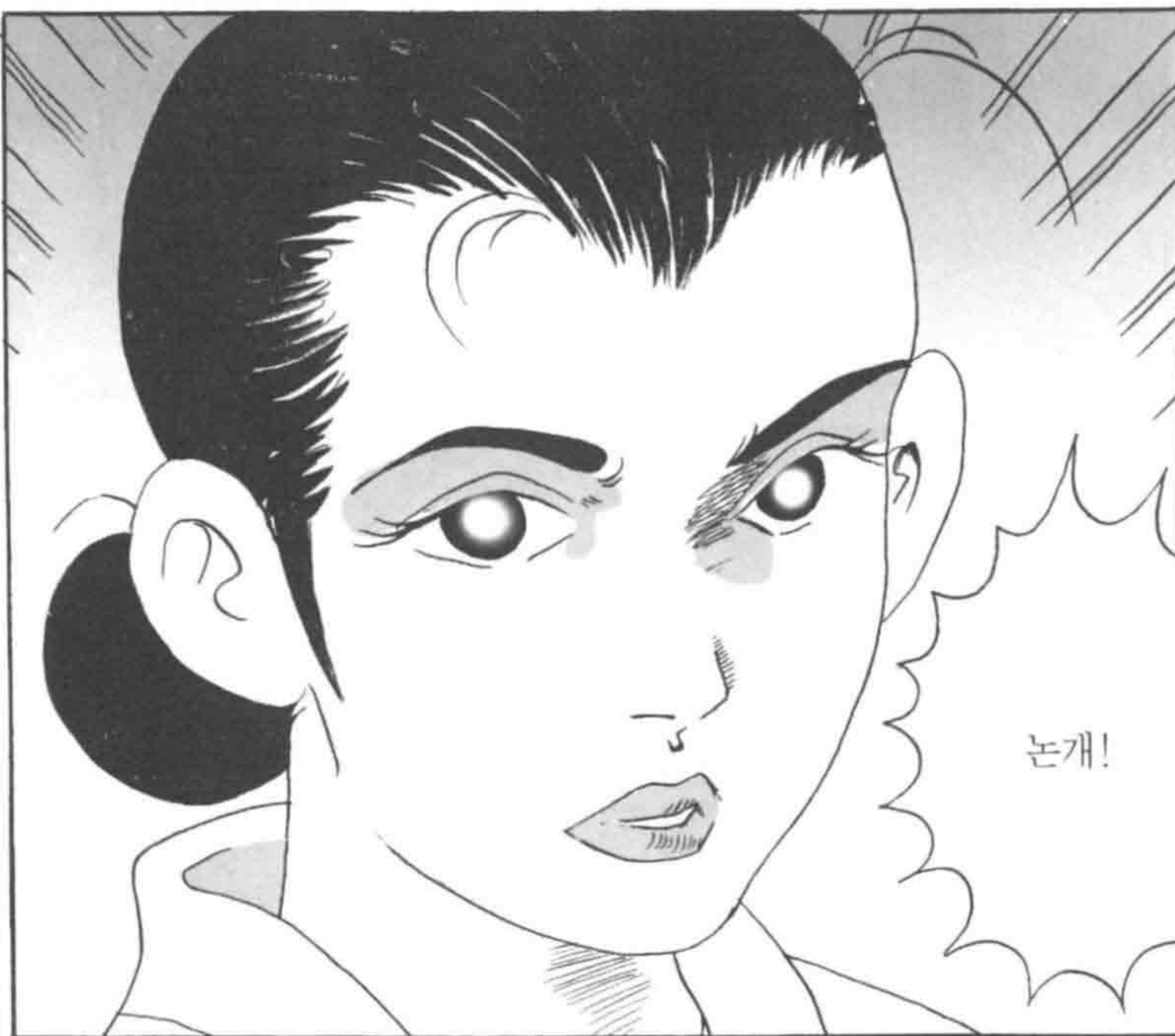
일본책에는 6천 명 또는 7천 명이라고 한다. 그래도 얼마나 적은 숫자니?



그런데 이때 최경희는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재회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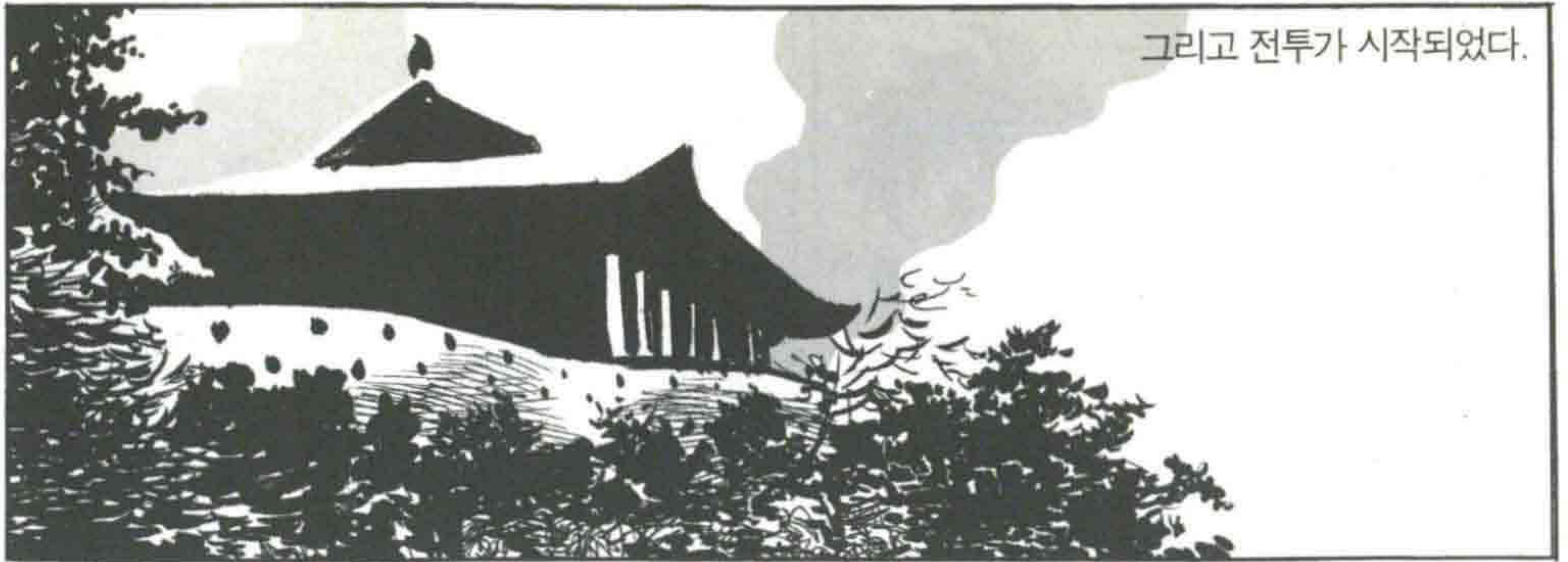


장수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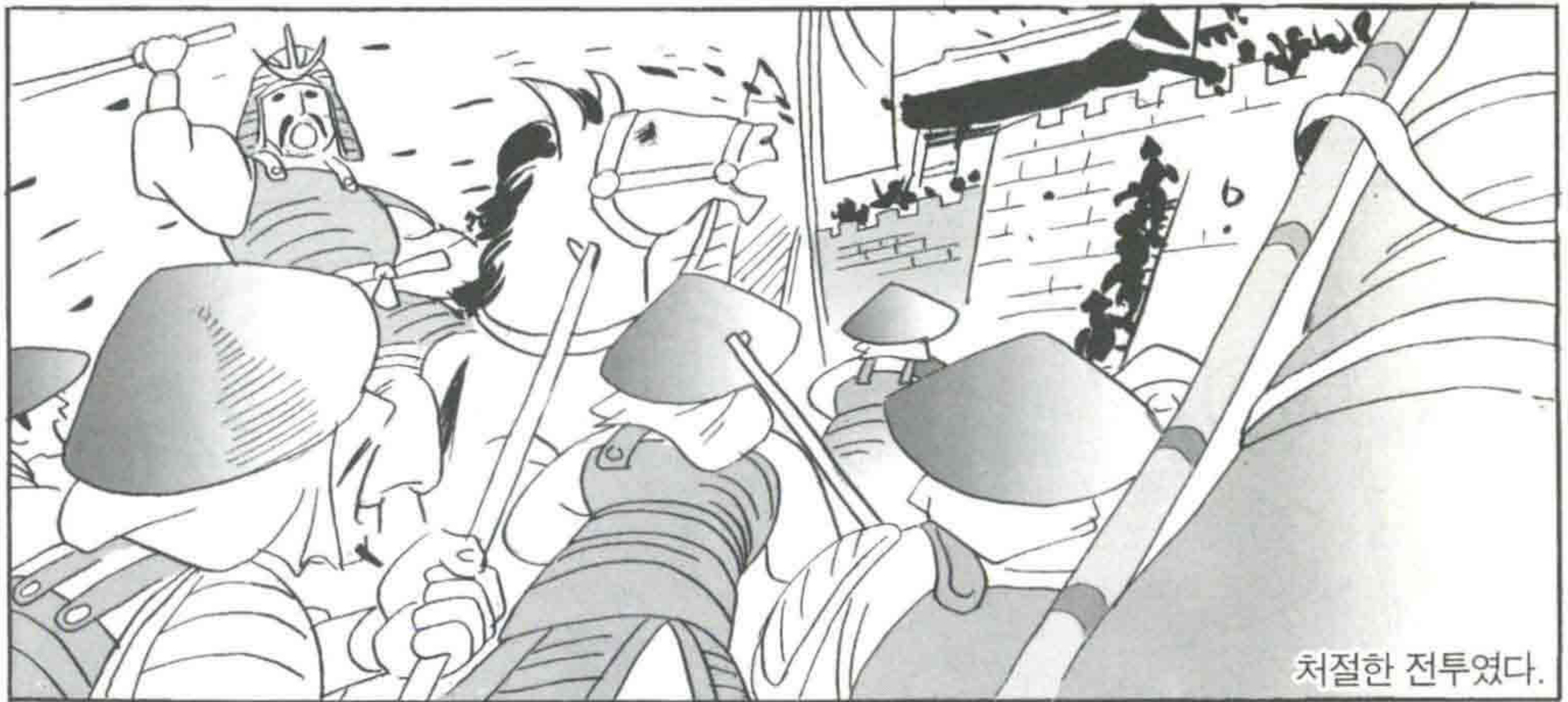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었다.



처절한 전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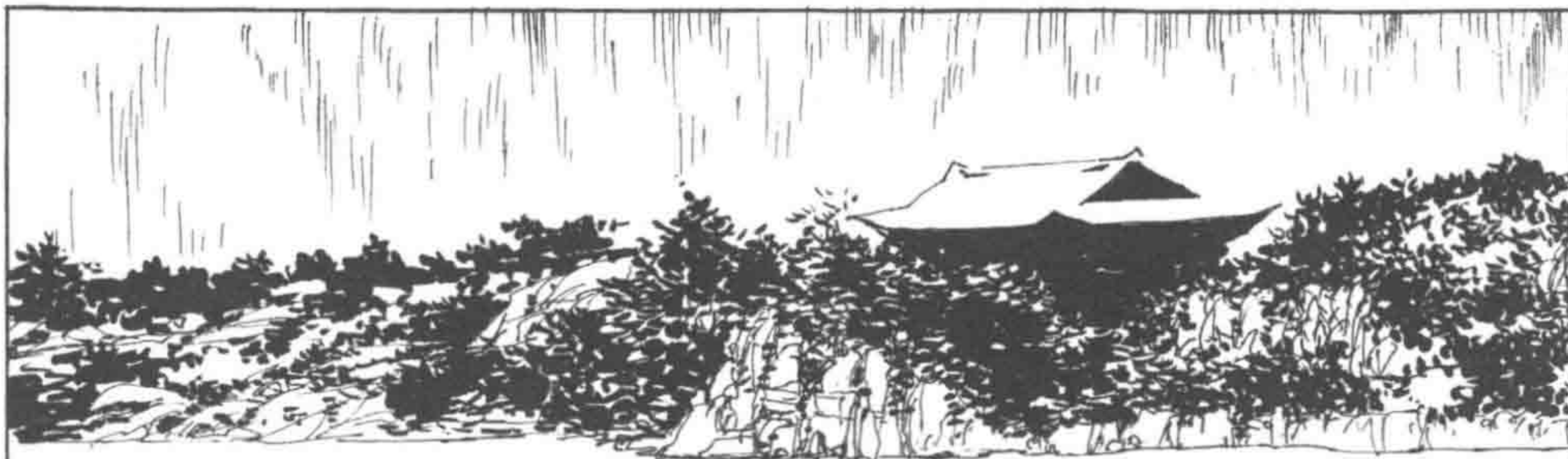


전투에 속달된 왜군들 10만 대군과
오직 나라를 구하겠다고 일어난 의기의 의병 3천



때는 6월이라 장마도 시작되었다.

작아아아아아



성벽이 무너지면 또다시 쌓고 무너지면 또다시 쌓고

공격하는 자나 지키는 자나
죽기를 다해 싸웠으니



점점 성안의 사망자는
늘어나고 성벽은 허물어질
조짐을 보이더니





드디어 왜군은 성안으로
물밀 듯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다 죽여,
성안에
있는 것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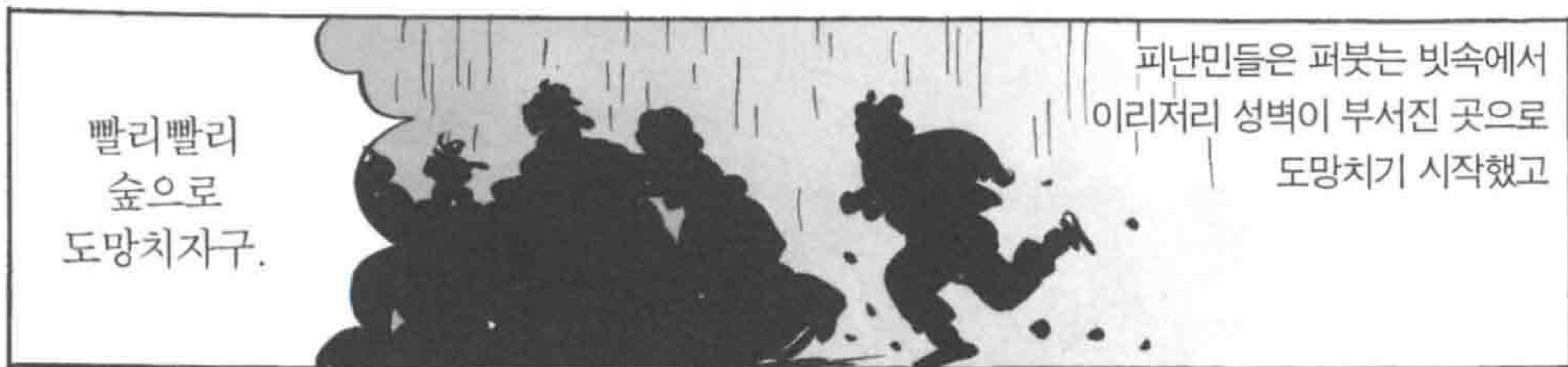


성안은 아비규환으로
변했고 여기저기
대량학살이 시작되었다.

애도
어른도
다 죽이라구.

아악.

악.



빨리빨리
숲으로
도망치자구.

피난민들은 퍼붓는 빗속에서
이리저리 성벽이 부서진 곳으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논개도 이때 왜놈들의 칼을 피해
운 좋게 성밖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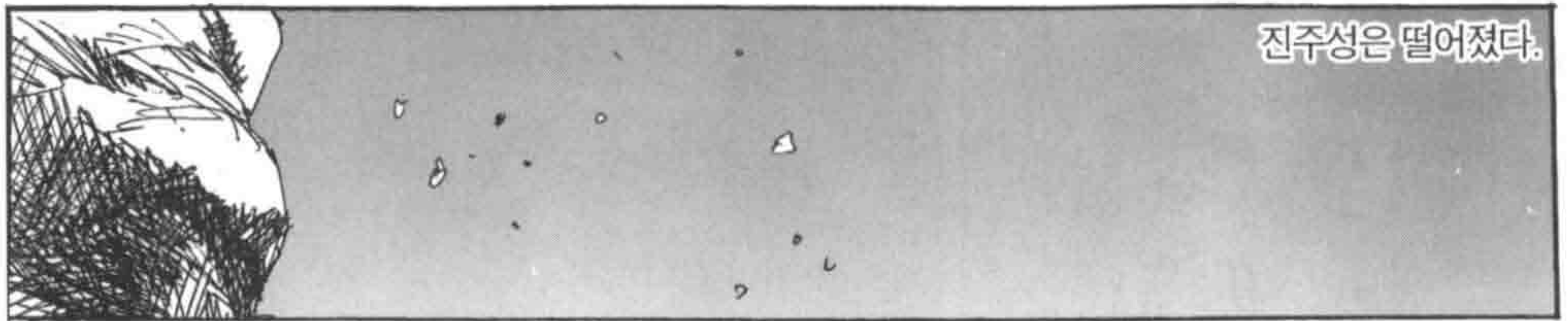
의병과 의병장들도 차례차례
죽음을 맞이했거나



강물이 불어난 남강으로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경희도 역시 남강에 뛰어 들었다.



진주성은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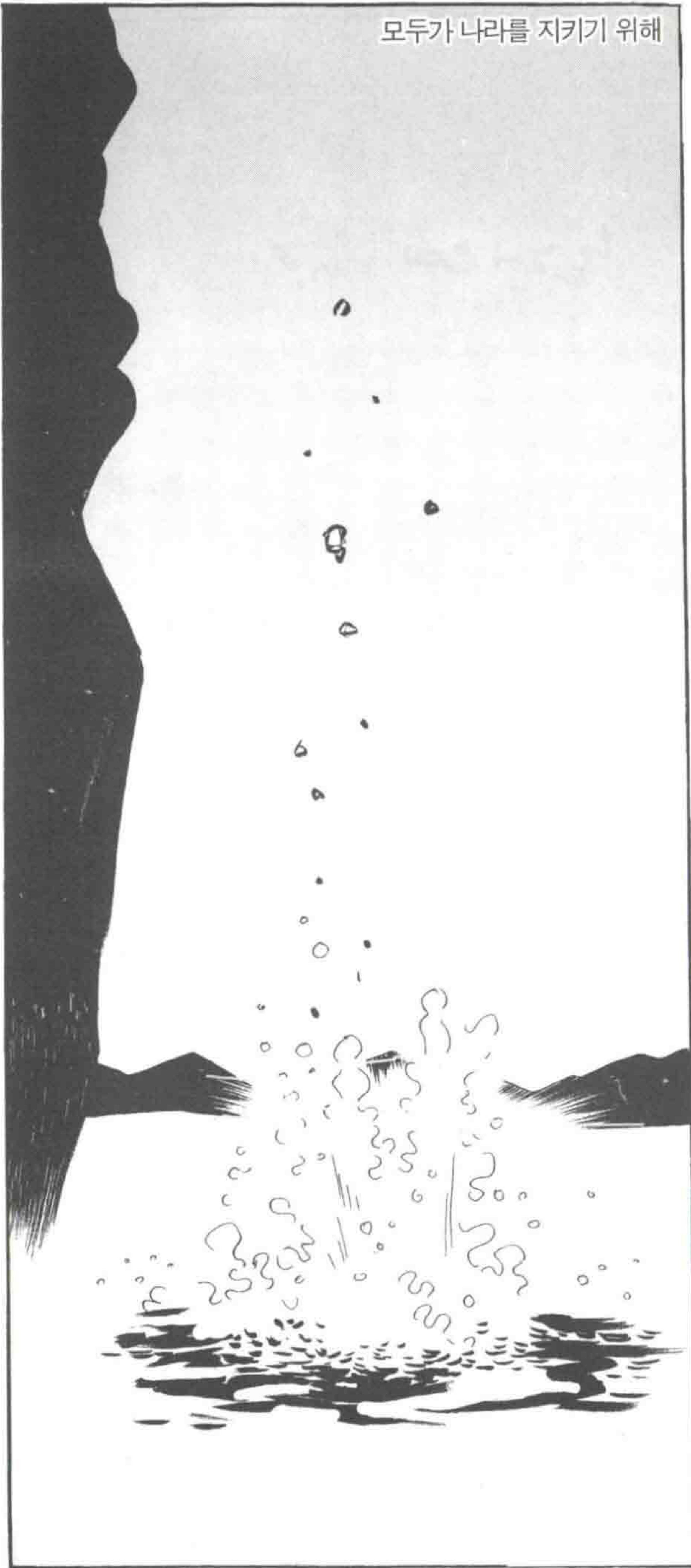


10만여 왜군이
이중삼중으로
포위한 가운데



장렬하게 싸우다 싸우다
진주성은 떨어졌던 것이다.

모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장렬한 최후를 마쳤던 것이다.

제승장

아아...! 논개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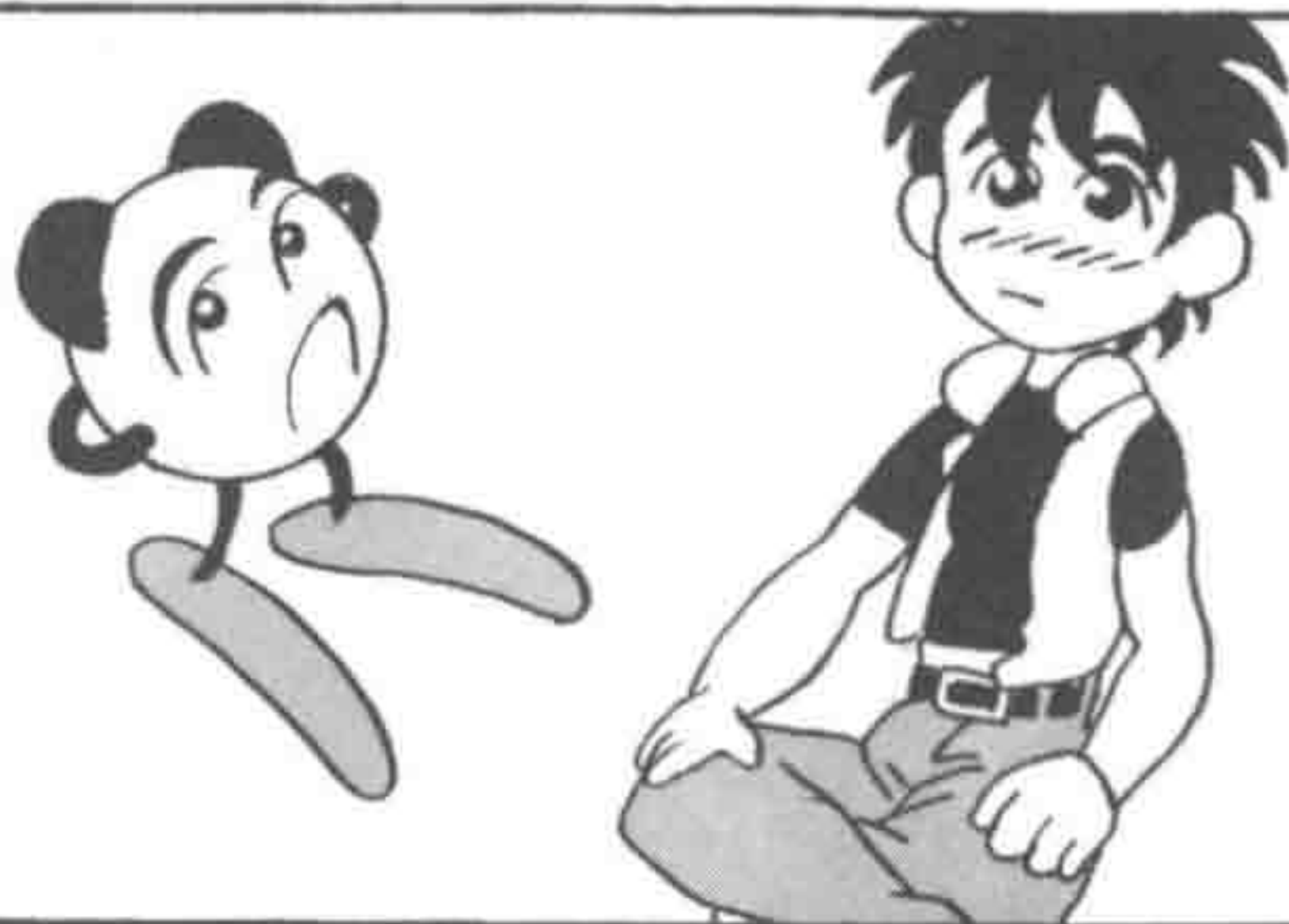
왜군들은 그후 일주일 동안 산청, 구례, 곡성까지 휘젓고 돌아다니다 진주성으로 다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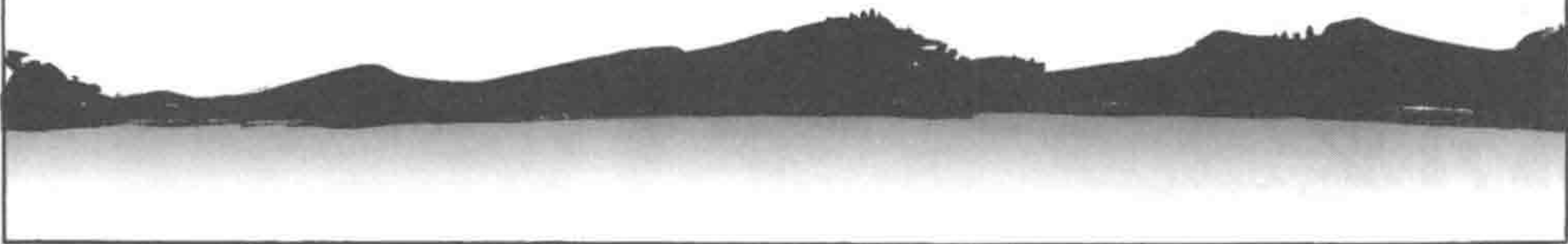
잇따라 격전을 치른 이들이 오래간만에 맛보는 비전투기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그 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풀 겸 또 진주성 함락 축하연도 할 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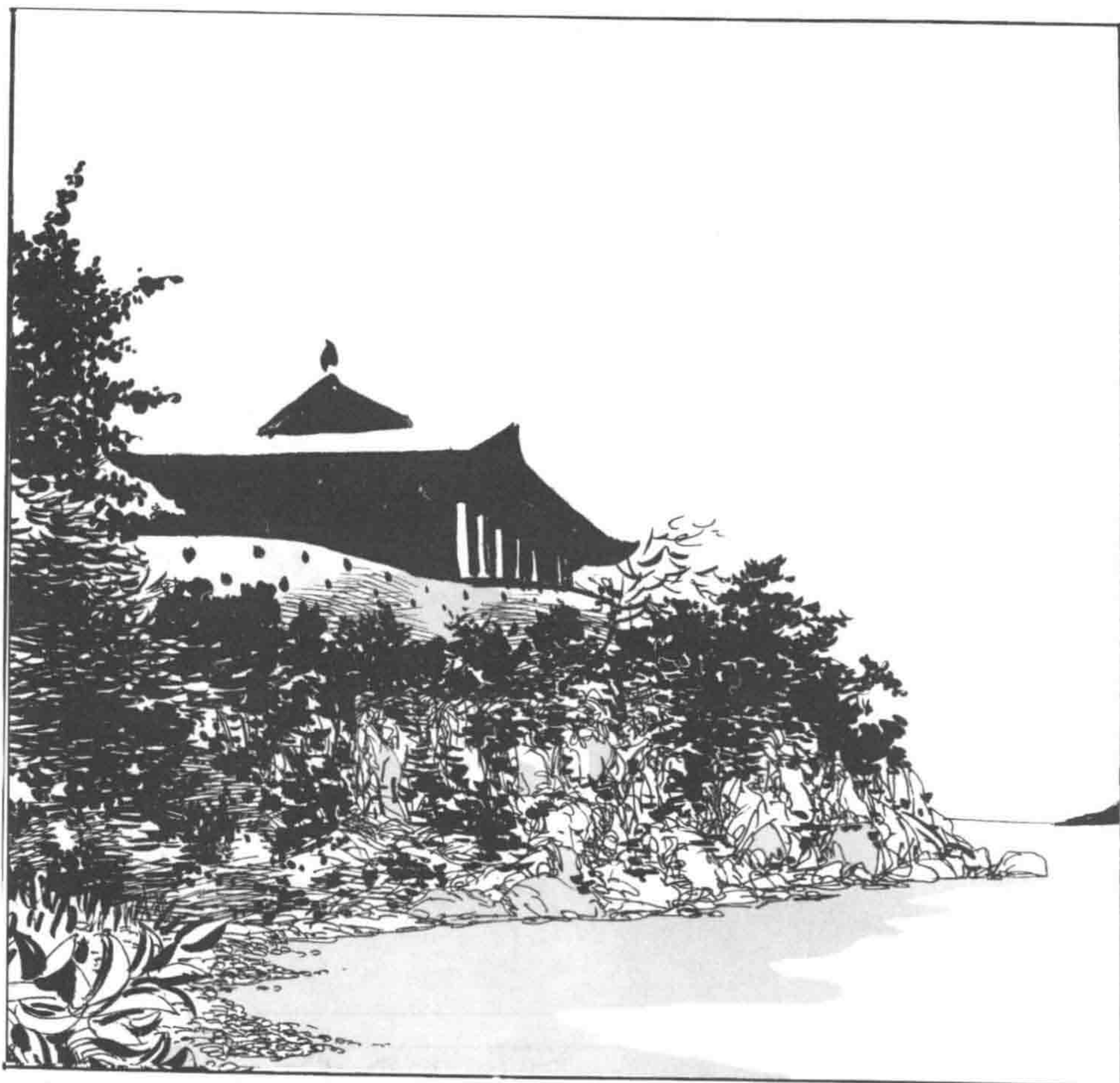


자리를 잡은 곳이 있으니



남강 위의 누각, 때는 칠월 칠석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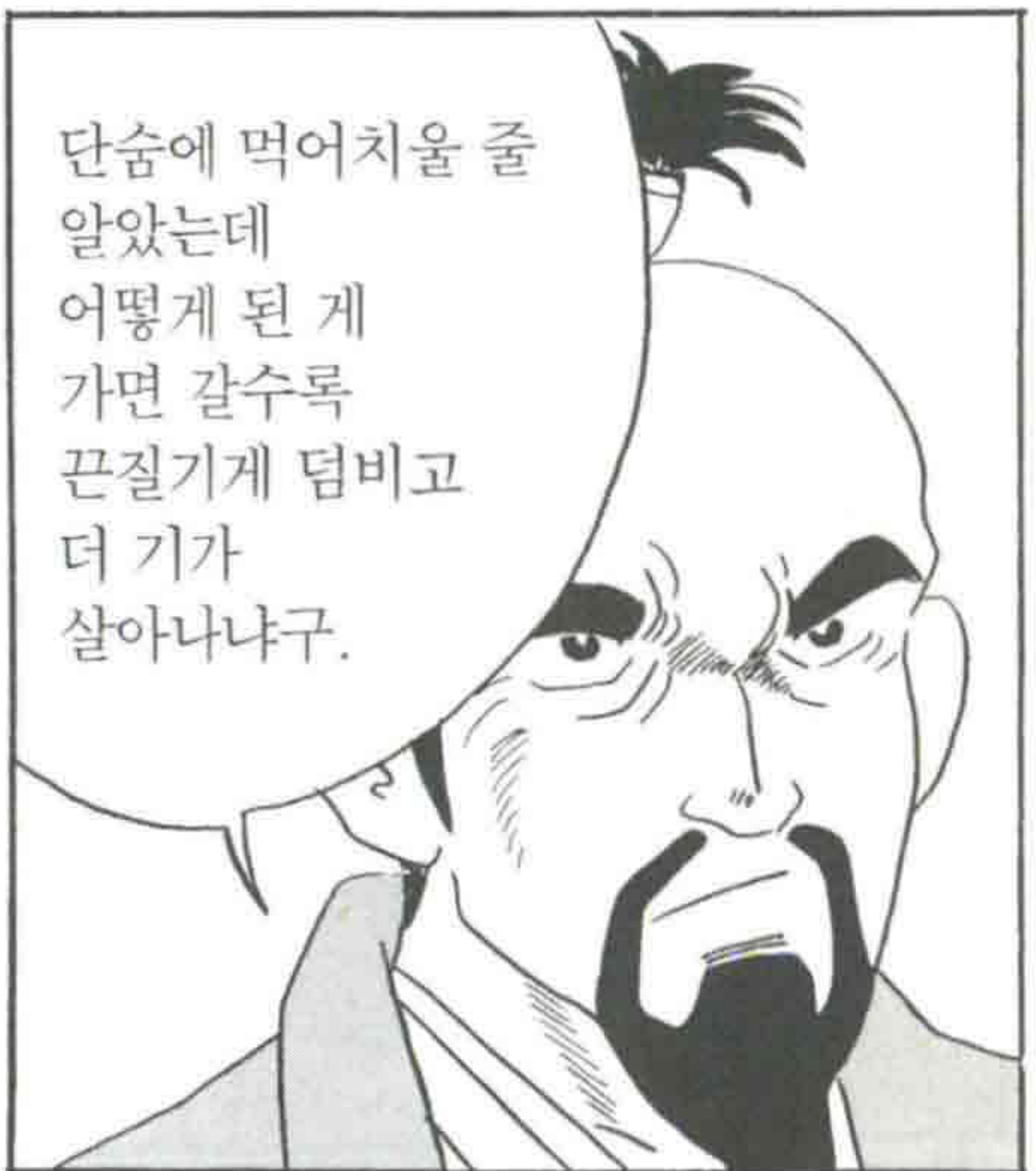


조선것들
정말
독해.

朝鮮人
眞
毒

애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성벽에서
돌을 던지고
소리지르고.

때문에
우리 병사들도
많이 죽었다구.





조선 기생들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이것들을
살려줬더니
뭘 꾸물꾸물대?



저기 옵니다.

와!



그래서 기생들과
일본 지휘관들의 여흥이
무르익게 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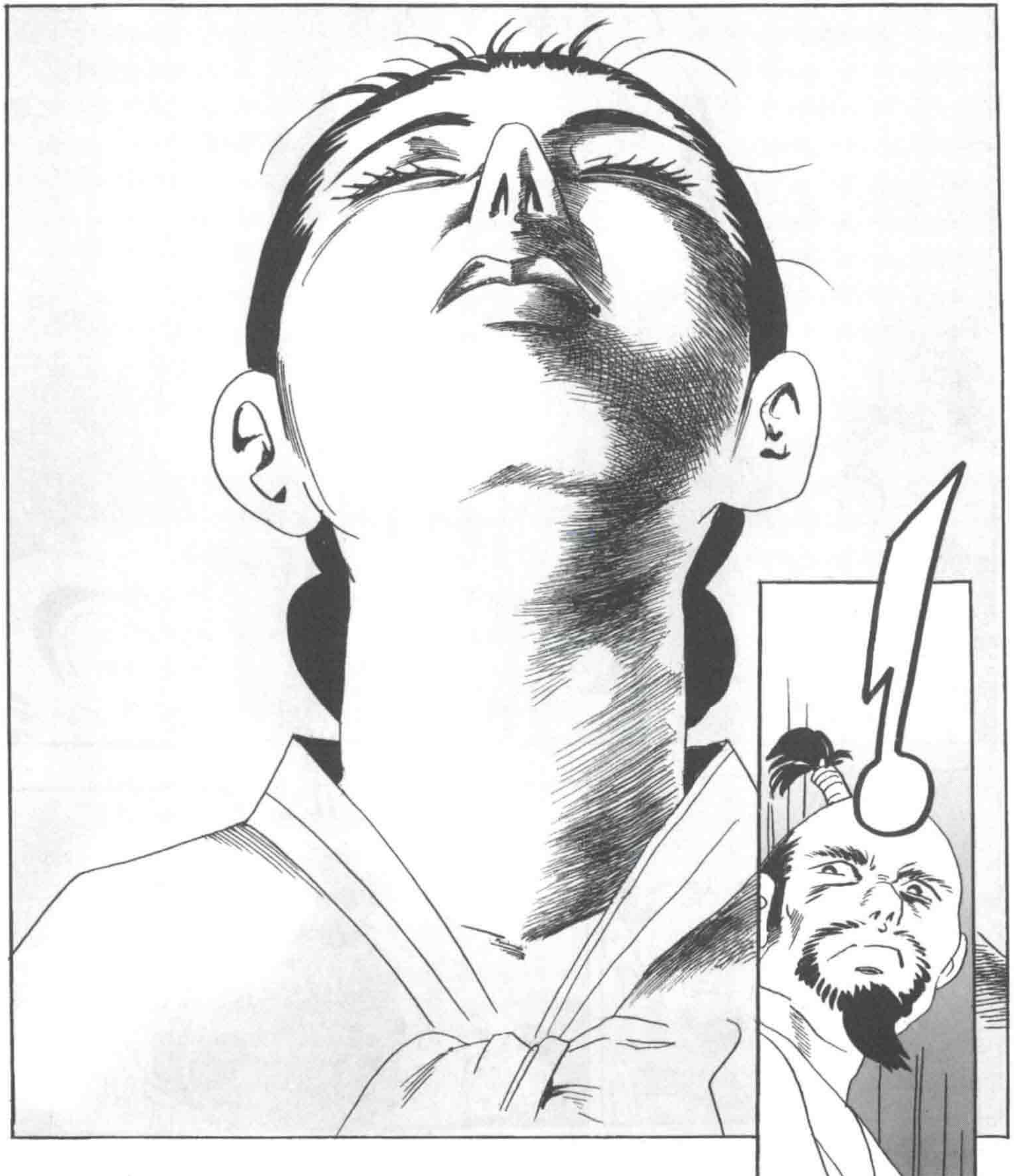
너희들, 오늘
제대로
기분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아...
압니다.









나 게야무라 로쿠스케.

내가
저 조선 기생을
데리고
올라오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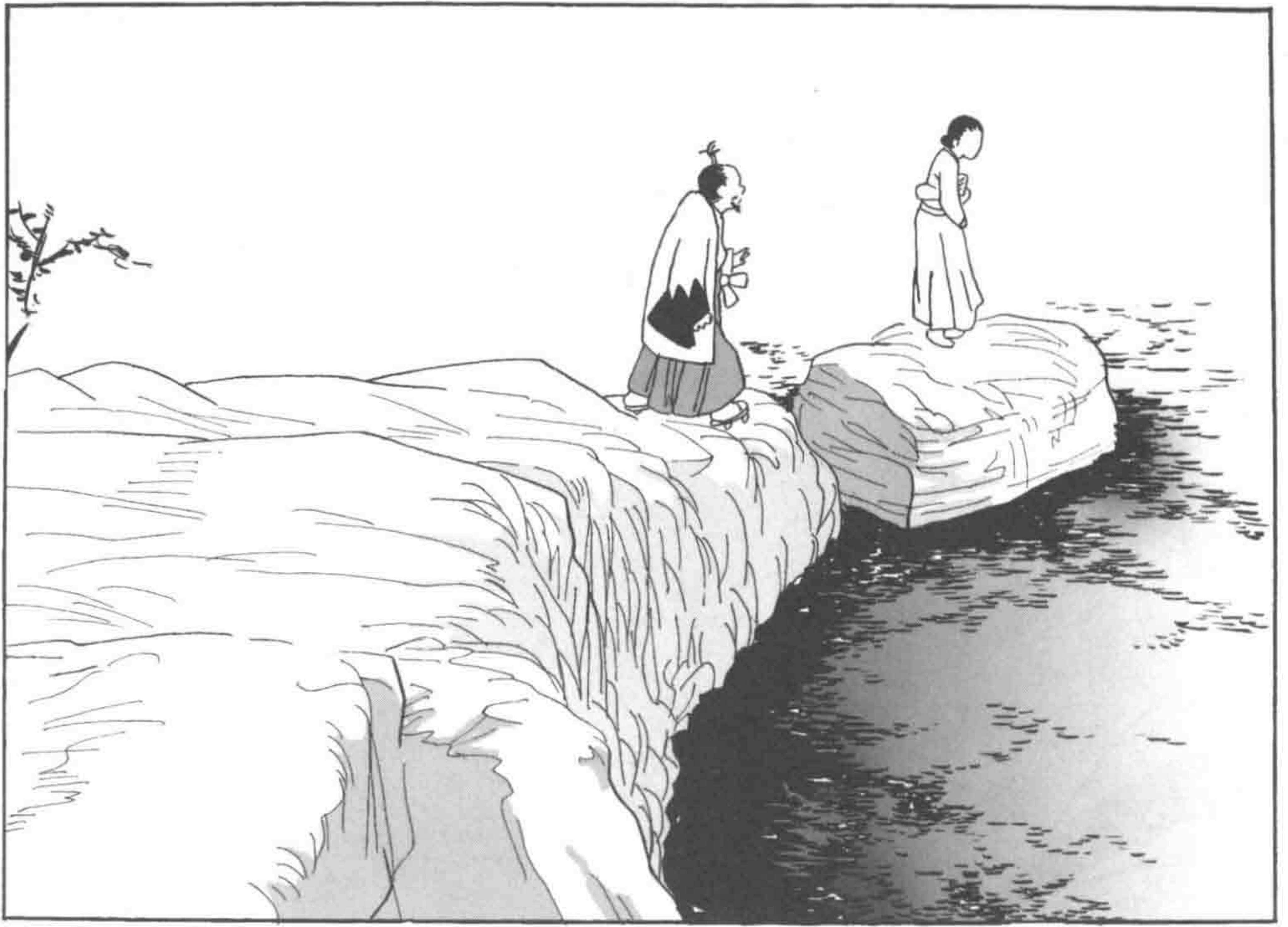


핫핫핫.
역시
게야무라군.



일본
최고의
담력 있는
사나이.

핫핫.





별이 꽃을
찾아오는 법,
먼저 이리 오세요.



허허허,
내가 또
거기까지
가야 하는가?



여기서 저를 한 번
안으실 수 있다면
누각까지 그 다음엔
제 스스로
올라가겠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못할 것도
없지.

파
파



으하하!
이제 되었느냐?



핫핫핫.
게야무라,
꼭 잡았으면
데리고
올라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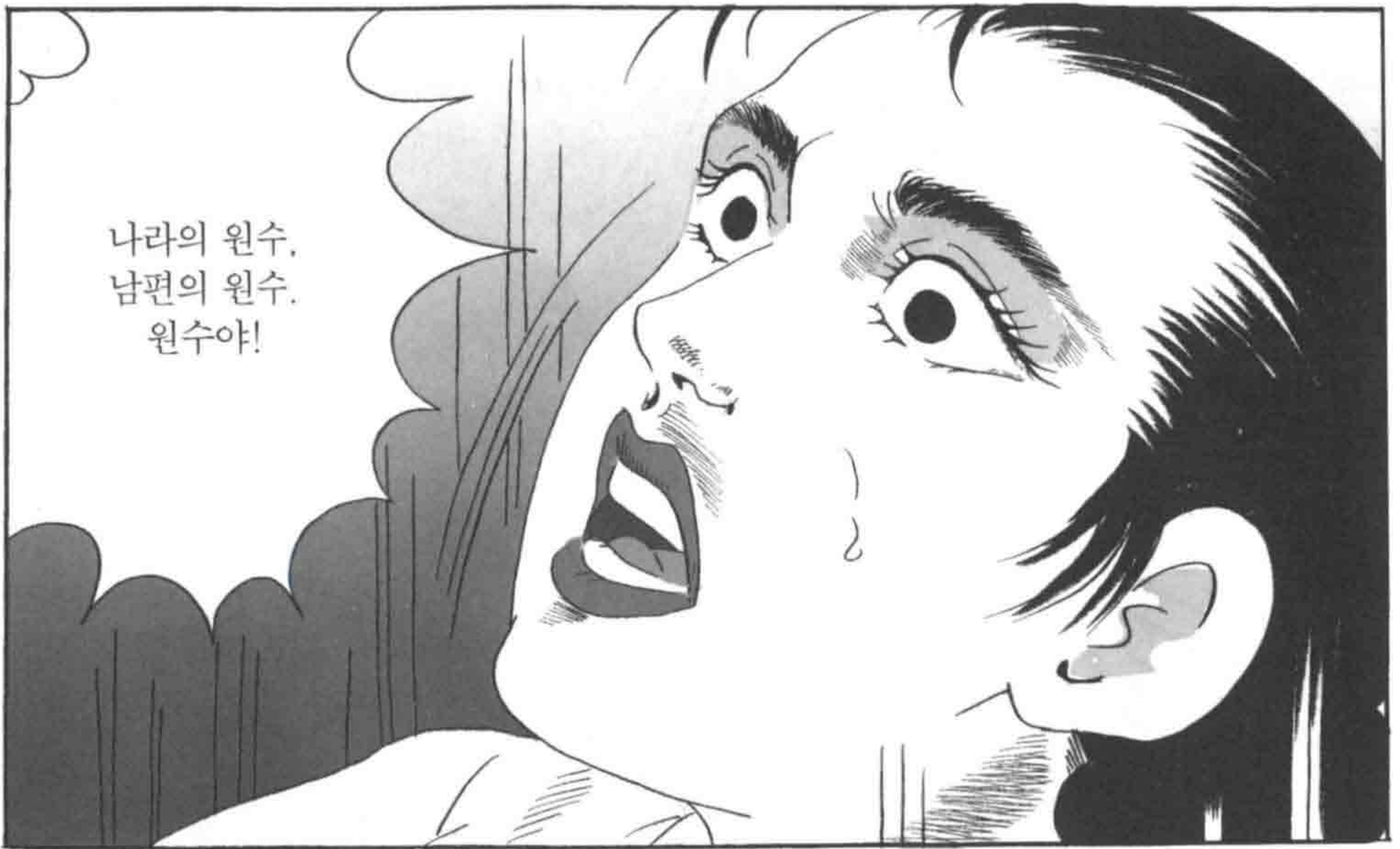
어디
그기생년
얼굴 가까이서
한 번 더 보게.



그러나 게야무라는
영원히 올라오질 못했다.

아아니,
이 기생년이
왜 이래.

원수!



나라의 원수,
남편의 원수.
원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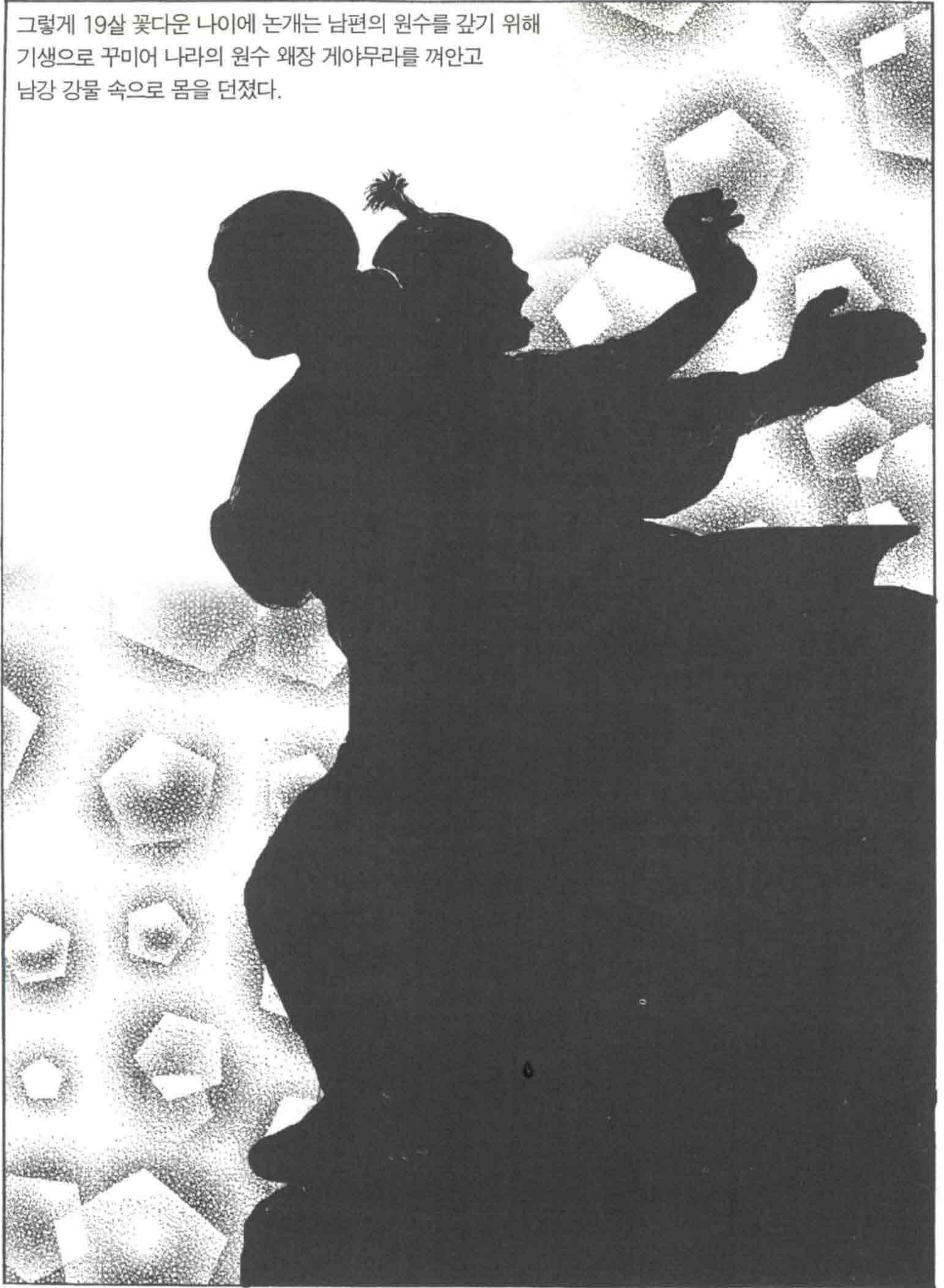


너죽고
나죽고
같이 죽자!

아아악
아아악
아아악

아아
아아악!

그렇게 19살 꽃다운 나이에 논개는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기생으로 꾸미어 나라의 원수 왜장 게야무라를 껴안고
남강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저 저
조선 기생년이
일부러 유인해
빠뜨린 거야.



누구 내려가서
빨리 게야무라를
구해 빨리.

게야무라를
빨리 구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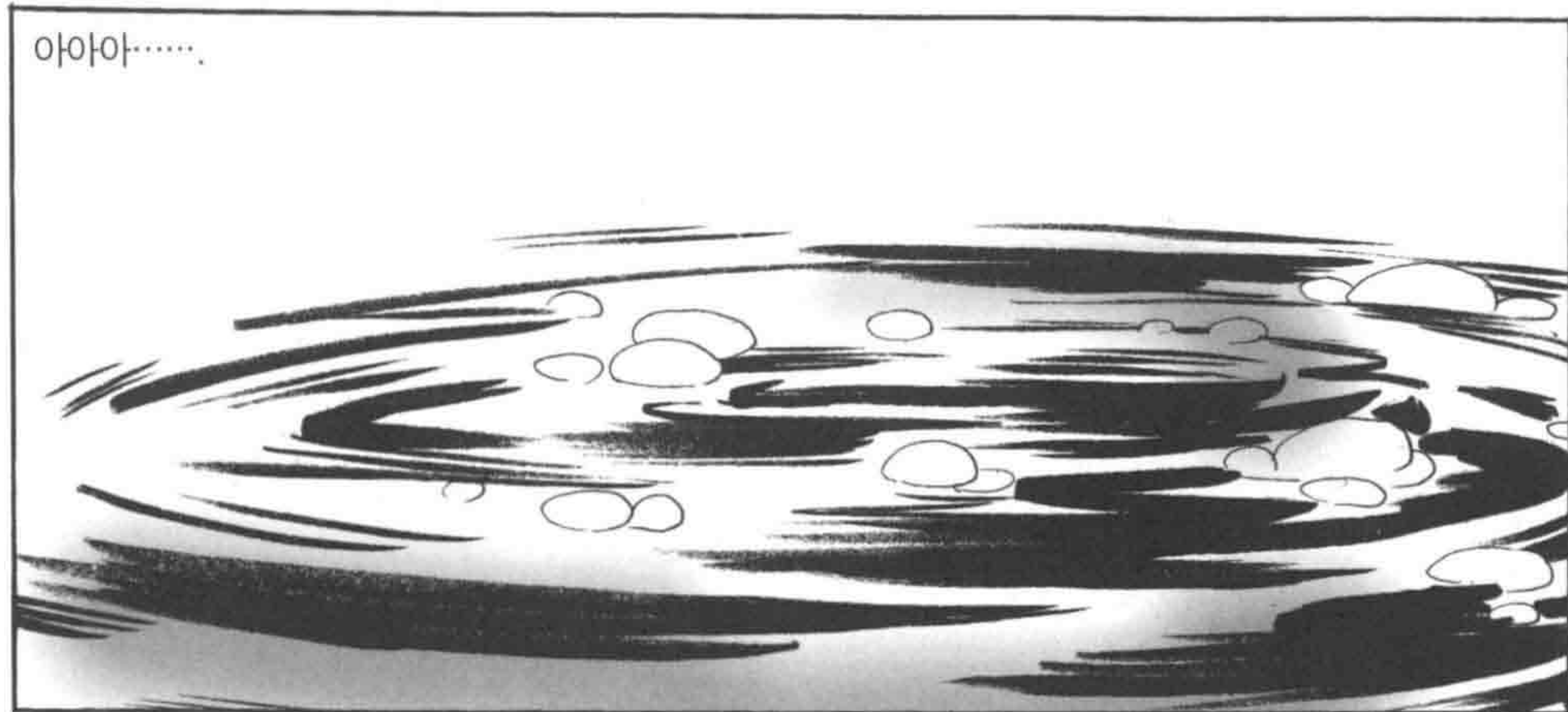


안 돼,
게야무라 로쿠스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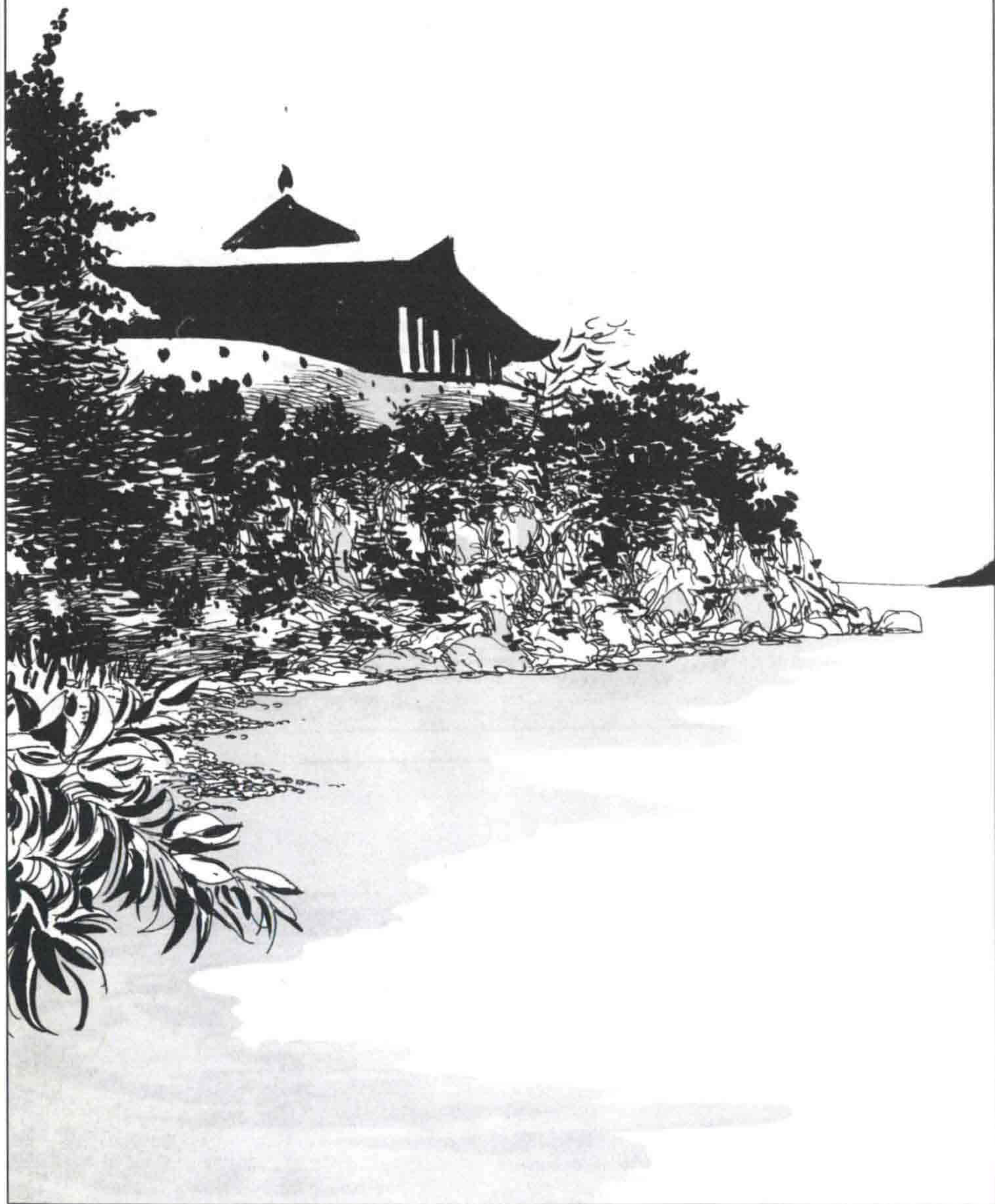
하지만 쌍가락지를 끼고 나온 논개는
게야무라를 놔주지 않았다.



아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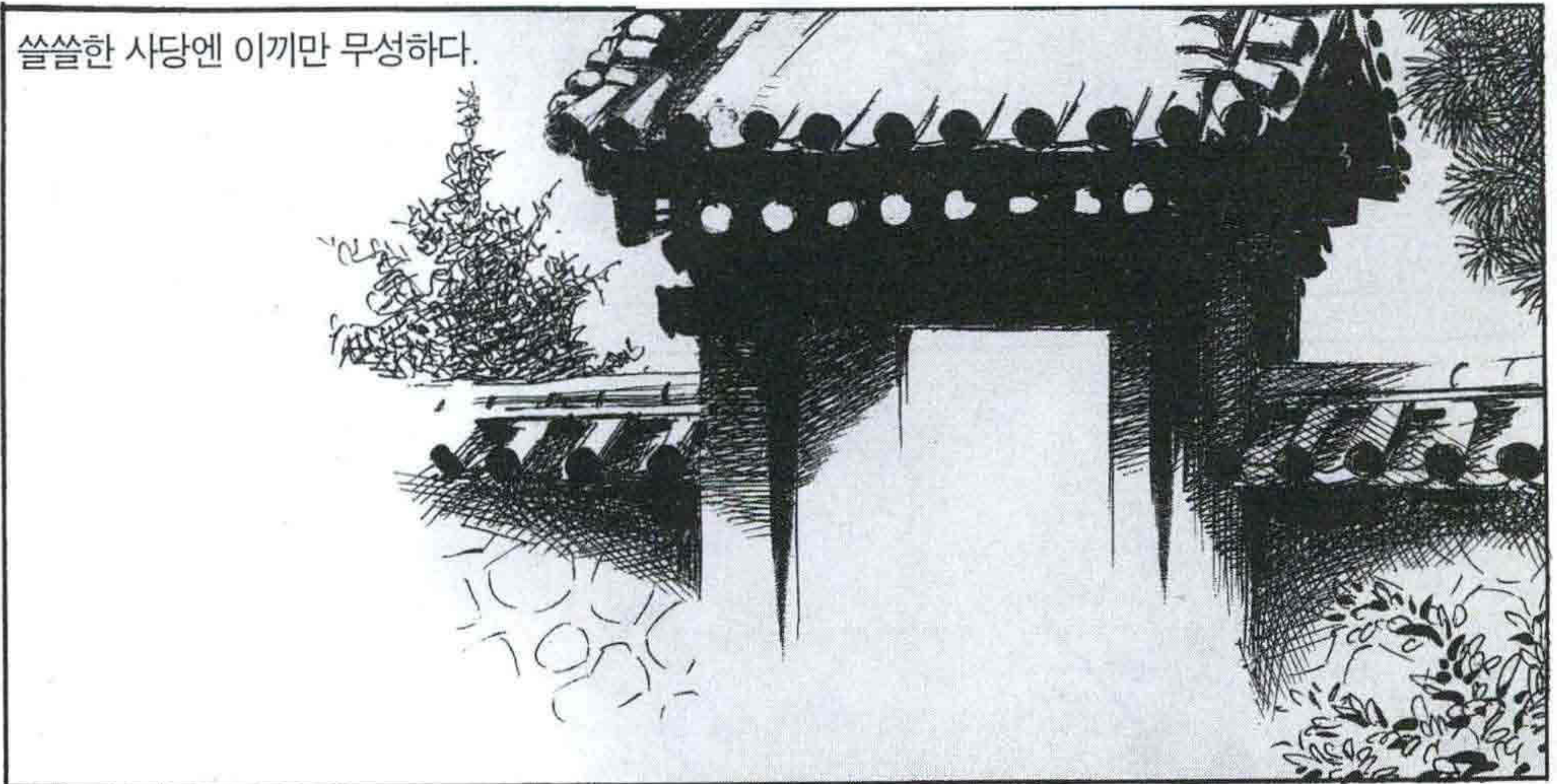
어느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다.
푸른 강물은 빛나는 그날의 치맛빛이런가
강 위에 피는 꽃은 숨쉬는 그녀의 뉘이런가
강 밑에 잠겨 있는 그 뼈나마 거두어
천년 동안 우리들 곁에 모시어 두자.



의로운 바위에는 봄바람 스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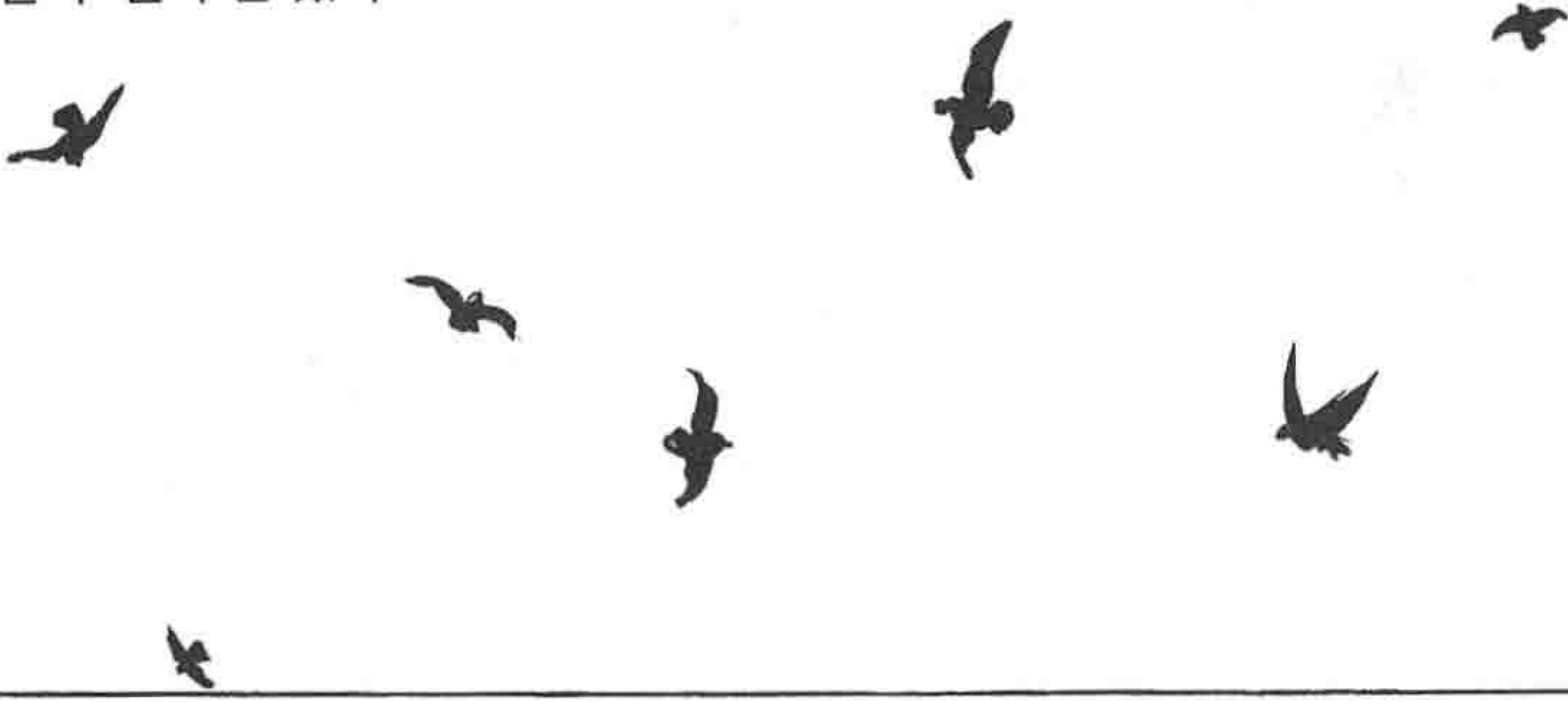
쓸쓸한 사당엔 이끼만 무성하다.



내 이제와 그대의 서린 원한 물어보니
강물만 소리없이 흐르고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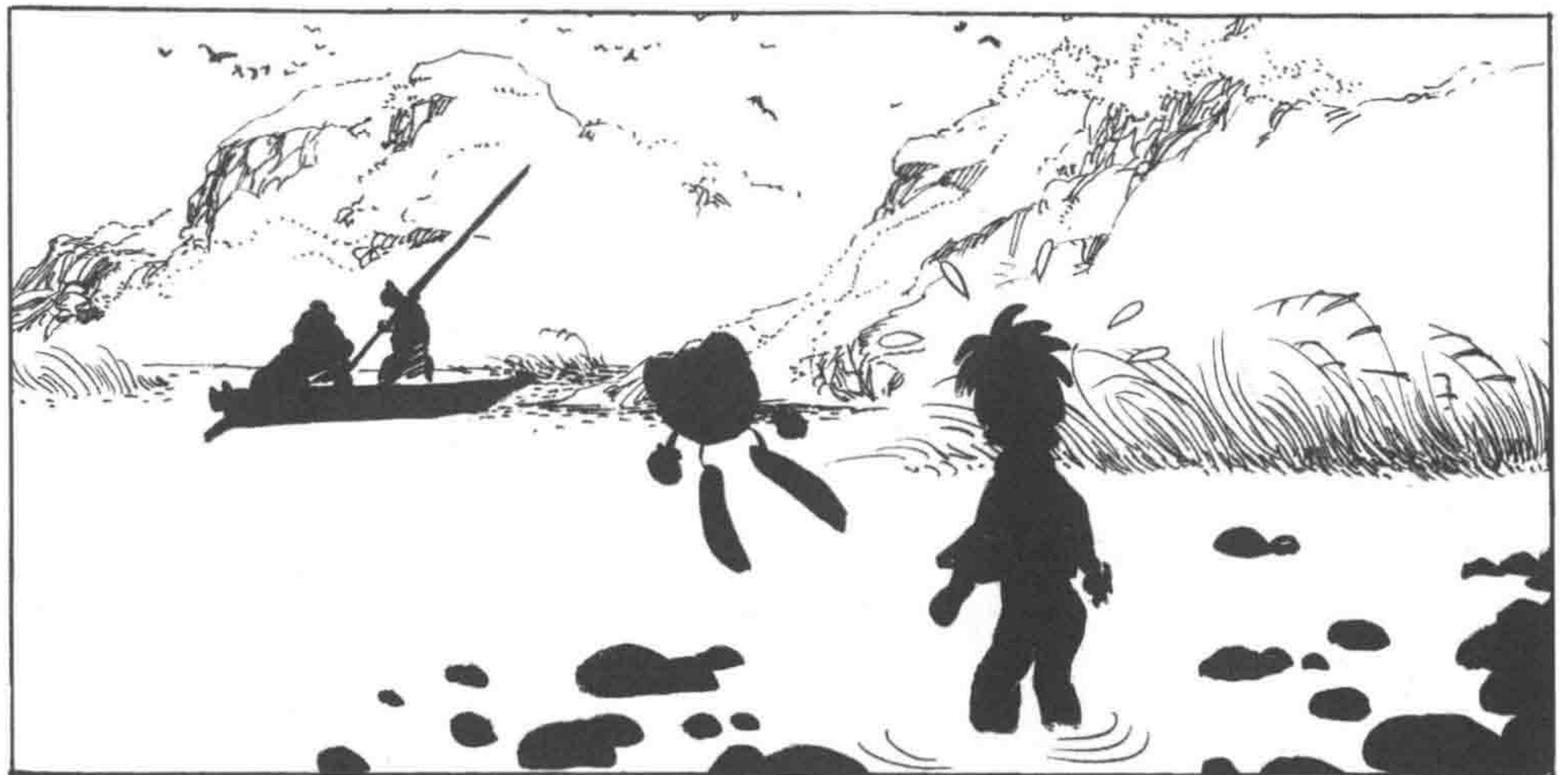
논개가 죽은 후 얼마 안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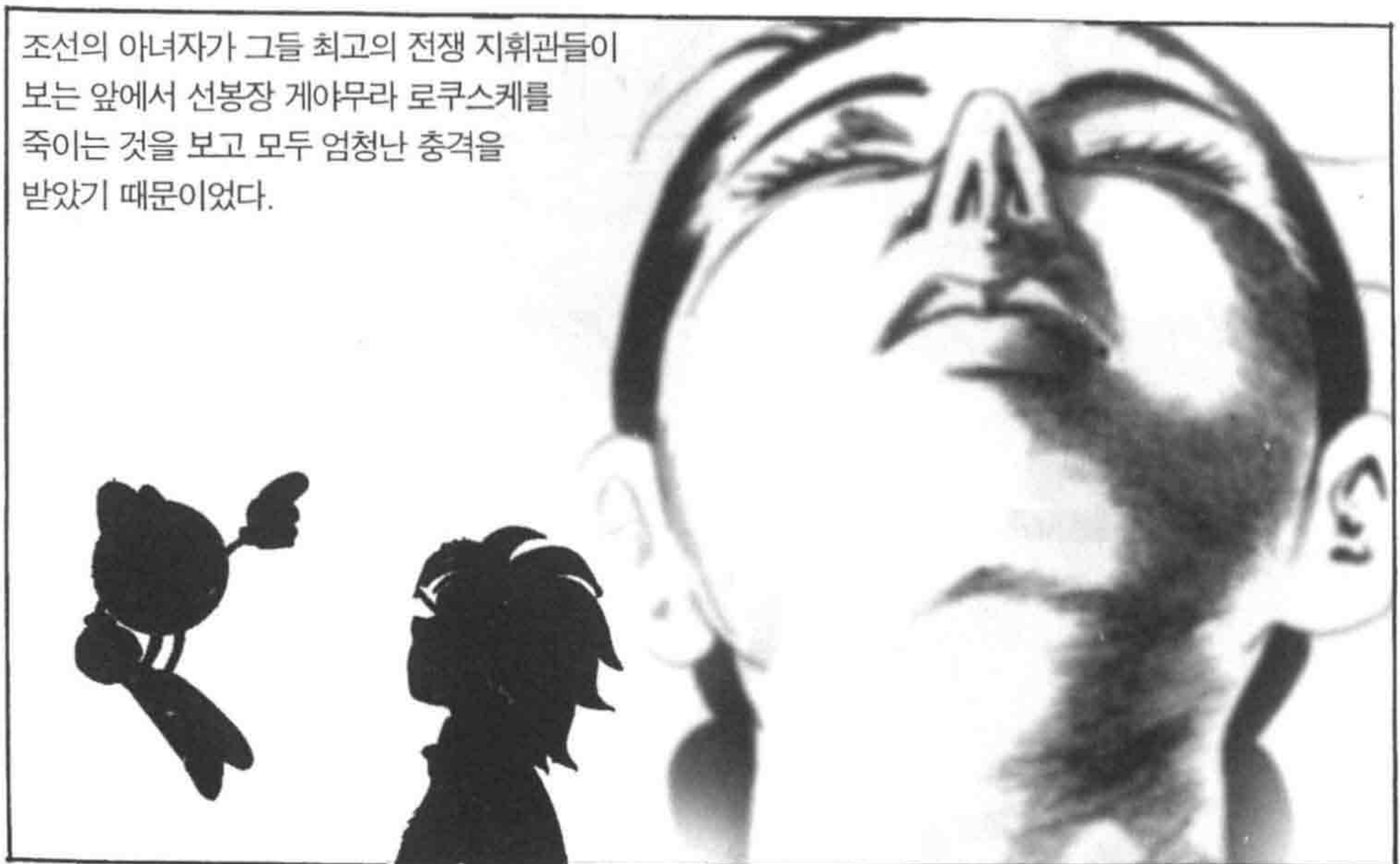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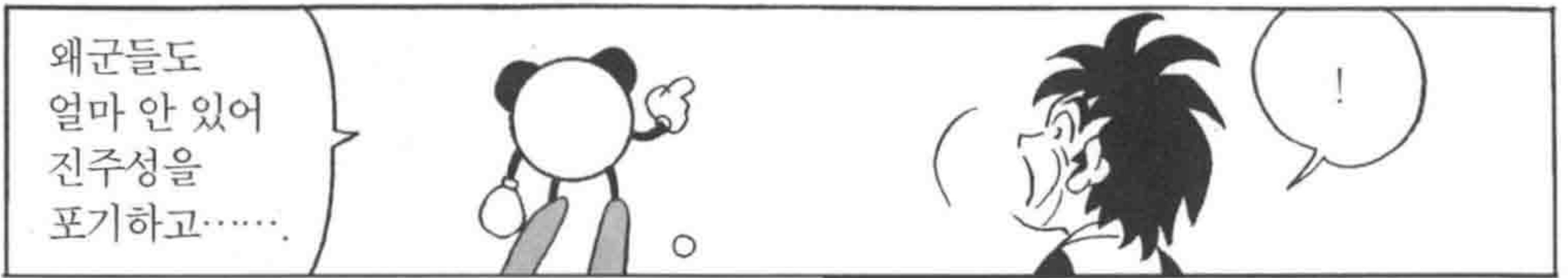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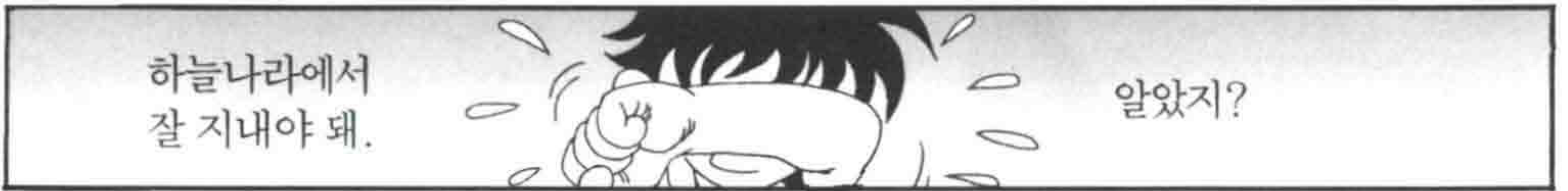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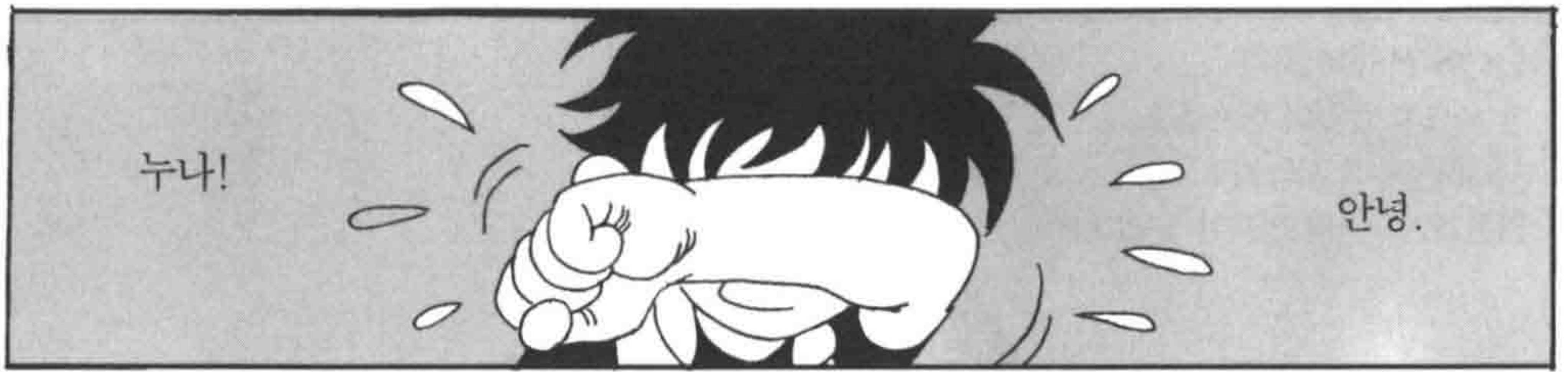
최경희의 살아남은 의병부대원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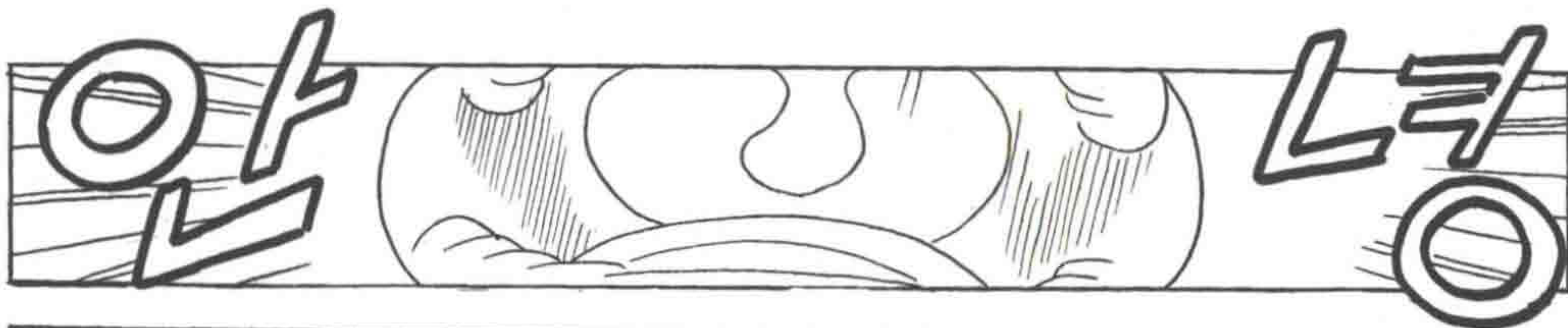


경남 진주시 부근 지수목이라는 곳에서 시체를 건졌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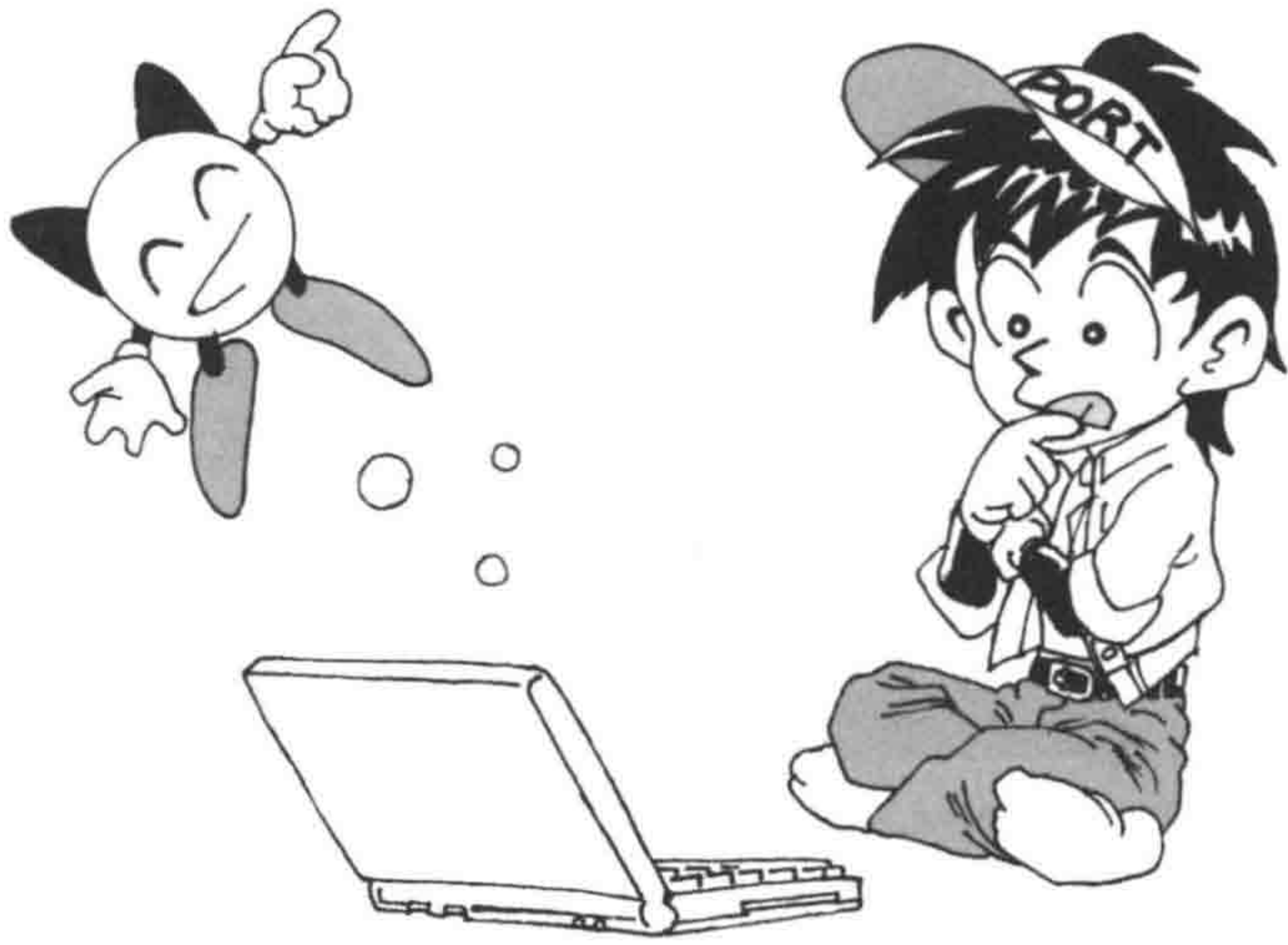


뭐... 뭐야 이 소린?
여보, 무슨일이예요. 봉이 방에서 나는 것 같은데요.



허허참, 잠자면서 우는 놈은 또 침일세.
여보, 얼른 침대에 눕혀요. 애 힘들겠어요.





연보(약력)

- 1574년(1세) 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에서 탄생.
- 1578년(5세) 부친 주달문 사망 후, 모녀는 한 마을에 사는 숙부 주달무 집에 의탁함. 숙부는 어린 조카를 김풍헌 집에 민며느리로 보낸다는 약조를 하고 금품을 받아 달아남.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논개를 데리고 친정으로 피했다가 체포되어 장수 관아에 수감됨.
- 1579년(6세) 이른 봄, 장수현감 최경희의 심리로 재판이 열림.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돌아갈 곳이 없는 모녀는 침방관비를 자청, 김씨 부인의 배려로 내아에서 심부름을 하며 살게 됨.
늦가을, 모녀는 무장현감으로 전직된 최경희를 따라감.
- 1582년(9세) 최경희가 영암군수로 전직되자 따라감.
- 1587년(14세) 최경희가 사도시정으로 갈 때 수행함.
- 1590년(17세) 최경희의 부실이 됨.
최경희가 모친상을 당하여 고향 화순으로 갈 때 논개는 고향 장수로 와서 기다림.
- 1592년(19세) 최경희가 전라우도 의병장으로서 장수로 와 의병을 모집하고 훈련시킬 때, 논개는 의병 훈련 뒷바라지함.
- 1593년(20세) 최경희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영전하여 2차 진주성 전투를 할 때 논개는 성안에서 전투의 뒷수발을 함. 성이 함락되고 최경희가 순국한 뒤, 논개는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毛谷村六助)를 의암으로 유인하여 남강에 투신 순절함.

푸른 강물은 빛나는 그날의 치맛빛이런가
강 위에 피는 꽃은 숨쉬는 그녀의 넋이런가
강 밑에 잠겨 있는 그 뼈나마 거두어
천년 동안 우리들 곁에 모시어 두자.



의암 주논개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첫째 제 몸을 불살라서 주변을 밝히는 인애(仁愛) 정신, 둘째 패권주의에 맞서 끝내 항거한 의용(義勇) 정신, 셋째 사대부도 아닌 아녀자의 몸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지아비를 사랑한 충열(忠烈) 정신은 만인의 귀감이 되는 바, 그 위대한 교훈을 세상에 널리 홍보하여 어린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본받게 하는 것이다.

이번에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에서는 숙고 끝에 만화라는 특수한 형식을 빌려 논개의 생애에 관한 책자를 간행하게 되었다. 물론 만화라는 장르에 익숙지 못한 분은 위인을 소개하는 방식이 경하다고 나무랄 수도 있겠지만 보다 널리, 보다 빨리, 보다 알기 쉽게 의암 주논개의 사적을 알리고자 하는 충정에서 그리 하였음을 양해하기 바랄 뿐이다.

이 책자가 의암 주논개의 올곧게 살다 간 참 인생을 본받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